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3-46-01 (1)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670 (1)

# 중국 중부지역의 주요 산업별 진출 전략

- 山西省, 安徽省, 江西省 편 -

[제 1 권 : 총괄보고서]

이문형 외

2013. 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업연구원



## 머리말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파트너이자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한 지는 이미 오래 된 사실입니다. 2013년에는 한국 또한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2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되었습니다. 한중 상호간 경제적 보완성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 발생 이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던 중국 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한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역시 과거에 비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에 거점이 되었던 동부 연안지역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새로운 대중국 진출 전략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5세대 지도부의 출범과 함께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주도형으로의 발전 방식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 한편, 내수 확대를 위해 중서부 내륙 지역에 대한 발전을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침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새로운 공장 및 시장으로서 중국 중서부 지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서부 지역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아직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업연구원은 중국 중서부 지역의 경제와 시장에 대한 국내의 연구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중국 중서부 지역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2012년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의 일환으로 중국 중부지역 6개 성 중 허난, 후베이, 후난 3개 성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출판하였습니다. 금년도 연구는 2차 연도 사업으로, 중부 6성 중 나머지 지역인 산시성, 안후이성, 장시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의 중부 내수시장 진출 전략 및 정부의 대중국 진출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중부 3개 성의 경제 현황과 소비시장의 특징, 교통 및 물류 현황, 주력 산업 및 주요 기업, 지역별 산업정책과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한국기업 및 외국기업 진출 현황, 진출 애로요인, 진출 유망 품목, 바람직한 정책 방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2개 연도 연구 결과를 종합·정리하는 차원에서 중부 6개 성에 대한 경쟁력을 비교하여 진출 지역 및 업종 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도 제공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1권은 중부지역 주요 산업별 진출 전략에 대한 총괄보고서로,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 이문형 선임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산업연구원과 KOTRA의 연구진이 함께 참여하여 집필하였습니다. 2권은 중부 3개 성의 주요 도시군과 교통 및 물류 체계에 대한 내용으로,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습니다. 집필을 위해 수고해 주신 필자들과 초안을 검토하여 유익한 의견을 주신 원내외 심의위원 여러분을 포함, 본 보고서 작성에 직·간접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2013년 12월  
산업연구원장 김도훈

# “2013년 대중국 종합연구”

##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3-46-01(1)	중국 중부지역의 주요 산업별 진출 전략 -山西省, 安徽省, 江西省 편- [제1권 : 총괄보고서]	산업연구원

## 2.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산업연구원 이문형 선임연구위원

	연구기관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산업연구원	이문형 선임연구위원
		김화섭 연구위원 이원교 연구원 김지원 연구보조
참여 기관	국토연구원	김천규 연구위원 이성수 책임연구원 김 흠 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서종원 부연구위원 노상우 연구원
	KOTRA	박한진 중국사업단장 정영수 정저우 무역관장 김명신 상하이무역관 차장 박영훈 우한무역관 과장 고계화 초청연구원 김준현 초청연구원
	통일연구원	김석진 연구위원
	중국 산둥대학교	양광식 연구위원



## 차례

머리말 .....	3
요약 .....	15
<b>제1장 연구 개요 .....</b>	<b>41</b>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41
제2절 선행 연구 검토와 연구 범위 .....	44
제3절 연구 구성과 추진체계 .....	46
제4절 기대효과 .....	50
<b>제2장 중부 3성의 경제적 위상과 발전정책 .....</b>	<b>52</b>
제1절 중부 3성의 경제적 위상과 산업구조 .....	52
제2절 중부 3성 소비시장의 특성 .....	58
제3절 중부 3성의 12·5계획과 산업정책 .....	63
<b>제3장 대외경제 협력 현황과 한·중 산업협력 .....</b>	<b>71</b>
제1절 중부 3성의 수출입 구조와 무역정책 .....	71
제2절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투자유치 정책 .....	92
제3절 한국과 중부 3성 산업협력 현황 .....	104
<b>제4장 중부 3성의 주요 산업 .....</b>	<b>124</b>
제1절 산시성의 주력 산업과 주요 기업 .....	124
제2절 안후이성의 주력 산업과 주요 기업 .....	143
제3절 장시성의 주력 산업과 주요 기업 .....	160

<b>제5장 한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애로요인</b> .....	<b>206</b>
제1절 한국기업의 진출 현황 .....	206
제2절 현지 진출 시 애로요인 .....	213
<b>제6장 중부 3성 진출 활성화 전략</b> .....	<b>221</b>
제1절 제품별 진출 유망 품목 .....	221
제2절 협력패러다임 구축과 진출강화 방안 .....	232
보론 : 중부 6성의 경쟁력 종합평가 .....	246
참고문헌 .....	263
Abstract .....	268

## 표 차례

〈표 2-1〉 중국 중부 3성 개황(2012년) .....	52
〈표 2-2〉 중국 중부 3성 지역총생산의 중국 전체 대비 비율 추이 .....	53
〈표 2-3〉 중부 3성 및 주요 연해지역의 경제성장률 추이 .....	54
〈표 2-4〉 동부 3성과 중부 3성의 도시인구비율 비교 .....	55
〈표 2-5〉 중부 3성의 산업별 GDP 구성 비율(2012년) .....	55
〈표 2-6〉 중부 3성의 산업구조(GDP의 산업별 구성) 변화 .....	56
〈표 2-7〉 중부 3성 기업법인의 등록 유형별 구성(2012년) .....	57
〈표 2-8〉 산시성 인구구조 및 소비 현황(2012년) .....	58
〈표 2-9〉 산시성 유통산업 현황 .....	59
〈표 2-10〉 안후이성 인구구조 및 소비 현황(2012년) .....	60
〈표 2-11〉 안후이성 유통산업 현황 .....	61
〈표 2-12〉 장시성 인구구조 및 소비 현황(2012년) .....	62
〈표 2-13〉 장시성 유통산업 현황 .....	62
〈표 2-14〉 산시성 12차 5개년 계획 6대 정책기조 .....	63
〈표 2-15〉 안후이성 12차 5개년 계획 6대 정책기조 .....	66
〈표 2-16〉 장시성 12차 5개년 계획 5대 정책기조 .....	68
〈표 2-17〉 장시성의 주요 산업지구 .....	69
〈표 3-1〉 중부 3성의 대외교역 무역수지 추이 .....	74
〈표 3-2〉 산시성 주요 대외무역정책 .....	84
〈표 3-3〉 안후이성 주요 대외무역정책 .....	87
〈표 3-4〉 장시성 주요 대외무역정책 .....	89
〈표 3-5〉 중부 3성의 무역정책 비교 .....	92
〈표 3-6〉 산시성 외국인투자 규모 .....	93
〈표 3-7〉 산시성 업종별 외국인투자(2011년) .....	93
〈표 3-8〉 산시성 국가별 외국인투자(2011년) .....	94
〈표 3-9〉 안후이성 외국인투자 규모 .....	95
〈표 3-10〉 안후이성 업종별 외국인투자(2011년) .....	96
〈표 3-11〉 안후이성 국가별 외국인투자(2011년) .....	96

〈표 3-12〉 장시성 외국인투자 규모 .....	97
〈표 3-13〉 장시성 업종별 외국인투자(2012년) .....	98
〈표 3-14〉 장시성 국가별 외국인투자(2012년) .....	99
〈표 3-15〉 중부 3성 생산요소 비교(2012년) .....	102
〈표 3-16〉 한국의 대중부 3성 투자규모 .....	119
〈표 4-1〉 산시성 공업 생산 증가율(2012년) .....	125
〈표 4-2〉 산시성 주요 광공업 생산량(부가가치)(2011년) .....	126
〈표 4-3〉 산시성 석탄생산량 .....	126
〈표 4-4〉 산시성 석탄산업 주요 기업 생산 제품 및 영업이익 .....	128
〈표 4-5〉 산시성 주요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 생산량 및 순위(2010년) .....	130
〈표 4-6〉 산시성 야금산업 주요 기업 생산 제품 및 영업이익 .....	131
〈표 4-7〉 산시성 야금산업 12·5 기간 주요 목표 .....	133
〈표 4-8〉 산시성 장비제조업 발전 현황(2011년) .....	134
〈표 4-9〉 중국 전체 및 중부 6성의 장비제조업 총 생산액 및 비중 .....	135
〈표 4-10〉 중국 전체 및 중부 6성 장비제조업 기업 수 .....	135
〈표 4-11〉 산시성 업종별 투자 현황 .....	138
〈표 4-12〉 중국 전체 및 산시성 도·소매업 상품 매출액 .....	139
〈표 4-13〉 산시성 도·소매업 기본 현황 .....	139
〈표 4-14〉 산시성 업태별 도·소매 상품 판매액(2011년) .....	139
〈표 4-15〉 일정 금액 이상 도·소매 기업 상품별 판매총액(2011년) .....	141
〈표 4-16〉 산시성 주요 유통시장 현황 .....	142
〈표 4-17〉 안후이성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현황 .....	144
〈표 4-18〉 안후이성 자동차 로컬기업 현황 .....	145
〈표 4-19〉 안후이성 자동차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 현황 .....	146
〈표 4-20〉 안후이성 자동차산업 외국계 기업 현황 .....	147
〈표 4-21〉 안후이성 장비제조업 클러스터 현황 .....	149
〈표 4-22〉 안후이성 장비제조업 로컬기업 현황 .....	150
〈표 4-23〉 안후이성 장비제조업 협회 등 관련 기관 현황 .....	151
〈표 4-24〉 안후이성 장비제조업 외국계 기업 현황 .....	152
〈표 4-25〉 안후이성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현황 .....	153
〈표 4-26〉 안후이성 에너지산업 로컬기업 현황 .....	154

〈표 4-27〉 안후이성 에너지산업 협회 등 관련 기관 현황	155
〈표 4-28〉 안후이성 에너지산업 외국계 기업 현황	156
〈표 4-29〉 안후이성 관광 클러스터 현황	158
〈표 4-30〉 안후이성 관광산업 로컬기업 현황	158
〈표 4-31〉 안후이성 관광산업 협회 등 관련 기관 현황	159
〈표 4-32〉 안후이성 관광산업 외국계 기업 현황	160
〈표 4-33〉 장시성 주요 산업 생산액 비교(2010년 기준)	161
〈표 4-34〉 최근 장시성 비철금속 생산액 추이	162
〈표 4-35〉 중국 지역별 희토 매장량 비교	163
〈표 4-36〉 비철금속기업 영업이익 순위(2012년)	164
〈표 4-37〉 비철금속 주요 로컬기업 현황	165
〈표 4-38〉 희토류 분야 외국인투자 규정	165
〈표 4-39〉 희토류 산업 외국 대표 합작기업	166
〈표 4-40〉 중국 바이오 의약산업 100대 기업	169
〈표 4-41〉 장시성 주요 바이오 의약 기업	174
〈표 4-42〉 포양호(鄱陽湖) 생태경제구 바이오의약산업건설 주요 투자항목	175
〈표 4-43〉 장시성 태양광산업 총 생산액(2008~2015년)	177
〈표 4-44〉 장시성 태양광산업 주요 분야	177
〈표 4-45〉 장시성 태양광 관련 가치사슬의 주요 지역·기업 매트릭스	180
〈표 4-46〉 장시성 태양광산업 관련 주요 기업	181
〈표 4-47〉 장시성 항공산업의 위상(생산액 기준)	184
〈표 4-48〉 홍두그룹의 주요 해외합작 사업	186
〈표 4-49〉 홍두그룹 및 창페이의 특징 비교	187
〈표 4-50〉 장시성 LED산업 대표기업	195
〈표 4-51〉 장시성 내 문화산업의 위치	197
〈표 4-52〉 장시성 방송콘텐츠산업 주요 프로젝트계획(2012~2015년)	199
〈표 4-53〉 장시성의 중국 내 도시화 위치	205
〈표 5-1〉 한국의 산시성에 대한 업종별 투자 현황	207
〈표 5-2〉 산시성 진출 주요 기업	208
〈표 5-3〉 한국의 안후이성에 대한 업종별 투자 현황	209
〈표 5-4〉 안후이성 진출 주요 한국기업	211

〈표 5-5〉 한국의 장시성에 대한 업종별 투자 현황	212
〈표 5-6〉 산시성(타이위안)-항구 간 거리	214
〈표 5-7〉 안후이성(허페이)-항구 간 거리	214
〈표 5-8〉 장시성(난창)-항구 간 거리	214
〈표 5-9〉 중부지역과 베이징·상하이 간 최저임금 증가율 비교	217
〈표 5-10〉 중부 지역과 베이징·상하이 간 임금 비교	217
〈표 6-1〉 중국 중부 3성 주요 소비재 보급률(도시지역 100가구당)	223
〈표 6-2〉 중부 3성 소비재 유망 품목군	227
〈표 6-3〉 중부 3성의 부품·소재, 설비 진출유망품목	228
〈표 6-4〉 중부 3성의 서비스산업 진출유망품목	231
〈표 6-5〉 중부 3성의 12·5계획 중 산업육성정책 비교	239
〈표 6-6〉 중부 3성의 7대 전략형 신흥산업 육성정책 비교	240
〈보론 표 1〉 중부 경제사회경쟁력 종합평가 지표체계	247
〈보론 표 2〉 중국 중부 6성의 주요 경쟁력 비교	249
〈보론 표 3〉 중부 6성 농업 경쟁력 비교	251
〈보론 표 4〉 식량산업 경쟁력 평가지표 가중치 구성	251
〈보론 표 5〉 공업경쟁력 평가지표체계 가중치	253
〈보론 표 6〉 중부 6성의 주요 제조업 경쟁력 순위	254
〈보론 표 7〉 중부 6성 문화산업 경쟁력 비교	260
〈보론 표 8〉 중부 6성 문화산업경쟁력 지표체계와 수치	261

## 그림 차례

〈그림 3-1〉 중부 3성의 수출액 및 중국수출 내 비중 추이 .....	72
〈그림 3-2〉 중부 3성의 수입액 및 중국 전체 수입 내 비중 추이 .....	73
〈그림 3-3〉 산시성의 산업별 수출구조 .....	75
〈그림 3-4〉 안후이성의 산업별 수출구조 .....	76
〈그림 3-5〉 장시성의 산업별 수출구조 .....	77
〈그림 3-6〉 산시성의 산업별 수입구조 .....	78
〈그림 3-7〉 안후이성의 산업별 수입구조 .....	79
〈그림 3-8〉 장시성의 산업별 수입구조 .....	80
〈그림 3-9〉 산시성 무역특화지수 .....	81
〈그림 3-10〉 안후이성 무역특화지수 .....	82
〈그림 3-11〉 장시성 무역특화지수 .....	83
〈그림 3-12〉 산시성의 대한민국 교역 .....	104
〈그림 3-13〉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입 중 산시성 점유 비중 추이 .....	105
〈그림 3-14〉 산시성의 대한민국 산업별 수출구조 .....	107
〈그림 3-15〉 산시성의 대한민국 산업별 수입구조 .....	107
〈그림 3-16〉 산시성 대한민국 무역특화지수 .....	108
〈그림 3-17〉 안후이성의 대한민국 교역 .....	109
〈그림 3-18〉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입 중 안후이성 점유 비중 추이 .....	109
〈그림 3-19〉 안후이성의 대한민국 산업별 수출구조 .....	111
〈그림 3-20〉 안후이성의 대한민국 산업별 수입구조 .....	112
〈그림 3-21〉 안후이성의 대한민국 무역특화지수 .....	113
〈그림 3-22〉 장시성의 대한민국 교역 .....	114
〈그림 3-23〉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입 중 장시성 점유 비중 추이 .....	114
〈그림 3-24〉 장시성의 대한민국 산업별 수출구조 .....	115
〈그림 3-25〉 장시성의 대한민국 산업별 수입구조 .....	116
〈그림 3-26〉 장시성의 대한민국 무역특화지수 .....	117
〈그림 3-27〉 한국의 대중부 3성 투자규모 추이 .....	118
〈그림 3-28〉 한국의 대산시성 산업별 투자구조 .....	120

〈그림 3-29〉 한국의 대안후이성 산업별 투자구조 .....	121
〈그림 3-30〉 한국의 대장시성 산업별 투자구조 .....	122
〈그림 4-1〉 장시 항공 제조업의 발전가능성 설명도 .....	189
〈그림 5-1〉 중부지역 근로자 평균 임금(연봉) 추이(2006~2011년) .....	216
〈그림 5-2〉 중국 대졸자 취업 도시 분포도(2011년) .....	218
〈그림 6-1〉 중국과 중부 3성 성숙시장 제품의 소비재 증가율 비교 .....	224
〈그림 6-2〉 중국과 중부 3성 초기시장 제품의 소비재 증가율 비교 .....	225
〈그림 6-3〉 중부 3성 내 한류의 영향 .....	227
〈보론 그림 1〉 중부 6성의 주요 부문별 경쟁력 비교 .....	249
〈보론 그림 2〉 중부 6성별 농업경쟁력 비교 .....	252
〈보론 그림 3〉 각 성별 산업별 비교우위 분포도 .....	258
〈보론 그림 4〉 각 성별 문화산업 경쟁력 비교우위 분포도 .....	262

---

# 요약

## I. 연구 개요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배경)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국에서 중국 중서부 진출이 핵심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 역시 한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패턴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성장전략을 기존의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에서 내수주도형 발전전략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내수 소비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는 내수 확대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중서부 내륙지역을 새로운 성장 동력 지역으로 선정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지역별 진출 전략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중국 동부 연안지역 중심에서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진출 지역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진출해야 할 지역이 중국 중부지역이다. 중부지역은 동부와 서부의 중간 지대에 위치한 곳으로 북쪽에서부터 산시(山西)성, 허난(河南)성, 안후이(安徽)성, 후베이(湖北)성, 후난(湖南)성, 장시(江西)성의 6개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2012년에 진행했던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에 대한 주요 산업별 진출전략 연구의 후속 사업으로, 2013년에는 나머지 3개 성인 산시성, 안후이성, 장시성에 대

한 주요 산업별 진출 전략을 연구한다.

**(연구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보고서는 중국정부의 성장전략 변화에 따른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중국 중부 내수시장 진출 시 효율적인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되었다. 중국 중부지역이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을 연계하는 핵심 거점 지역으로서, 동부지역을 대신하는 새로운 생산기지로서,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한 소비시장으로서의 매력을 한껏 갖고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외국기업들이 당장 진출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국제화와 개방도가 낮고, 시장보다는 정부의 입김이 강하며, 지방정부의 행정효율성도 낮다. 따라서 현지의 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할 핵심 교두보를 선정하고, 협력 유망 산업과 제품을 도출하기 위한 선택적, 전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장과 제품, 기업 차원에서의 미시적 정책제안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를 추진하였다.

## 제2절 선행 연구 검토와 연구 범위

**(선행 연구 검토)** 중국 중부지역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KIEP는 중국 권역별·성별 연구단이 만들어지면서 2010년에 『중국의 미래 내수시장 형성 전략과 시사점: 중부지역의 4대 도시군 형성전략을 중심으로』 등을 발간하였다. KOTRA 역시 2010년을 전후로 중국 중부지역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2012년 중부 6성 중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에 대한 주요 산업별 진출 전략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성과 연구 범위)** 본 연구는 2차 연도 계속 사업으로 연구의 차별성 및 범위가 제1차 연도 사업과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중국 중부시장 정보에 대한 업종과 깊이의 다양성을 감안해 중국 중부지역에 대한 거시적 정보에서부터 미시적 정보까지 가급적 다양한 연구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거시적 정보로는 경제발전 수준과 교통, 인프라, 핵심 도시군들의 발전 현황, 각 성의 거시경제와 산업에 대한 정책과 12차 5개년 계획 등을 포함하고, 미시적 정보로는 산업과 시장은 물론 기업과 제품 차원까지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가 매우 넓을 수밖에 없으며, 이 점

이 선행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 제3절 연구 구성과 추진체계

(연구 구성과 추진체계) 본 연구 과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과제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본 연구 보고서는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은 총괄 보고서로 한국의 중국 중부 3성에 대한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한국과 중부 3성의 비전 공유를 통한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과 정책 제언들을 도출하였다. 중부 3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이들 지역의 산업과 소비 특징, 정부의 제12차 5개년 계획, 대외협력 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제1권은 산업연구원과 KOTRA가 집필을 담당하였다.

제2권은 중부 3성의 핵심 도시권과 교통인프라,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집필하였다. 국토연구원은 “중국 중부지구 3개 도시군의 발전전망과 시사점”을 주제로 도시군 발전 현황과 도시계획, 경쟁력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중국 중부 3성 교통물류산업 발전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중부 3성의 최대 애로요인 중의 하나인 교통인프라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으로부터 효과적인 접근 전략을 제시하였다.

중부 3성의 현지 현황을 이해하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의 주요 집필진들이 중국 현지의 KOTRA의 도움을 받아 타이위안, 허페이, 난창에서 중국 전문가들과 함께 ‘한중 정책협의회’를 세 차례 개최하였다.

### 제4절 기대효과

(기대효과) 본 연구는 한국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 중서부지역의 진출전략 수립에 이미 활용되고 있다. 중부지역의 경제 현황과 소비시장의 특징, 중부 3성 성정부의 제12차 5개년 계획과 산업발전계획, 산업·기업·시장 차원에서 분석한 중요한 연구 결과들은 중부 3성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중부지역 성정부 간의 상호상생의 협력 패러다임 구축과 비전 공유는 향후 양자 간 협력에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정부 차원의 제도적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제시한 한중 FTA 체결 시 중부 내륙지역 진출 방안 고려, 한국전용공단과 공동 물류체제 설립, 공동연구개발체제 구축과 지적재산권 보호, 시장·산업 정보의 주기적 제공과 신용조사기구 설립 등은 정부의 대중국 정책 수립 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주요 도시군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물류, 교통 환경에 대한 연구도 중부 3성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의 중부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전반적으로 제고시켜 우리 기업들의 전략적 거점이나 생산 공장, 물류 거점 입지를 선정할 때 참고자료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 내용

### 제2장 중부 3성의 경제적 위상과 발전정책

#### 제1절 중부 3성의 경제적 위상과 산업구조

(중부 3성의 경제적 위상) 산시, 안후이, 장시 3성은 같은 중부지역인 허난, 후베이, 후난에 비해 비교적 인구 및 경제규모가 작고 소득수준도 낮은 낙후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중부굴기(中部崛起)’ 전략에 따라 최근 경제성장률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기업에 있어 새로운 신흥시장이다. 2012년 현재 산시, 안후이, 장시 3성은 중국 전체 인구의 10%, 전체 면적의 5%, 전체 GDP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부 6성 지역총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중부 3성의 산업구조) 중부 3성은 타 지역에 비해 도시화율이 낮고 제3차 산업이 낙후되어 있다. 2차 산업은 광업, 철강, 기계, 화학 등 전통적 중화학공업이나 자금용의

식품, 방직 등 전통적 경공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부 3성은 내륙지역인 만큼 외자 기업의 진출이 부진하고 대외무역 비중이 낮으며 내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부 3성 정부가 중앙정부의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정책에 편승해 자동차와 IT, 신에너지,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하려 하고 있다. 향후 본격적인 중부굴기 전략의 추진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점차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제2절 중부 3성 소비시장의 특성

**(산시성 소비시장)** 산시성의 1인당 GDP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소비지출은 안후이성, 장시성과 비슷하다. 산시성은 저축률 및 투자율이 높고 소비율은 낮아서 소비시장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내수 중심, 소비 주도 경제성장 패턴이 정착될 경우 산시성의 소비시장은 급속히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산시성의 유통산업은 최근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 유통기업의 대형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산시성 유통업의 특징 중 하나는 소매업에 비해 도매업의 상품판매액이 대단히 크다는 점이다.

**(안후이성 소비시장)** 낮은 도시화율, 사회보장제도 미비 등이 안후이성의 소비확대를 제한하고 있다. 안후이성 소비시장 규모는 작지만, 소비재 매출 증가세는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요식, 가전, 자동차 매출액이 빠른 증가세를 보여 안후이성 소비구조가 단순한 생계형 소비에서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후이성의 도·소매 유통산업도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해외 유명 유통기업과 대형 로컬 소매상이 진출하면서 체인경영, 물류배송, 전자상거래 등 현대 유통채널이 부상하고 있다.

**(장시성 소비시장)** 장시성은 1인당 소득수준이 중국 평균보다 낮고 도시화 수준도 낮으며 부양인구 비율은 높은 편이어서 소비시장 규모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최근 경제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소비시장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의류, 교통·통신 등의 소비 지출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주요 소비재 중에서는 휴대폰, 에어컨, 컬러TV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장시성은 산시성이나 안후이성에 비해 대형 유통

통기업의 발전이 낙후되어 있다.

### 제3절 중부 3성의 12·5계획과 산업정책

(산시성의 12·5계획과 산업정책) 산시성은 12·5계획 기간 중 연평균 13% 경제성장을 목표로 경제의 안정성장과 구조조정, 사회보장 및 주민생활 개선, 양형사회(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 건설, 기초 인프라 건설 등을 주요 정책기조로 설정하였다. 전통 제조업에서는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광업 및 금속 산업에서는 생산량을 규제하는 것이 정책 핵심과제이다. 향후 산시성은 생산설비의 현대화와 노후설비 구조조정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통산업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성 차원의 전략적 신흥산업으로는 석탄화학산업, 기계산업, 신소재산업, 식품산업, 물류산업, 관광업, 부동산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의 전략적 신흥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안후이성의 12·5계획과 산업정책) 안후이성은 2015년 전략적 신흥산업의 생산액 목표치를 1조 위안으로 설정하고 전략적 신흥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안후이성의 전략적 신흥산업에는 전자정보,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산업, 신에너지,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공공안전산업 등 8대 산업이 포함되었다. 기존 전통제조업은 상위산업과 전통산업으로 구분해 자동차, 기계, 가전, 식품 등 상위산업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섬유, 금속, 화공 등 전통산업은 에너지 절감, 기술력 향상에 주력을 둘 방침이다. 서비스업에서는 현대물류체계 설립, 관광업 육성이 중점 정책과제로 선정되었다.

(장시성의 12·5계획과 산업정책) 장시성은 12·5계획 기간 중 과학발전, 위상제고, 녹색굴기(綠色崛起) 등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 안정성장과 구조조정, 개혁개방, 사회보장 및 주민생활 개선,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 등 5대 정책기조를 설정하였다. 장시성은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분업 연계를 확보할 예정이다. 전통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선진기술과 현대적 관리 시스템 도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지적재산권 보장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연구개발센터 확충, 지적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략적 신흥산업의 주요 육성 대상으로는 태양광, 유기 실리콘, 신에너지 자동차, 항공산업, 바이오산업, 전자정보산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산업에서는 관광산업, 생산성 서비스산업, 중소형 마트 및 체인점, 요식업 등을 우선적으로 육성시킬 계획이다.

### 제3장 대외경제 협력 현황과 한·중 산업협력

#### 제1절 중부 3성의 수출입 구조와 무역정책

(중부 3성의 수출입 추이 및 구조 분석) 중부 3성의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장시성과 안후이성은 2005년 이후 지속적 상승세를 보인 반면, 석탄과 자원의 해외 수출이 주류를 이루는 산시성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주요 자원 가격이 하락하면서 회복을 거듭하고 있다. 2012년 안후이성과 장시성은 각각 206억 달러와 200억 달러를 수출해 중국 전체 수출의 1%를 각각 차지하였고, 산시성은 85억 달러를 수출해 중국 전체 수출 비중이 0.4%에 불과하였다. 내륙에 위치한 중부 3성은 해외로부터 직접 수입하기 보다는 동부 연안의 대형 수입상이나 유통상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수출액보다는 수입액이 더 작아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2년 수입액 크기 순서는 안후이성(124억 달러), 장시성(102억 달러), 산시성(82억 달러) 순이다.

산시성의 산업별 수출구조를 살펴보면, 제1차 금속이 전체의 30%를 차지해 1위를 기록하였으며, 2위는 석유화학(21.7%), 3위는 비금속광물(17.9%)로 상위 3개 산업이 전체의 69.6%를 차지하여 자원성 제품의 수출 집중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동부기업들이 내륙으로 진출하면서 산시성의 수출구조가 자원 가공형에서 조립 가공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안후이성의 산업별 수출구조는 비교적 균형적 양태를 보이고 있으며, 섬유가죽, 수송장비, 석유화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장시성의 수출구조는 섬유가죽, 전기전자, 석유화학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전기전자의 수출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산시성의 수입구조 역시 수출과 마찬가지로 비금속광물, 제1차 금속, 일반기계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상위 3개 산업이 전체 수입의 79.4%를 차지한다. 안후이성의 수입구조 역시 비금속광물, 일반기계, 석유화학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비금속광물의 수입비중이 전체의 46.8%를 차지한다. 장시성 역시 비금속광물이 전체 수입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1차 금속과 전기전자의 수입비중이 높은 편이다.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살펴본 중부 3성의 경쟁력을 보면, 산시성은 섬유가죽, 석유화학, 음식료품에서, 안후이성은 섬유가죽, 수송장비, 음식료품에서, 장시성은 섬유가죽, 음식료품, 수송장비, 전기전자, 석유화학에서 수출특화를 보이고 있다. 수입특화산업에 있어서는 산시성과 안후이성이 정밀기기, 비금속광물, 일반기계에서, 장시성은 정밀기기, 비금속광물, 일반기계, 제1차 금속에서 비교적 높은 수치의 수입특화지수를 보이고 있다.

**(중부 3성의 대외무역정책)** 산시성의 대외무역정책은 대외개방 수준 제고를 위해 국내외 기업 유치 활동 강화, 신흥시장 개척, 각종 산업단지 발전을 통한 연해지역 산업이전을 추진하고 아울러 새로운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대외무역의 규모를 확대한다는 데에 정책 중점을 두고 있다. 12·5계획 기간 동안 수출입 총액 연 13% 성장, 성 전체 수출에서 기계·전자 업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40% 이상으로 제고, 첨단 기술 제품의 수출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LED 조명, 태양광 발전 등 에너지 절감, 친환경 관련 설비 및 제품 등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려 한다.

안후이성은 2015년 수출입액 목표치를 430억 달러로 설정하고, 자동차, 부품, 가전, 선박, IT, 기계 등 제품의 수출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LCD 모니터, LED 등 첨단 기술 제품의 수출액을 2015년까지 60억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 2015년까지는 국가급 유명브랜드 5개, 성급 유명브랜드 150개를 육성하고, 안후이성 전체 수출에서 토종 브랜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28%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장시성은 12·5계획 기간 동안 무역액을 연평균 20%씩 증가시켜 2015년 무역액 목표치로 530억 달러를 제시하였다. 특히 2015년 전기기계 업종의 수출액이 145억 달러로 장시성 전체 수출의 45%에 달하고, 첨단 기술 제품의 수출액은 100억 달러로 전체 수출

의 30%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며, 2015년 장시성의 대외무역 의존도가 18%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또한 대외무역 환경 개선을 위해 상무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100인 서비스 단체(百人服務團)”를 조직하고 주요 수출 기업 및 수출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제2절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투자유치 정책

(중부 3성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 및 구조) 중부 3성의 외국인 투자금액은 아직은 미미한 편이다. 2012년 말 기준, 산시성에 등록된 외자기업 수는 3,623개, 투자 총액은 32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부지역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투자액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업종별로는 광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도 최근 높아지고 있다. 국가별로는 홍콩(8억 2,499만 달러, 전체의 39.8%), 버진아일랜드(2억 4,249만 달러, 11.7%) 등 조세회피지역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특수 관계에 있는 대만계 기업들이 조세회피지역을 경유해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3위는 한국으로 7,323만 달러를 투자하여 전체의 3.5%를 차지하였다. 한국계 기업들은 석탄 개발과 함께 화력발전소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 안후이성에 등록된 외자기업 수는 4,466개, 투자 총액은 4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역시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안후이성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액이 전체의 64.9%를 차지하여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도 24.7%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홍콩이 전체의 56.4%를 차지하고 있고, 버진아일랜드(4억 4,603만 달러), 일본(4억 2,334만 달러) 등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1년 한국 통계 기준으로 한국의 안후이성에 대한 투자는 건수 5건, 금액 4,000만 달러에 그쳐 미미한 수준을 나타냈다.

중부 3성 중 장시성에 대한 외국인투자 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다. 2012년 말 누계 기준, 장시성에 등록된 외자기업 수는 7,734개, 투자 총액은 53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 투자액의 66%를 차지해 주력을 형성하고 있으며, 제3차 산업

에 대한 투자액이 전체의 27%를 차지하였다. 장시성 역시 안후이성이나 산시성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편이다. 국가별 투자구조를 살펴보면, 홍콩에 대한 의존도(전체의 82%)가 높으며, 마카오와 일본의 투자 비중도 높은 편이다. 2012년 한국 통계 기준으로 한국의 장시성에 대한 투자는 건수 5건, 금액 3,000만 달러에 그쳐 미미한 수준을 나타냈다.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및 투자 환경 비교) 산시성은 석탄심가공산업, 구리와 철, 알루미늄의 제련가공산업, 화학공업, 기계전자, 하이테크산업, 기존 기업의 기술 업그레이드에 대한 투자 등 분야에 대해 외국인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안후이성은 고급 이음매 없는 강관, 석유 유정관 제조, 연료에틸렌 및 바이오디젤유 생산, 의료설비 및 핵심부품 개발과 생산, 반도체조명재료 관련 제품 및 관련 설비의 개발과 제조, 대형·고압·고순도 공업기체의 생산과 공급, 수상운송, 애니메이션 제작 및 관련 제품 개발 등의 외자유치를 강조하고 있다. 장시성은 첨단 기술의 도자기 연구 개발 및 생산, 태양 에너지 발전설비 및 부품 제조, 애니메이션 창작 및 제조, 리튬 배터리 등 리튬 제품 생산 전용 설비의 연구 개발 및 제조 등의 외자유치를 우대하고 있다.

중부 3성의 인건비는 동부 연안지역은 물론 전국 평균치보다 작다. 토지가격은 중부 3성 간에도 상당한 격차를 보여 투자 목적에 따라 지역 선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전기세 역시 성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공업용은 장시성이 저렴하고, 상업용은 산시성이 저렴하다. 수도세는 자연 여건상 물이 부족한 산시성이 가장 높고, 나머지 두 성은 유사한 수준이다. 중부 3성은 내륙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투자 시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물류비용이다. 최근 중부지역과 동부지역 간 고속철, 고속도로가 속속 개통되면서 물류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진출 시 부가가치사슬구조와 함께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물류비용이다.

### 제3절 한국과 중부 3성 산업협력 현황

(중부 3성의 성별 대한국 교역 추이와 산업별 수출입 구조) 산시성의 대한국 교역 규모는 2000년 504백만 달러에서 2012년 863백만 달러로 지난 12년간 거의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산시성의 대한민국 수출은 645백만 달러, 수입은 218백만 달러로 산시성이 한국에 대해 427백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산시성의 대한민국 수출은 비금속 광물(39.6%), 제1차 금속(36.3%), 석유화학(15.6%) 등 상위 3개 산업이 전체 수출의 91.5%를 차지하면서 매우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입은 전기전자(58.0%), 제1차 금속(30.6%) 등 상위 2개 산업의 점유 비중이 88.6%를 차지하여 역시 매우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시성은 한국에 대해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특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비금속광물, 음식료품, 섬유가죽의 무역특화지수는 1에 가까워 산시성이 한국으로부터 이들 산업에 대해 거의 수입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안후이성의 대한민국 교역규모는 2000~2012년간 연평균 14.2%씩 증가하였다. 2012년 대한민국 수출은 536백만 달러, 수입은 776백만 달러로 한국에 대해 240백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안후이성의 대한민국 수출은 제1차 금속(전체 수출의 24.3%), 석유화학(16.3%), 전기전자(10.1%) 등 자원성 소재와 부품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수입은 석유화학(37.2%), 전기전자(17%), 제1차 금속(16.7%), 일반기계(10.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후이성이 한국에 대해 뚜렷이 수출특화를 보이고 있는 산업은 비금속광물, 목재종이, 음식료품, 섬유가죽이다. 한국에 대해 수입특화를 보이는 산업은 정밀기기, 수송장비, 일반기계, 석유화학, 전기전자이다.

장시성의 대한민국 교역규모는 2000~2012년간 연평균 20.3%씩 증가해 2012년 교역규모가 1,021백만 달러에 달하였고, 그중 수출은 787백만 달러, 수입은 218백만 달러였다. 장시성은 한국에 대해 553백만 달러 흑자를 창출하였으며, 매년 흑자폭이 커지는 추세이다. 장시성의 대한민국 수출 역시 다른 두 개 성과 마찬가지로 자원성 제품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제1차 금속(36.6%), 석유화학(23.9%), 섬유가죽(16.4%)이 주류를 이루며, 이들 상위 3개 산업이 전체 수출의 76.9%를 차지한다. 장시성의 수입구조는 산시성과 유사하게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수입은 석유화학(48.9%), 전기전자(25.1%)가 주류를 이룬다. 장시성은 한국에 대해 목재종이, 음식료품, 제1차 금속에서는 수출특화를, 수송장비, 일반기계에서는 수입특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3성 투자 추이와 산업별 투자구조)** 한국의 중부 3성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2년 말 누계기준, 산시성에 대한 투자건수(신고

기준, 이하 동일)는 75건으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서 0.16%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 금액(신고기준, 이하 동일)은 289백만 달러로 한국 대중국 투자의 0.49%에 불과하다. 안후이성에 대한 투자 누계 건수는 191건, 투자금액은 224.2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중부 3성 중 투자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장시성에 대해서는 126건에 437.7백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중부 3성 중 투자액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산시성에 대해서는 광업, 전기 전자,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안후이성에 대해서는 석유화학, 기계 및 수송장비, 장시성에 대해서는 기계 및 수송장비, 섬유가죽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 한국은 중부 3성에 대해 투자 초기 단계에 있어서 연도별, 산업별 투자구조도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물류, 유통에 대한 투자도 아직은 미미하기 그지없다. 그야말로 중부 3성은 한국에 있어 미개척 시장 상태로 남아 있다.

## 제4장 중부 3성의 주요 산업

### 제1절 산시성의 주력 산업과 주요 기업

(제조업) 산시성(山西省)은 중공업의 발원지로서 야금, 장비제조, 화학공업, 석탄산업 등이 발달하였으며, 일반적인 제조업은 발전이 낙후되어 있다. 특히, 석탄 생산량은 중국 내 1위로 2012년 9.1억톤을 기록해 전국 총 생산량의 약 1/4을 차지하였다. 산시성의 대표적인 석탄 기업으로는 다통석탄업주식유한공사(大同煤業股份有限公司), 양취안석탄업주식유한공사(陽泉煤業股份有限公司), 산시시산매전주식유한공사(山西西山煤電股份有限公司) 등을 들 수 있다. 야금산업은 중국 전체의 20.7%를 차지하며, 특히 스테인리스강 생산에 있어 중국 내 최대 특수강 생산기지인 타이위안철강공사(太原鋼鐵集團公司)와 중국 내 최대 알루미늄 생산기지로 꼽히는 산시알루미늄공장(山西鋁廠)이 산시성에 위치하고 있다. 향후 산시성 정부는 석탄과 야금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친환경적, 에너지 절약적 대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서비스산업) 산시성은 석탄산업 위주의 경제 발전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유통업, 관광업 등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유통업이 발전

하고 있으며, 2009~2012년간 연평균 44.9%의 경이적인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다. 백화점 외에도 편의점, 전문점, 슈퍼마켓, 쇼핑몰, 창고형 할인매장 등 다양한 형태의 유통매장이 들어서고 있다. 화위 쇼핑몰(華宇購物中心), 왕푸징 백화점(王府井百貨商場) 등 매출액 20억 위안 이상의 대형 소매 기업뿐만 아니라 메이티하오(美特好), 탕지우 슈퍼마켓(唐久超市), 진후 편의점(金虎便利) 등 매출액 10억 위안 이상의 체인 스토어를 운영하는 유통 기업도 산시성 내에서 상권을 넓혀 가고 있다. 외자 유통기업으로는 월마트, 까르푸, 百盛(Parkson) 백화점 등이 산시성에 진출해 있다. 물류업도 최근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타이위안철강공사, 산시석탄운송판매그룹(山西煤炭運銷集團有限公司), 산시타이티에연합물류공사(山西太鐵聯合物流有限公司)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화롄그룹(華聯集團), 하오더그룹(豪德集團), 자이지송(宅急送) 등이 대표적 물류기업들이다.

## 제2절 안후이성의 주력 산업과 주요 기업

(제조업) 안후이성의 주력 제조업은 자동차와 장비제조업이다. 지게차, 굴착기, 대형 버스, 유압기, 대형 잠수전기펌프 등과 관련된 생산량은 전국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기술력 역시 중국 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자동차 생산 및 판매량이 중국 내 31개 성시 중 6위를 차지하며 중형 화물차량 생산지에서 점차 소형 승용차, 경형 화물차량, 상용차 등으로 생산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안후이성에는 허페이와 우후(蕪湖) 등 2개 국가급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단지가 있다. 주요 기업으로는 치루이(奇瑞)자동차그룹, 장화이(江淮)자동차그룹, 안카이(安凱)자동차주식회사 등이 있다. 장비제조업은 교통운송장비, 공사기계, 송배전설비 등을 중심으로 발전해 있다. 주요 기업으로는 안후이지게차그룹유한책임회사(安徽叉車集團有限責任公司)과 안후이장화이인랴오우중형건설기계회사(安徽江淮銀聯重型工程機械公司) 등이 대표적이다. 외국계 진출업체로는 TCM(안후이)기계유한회사, 허페이은커스(恩斯克)유한회사, 허페이ABB변압기유한회사 등이 있다. 또한 안후이성은 에너지, 전자재, 야금, 비철금속, 화공 등 5대 광산물자원 개발이용 산업이 발전해 있으며, 중국의 주요 원자재 공업기지과 에너지 공급

지이다. 화이난(淮南)과 화이베이(淮北)는 남부지역 최대의 석탄생산기지이며, 마안산 철강은 전국의 중요한 철강생산기지, 퉁링(銅陵)은 전국의 중요한 동 제련 및 가공기지이다. 향후 낙후생산능력을 도태시키는 한편, 고품질강재, 특수강제품, 동과 알루미늄 심도 가공, 비철금속 신재료 등 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관광업) 안후이성은 황산, 주화산(九華山), 텐주산(天柱山) 등 유명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관광업이 크게 발달해 있다. 주요 기업으로는 안후이중국청년여행사유한책임회사(安徽中國青年旅行社有限責任公司), 황산시중국여행사(黃山市中國旅行社) 등이 있다. 2011년 안후이성 최초의 외자유행사로 동광국제여행사가 설립됐다. 한국계 기업으로 한국 서진항공은 우리항공과 중국계 기업인 황산시 제청(竭誠)여행사가 합자 설립한 기업이다. 안후이성은 12·5계획 기간 중 황산, 허페이, 우후 등 ‘3개 관광센터도시’를 구축하고 완난(皖南)국제문화관광시범구, 완장(皖江)도시관광구, 허페이경제권 관광구, 완베이(皖北)관광구 등 ‘4대 관광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 제3절 장시성의 주력 산업과 주요 기업

(제조업) 장시성의 주력 제조업으로는 비철금속을 비롯하여 바이오 의약, 태양광, 항공 및 LED 등이 꼽힌다. 장시성은 루비듐, 탄탈, 토륨, 우라늄 매장량이 전국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석, 텅스텐, 은, 리튬, 지르코늄, 세슘, 텔루륨 등의 매장량은 전국 2위를 차지한다. 이러한 매장량에 힘입어 장시성은 구리, 텅스텐, 희토, 탄탈, 주석, 납, 아연, 안티몬, 몰리브덴 등 비철금속의 주요 생산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장시성은 채광에서부터 가공에 이르기까지 간둥베이(贛東北), 간저우(贛州) 그리고 난창(南昌) 등 3개의 대규모 기지를 갖고 있다. 주요 기업으로는 구리 전문업체인 장둥(江西銅業)그룹, 텅스텐 및 희토류 생산업체인 장우(江鎬)그룹 등이 있다. 일본계 기업들이 희토류가공을 중심으로 진출해 있다.

장시성은 중국 내 한약중심지로 바이오 의약산업이 발전해 있다. 주요 바이오 의약산업 클러스터로는 난창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구의 과학기술부 햇빛센터를 비롯하여 장시 상하이(桑海)바이오의약산업기지, 윈저우(袁州)의약공업원 등이 있다. 의약산업

주요 기업으로는 성내 유력기업인 장중그룹(江中集團)을 비롯하여 영업이익 기준 중국 전체 100대 기업에 속하는 장시지민커신그룹유한공사(江西濟民可信集團有限公司), 런화(그룹)발전유한공사(仁和(集團)發展有限公司), 장시칭평의약투자그룹유한공사(江西青峰醫藥投資集團有限公司) 등이 있다.

장시성은 태양전지, 실리콘 원료 생산 및 웨이퍼 생산 분야를 중심으로 태양광산업이 최근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장시성의 태양광산업 클러스터는 신위(新余), 상라오(上饒), 주장(九江), 난창(南昌), 징더전(景德鎮) 등 5개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난창대학 Solar LDK 태양에너지 연구센터, 난창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구(南昌國家高技術產業開發區) 등이 태양광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장시사이웨이태양에너지하이테크유한공사(江西賽維LDK太陽能高技術有限公司), 장시사이웨이BEST태양에너지하이테크유한공사(江西賽維BEST太陽能高技術有限公司), 장시징커에너지유한공사(江西晶科能源有限公司), 장시취양레이디하이테크주식유한공사(江西旭陽雷迪高技術股份有限公司), 장시웨이징태양에너지과학기술유한공사(江西瑞晶太陽能科技有限公司) 등이 장시성 태양광산업 대표 기업들이다.

항공산업 역시 역사가 깊은 장시성의 대표산업 중 하나이다. 대형여객기 부품, 연습용 첨단 항공기, 다양한 기종의 헬기, 농업용 항공기, 무인 항공기 등을 주로 제작하고 있다. 장시성에는 홍두항공공업그룹유한책임공사(洪都航空工業集團有限責任公司), 홍두항공공업주식회사(洪都航空工業股份有限公司), 창허항공공업그룹유한공사(昌河飛機工業有限責任公司)를 비롯하여 주장홍잉항공기제조유한공사(九江紅鷹飛機製造有限公司) 등 항공기 제조업체가 있으며, 장시성헬기설계연구소(620연구소)와 홍두항공기설계연구소(650연구소), 난창항공대학 등 항공 연구소와 실험기지도 이미 조성되어 있다.

장시성의 LED산업은 30여 년의 역사를 가지며 2011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현재 장시성은 LED 칩 350억개, 칩패키징 150억개, 디스플레이 40만㎡, 소형등 1,500만개 등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난창국가반도체조명산업화기지(南昌國家半導體產業化基地), 지안LED산업기지(吉安LED產業基地) 등 양대 생산기지가 있으며, 징닝광전(晶能光電)과 리엔창광전(聯創光電) 등이 대표적 기업이다. 난창대

학교육부발광소재 및 소자공정연구센터(南昌大學教育部發光材料与器件工程研究中心)는 대표적 연구기관이다.

(서비스산업)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도소매업이 전체의 21%로 비중이 크며, 신성장 부문으로는 문화산업을 주목할 만하다. 장시성은 2015년까지 문화콘텐츠산업 연평균 성장률 55%, 생산총액 300위안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 두고 있다. 장시성의 문화콘텐츠산업 또한 여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클러스터를 통해 발전하고 있다. 잉탄문화산업원기지(鷹潭文化產業基地), 간저우홍색문화창의산업원(贛州紅色文化創意產業園), 난창국제애니메이션산업원(南昌國際動漫產業園) 등이 대표적인 클러스터이다. 관광 문화산업과 관련, 장시성은 2015년까지 2억 5,000만명의 여행자 유치와 2,100억 위안의 관광산업 수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양호, 고전지역, 녹색지역 등을 중심으로 ‘문화+관광’ 이 함께하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2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징더전(景德鎮)을 중심으로 도자기산업의 발전도 적극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경제수준이 낮고 경제발전의 시장화와 경제의 사회적 역량이 부족한 것은 장시성 문화산업의 발전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 제5장 한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애로요인

### 제1절 한국기업의 진출 현황

(산시성 주요 진출 기업) 2013년 6월 말 현재 산시성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는 총 43건, 2억 달러 정도이다. 산시성의 석탄, 비금속광물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요 투자기업으로는 한국전력공사, SK네트웍스, C&S Defence 등이 있지만 가장 활발한 업체는 SK네트웍스이다. SK네트웍스는 1억 3,000만 달러를 투자해 산시성 북부 지역의 동 광산 및 제련소의 주식 45%를 매입하였다. 동 업체는 연간 약 4억 5,000만 톤의 구리 생산량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이는 한국 전기 구리 총생산량의 1/10에 해당한다. 환경기술산업의 S기술주식회사의 투자도 주목을 끌 만하고, 화장품, 의류산업의 진출도 기대해 볼 만하다. 화장품 가운데에는 라네즈가 현재 산시성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이자녹스 등의 브랜드 또한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다.

**(안후이성 주요 진출 기업)** 2013년 6월 말 현재 안후이성에 대한 투자는 92건, 1억 6,7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산시성에 대한 투자가 자원분야에 집중된 반면 안후이성에 대한 투자는 제조업 전 분야에 걸쳐 고루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가운데에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 만도기업을 비롯하여 대기업 2곳이 진출해 있다. 안후이성 Chery자동차와 한국의 SK텔레콤이 공동 설립한 ‘자동차 네트워킹 연합 실험실’ 도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안후이성 진출 기업 가운데에는 고속도로 운수 분야 그리고 관광분야의 투자가 눈길을 끈다. 고속도로 운수분야에 대한 투자는 여객 뿐만 아니라 물류에까지 염두에 둔 투자로 보이며 금호그룹이 투자 주체이다. 관광업에 대한 투자는 안후이성에 위치한 황산을 찾는 한국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대와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장시성 주요 진출 기업)** 장시성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는 2013년 6월 말 현재 64건, 3억 7,000만 달러 정도이다. 장시성이 희토류 매장량이 풍부하지만 한국 업체의 진출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장시성 정부의 희토류에 대한 외국인규제가 심하기 때문이다. 의류제조업에는 7개의 업체가 진출해 있어 다른 2개 성에 비해 많은 편이다. 서비스업 중에는 도매 및 소매업이 7건, 68만 8,000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현지에서 비교적 인기가 높은 한국제품 수입을 위한 유통 분야에 주로 진출해 있다.

## 제2절 현지 진출 시 애로요인

**(무역 관련 애로요인)** 무역 관련 애로 요인으로는 추가적 물류비용 발생, 1차 바이어 부족, 유통망 확보 어려움 등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산시성, 안후이성 및 장시성은 모두 내륙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물류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바, 이는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부지역(산시, 안후이, 장시, 허난, 후베이, 후난성) 바이어들은 물류 및 창고보관 등에서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상하이 및 쑤저우 등과 같은 대도시의 대리상을 통해 제품을 공급받아 유통하

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바이어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중국 내륙지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사무소 설치 및 신뢰성 있는 협력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내륙지역은 기존 연해지역과는 달리 관련 정보 및 노하우 등이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인 거래(무역)가 이루어지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실사를 통한 현지 사정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선뜻 사업을 추진하기에 (비용)부담이 따른다.

**(투자 관련 애로요인)** 투자 관련 애로요인으로는 인건비 부담, 전문 인력의 만성적 부족 및 잦은 이탈, 정부의 지나친 개입, 클러스터의 미성숙과 부가가치사슬구조 취약, 정보전달체계 미흡 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절대임금 수준에서는 중부지역이 연해지역보다 대체로 낮으나 상승률 측면에서는 오히려 연해지역을 초과하고 있다. 특히 산시성(타이위안)의 경우 절대임금에서 상하이와 맞먹는 수준(시간당 임금 기준)까지 이르고 있다. 결국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진출(혹은 생산시설 이전)하려는 기업에게 중부지역은 결코 비교우위 지역이 아니다. 중부지역에서도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졸자 가운데 상당수가 졸업 후 베이징, 상하이, 광둥 및 장시 등 연해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확보된 전문인력조차 외지로 이탈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중부지역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전문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중부지역 또한 신흥산업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이들 산업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 산업 대부분이 대규모 자본 및 다량의 자원 투입을 필요로 하는바 자원배분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 경험 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진출기업 수가 적어 개별 기업에 대해 정부의 간섭이 과다한 편이다. 또한 중부 각 성의 산업구조가 점차 고도화되면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모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부가가치사슬구조가 완결되지 못해 부품, 소재, 설비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중부지역은 아직 한국기업들에게는 낯선 지역이다. 최근 중부지역의 사회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시장과 기업정보 획득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 제6장 중부 3성 진출 활성화 전략

### 제1절 제품별 진출 유망 품목

(최종소비재) 중부 3성 지역의 소비수준과 구매력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2008~2012년) 중국의 최종 소비 지출액은 연간 15.1%씩 증가한 반면, 중부 3성의 소비 지출액은 16.2%씩 증가하여 전국 평균치보다 1.1%포인트가 높았다. 한편, 중부 3성의 주요 소비재 보급률은 중국 평균 대비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소비재들을 보급률,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가율 등을 기준으로 성숙시장, 성장시장, 초기시장으로 구분해 보면, 세탁기, 냉장고, 컬러TV, 에어컨, 핸드폰 등은 성숙시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제품은 이미 한 가구당 1대씩 보유하고 있고, 중부 3성의 보급률 또한 중국 전체 평균치에 근접하고 있다. 중부 3성에서 자동차, 비디오카메라, 컴퓨터 등은 전형적인 초기 시장으로서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보급률은 매우 낮은 반면, 소비증가율은 아주 빠른 시장들이다. 특히 100가구당 자가용 보급률이 중국 평균치는 2012년 21.5대인 데 비해 중부 3성은 평균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컴퓨터는 100가구당 보급률이 50대 전후로 중부 3성 모두 전국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으나,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0%대로 상당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본 연구진들의 현지 실사와 중부 3성이 갖고 있는 시장 특성을 바탕으로 발굴한 유망 품목들도 있다. 산시성 진출 유망 소비재로는 고급 의류, 화장품, 액세서리, 첨단 가전제품과 음향, 영상설비 등이 있다. 안후이성은 절수형 좌변기와 올리브유가 수출 유망품목으로 꼽힌다. 장시성 유망 소비품목으로는 한류와 접목된 고급 의류, 녹색 식품, 화장품 등 뷰티, 미용제품 등을 추천하며, 특히 가정용 음식물처리기의 현지진출을 강조한다.

(부품·소재 및 설비) 중부 3성 지역 역시 다른 중국 지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산업과 관련된 설비에 대한 수입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들이 친환경적, 에너지 절약적 공법개발과 기술설비의 현대화, 환경위생기계, 소도시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설비, 하수도 정화시설 등이다. 산시성의 경우 석탄 채광과 관련된

기계설비와 에너지 절감형 보일러도 수출 전망이 밝다. 또한 수질 개선과 토양 보전 제품에 대한 수요도 많다. 최근 산시성 정부가 방직산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첨단설비도 유망 품목 중의 하나이다. 식품가공산업에서는 바이오테크놀로지, 분리추출 기술, 식품 신선도 유지 기술, AMD 분해 기술, 냉동건조 기술, 농축발효 기술 관련 제품들의 진출이 유망하다.

안후이성은 이음매 없는 강관, 석유 유정관, 에틸렌, 식물성 디젤유 생산설비, 의료설비, LED 조명재료 생산설비, 운송기계 등의 수출이 유망하다. 승용차 부품과 지게차, 굴착기, 유압기 등에 대한 제품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첨단 부품·소재의 수입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안후이성 정부의 태양광산업에 대한 발전 의지가 강해 이와 관련된 LED 유기금속화합중착(MOVCVD), 폴리실리콘 정화, 실리콘 강괴 및 절편, 초박형 태양전지 부품 등도 유망 진출 품목으로 꼽힌다. 바이오에너지, 건축에너지 절감기술(바닥 난방재 등), 연료전지, 고효율 전지(리튬이온전지 분리막 등) 등도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 에너지산업 발전과 관련해 유망한 수출품목이다.

장시성은 광석 채굴 및 정련을 위한 에너지 절감·환경 친화적 첨단설비 수입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희토류 관련 채굴장비와 환경정화장비의 수요가 많다. 석유화학산업과 방직산업에 대해서는 제품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소재와 부품, 설비가 유망하다. 전략적 신흥산업과 관련해서는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민용 항공기, 바이오 의약 등이 중점 발전 대상 산업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LED, 반도체, 태양광 박막전지 부품, 유기 실리콘, 헬리콥터, 중약 현대화, 액정 디스플레이, 핸드폰 부품 등이 유망 수출품목으로 꼽힌다.

(서비스산업) 산시성은 북방과 남방, 서부와 동부를 연계하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물류산업의 발전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연계하는 생산서비스산업 역시 낙후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수요도 많다. 또한 풍부한 석탄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서비스산업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이와 관련된 지식서비스산업의 진출도 고려해 볼 만하다. 관광산업의 발전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불교의 성지인 오대산을 비롯하여 고대 도시인 핑야오 등을 전국 유명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추진되면서 이와 관련된 관광, 문화산업과 요식

업의 진출도 유망하다.

안후이성은 세계적인 관광지인 황산을 비롯하여 불교 성지인 주화산(九華山)이 위치하고 있다. 안후이성의 관광산업과 한국의 관광산업을 연계한 관광산업의 진출이 유망하고,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한식업과 문화산업의 진출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른 중부지역과 마찬가지로 안후이성 소비자들도 한류에 관심이 높다. 한류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패션, 뷰티산업의 진출이 유망하다. 또한 최근 안후이성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도 진행되면서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실버서비스산업과 의약, 헬스케어산업의 진출이 유망하다.

장시성은 물류와 유통, 비즈니스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진출 전략을 수립함이 바람직하다. 성도인 난창 지역은 전문점과 브랜드 진출이 비교적 유망하다. 특정 소비자 패턴을 겨냥해, 예를 들면 한류 선호 그룹, 고소득 여성 소비자층을 겨냥한 단일 점포 형태의 전문점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 마트에 대한 외국계, 중국계의 진출은 활발한 반면, 소형 편의점에 대한 진출은 아직 미미한 편으로 향후 소형 편의점에 대한 진출 전략도 검토해 볼 만하다.

중부 3성 지역 모두 첨단형 스마트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IT산업의 진출이 유망하다. 특히 지능형 교통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높은 편이다. 중국의 스마트 시티 사업은 지방정부와 중국 사업체가 함께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 형태이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특정 사업자가 자금을 대 인프라를 구축하는 양태이다. 따라서 한국 단독 형태로 진출하기는 어려우나 중국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여 공동으로 진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 제2절 협력패러다임 구축과 진출강화 방안

(상호 윈윈의 협력패러다임 모색) 중국 성정부는 한국과 달리 지역경제 개발, 조세권, 입법권 등에서 상당한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관을 받고 있고, 특히 경제권에 있어 지방의 권한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한국 각급 정부와 중국 지방정

부가 산관학 공동의 공식적인 협력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부 3성 간에 상호 협력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상호 협력을 통해 한국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서 유리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고, 중부 3성은 중부굴기 전략을 성공적으로 완수함과 동시에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킬 수 있다는 비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산업을 선정해 기업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협력 산업 선정 시에는 한국의 비교우위와 중부 3성이 추구하는 산업육성정책을 동시에 반영함이 바람직하다.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전통산업으로는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석유화학, 섬유, 식품, 조선산업 등이 있다. 한류와 문화산업, 의료산업을 포함한 지식서비스산업에서도 한국은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가 강조하는 전략적 신흥산업(에너지절감, 환경, 첨단설비, 신소재, 바이오, 신에너지, 신에너지자동차, 정보통신) 등에서 양국 간 전략적 제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 차원의 제도적 협력 기반 구축)** 2012년부터 한중 FTA 본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중 FTA가 한국기업들의 중부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재권에서는 우리 제품 보호수준과 침해에 대한 집행 강화와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투명성에서는 정보 공개와 행정절차 보장, 재판 및 준사법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부조달도 매우 중요한 협상대상이다. 중부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지방정부, 국유기업에 제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중 FTA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환경산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들이 중부 3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전용공단이 필요하다. 아직은 중부 3성의 공업화가 미진하여 연관 산업의 부가가치사슬구조가 취약하고 교통과 유통, 물류산업의 발전도 낙후되어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된 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농촌토지의 보상에 대한 현실화를 강조함에 따라 양국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전기, 통신, 수도, 교통, 물류가 원활한 지역에 한국전용 산업단지의 토지를 확보하고 공단을 공동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

양국 간 기업들의 심층적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와 관련 기관, 대학들을 중심으로 공동연구개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신성장 동력산업과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과 관련해서는 양국 모두 제조와 기술에서 선진국에 비해 취약성을 갖고 있는바, 양국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 양국 간 공동연구개발체제 구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동연구개발기금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들이 중국 진출 시 직면하는 모방제품의 애로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

한국기업들이 중국 중부지역에 진출하려고 해도 이와 관련된 시장과 산업 정보를 얻기가 대단히 힘들다. 중국기업들도 한국에 대한 정보 얻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양국 정부가 업무를 전담할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해 한국과 중국 중부지역에 대한 시장동향과 산업정보, 기업신용정보를 주기적으로 기업들에게 제공하면, 기업 간 M&A, 자본 및 기술제휴 활성화를 통해 양 지역 간 협력 심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 차원의 진출 활성화 전략)** 한국기업들이 중국 중부지역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중부지역 지방정부의 제반 정책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진출 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진출 시 가장 먼저 점검해 볼 정책은 종합적인 경제정책인 제12차 5개년 계획과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정책이다. 대외무역정책과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부 3성 모두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동부지역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지에 적합한 새로운 유통망과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을 활용한 판매방식과 TV홈쇼핑이다. 인터넷쇼핑과 TV 홈쇼핑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중국 홈쇼핑사는 정식통관과 위생검사를 통과한 제품만을 취급하려 한다. 특히 화장품은 위생검사가 더욱 중요하므로 그 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으니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홈쇼핑 유망 제품으로는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장품, 생활용품, 식품, 다이어트제품 등이 있으나 경쟁업체들이 많음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류와 한국인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중부 3성 소비자들에게는 한류를 활용한 감성마케팅도 좋은 방안이다. 중부 3성의 젊은 층, 특히 여성들에게 한국 연속극은 패션

의 주요 전달 매체이며, 한류에 열광하고 있다. 도서, 화장품, 의류, 가전 등의 업종이 한류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업종들이다.

중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공업화가 더딘 관계로 부품과 소재, 설비의 현지 조달이 어렵다. 따라서 조립 대기업과 부품 담당인 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을 권한다. 제조업체와 물류, 유통, 금융의 서비스업 동반진출도 필요하다. 또한 중국 조립기업과 한국 부품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내륙지역에 위치해 한국과 교류가 뜸했던 중부지역 기업과 소비자들은 한국기업과 제품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부족한 편이다. 유력 바이어들을 한국에 초청하고, 중부지역에 소재한 딜러들을 적극 육성해 대형화시킬 필요도 있다.

## 〈보론〉 중부 6성의 경쟁력 종합평가

(중부지역의 경제사회 경쟁력 평가) 중국 중부지역은 6개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보고서에서는 6성 중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을 분석하였고, 2013년도에는 나머지 지역인 산시성, 안후이성, 장시성을 분석하였다. 이하에서는 중국 장시성 소재의 난창대학이 수행한 ‘중부경제사회경쟁력보고(2013)’를 인용해 중부 6성의 경쟁력을 분야별로 종합 정리해 본다.

GDP, 투자, 소비, 수출입 등을 갖고 평가한 경제발전 경쟁력에서는 후베이성(0.62), 안후이성, 후난성, 허난성, 장시성, 산시성 순이었다. 인구, 식량, 자원, 생태, 환경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는 자원 환경 경쟁력 지수에서는 장시성(0.61), 산시(0.51), 안후이(0.43), 후베이(0.42), 후난(0.40), 허난(0.37) 순이었다. 과학기술력, 교육 정도, 문화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과학교육문화경쟁력 지수에서는 후베이성(0.62), 안후이(0.54), 후난(0.46), 산시(0.37), 허난(0.37), 장시(0.36) 순이었다.

(각 산업별 경쟁력 비교) 식량 경쟁력에서는 허난, 후난, 안후이, 장시, 후베이, 산시 순이었다. 식품가공산업에서는 후베이, 허난, 후난, 산시, 안후이, 장시 순이었다. 섬유 산업에서는 허난, 장시, 안후이, 후난, 후베이, 장시 순이었다. 화학산업에서는 허난, 후

베이, 후난, 안후이, 장시, 산시 순이었다. 의약산업에서는 허난, 후베이, 후난, 장시, 안후이, 산시 순이었다. 비금속광물에서는 허난, 안후이, 후난, 장시, 후베이, 산시 순이었다. 철강산업(철, 망간, 크롬)에서는 후베이, 허난, 안후이, 후난, 산시, 장시 순이었다. 비철금속산업(구리, 알루미늄, 아연, 주석 등)에서는 후난, 허난, 장시, 후난, 후베이, 산시 순이었다. 전기기계 및 전자산업에서는 허난, 안후이, 장시, 후난, 후베이, 산시 순이었다. 통신 및 전자산업에서는 후베이, 후난, 안후이, 장시, 허난, 산시 순이었다. 문화산업 종합경쟁력에서는 후난, 후베이, 허난, 안후이, 산시, 장시 순이었다.



# 제1장

## 연구 개요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1. 연구 배경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민방문을 계기로 한국에서 중국 중서부 진출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부상되었다. 중국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업체를 매개로 하는 한중 간 산업 내 분업구조가 정착되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01년 한국의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2.1%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25.1%로 늘어났다. 2012년에는 세계경기 침체로 24.5%로 소폭 축소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70% 이상이 중국에 재수출되는 한국의 대홍콩 수출을 중국에 포함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30.5%로 늘어난다.

한국 수입에서 대중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1년에는 9.4%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에는 17.7%까지 늘어났다. 이후 중국 위안화 절상과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 현지 생산비가 상승하면서 한국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으나 2012년에 도 15.5%를 기록하여 수입상대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한국의 대중국 교역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첫째, 한국의 최대 경제협력 대상 지역인 동부지역이 미국발 금융위기,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 수출성장세

가 대폭 감소되면서 경제성장률도 크게 둔화되고 있다. 2013년 상반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7.6%로 2년 연속 7%대의 성장률에 그치면서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10%대의 성장률 시대를 마감하고 있다. 투자와 함께 중국의 주력 성장 동력으로 수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2001~2010년간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0.3%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 상반기에는 10.5%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중국 수출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동부지역의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중국정부의 성장정책이 변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2011년부터 시작되는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 기간의 성장전략을 기존의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에서 내수주도형 발전전략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내수 소비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는 내수 확대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교통이 편리한 동부 연해지역, 특히 환발해만 지역과 장강 하류 지역에 집중 투자해 왔으며, 중서부 지역에서는 경제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즉, 중국의 성장정책 변화에 따른 과실을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챙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 중서부 내수시장과 소비구조 및 패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 중국의 중부지역이다. 중부지역은 동부와 서부의 중간 지대에 위치한 곳으로 북쪽에서부터 산시(山西)성, 허난(河南)성, 안후이(安徽)성, 후베이(湖北)성, 후난(湖南)성, 장시(江西)성의 6개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sup> 2012년 12월 베이징과 광둥성 광저우 간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중국 중부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이제는 중부지역이 중국 남과 북, 동과 서를 이어주는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물류와 유통의 전략적 거점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 2006년부터 ‘중부지구 굴기전략(中部地區崛起戰略)’을 채택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통, 물류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3년 11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자원가격의 자율화와 농지 가격 현실화가 제시되면서 자

1) 중국은 행정구역상 31개 성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동부 연해 지역에 10개 성시, 중부 지역에 6개 성, 서부 지역에 12개 성시, 동북지역에 3개 성이 있다.

원과 농업에서 전국적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중부지역의 소득개선과 소비확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상반기 중국 동부지역의 성장률은 8.7%에 그친 반면, 중부지역의 성장률은 10%대의 고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투자 증가율 역시 동부지역은 18.7%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중부지역은 23.6%로 동부지역보다 무려 4.9%포인트가 높다.

## 2. 연구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보고서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중국 중부 내수시장 진출 시 효율적인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2013년이 두 번째 해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 중부지역은 6개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인구의 26.7%인 3억 6,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 GDP의 21.8%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중부지역의 연구를 1년에 수행하기에는 어려워,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규모와 성별 GDP 규모 등을 감안하여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의 3개 성을 1차 연도에 연구했으며, 금번에 산시성, 안후이성, 장시성의 3개 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세계 선진권 시장의 경기침체로 인한 중국 수출 둔화와 중국 정부의 성장 동력 정책 변화 및 지역균형정책 강화 등으로 인해 일본, 미국, 유럽, 대만, 홍콩계 다국적기업들은 물론 동부 연안의 중국기업들도 새로운 공장으로서, 시장으로서 중국 중부지역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중부지역이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을 연계하는 핵심 거점 지역으로서, 동부지역을 대신한 새로운 생산기지로서,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한 소비시장으로서의 매력을 갖고 있지만, 외국기업들이 진출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내륙에 위치한 중부지역은 동부지역과 달리 국제화와 개방도가 낮고, 시장보다는 정부의 입김이 여전히 강하며, 지방정부의 행정 효율성도 낮은 편이다. 중부지역은 시장 및 소비 특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고 우리의 이해도도 낮은 상태로 한국기업들이 당장 진출하기에는 여러 모로 위험도가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부 현지 판매 기업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해 내수시장에 우리 제품을 판

매하기도 아직까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현지 기업의 신용도 파악이 어려워 현지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외상 거래에 동참하기도 어렵다. 중부 현지 유통기업들도 외국기업과 직접적인 거래를 꺼린다. 수출입 절차와 외환거래가 복잡하고 외국 제품을 취급할 때에는 금융 지원과 재고 관리 및 A/S 등에서 애로가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중부지역이 내륙에 위치해 있다 보니 우리 기업들에게는 물류와 교통에서도 애로사항이 많다.

따라서 중부 지역이 매력적인 곳임에는 틀림없지만 처녀지로서 애로사항도 많아 중부지역에 진출하기에 앞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진출해야 할 핵심 거점 도시와 시장을 선정하고, 협력 유망 산업과 제품을 도출하기 위한 선택적, 전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장과 제품, 기업 차원에서의 미시적 연구가 필요하다.

## 제2절 선행 연구 검토와 연구 범위

### 1. 선행 연구 검토

한국에서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정부가 2005년 제11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중국의 성장 동력을 수출 위주에서 투자와 소비로 확장시키면서 국내에서도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높아졌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중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공장보다는 시장으로서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활성화와 관련된 국내 연구실적으로는 KOTRA(2005), “신 소비 대국 중국의 소비 트렌드 분석”, KOTRA(2006), “중국 내수시장 공략 신4P 전략으로”, 그리고 지만수 외(2008), 『중국 소비시장의 특징과 진출전략』, 이문형 외(2010), 『중국 내수시장에서 한국 주요 제품의 경쟁력 분석』 등이 있다. 이들 보고서들은 대부분 중국 소비시장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의 효율적인 대중 진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연구 목

적으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연구는 모두 중국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중국 중부지역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중부지역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중국정부의 중부굴기 정책이 발표된 2006년 전후이다. 또한 2010년 전후로 KOTRA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중국 내륙지역 관련 조직이 강화되면서 이들 양 기관을 중심으로 중국 중부지역에 대한 연구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다.

KIEP는 중국 권역별·성별 연구단이 만들어지면서 2010년에 『중국의 미래 내수시장 형성전략과 시사점: 중부지역의 4대 도시군 형성전략을 중심으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부지역의 내수시장 특징 및 잠재력을 중부지역 도시군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들의 중부 내수시장에의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 각종 문헌과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중부지역 수입시장을 분석하고 외국기업들의 진출 사례 분석을 시도하였다. 2011년에는 중부지역에 대한 추가적 연구로서 『중국 중부지역의 생산기지 활용 가능성 연구』(정지현)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중부지역의 생산비용, 물류 환경, 생산비용 및 산업네트워크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동부에서 중부로 이전할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KOTRA 역시 2010년을 전후로 중국 중부지역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중국 31개 성시를 동남부편, 동북부·중부편, 서부편 3부분으로 나누고, 각 성별로 경제위상, 정부조직, 교통인프라, 산업발전 현황, 외국인투자 현황, 한국과의 교류 현황 등을 소개하였으며 한국의 각 성별 유망진출 품목 등을 제시하였다. KOTRA는 동 보고서에서 중부 6개 성시를 소개한 바 있다.

산업연구원은 2012년 중부지역에 대한 첫 번째 연구로 『중국 중부지역의 주요 산업별 진출전략-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편-』을 출판하였고, 금년도 두 번째 연구로 산시성, 안후이성, 장시성에 대한 주요 산업별 진출전략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2. 본 연구의 차별성과 연구 범위

본 연구는 2차 연도 계속 사업으로 연구의 차별성 및 범위가 제1차 연도 사업과 유사

하다. 중국 중부지역이 중국의 공장 및 시장으로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지만 중부지역에 대한 연구는 이제 걸음마 단계로 연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그지없다. 아직까지 우리 기업들의 중국 중부지역 진출 역사는 짧고 규모도 매우 작다. 반면, 중부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 동기와 업종은 매우 다양하다. 중부지역을 생산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출하고자 하는 제조업,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진출하려는 유통 및 물류업체, 한류를 활용해 진출하려는 미용, 요식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체 등 중국 중부지역에 대해 요구하는 정보는 매우 다양하고 깊이 또한 차이가 많다. 진출 초기의 기업들이 요구하는 경제와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시장에서 직접 경쟁을 해야 하는 업체들의 시장과 산업, 제품에 대한 미시적 정보들까지 정보의 폭과 깊이가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중국 중부지역에 대한 거시적 정보에서부터 미시적 정보까지 가급적 다양한 연구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거시적 정보로는 경제발전 수준과 교통, 인프라, 핵심 도시군들의 발전 현황, 각 성의 거시경제와 산업에 대한 정책과 12차 5개년 계획 등을 포함하고, 미시적 정보로는 산업과 시장은 물론 기업과 제품 차원까지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가 매우 넓을 수밖에 없으며, 이 점이 선행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본 연구의 연구체제는 제1차 연도와 동일하다. 기존 보고서들과 달리 연구 범위가 다양함에 따라 여러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동연구체제를 갖추고 있다. 협동연구체제는 산업 연구 전문기관인 산업연구원 주도하에, 중국 현지 산업과 시장에 대한 분석은 KOTRA가, 중국 중부 3성의 주요 도시군에 대한 연구는 국토연구원, 교통과 물류체제에 대한 연구는 한국교통연구원이 각각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연구에 참여하여 하나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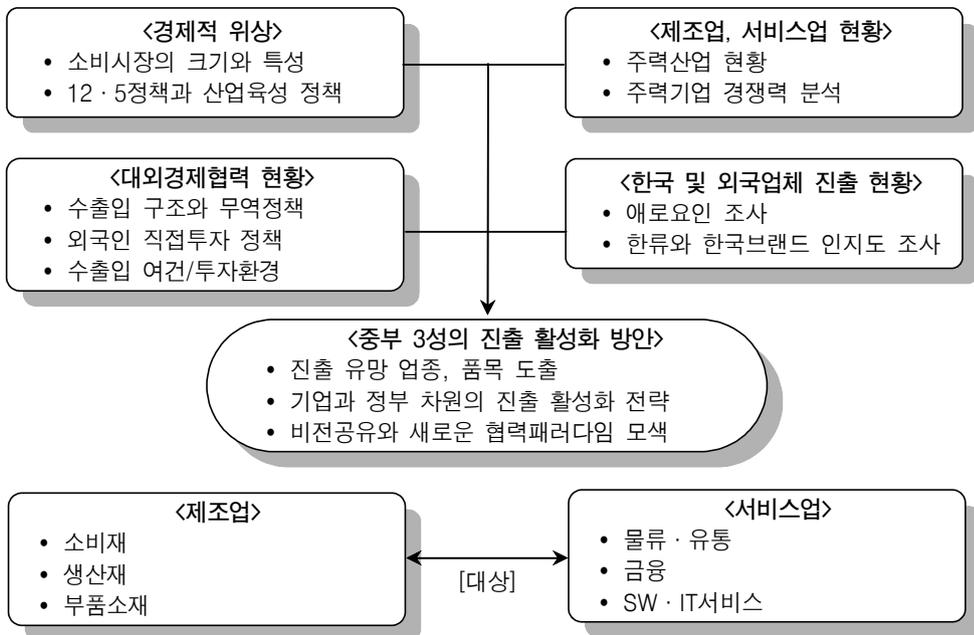
### 제3절 연구 구성과 추진체계

본 연구 과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과제의 일환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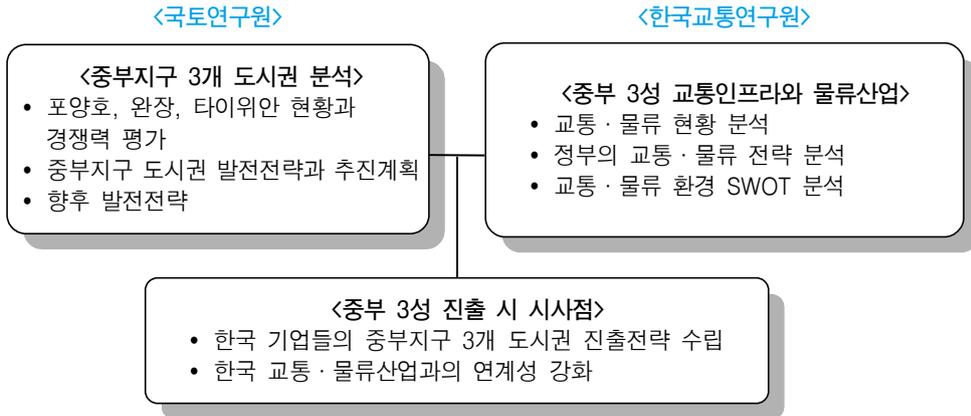
되었다. 산업연구원의 주관하에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KOTRA가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본 연구 보고서는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은 총괄 보고서로 한국의 중국 중부 3성에 대한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한국과 중부 3성의 비전 공유를 통한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과 정책 제언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업 차원의 구체적 추진 전략,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중부 3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제고와 거시적 경제 환경 분석을 위해 이들 지역의 산업과 소비 특징, 정부의 제12차 5개년 계획 등을 분석하였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산업과 기업, 시장을 소비재, 생산재, 서비스산업으로 나누어 비교적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중부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 현황과 애로 사항을 조사하였고, 외국기업들과도 대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제1권은 산업연구원과 KOTRA가 집필을 담당하였다. KOTRA에서는 서울 본사는 물론 안후이성 담당 무역관인 상하이무역관, 산시성 담당 무역관인 정저우(鄭州)무역관, 장시성 담당 무역관인 우한(武漢)무역관 등이 집필에 참여하였다.

〈제1권 연구 구성도〉



〈제2권 연구 구성도〉



제2권은 중부 3성의 핵심 도시권과 교통인프라,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집필하였다. 국토연구원은 “중국 중부지구 3개 도시군의 발전전망과 시사점”을 주제로 포양호(鄱陽湖)생태경제구(장시성), 완장(皖江)도시벨트산업이전승계구(안후이성), 타이위안(太原)도시권(산시성)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군 발전현황과 도시계획, 경쟁력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중국 중부 3성 교통물류산업 발전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중부 3성의 최대 애로요인 중의 하나인 교통 인프라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으로부터 효과적인 접근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통과 물류를 결합해 중부 3성 지역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점검하고 한국 기업들에게 관련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 중국 현지에서의 ‘한중 정책협의회’ 개최

중국 중부 3성의 현지 현황을 이해하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의 주요 집필진들이 중국 현지의 KOTRA의 도움을 받아 타이위안, 허페이, 난창에서 중국 현지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한중 정책협의회’를 세 차례 개최하였다.

〈중국 현지에서 개최한 한중 정책협의회 개요〉

항목	산시(타이위안)	안후이(허페이)	장시(난창)
일시	2013. 8. 26.	2013. 8. 30.	2013. 8. 28.
장소	타이위안시 빙저우 호텔	허페이 흥웨이진룽호텔	난창시 공업협회 사무실
한국 측 참석자	산업연구원 이문형 선임연구위원·이원교 연구원, 국토연구원 김천규 연구위원·김흠 연구원, 한국 교통연구원 서종원 부연구위원, KOTRA 배서은 대리 외 현지 KOTRA 직원		
중국측 참석자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산시성 투자촉진국 장바오민(張保民) 부국장, 가오페이즈(高佩茲) 경제자문 등	안후이성 상무청 전기기계 및 과기산업처 다이완위(戴傳裕) 처장, 안후이성 상무청 외사처 저우홍(周宏) 처장, 허페이 공업대학 후샤오젠(胡小建) 교수	장시성 사회과학원 장샤오위(將小鈺) 연구원, 난창시 상업무역위원회 요우즈웨이(游志衛) 부주임, 장시성 공상연합회 허샤오쥘(何少君) 처장

자료: 본 연구 정리.

산시성 타이위안시(2013. 8. 26.)에서는 ‘산시성의 거시경제 현황 및 외자기업 진출 현황 소개’ 를 주제로 산시성 정부의 투자촉진국 장바오민(張保民) 부국장, 가오페이즈(高佩茲) 경제자문 등을 초빙하여 산시성 경제 현황, 정부정책, 외자기업 진출, 한국기업 진출 현황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안후이성 허페이(2013. 8. 30.)에서는 안후이성 상무청 전기기계 및 과기산업처 다이완위(戴傳裕) 처장, 안후이성 상무청 외사처 저우홍(周宏) 처장, 허페이 공업대학 후샤오젠(胡小建) 교수 등을 초빙하여 ‘안후이성의 거시경제 및 물류 현황 소개’ 를 주제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는 현지 한국상회 회장단을 비롯, 한국기업들도 참여하여 현지 한국기업들의 진출 현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장시성에서는 장시성 사회과학원 장샤오위(將小鈺) 연구원을 초빙하여, ‘장시성의 거시경제 및 물류 현황 소개’ 를 주제로 한국 측 참석자와 중국 측 토론자인 난창시 상업무역위원회 요우즈웨이(游志衛) 부주임, 장시성 공상연합회 허샤오쥘(何少君) 처장 등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 제4절 기대효과

제1차 연도의 연구 결과인 “중국 중부지역의 주요 산업별 진출전략-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편”은 이미 박근혜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에서 주요한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강조되었던 중국 중서부 진출 전략의 확대 방침 작성에 본 연구 결과는 주요한 정책 자료중 하나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국 중부지역의 주요 산업별 협력전략은 향후 한국 정부와 기업의 중부지역 진출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최초로 소개된 중부지역의 경제 현황과 소비시장의 특징, 중부 3성 성정부의 제12차 5개년 계획과 산업발전계획, 산업·기업·시장 차원에서 분석한 중요한 연구 결과들은 중부 3성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외국기업들의 진출 사례 분석과 본 보고서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소비재, 부품소재, 서비스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진출 유망 품목들 역시 우리 기업들의 시간을 절약하고 정보 수집에 대한 노력을 크게 절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중부지역 성정부 간의 상호상생의 협력 패러다임 구축과 비전 공유는 향후 양자 간 협력에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상호 윈윈의 전략적 협력 산업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된 구체적 협력 사업들은 양국 산업협력에서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정부 차원의 제도적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제시한 한중 FTA 체결 시 중부내륙지역 진출 방안 고려, 한국 전용공단과 공동 물류체제 설립, 공동연구개발체제 구축과 지적재산권 보호, 시장·산업 정보의 주기적 제공과 신용조사기구 설립 등은 정부의 대중국 정책 수립 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기업 차원의 진출 활성화 전략으로 제안한 현지 정부의 통상, 산업정책을 진출 시 적극 활용, 현지에 적합한 새로운 유통망과 전자상거래, 홈쇼핑 등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수단 개발, 조립·부품업체의 세트형 진출과 현지 네트워크 강화 등도 기업의 진출 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주요 도시군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물

류, 교통 환경에 대한 연구도 중부 3성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의 중부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전반적으로 제고시켜 우리 기업들의 전략적 거점이나 생산 공장, 물류 거점 입지를 선정할 때 참고자료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제2장

# 중부 3성의 경제적 위상과 발전정책

### 제1절 중부 3성의 경제적 위상과 산업구조

#### 1. 중부 3성의 경제적 위상

산시, 안후이, 장시의 중부 3성은 중국 중부 6개 성 중에서 비교적 인구 및 경제 규모가 작고 소득수준도 낮은 낙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현재 산시, 안후이, 장시 등 3성은 중국 전체 인구의 약 10%, 전체 면적의 약 5%, GDP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다. 3성 중에서 인구 및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안후이성이며, 그다음은 장시성, 산시성 순

〈표 2-1〉 중국 중부 3성 개황(2012년)

	중국 전체	산시	안후이	장시	3성 합계
인구(만 명)	135,404	3,611	5,988	4,504	14,103
전체 대비 비중(%)	-	2.7	4.4	3.3	10.4
면적(만ha)	95,069	1,568	1,396	1,669	4,633
전체 대비 비중(%)	-	1.6	1.5	1.8	4.9
GDP(억 위안)	519,322	12,112	17,212	12,948	42,272
전체 대비 비중(%)	-	2.3	3.3	2.5	8.1
1인당 GDP(위안)	38,499	33,628	28,792	28,799	-
전체 대비 비중(%)	-	87.3	74.8	74.8	-

자료 : 중국통계연감(2013년 판).

이다. 그러나 소득수준은 산시성이 가장 높아 중국 평균 대비 87%인 데 비해, 안후이성과 장시성은 7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산시, 안후이, 장시 등 3성의 지역총생산은 중부 6개 성 지역총생산의 40%가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산시, 안후이, 장시 등 3성의 발전 속도는 중국 평균보다 훨씬 빨라서 중국 평균과의 소득수준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표 2-2>에서 보듯, 산시성 지역총생산의 중국 GDP 대비 비율은 2000년 1.9%에서 2012년 2.3%로 상승했고, 안후이성은 2.9%에서 3.3%로, 장시성은 2.0%에서 2.5%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3개 성의 1인당 GDP도 중국 평균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힐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산시성은 2000년대 전반에 발전 속도가 특히 빨랐던 반면, 안후이성은 2000년대 후반에 약진했고, 장시성은 2000년대 내내 비교적 빠른 성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산시성은 2000년대 전반의 빠른 성장 덕분에 중국 평균과의 소득 격차를 이미 상당히 좁혔고, 그 후의 성장 속도는 다소 느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안후이성과 장시성은 여전히 소득수준이 낮아 발전 잠재력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2> 중국 중부 3성 지역총생산의 중국 전체 대비 비율 추이

단위: %

		산시	안후이	장시
GDP	2000	1.9	2.9	2.0
	2005	2.3	2.9	2.2
	2010	2.3	3.1	2.4
	2011	2.4	3.2	2.5
	2012	2.3	3.3	2.5
1인당 GDP	2000	73.4	63.7	61.7
	2005	89.2	60.6	66.5
	2010	87.6	69.6	70.8
	2011	89.1	72.9	74.3
	2012	87.3	74.8	74.8

자료: 중국통계연감(2001, 2006, 2011, 2012, 2013년 판).

주: 각 성의 GDP는 엄밀하게는 '지역총생산' (GRP: Gross Regional Product)이지만 편의상 GDP로 용어를 통일함.

〈표 2-3〉 중부 3성 및 주요 연해지역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안후이	14.2	12.7	13.0	14.6	13.6	12.1
장시	13.2	13.2	13.1	14.0	12.5	11.0
산시	15.9	8.5	5.4	13.9	13.0	10.1
저장	14.9	12.7	12.4	12.7	11.0	10.1
장쑤	14.7	10.1	8.9	11.9	9.0	10.1
산둥	14.2	12.0	12.2	12.3	10.9	9.8
광둥	14.9	10.4	9.7	12.4	10.0	8.2
베이징	14.5	9.1	10.2	10.3	8.1	7.7
상하이	15.2	9.7	8.2	10.3	8.2	7.5

자료 : 중국통계연감(2012, 2013년 판).

또한 〈표 2-3〉에서 보듯,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3개 성은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안후이성과 장시성의 성장률은 더욱 높았다. 산시성은 2008년과 2009년에는 성장실적이 부진했으나 2010년부터는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수출산업에 많이 의존하는 연해지역과 달리, 중부 3성은 최근 중국정부의 내수 중심 발전전략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2. 중부 3성의 산업구조

중부지역은 동부 연해지역에 비해 도시화와 산업화 수준이 낮은 저소득 지역에 해당한다.<sup>2)</sup> 산시, 안후이, 장시 3성 중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산시성의 도시화율도 2012년 현재 51%에 불과하며 안후이성과 장시성은 47% 내외에 지나지 않는다. 장쑤, 저장, 광둥 등 동부지역 주요 성의 도시화율이 60%를 훨씬 넘는 것에 비하면 산시, 안후이, 장시는 아직도 농촌사회의 특성을 강하게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표 2-4〉에서 보듯이 이들 3성의 도시화 진행 속도는 매우 빠르므로 2020년대에는 이들 지역도 지금의 동부 연해지역과 비슷한 도시 중심 사회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2) 이문형 외(2012), pp. 47-51 참조. 이문형 외(2012)에서 다룬 허난, 후베이, 후난 등 3성과 이 글에서 다루는 산시, 안후이, 장시 등 3성의 산업구조는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 항목의 서술은 이문형 외(2012)의 것을 상당 부분 차용하였다.

〈표 2-4〉 동부 3성과 중부 3성의 도시인구비율 비교

	중국 전체	장쑤	저장	광둥	산시	안후이	장시
2000	36.2	41.5	48.7	55.0	35.2	28.0	27.7
2005	43.0	50.5	56.0	60.7	42.1	35.5	37.1
2010	49.9	60.6	61.6	66.2	48.1	43.0	44.1
2011	51.3	61.9	62.3	66.5	49.7	44.8	45.7
2012	52.6	63.0	63.2	67.4	51.3	46.5	47.5

단위 : %

자료 : 중국통계연감(2001, 2006, 2011, 2012, 2013년 판).

〈표 2-5〉에서 보듯이, 산시, 안후이, 장시 등 3성은 도시화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 비율은 중국 평균과 큰 차이가 없고 2차 산업 비율은 중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 마치 산업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2차 산업 비율이 높은 것은 2차 산업이 발달해서라기보다는 3차 산업이 낙후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 1차 산업 비율은 하락하고 2차 산업 및 3차 산업 비율은 상

〈표 2-5〉 중부 3성의 산업별 GDP 구성 비율(2012년)

	중국 전체	산시	안후이	장시
GDP	100.0	100.0	100.0	100.0
1차 산업	10.1	5.8	12.7	11.7
2차 산업	45.3	55.6	54.6	53.6
공업	38.5	49.7	46.6	45.0
건설업	6.8	5.8	8.0	8.6
3차 산업	44.6	38.7	32.7	34.6
운수창고통신업	4.8	7.0	3.8	4.9
도소매업	9.5	8.2	7.1	7.2
음식숙박업	2.0	2.5	1.6	2.4
금융업	5.5	5.3	3.6	3.2
부동산업	5.6	2.5	3.9	3.3
기타	17.1	13.2	12.8	13.7

단위 : %

자료 : 중국통계연감(2013년 판).

주 : '공업' 은 제조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업의 합계업.

〈표 2-6〉 중부 3성의 산업구조(GDP의 산업별 구성) 변화

		단위 : %			
		중국 전체	산시	안후이	장시
2005년	1차 산업	12.1	17.9	16.6	19.6
	2차 산업	47.4	52.1	43.1	39.9
	3차 산업	40.5	30.0	40.3	40.5
2012년	1차 산업	10.1	5.8	12.7	11.7
	2차 산업	45.3	55.6	54.6	53.6
	3차 산업	44.6	38.7	32.7	34.6

자료 : 중국통계연감(2006, 2012, 2013년 판).

증하며, 시일이 더 흐르면 2차 산업보다 3차 산업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그리고 3차 산업 비율은 도시화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산시, 안후이, 장시 등 3성은 2차 산업은 발전하기 시작했으나 3차 산업은 아직 발달하지 못한 산업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역 6개 성 중에서 허난, 후베이, 후난에서도 비슷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 산시, 안후이, 장시에서는 이런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산시, 안후이, 장시 등 3성 산업구조의 특징은 〈표 2-6〉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에서도 잘 나타난다. 2005년과 2012년을 비교해 보면, 중국 전체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비율은 하락하고 3차 산업 비율은 상승해 산업구조 고도화의 제2단계에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산시, 안후이, 장시 등 3개 성에서는 1차 산업 비율은 하락한 대신 주로 2차 산업 비율이 상승하고, 3차 산업 비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앞서서도 보았듯이, 도시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들 3개 성에서도 조만간 3차 산업 비율이 상승하는 정상적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즉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이 이들 3개 성의 경제성장을 주도할 부문으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차 산업의 주요 부분인 제조업의 내부 구조도 역시 중부지역의 상대적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부는 내륙지역인 만큼 외자기업의 진출이 부진하고 대외무역 비중이 낮으며 내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표 2-7〉에서 보듯이, 중부 3성의 기업 중 외자기업(홍콩, 마카오, 대만 기업 포함)의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고 국

〈표 2-7〉 중부 3성 기업법인의 등록 유형별 구성(2012년)

단위 : %

	중국 전체	산시	안후이	장시
전체	100.0	100.0	100.0	100.0
내자기업	97.1	99.7	99.1	98.7
국유기업	1.9	3.8	2.3	3.6
집체기업	2.2	3.6	2.0	1.7
사영기업	71.4	58.9	70.2	62.5
기타	15.9	17.3	18.3	21.8
홍콩, 마카오, 대만 기업	1.4	0.1	0.4	0.8
외상 투자기업	1.6	0.2	0.6	0.5

자료 : 중국통계연감(2013년 판).

유기업 비중은 평균보다 높다. 외자기업과 국유기업의 매출액 규모는 사영기업 등 여타 기업보다 훨씬 크므로, 매출액 기준으로 비중을 측정한다면 이런 차이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특이한 점은 3성 중에서 발전수준이 가장 높은 산시성의 외자기업 비중이 가장 낮다는 것이다. 즉 산시성은 국유기업 및 내수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가지고도 중국 평균과의 소득 격차를 어느 정도 좁히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일정 수준에 이른 후에는 더 이상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국유기업, 내자기업, 내수산업은 광업, 철강, 기계, 화학 등 전통적 중화학공업이나 식품, 방직 등 전통적 경공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즉 중부 지역의 제조업은 대체로 전통적 중화학 및 전통적 경공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산시, 장시, 안후이 등 3성 정부도 다양한 신성장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산업육성 정책을 펴고 있어 앞으로 중부 3성의 산업구조도 점차 고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제2절 중부 3성 소비시장의 특성

### 1. 산시성 소비시장

산시성은 산시, 안후이, 장시 3성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어 소비시장 규모도 가장 작다. 1인당 소득수준은 3성 중에서 가장 높지만, 이는 산시성의 도시화 수준이 가장 높기 때문이며, 도시 지역끼리만 비교할 경우 산시성 도시지역의 소득수준은 안후이성, 장시성과 큰 차이가 없다. 게다가 산시성 농촌주민의 소득수준은 안후이성, 장시성보다 현저히 낮다. 그 결과 산시성의 1인당 GDP가 안후이성, 장시성보다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소비지출은 안후이성, 장시성과 비슷하다. 즉 산시성은 안후이성, 장시성보다 저축률 및 투자율이 높고 소비율은 낮아서 소비시장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시성이 다른 성에 비해 유리한 점은 부양인구 비율이 31%로 훨씬 낮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도 8%에 지나지 않아 고령화 수준이 낮은 편이다.

결국 이제까지 소비 잠재력이 실현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 도시인구 비율이 높고 부양인구 비율이 낮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내수 중심, 소비 주도 경제성장 패턴이 정착될 경우, 산시성의 소비시장은 급속히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표 2-8〉 산시성 인구구조 및 소비 현황(2012년)

인구	3,611만 명	도시인구 비율	51.3%
		농촌인구 비율	48.7%
		부양인구 비율	31.0%
소득수준		1인당 GDP	33,628위안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20,412위안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액	6,357위안
소비 현황		최종소비지출총액	5,506억 위안
		1인당 소비지출	10,829위안
		소비품 소매총액	4,507억 위안
		도시주민 1인당 현금소비지출	12,212위안
		도시가구 100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	20.8대

자료: 중국통계연감(2013년 판).

주: 부양인구 비율 =  $100 \times (0-14\text{세 인구 및 } 65\text{세 이상 인구}) / (15-64\text{세 인구})$ .

〈표 2-9〉 산시성 유통산업 현황

단위: 개, 억 위안

	일정 규모 이상 유통기업 수			상품판매액		
	전체	도매	소매	전체	도매	소매
2010년	2,214	810	1,404	5,550	4,298	1,252
2011년	2,444	911	1,533	7,780	6,101	1,679
2012년	2,919	1,092	1,827	10,867	8,895	1,972

자료: 중국통계연감(2011, 2012 및 2013년 판).

산시성의 유통산업은 최근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 유통기업<sup>3)</sup> 수는 2010년 2,214개에서 2년 만인 2012년에는 무려 2,919개로 증가했다. 그중 도매 기업은 1,092개사, 소매기업은 1,827개이다. 일정 규모 이상 유통기업의 상품판매액도 2010년 5,550억 위안에서 2012년에는 1조 867억 위안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유통업 판매액이 경제성장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 것은 유통기업 대형화와 도매업 활성화에 따른 현상일 것으로 추측된다. 산시성의 경우 소매업에 비해 도매업의 상품판매액이 대단히 크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산시성의 경우 타 지역으로 보내는 도매상품 판매액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 2. 안후이성 소비시장

안후이성은 2012년 상주인구가 5,988만 명으로 중국에서 여덟 번째로 인구가 많은 성이며, 이탈리아와 인구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도시화율이 46.5%밖에 되지 않고 소득수준도 중국 평균보다 훨씬 낮아서 아직 소비시장 규모는 제한적이다. 또 부양인구 비율이 40.2%로 상당히 높으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0.8%를 차지해 고령화도 많이 진행된 편이다.

3) 일정 규모 이상 유통기업이란, 도매업체의 경우 상품판매액 연간 2,000만 위안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 20명 이상인 기업, 소매업체의 경우 상품판매액 연간 500만 위안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 60명 이상인 기업을 가리킨다. 이 정의는 2011년부터 적용된 것으로, 그 이전의 기준은 연간 상품판매액 500만 위안 이상이었다. “規模以上企業和限額以上企業”, 百度文庫(wenku.baidu.com) 참조.

〈표 2-10〉 안후이성 인구구조 및 소비 현황(2012년)

인구	5,988만 명	도시인구 비율	46.5%
		농촌인구 비율	53.5%
		부양인구 비율	39.7%
소득수준	1인당 GDP		28,792위안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21,024위안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액		7,160위안
소비 현황	최종소비지출총액		8,439억 위안
	1인당 소비지출		10,978위안
	소비품 소매총액		5,737억 위안
	도시주민 1인당 현금소비지출		15,012위안
	도시가구 100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		11.4대

자료 : 중국통계연감(2013년 판).

주 : 부양인구 비율 =  $100 \times (0-14\text{세 인구 및 } 65\text{세 이상 인구}) / (15-64\text{세 인구})$ .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다는 점도 안후이성의 소비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전국적인 민생 건설이 꾸준히 진행되어 양로보험, 의료보험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양로, 의료, 자녀교육 등 사회보장 수준은 여전히 불충분하며, 특히 농촌의 사회보장제도 보급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은 소비보다는 은행 저축에 열중하는 경향이 있다.

아직 소비시장 규모는 작지만, 안후이성의 소비재 매출 증가세는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2년 안후이성의 소비품 판매총액은 5,68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인 14.3%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요식, 가전, 자동차 매출액이 모두 11% 이상 늘어나 단순한 생계형 소비에서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후이성의 도소매 유통산업도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주 업종의 연 매출액 2,000만 위안 이상) 유통기업 수는 2010년 2,449개에서 2년 만인 2012년에는 무려 4,036개로 증가했다. 그중 도매 기업은 1,376개, 소매기업은 2,660개이다. 상품 판매액도 2010년 5,144억 위안에서 2012년에는 7,717억 위안으로 급증했다. 안후이성도 산시성과 마찬가지로 유통기업의 대형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유통업 통계의 집계 대상이 된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표 2-11〉 안후이성 유통산업 현황

단위: 개, 억 위안

	일정 규모 이상 유통기업 수			상품판매액		
	전체	도매	소매	전체	도매	소매
2010년	2,451	868	1,583	5,145	3,774	1,371
2011년	3,297	1,096	2,201	6,881	4,991	1,890
2012년	4,036	1,376	2,660	7,717	5,294	2,423

자료: 중국통계연감(2011, 2012 및 2013년 판).

유통업의 구조도 급속히 변하고 있다. 해외 유명 유통기업과 대형 로컬 소매상의 시장 진입에 따라 체인경영, 물류배송, 전자상거래 등 현대 유통채널이 부상하고 있다. 또 대형 할인마트, 전자재 대형 할인매장, 쇼핑몰, 생산 공장 직판 등 다양한 유통채널이 꾸준히 보급되고 있다.

### 3. 장시성 소비시장

장시성은 상주인구 약 4,500만 명으로 중국의 여러 성 중에서 중간 정도이며, 산시, 안후이, 장시 3성 중에서도 중간에 해당한다. 장시성은 1인당 소득수준이 중국 평균보다 낮고 도시화 수준도 낮으며 부양인구 비율은 높은 편이어서 소비시장 규모는 제한적이다.

2012년 장시성 도시주민 1인당 소비지출 총액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1만 2,776위안이었으며 그중 식품이 5,072위안으로 40%를 차지했다. 2012년 장시성 도시주민의 저축액은 8,50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400억 위안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000억 위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장시성의 소비시장 규모는 아직 작지만 경제성장 속도가 빨라 소비시장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지출 내역을 보면, 주요 8대 소비항목에 대한 지출은 모두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의류, 교통·통신 및 기타 소비 항목의 지출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소비항목 중 식품에 대한 지출 비중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이며, 식품을 제외한 7대 소비항목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요 소비재 중에서는 휴대폰, 에어컨, 컬러TV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비디오카메라, 카메라 등은 매

년 보급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시성의 도소매 유통산업도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산시성이나 안후이성에 비해 대형 유통기업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장시성의 일정 규모 이상(주 업종의 연 매출액 2,000만 위안 이상) 유통기업 수는 2010년 1,187개에서 2년 만인 2012년에는 1,498개로 증가했다. 그중 도매기업은 474개, 소매기업은 1,024개이다. 상품판매액도 2010년 2,019억 위안에서 2012년에는 2,939억 위안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 유통기업의 수와 상품판매액은 산시성과 안후이성에 비해 훨씬 적다. 장시성의 경우, 아직 소형 유통업체가 많아 유통산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의 비중이 큰 것으로 보인다.

〈표 2-12〉 장시성 인구구조 및 소비 현황(2012년)

인구	4,504만 명	도시인구 비율	47.5%
		농촌인구 비율	52.5%
		부양인구 비율	42.1%
소득수준	1인당 GDP		28,800위안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19,860위안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액		7,829위안
소비 현황	최종소비지출총액		6,314억 위안
	1인당 소비지출		10,573위안
	소비품 소매총액		4,027억 위안
	도시주민 1인당 현금소비지출		12,756위안
	도시가구 100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		10.8대

자료: 중국통계연감(2013년 판).

주: 부양인구 비율 =  $100 \times (0\sim 14\text{세 인구 및 } 65\text{세 이상 인구}) / (15\sim 64\text{세 인구})$ .

〈표 2-13〉 장시성 유통산업 현황

단위: 개, 억 위안

	일정 규모 이상 유통기업 수			상품판매액		
	전체	도매	소매	전체	도매	소매
2010년	1,187	449	738	2,019	1,452	567
2011년	1,359	483	876	2,521	1,762	759
2012년	1,498	474	1,024	2,939	1,939	1,000

자료: 중국통계연감(2011, 2012 및 2013년 판).

## 제3절 중부 3성의 12·5계획과 산업정책

### 1. 산시성의 12·5계획과 산업정책

산시성은 12·5계획 기간 중인 2011~2015년에 연평균 13% 경제성장, 재정수입 연평균 15% 성장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하고, 경제의 안정 성장, 경제 구조조정, 사회보장 및 주민생활 개선, 양형사회(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 건설, 기초 인프라 건설, 제도 개혁 및 체제개선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았다.

〈표 2-14〉 산시성 12차 5개년 계획 6대 정책기조

정책기조	주요 내용 및 목표
경제 안정 성장	- 경제의 질적 성장과 신속한 발전을 통한 안정적인 경제 성장 - 2015년까지 GDP 연평균 13% 성장, 재정 총수입 연평균 15% 성장 - 소비 확대의 장기적 제도를 확대해 중·저 소득층의 수입 확대 및 전체 국민 소비 촉진
경제 구조 조정	- 도시 공간 분포의 조정을 통해 지역 간 균등한 성장을 추구 - 타이위안시 중심으로 국제화 및 현대화를 통해 주변 도시들과 연계작용 강화 - 경제순환 발전을 목표로 1, 2, 3차 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
사회보장 및 주민생활 개선	- 2015년까지 의료보험 가입률을 93.5%까지 달성 - 농민소득의 개선을 목표로 하여 농촌 지역의 기반시설 강화 및 현대화 추진 -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임차제도 실시 및 소득 분배구조에 대한 최적화
양형사회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 건설	- 전통산업의 자원 생산량을 규제하고, 상품의 현대화를 추진 - 에너지 절약을 적극 장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정책 강화 - 녹화 사업과 정화 사업을 통해 생태 환경 종합 치료를 실시
기초 인프라 건설	- 타이위안시에서 주변 도시까지 최대 3시간 거리를 위한 도로망 구축 - 철도망 건설 및 공항 증축을 통한 종합 운수의 중추로 나아감 - 농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수리시설, 관개 시설을 증축
제도 개혁 및 체제 개선	- 정부의 경제 조절력과 시장 감시 능력을 강화 - 국유 기업의 주식 제도 개선을 통한 투자 주체의 다원화를 실현 - 석탄 및 주요 자원 가격 형성 제도 개선으로 합리적인 가격 조절 -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체육 등의 사업체제에 적극적인 지원

자료: 山西省人民政府, “山西省十二五规划纲要”, 2012.

## (1) 전통산업의 고도화

산시성 12·5계획의 산업 육성 정책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고 있는 과제는 전통산업의 고도화이다. 산시성의 주력산업은 석탄, 코크스, 금속, 전력, 전자재, 건축업 등인데, 그중 특히 중요한 4대 산업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석탄산업에서는 2015년까지 석탄의 연 생산량을 10억 톤 이내로 규제하고 석탄 생산 1억 톤급 기업 4개, 5,000만 톤급 3개 등 특대형 기업그룹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둘째, 코크스산업에서는 2015년까지 코크스 연간 생산량을 1억 2,000만 톤으로 규제한다. 셋째, 금속산업에서는 2015년까지 산시성의 선철 및 조강 생산량을 각각 4,500만 톤, 4,000만 톤으로 규제하고 산화알루미늄, 알루미늄, 금속마그네슘의 생산량을 각각 800만 톤, 200만 톤, 180만 톤으로 규제한다. 넷째, 전력산업에서는 2015년까지 전력 설비 용량을 0.8억 kW에서 1억 kW까지 증가시킨다.

요컨대 산시성은 전통산업에 관한 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고도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지하자원 관련 산업, 즉 광업 및 금속산업에서는 생산량을 규제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지하자원 관련 산업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향후 산시성은 생산설비의 현대화와 노후설비 구조조정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통산업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 (2)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산시성에서는 기존 전통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구조의 다양화,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해 여러 신흥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첫째, 기존의 주력산업인 석탄산업을 바탕으로 현대적 석탄화학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현대적인 석탄화학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을 긴밀히 연계한 클러스터를 발전시킴으로써 석탄화학을 새로운 지주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기계 산업(장비제조업) 육성을 위해 첨단화, 계열화, 종합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자주 혁신, 브랜드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대기업 집단을 육성할 계획이다.

중점 육성 대상 업종은 석탄기계, 자동차, 철도설비, 중형기계 등이다.

셋째, 자원에 대한 비교우위를 기초로 신소재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여기에서도 대기업 대집단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발전시킴으로써 기존의 단순한 재료 가공에서 벗어나 신형재료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넷째, 식품산업도 중요 신흥산업으로 선정되었다. 식품 품질 및 안전 수준을 높이고 시장영업망을 확충하며 특색 있는 식품을 개발하여 현대적인 식품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다섯째, 중국 정부가 전국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신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바이오,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 자동차 등이 주요 육성 대상이다.

한편, 현대 물류업과 관광업, 부동산업 등 현대적 서비스업도 중요 육성 대상 산업으로 꼽힌다. 산시성은 중서부 물류 중심으로 발전한다는 목표 아래 종합 교통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현대적 물류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광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고 관광산업 단지를 확충하며, 브랜드 파워를 가진 대형 여행사를 육성하여 산시성 관광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부동산업은 도시화 정책과 밀접한 관련하에 육성할 계획이며, 특히 다양한 도시 주택 수요 충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 2. 안후이성의 12·5계획과 산업정책

안후이성의 12차 5개년 계획은 총 12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주민 생활개선, 녹색산업 육성 등이 핵심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 안정성장, 경제 구조조정, 구역 통합발전, 주민 생활개선, 조화로운 사회 건설, 대외무역 및 외자유치 등이 6대 정책기조로 설정되었다.

안후이성의 12차 5개년 계획에 따른 산업육성 정책은 전략적 신흥산업, 기존 전통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표 2-15〉 안후이성 12차 5개년 계획 6대 정책기조

정책기조	주요 내용 및 목표
경제 안정 성장	- 2015년까지 GDP, 재정수입이 각각 2010년 대비 두 배로 확대 - 주요 경제지표 증가율이 중부 지역에서 수위 차지
경제 구조조정	- 산업별 비중이 9:53:38에 달하며 도시화율은 50% 초과 - R&D지출 비중이 전체 GDP에서 3%에 달함 - 하이테크산업 부가가치액이 규모 이상 공업의 35%에 도달 - 수렴 보급률이 29%에 달하며 생태환경의 뚜렷한 개선 추진
구역 통합발전	- 허페이 경제권을 핵심으로 남부지역과 서부지역의 녹색경제 적극 육성
주민생활 개선	- 2015년까지 도시주민 소득이 2010년 대비 배로 증가 - 주민소득 격차 최소화
조화로운 사회 건설	- 공공서비스 체계 꾸준히 개선, 시민의 문화교육 수준 향상 - 사회치안과 안전생산을 강화해 2015년까지 공업 및 광업 종사자 10만 명당 생산사고 사망률을 1.3% 이내 유지
대외무역 및 외자유치	- 2015년까지 외자유치 누계 300억 달러 초과 - 2015년 대외무역 390억 달러

자료 : 安徽省人民政府, “安徽省十二五规划纲要”, 2012.

### (1) 전통 제조업의 고도화

기존 전통 제조업은 우위산업과 전통산업으로 구분된다. 우위산업에는 자동차, 기계(장비제조), 가전, 식품 등이 포함되며 향후 규모화, 집중화, 브랜드화 발전을 통해 전국의 중요 선전 제조업 기지로 거듭날 계획이다. 전통 제조업은 방직의류, 금속, 전자재, 화공 등에 초점을 두고 합리적인 자원 배분, 에너지 절감, 기술력 향상 등을 통해 특색 있는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할 계획이다. 대기업을 핵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이며, 중앙기업과의 합자 및 합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생산액 1천억 위안 이상의 대기업을 대거 육성할 방침이다. 중점산업과 기업의 전자상거래를 적극 추진하고 안정적인 마케팅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며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시장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 (2) 전략적 신흥산업

안후이성은 전략적 신흥산업을 12차 5개년 계획 기간의 핵심 사업으로 꼽으며 주요 기업 → 중요 프로젝트 → 산업체인 → 산업단지 등 순서로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2015년 전략적 신흥산업 생산액은 1조 위안을 넘도록 할 계획이다. 전략적 신흥산업에는 전자정보,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산업, 신에너지,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공공안전산업 등 8대 산업이 포함된다.

## (3) 서비스업

서비스업은 생산성 서비스업, 생활성 서비스업, 신흥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된다. 생산성 서비스업에는 물류,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과학기술과 정보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안후이성은 고효율성 현대물류체계를 수립해 허페이, 우후, 마안산 등을 전국 중요 물류기지로 건설할 것이며 종합물류센터, 전문 물류센터와 배송센터 등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생활성 서비스업에는 유통서비스, 관광업, 부동산, 주택단지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그중 관광업은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신흥산업을 제외한 주요 육성산업 중 하나이며, 향후 5년간 3,000억 위안 이상의 자금을 투자할 예정이다. 2015년까지 투자액 5억 위안 이상의 관광 프로젝트는 200건 이상에 달할 것이며 2015년 관광수입 총액은 3,000억 위안 이상으로 안후이성 총 GDP의 12%를 초과한다는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

## 3. 장시성의 12·5계획과 산업정책

장시성의 12차 5개년 계획은 12편의 주요 실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발전, 위상제고(進位赶超), 녹색굴기(綠色崛起) 등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 안정 성장, 경제 구조조정, 개혁개방, 사회보장 및 주민생활 개선,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 등 5대 정책기조를 설정하였다. 장시성의 12차 5개년 계획에 의한 산업 육성 정책은 크게 산업 클러스

〈표 2-16〉 장시성 12차 5개년 계획 5대 정책기조

정책기조	주요 내용
경제 안정 성장	- 주요 경제지수 상승 달성 - GDP 연평균 11% 이상 성장, 1인당 GDP 6,000달러 달성 - 고정 자산 투자 연평균 20% 이상 증가, 소비품 소매총액 연평균 16% 증가 - 수출총액 연평균 15% 증가
경제 구조조정	- 차기 발전 지역의 확실한 지위 변화 - 도농 간 발전협약 증대, 과학기술과 경제성장의 협력 강화 - 도시화율 52.8% 도달
개혁개방	- 다방면, 다영역, 다차원적 개혁개선 및 개방형 경제의 경제개발 공헌도 증가
사회보장 및 주민생활 개선	- 저소득층 수입 및 중산층 비중 증가, 빈곤 인구 감소, 소득 격차 확대 억제 - 민주주의 법률제도 강화, 사회 문화발전, 사회 관리제도 개선, 사회 화합의 안정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	- 이산화탄소 및 주요 오염물 배출량 조정 목표 내 유지 - 포양호(鄱阳湖) 생태 경제구역 건설의 실현단계 목표 달성

자료: 江西省人民政府, “江西省十二五规划纲要”, 2011.

터의 발전 촉진, 전통산업(제조업)의 고급화,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 그리고 현대 서비스업 촉진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1) 산업클러스터의 발전 촉진

장시성은 주요 생산요소를 선두기업, 주도산업, 산업단지로 결집하여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우수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장시성의 산업지구는 크게 북부, 서부, 남부, 동북부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지구별로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 있다. 장시성은 각 지역별로 자원의 집약적 이용, 환경오염 감축, 시장 공간의 효율적 활용 등을 기할 수 있는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분업 연계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클러스터 내 용적률과 투자 집약도 및 주요 기업의 부지 규모를 증가시켜 산업단지의 집약적 경영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우월한 자원과 산업 토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어 100억 위안 이상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성급 산업기지들을 추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표 2-17〉 장시성의 주요 산업지구

산업지구	도시	주력 산업
북부	난창(南昌), 주장(九江), 징더전(景德镇)	자동차, 항공기, 태양광, 가전, 화학공업, 도기, 건설자재, 전자정보, 식품가공, 의류, 신약 등
서부	신위(新余), 이춘(宜春), 핑샹(萍乡)	야금, 태양광, 리튬전지, 의약, 도기, 의류, 기계전기, 식품가공 등
남부	간저우(赣州), 지안(吉安), 푸저우(抚州)	희소금속, 전자정보, 통신, 제약, 식품가공, 의류, 신에너지, 화학공업건축자재 등
동북부	상라오(上饶), 잉탄(鹰潭)	구리가공, 태양광, 건축자재, 식품, 중의약, 광학, 정밀기계 등

자료: 장시성 정부.

## (2) 전통 제조업의 고급화

기존의 주력산업인 전통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고급화된 선진기술과 현대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을 통해 기술 설비 수준을 향상시켜 시장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기술수준 향상 측면에서는 정보기술의 접목, 연구개발센터 확충, 지적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장시성은 효율적 기업조직 구조를 갖추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계열사 확장, 적극적 마케팅 실시, 합자·합작, 인수합병, 구조조정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의 발전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신용 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을 우수한 특화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장려하고 기업 간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 (3)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

장시성은 향후 경제성장을 주도할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전면적인 산업구조 고도화 계획을 세우고 핵심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며, 계열사 확장 등 관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중견산

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주요 육성 대상 산업은 태양광, 유기 실리콘, 신에너지 자동차, 항공산업, 바이오산업, 전자정보산업 등이다.

#### (4) 현대 서비스업

장시성은 아직 소득수준 및 도시화 수준이 낮아 서비스업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장시성은 향후 현대적 서비스업을 중점 육성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관광산업과 생산 서비스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생활 서비스업의 개선과 새로운 산업영역의 개발을 통하여 현대 서비스업의 규모를 확장시킬 계획이다.

관광산업에 대해 장시성은 “붉은 요람, 푸른 정원, 휴양 관광 레저 리조트”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자원과 여행 요소들을 총괄하는 문화 및 레저 산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간베이(贛北) 포양호 생태 관광지구, 간중(贛中) 난홍 색채 관광권, 간시(贛西) 녹색 관광권 등을 구축하고 다양한 여행상품을 연구 개발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관광산업의 대외 개방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확보로 중국 내 장시성 관광산업의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생활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유통 서비스, 부동산 서비스, 공공 서비스의 고급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통업에서는 농촌 상업 인프라의 구축, 중소형 마트 및 체인점의 우선적 지원, 대형 식당과 전통 음식문화 등 특색 있는 음식산업의 육성 등이 주요 방침으로 설정되었다. 부동산의 경우 합리적 가격에 기초한 시장 발전을 위해 정부의 기본수요 공급과 민간 부동산 공급체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계획이다. 그 밖에 외주 서비스, 에너지 절약, 생활건강 서비스, 지리정보 서비스 등 신흥 서비스업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 제3장

# 대외경제 협력 현황과 한·중 산업협력

### 제1절 중부 3성의 수출입 구조와 무역정책

#### 1. 중부 3성의 수출입 추이 및 수출입 구조 분석

##### (1) 중부 3성의 수출입 추이와 무역수지

중부 3성의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장시성과 안후이성은 2005년 이후 지속적 상승세를 보인 반면, 석탄과 자원의 해외 수출이 주류를 이루는 산시성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주요 자원 가격이 하락하면서 회복을 거듭하고 있다.

중부 3성 중 수출 규모가 가장 큰 성은 안후이성이다. 2012년 안후이성은 206억 달러를 수출하여 중국 전체 수출의 1%를 차지하였다. 2001년 22억 달러를 수출하여 중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8%였음을 감안하면 지난 12년 동안 겨우 0.2%포인트가 증가하였을 따름이다. 2001년 중국 WTO 가입 이후 동부지역들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획기적인 수출 증가를 기록한 것과 달리 안후이성의 수출산업화는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동부지역들의 공장 이전을 계기로 2010년부터는 수출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그림 3-1>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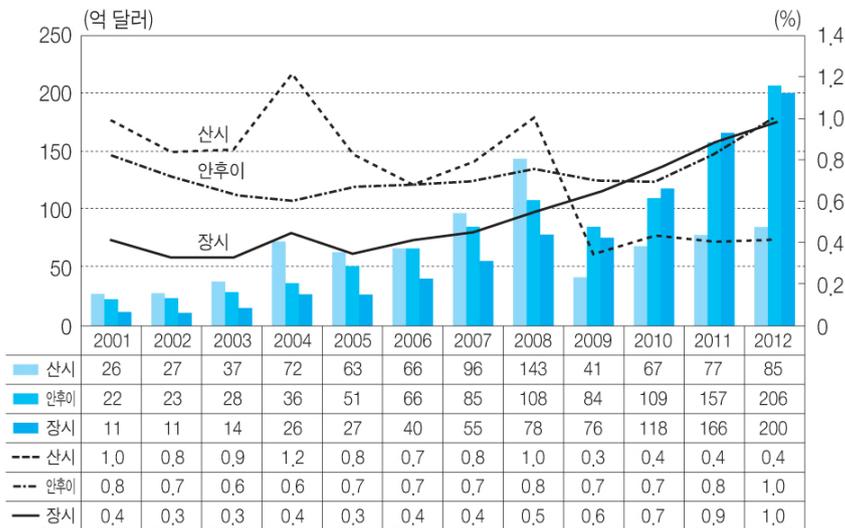
장시성은 중부 3성 중 가장 빠른 수출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다. 장시성은 2012년 200억 달러를 수출하여 중국 전체 수출의 1%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1년 수출액

이 11억 달러로 중국 전체 수출의 0.4%에 불과하였음을 감안하면 지난 12년간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장시성은 저장성과 푸젠성의 배후지로서 이들 지역의 수출산업화로 인한 지리적 이점이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산시성은 중부 3성 중 수출 성적이 가장 나쁜 곳이다. 2001년 26억 달러를 수출해 중부 3성 중 수위를 차지하였으나 2012년에는 수출액이 85억 달러에 그쳤다. 중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1년 1%에서 2012년에는 오히려 0.4%로 대폭 감소하였다. 산시성의 수출이 석탄 등 일부 품목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석탄 가격이 하락하면서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부 3성의 수입은 수출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다. 내륙에 위치한 중부 3성은 해외로부터 직접 수입하기보다는 동부 연안의 대형 수입상이나 유통상으로부터 물건을 공급 받고 있기 때문이다. 외자기업 및 동부지역 기업의 중부 지역 진출과 함께 중부 3성의 유통망을 장악한 것도 이들 지역의 직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부 지역 수입업체들은 수입허가와 외환관리, 자금 사정, 광고와 A/S, 외국 업체에 대한 정보 획득 등에서 동부 기업보다 조건이 열악하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림 3-1〉 중부 3성의 수출액 및 중국수출 내 비중 추이



자료 : KOT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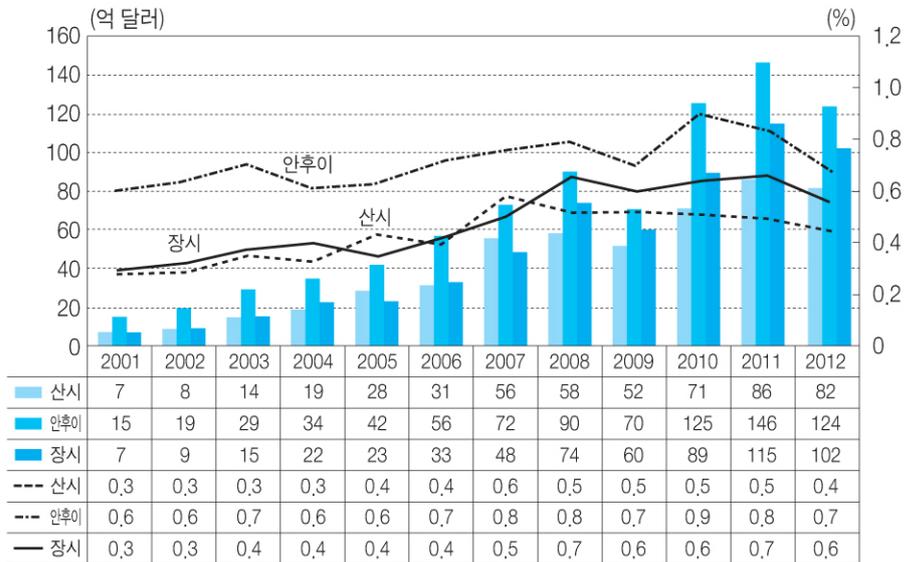
수입액 크기 순서는 안후이성, 장시성, 산시성 순이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부 3성의 수출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수입은 3성 모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안후이성은 2012년 124억 달러를 수입해 중국 전체 수입의 0.7%에 그쳤다. 안후이성이 전체 GDP의 3.9%, 인구의 4.4%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수입 규모는 크게 작은 편이다. 또한 중국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9년 0.9%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장시성은 2012년 102억 달러를 수입해 중국 전체 수입의 0.6%를 차지하였다. 장시성 역시 2008년 0.7%를 정점으로 중국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회복 또는 감소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공업화가 더딘 편인 산시성의 수입 규모는 중부 3성 중 가장 작다. 2012년 82억 달러를 수입해 중국 전체 수입의 0.4%에 불과하다. 산시성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2007년 0.6%를 정점으로 이후 수입 점유 비중이 계속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수출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입은 정체 상태를 보이면서 중부

〈그림 3-2〉 중부 3성의 수입액 및 중국 전체 수입 내 비중 추이



자료 : KOTIS.

〈표 3-1〉 중부 3성의 대외교역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

	2005			2010			2012		
	교역액	증가율	무역수지	교역액	증가율	무역수지	교역액	증가율	무역수지
산시성	91	1.0	35	139	39.7	-4	166	2.2	3
안후이성	93	32.5	9	234	34.5	-16	330	8.8	83
장시성	50	2.9	4	207	38.7	29	302	7.5	98

자료: KOTIS.

3성은 무역수지면에서 상당 규모의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그러나 각 성별로는 무역수지 변화 추이가 확연히 다르다. 2005년 산시성은 3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중부 3성 중 수위를 차지하였으나 2012년에는 3억 달러에 그쳐 꼴찌를 기록하였다. 장시성은 2005년 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금액이 중부 3성 중 가장 작았으나 2012년에는 98억 달러 흑자로 수위를 차지하였다. 산시성과 장시성의 위치가 완전 달라진 것이다. 안후이성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05년 9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83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수출에 있어 자원의존도가 강한 중부 3성은 2008년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아 2010년 무역수지가 적자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모두 흑자로 전환되었다.

## (2) 중부 3성의 산업별 수출입 구조<sup>4)</sup>

### 1) 산업별 수출구조

#### □ 산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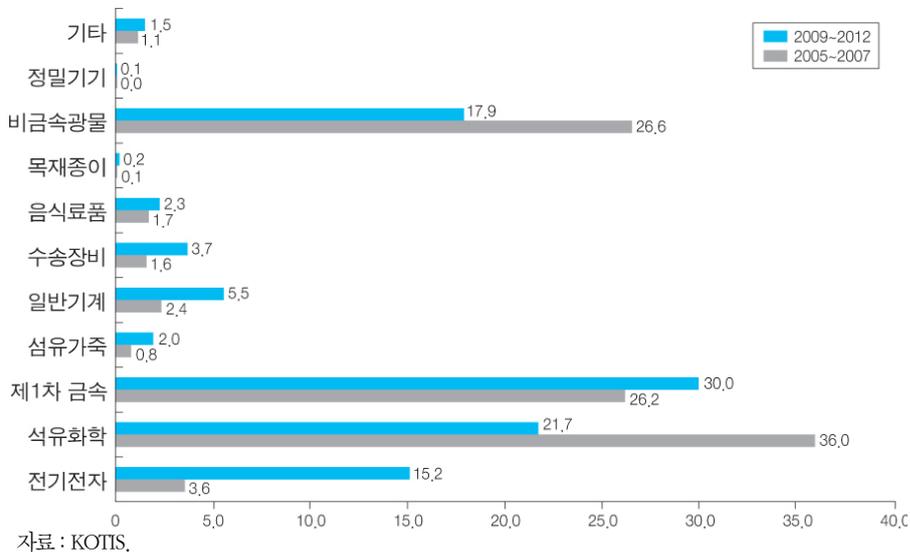
금융위기 이후(2009~2012년) 산시성의 제조업 수출구조를 살펴보면, 제1차 금속이 전체의 30%를 차지해 1위를 기록하였으며, 2위는 석유화학(21.7%), 3위는 비금속광물(17.9%)로 상위 3개 산업이 전체의 69.6%를 차지하여 자원성 제품의 수출 집중도가 매

4) 본 연구에서는 중부 3성의 수출입 구조를 산업별로 분류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제조업종별 중분류를 참고하여 전기전자, 일반기계, 정밀기기, 수송장비,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금속, 음식료품, 섬유가죽, 목재 종이, 기타(기타 제조업 및 비제조업 포함) 등 11개의 산업으로 재분류하였으며,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은 기타에 함께 포함하였다(부록 참조).

우 높다. 반면, 노동집약적 산업인 섬유가죽과 음식료품은 물론 기술집약적 제품인 수송장비와 일반기계, 정밀기기 등 조립가공용 제품의 수출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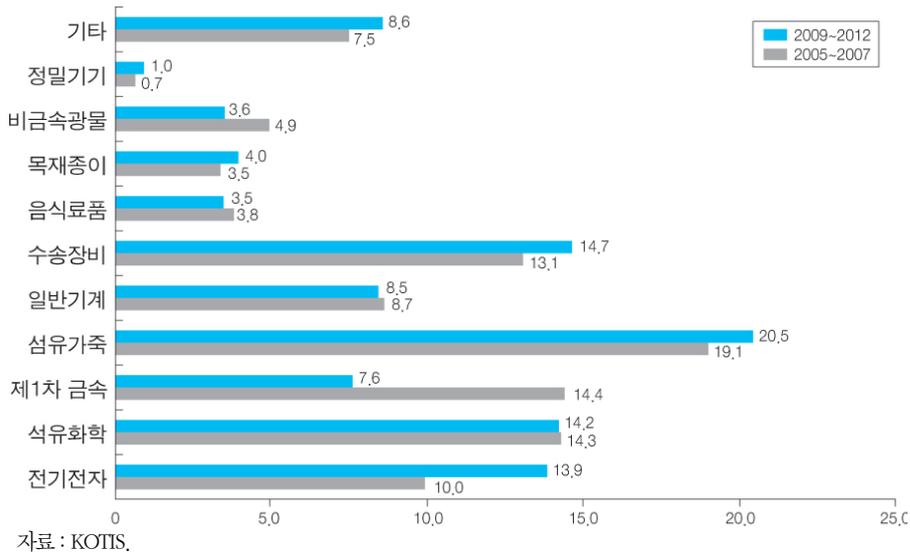
금융위기를 전후로 산시성의 수출구조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sup>5)</sup> 비중이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전기전자이다. 금융위기 전(2005~2007년)에는 수출 비중이 3.6%에 불과하였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15.2%로 비중이 무려 11.6%포인트 증가하였다. 제1차 금속과 일반기계의 수출 비중도 동 기간 각각 3.8%포인트, 3.2%포인트씩 늘어나 이들 산업에서 수출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석유화학은 금융위기를 계기로 14.2%포인트가 감소하였고, 비금속광물도 8.7%포인트가 감소하였다. 산시성의 수출구조가 자원 가공형에서 조립 가공형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 산시성의 산업별 수출구조



5)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시 중국의 수출이 전년대비 19.1%가 감소하여 통계상 상당한 왜곡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부 3성의 수출입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 2008년 통계를 제외하고 2005년부터 2007년 통계를 금융위기 이전 통계로, 2009~2012년을 금융위기 이후 통계로 각각 활용하였다.

〈그림 3-4〉 안후이성의 산업별 수출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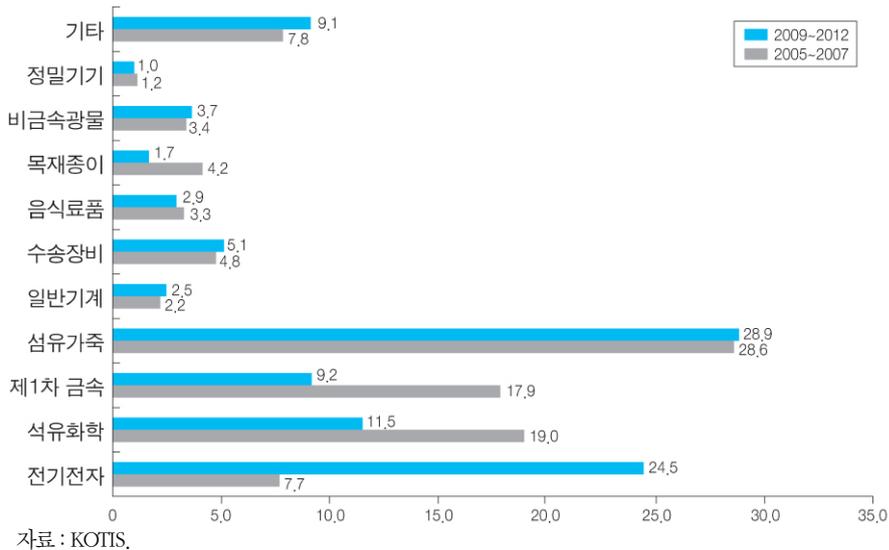
□ 안후이성

소수 산업에 심한 편중 현상을 보였던 산시성과 달리 안후이성의 수출구조는 비교적 균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9~2012년간 섬유가죽이 전체 수출의 20.5%를 차지해 1위를 기록하였다. 2위는 수송장비(14.7%), 3위는 석유화학(14.2%)이 차지하였다. 상위 3개 품목의 집중도는 49.4%로 산시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 장시성

장시성도 산시성과 유사하게 상위 3개 산업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다. 1위는 섬유가죽으로 전체 수출의 28.9%를 차지하였다. 2위는 전기전자(24.5%), 3위는 석유화학(11.5%)이 차지하였다. 상위 3개 산업의 수출 집중도는 64.9%를 기록하고 있다. 상위 3개 산업의 수출 집중도는 산시성이 가장 높고, 다음은 장시성, 안후이성 순이다. 산시성이 자원성 제품의 수출 비중이 높은 것과 달리 장시성은 자원성 제품의 수출 비중이 낮다. 또한 정밀기기(1.0%), 일반기계(2.5%) 등 기술집약적 제품의 수출 비중도 낮은 편이다. 음식료품도 2.9%에 그쳐 장시성이 농업 대성임을 감안하면, 음식료품의 수출산업화가 더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5〉 장시성의 산업별 수출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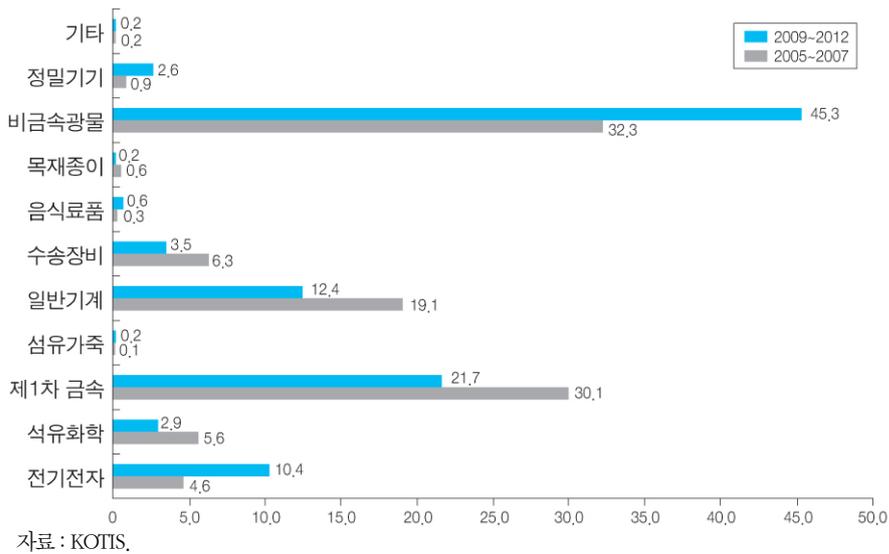
금융위기를 전후로 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안후이성과 유사하게 전기전자의 수출 비중이 16.7%포인트 높아져 동 산업에서 수출산업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후이성과 마찬가지로 제1차 금속의 수출 비중은 8.7%포인트가 낮아졌고, 목재종이도 2.5%포인트 감소하여 자원성 제품의 수출비중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최근 장시성의 수출구조가 전기전자와 섬유가죽 등 조립 가공형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산업별 수입구조

### □ 산시성

금융위기 이후(2009~2012년) 산시성의 제조업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비금속광물이 45.3%를 차지해 1위를 기록하였으며, 2위는 제1차 금속(21.7%), 3위는 일반기계(12.4%)가 차지하였다. 상위 3개 산업의 수입 집중도는 79.4%로 수출 집중도 69.6%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구조는 산시성의 제조업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때 산시성 GDP의 80%를 석탄이 차지할 정도로 석탄의존도가 높은 산시성 경제는 석탄을 활

〈그림 3-6〉 산시성의 산업별 수입구조



용한 산업이 크게 발전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광물산업과 장비제조업이 발달하였으며 이들 산업의 수입 수요가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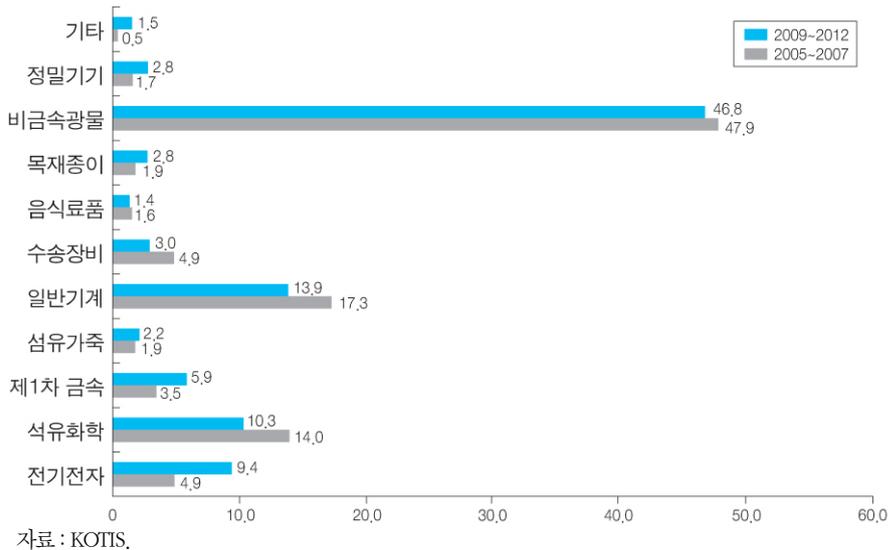
반면 일반 소비재산업과 관련이 깊은 전기전자(10.4%), 섬유가죽(0.2%), 음식료품(0.6%), 정밀기기(2.6%) 등은 수입 비중이 매우 낮아 산시성에서 이들 조립 가공형 소비재산업의 발전이 더딤을 엿보게 한다.

금융위기를 전후로 산시성의 수입구조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비중이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비금속광물로 무려 13%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전기전자 역시 5.8%포인트가 늘어나 전기전자산업도 비교적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 기간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일반기계이다. 석탄가격 하락으로 경영 환경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1차 금속이 8.4%포인트의 감소를 보였고, 석유화학과 수송장비도 2.8%포인트씩 감소하였다.

#### □ 안후이성

비교적 산업간 균형 상태를 보였던 수출구조와 달리 안후이성의 수입구조는 비금속광물 중심으로 편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9~2012년간 비금속광물이 46.8%를 차지

〈그림 3-7〉 안후이성의 산업별 수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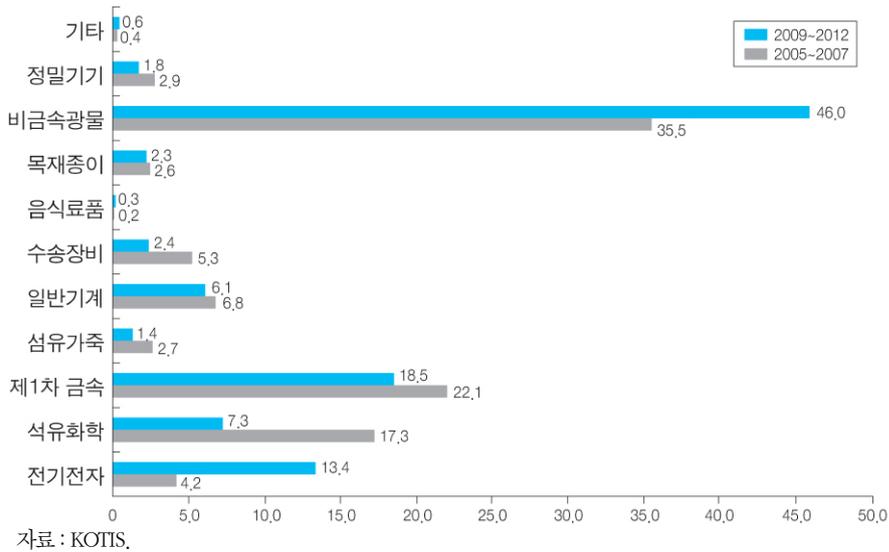
해 거의 과반수의 수입을 점하고 있다. 중국의 광물자원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2위는 일반기계(13.9%), 3위는 석유화학(10.3%)이 차지하였다. 다른 중부 3성과 마찬가지로 섬유가죽, 음식료품, 정밀기기에 대한 수입 비중은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금융위기를 전후로 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기전자가 4.5%포인트의 증가를 보여 최근 전기전자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이와 관련된 수입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1차 금속도 2.4%포인트의 비교적 큰 폭의 신장세를 보였다. 반면, 석유화학(-3.7%포인트), 일반기계(-3.4%포인트) 등은 수입 비중이 대폭 감소하였다.

#### □ 장시성

장시성의 수입구조 역시 안후이성과 마찬가지로 소수 산업에 집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9~2012년간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광물성 자원인 비금속광물의 수입 비중이 46%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위는 제1차 금속으로 18.5%, 3위는 전기전자로 13.4%를 차지해 이들 3개 산업이 전체의 77.9%를 차지하였다. 반면, 섬유가죽(1.4%), 음식료품(0.3%), 정밀기기(1.8%), 수송장비(2.4%) 등은 관련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였거나, 수출

〈그림 3-8〉 장시성의 산업별 수입구조



산업화가 미진해 수입 수요가 낮은 편이다.

금융위기를 전후로 장시성의 수입구조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수입구조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였던 산시성과는 달리 안후이성과 유사하게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중이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전기전자로 4.5%포인트가 늘어났다. 제1차 금속도 2.4%포인트가 증가해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동 기간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석유화학으로 3.7%포인트가 감소하였다. 기업들의 투자 감소로 일반기계의 수입 비중도 3.4%포인트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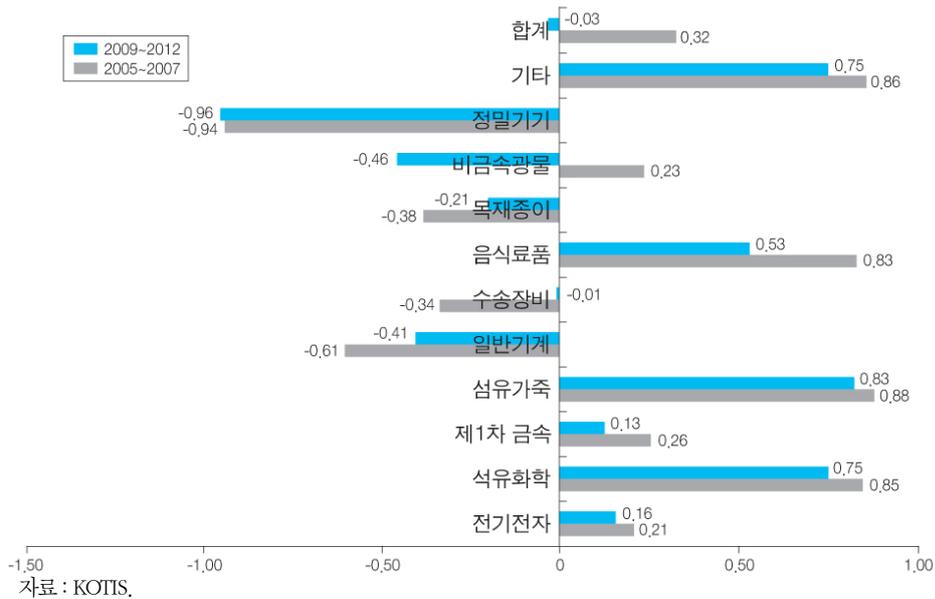
### 3)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 □ 산시성

무역특화지수<sup>6)</sup>의 개념을 활용해 산시성의 산업별 수출입 특화 정도를 살펴보면, 2009~2012년간 가장 수출에 특화해 있는 산업은 섬유가죽(0.83)이다. 다음으로 석유화학

6) 무역특화지수((수출-수입)/(수출+수입))는 +1과 -1의 범위에 있으며, 무역특화지수가 0보다 크면 수출에 특화해 있음을 의미하며, 0보다 작으면 수입에 특화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9〉 산시성 무역특화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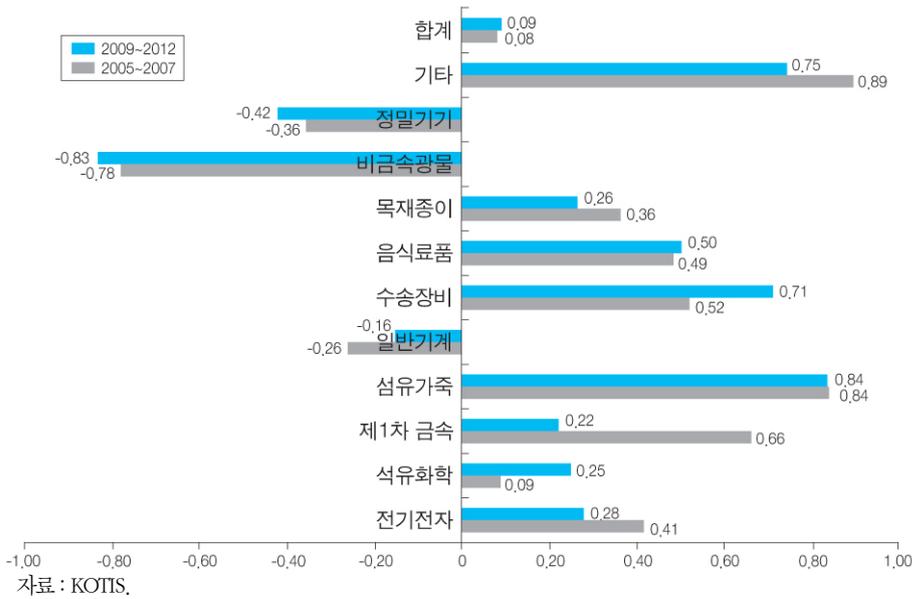
(0.75), 음식료품(0.53), 전기전자(0.16), 제1차 금속(0.13) 순이다. 정밀기기(-0.96)는 거의 수입에 특화해 있으며, 비금속광물(-0.46), 일반기계(-0.41)의 수입특화 정도도 높은 편이다.

금융위기를 전후로 산업별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수출특화 정도(또는 수입대체 정도)가 가장 크게 증가한 산업은 수송장비이다. 수송장비산업은 금융위기 전에 -0.34에서 -0.01로 증가해 수입 산업에서 벗어나 거의 수출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 일반기계도 무역특화지수가 0.2로 증가해 동 기간 수입대체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비금속광물은 금융위기 전 0.23에서 후에는 -0.46으로 변화해 동 산업이 수출산업에서 수입산업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음식료품의 무역특화지수도 동 기간 0.3이 감소해 수출특화 정도가 크게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 □ 안후이성

안후이성은 기타를 제외한 10개 산업 중 7개 산업은 수출에 특화해 있고, 정밀기기, 비금속광물, 일반기계 3개 산업은 수입에 특화해 있다. 수출특화 정도가 가장 높은 산업

〈그림 3-10〉 안후이성 무역특화지수



은 섬유가죽산업으로 무역특화지수가 0.84를 기록하고 있다. 수송장비(0.71)와 음식료품(0.50)의 수출특화 정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전기전자의 무역특화지수도 0.28로 수출특화를 보여준다.

금융위기를 전후로 산업별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수출특화 정도가 가장 크게 증가한 산업은 산시성과 같이 수송장비이다. 수송장비산업은 금융위기 전에 0.52에서 후에 0.71로 증가해 수출특화지수가 크게 높아졌다. 석유화학도 동 기간 무역특화지수가 0.25로 높아져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동 기간 제1차 금속의 무역특화지수는 0.66에서 0.22로 대폭 낮아져 수출경쟁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지역과 달리 안후이성의 전자산업 무역특화지수가 동 기간 0.41로 감소한 것도 주의를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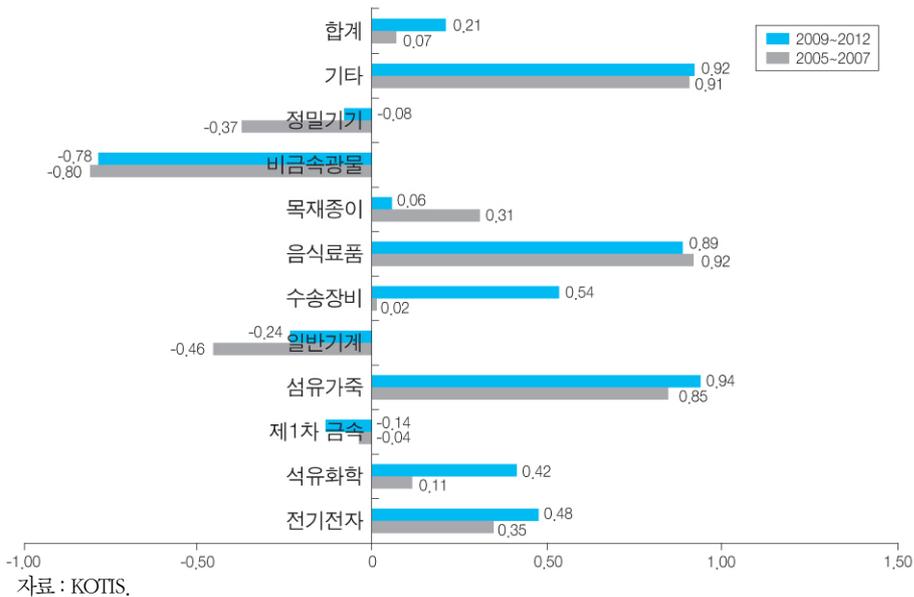
□ 장시성

장시성은 기타를 제외한 10개 산업 중 6개 산업은 수출에 특화해 있고, 정밀기기, 비금속광물, 일반기계, 제1차 금속의 4개 산업은 수입에 특화해 있다. 수출특화 정도가

가장 높은 산업은 섬유가죽산업으로 무역특화지수가 0.94를 기록하고 있다. 음식료품의 무역특화지수도 0.89를 기록해 수출특화 정도가 매우 높다. 수송장비(0.54)와 전기전자(0.48), 석유화학(0.42)도 수출특화 정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금융위기를 전후로 산업별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수출특화 정도가 가장 크게 증가한 산업은 수송장비로 무려 0.52가 증가하였다. 석유화학도 동 기간 무역특화지수가 0.3이 높아져 장시성에서 석유화학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기전자의 무역특화지수도 0.12 증가해 수출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정밀기기와 일반기계는 무역특화지수가 각각 0.29와 0.22씩 상승해 비록 수입에 특화해 있지만, 수입대체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목재종이는 무역특화지수가 0.25 감소하여 수출산업화 정도가 크게 낮아졌으며, 제1차 금속도 무역특화지수가 0.10 감소하여 수입 산업으로 특화 정도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그림 3-11〉 장시성 무역특화지수



## 2. 중부 3성의 대외무역정책

### (1) 산시성

산시성의 대외무역정책은 대외개방 수준 제고를 위해 국내외 기업 유치 활동 강화, 신흥시장 개척, 각종 산업단지 발전을 통한 연해지역 산업이전을 추진하고 아울러 새로운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대외무역의 규모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의 대외무역정책은 산시성 정부가 2012년 10월에 발표한 「산시성 대외무역 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에 잘 나타나 있는데, 크게 대외무역 규모의 확대, 대외무역 발전방식의 전환, 대외무역 서비스 개선 등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산시성은 수출상품의 다원화 및 고도화, 산업클러스터 육성, 물류 산업 발전 등을 통해 새로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대외무역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한다. 먼저 석탄 자원이

〈표 3-2〉 산시성 주요 대외무역정책

	주요 정책
새로운 경쟁우위 확보를 통한 대외무역 규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흥산업 발전을 바탕으로 수출상품 다양화</li> <li>· 수출산업 클러스터 발전</li> <li>· 생산요소 비용우위를 바탕으로 한 수출상품 업그레이드</li> <li>· 물류업 발전을 바탕으로 대외무역 통합 발전 추진</li> <li>· 대외무역 업그레이드 시범기지 육성</li> </ul>
대외무역 발전방식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탄화학 제품, 전기·기계제품, 바이오 의약 및 중의약, 농·특산물 등의 수출 확대</li> <li>· 중소기업, 민영기업 등 새로운 수출입 주체 육성</li> <li>· 연해지역 산업 이전 추진, 가공무역 발전</li> <li>· EU, 미국, 한국, 일본 등 기존 수출시장 외에 아프리카, 아세안, 중동 등 신흥시장 개척</li> </ul>
대외무역 서비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전시회 개최, 지식재산권 분야의 교류 및 협력 확대</li> <li>· 전자상거래 교역 규모 확대</li> <li>· 도소매 통합 해외 영업 네트워크 구축</li> <li>· 산시성 전자항만(电子口岸, E-port) 활용, E-CIQ 시스템 구축 등 통관서비스 개선</li> <li>· 국내의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자녀교육 지원, 거주지 및 연구실 제공 등 편리 제공</li> </ul>

자료: 산시성 각 정부 사이트 및 「山西省外贸发展“十二五”规划(2012)」, 「山西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2012)」 정리.

풍부한 산시성은 기존의 석탄 심가공 산업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화된 석탄화학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관련 제품의 수출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LED 조명, 태양광 발전 등 에너지 절감, 친환경 관련 설비 및 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신소재 산업, 장비제조업, 부품 조립 산업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 대외 무역에 있어 신경쟁우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산시성은 노동력과 자원에 있어 원가 우위가 있으므로 종합보세구를 매개로 동부 연해지역의 노동집약형 산업을 이전하고자 하는데, 특히 폭스콘(富士康)의 생산라인 이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외에도 현재 산시성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급 개발구와 성급 개발구에 첨단 제조업 등 국제적인 산업을 유치하고, 석탄화학, 장비제조, 신소재, 야금 등 분야의 수출 선두기업을 입주시킴으로써 수출 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자 한다. 한편으로 편양(汾陽)시의 바이지우(白酒), 칭취(清徐)현의 식초, 위츠(榆次)의 의약품 등 지역 특산품의 산업클러스터 역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외무역 발전을 위해서는 물류업의 발전이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타이위안(太原)지역 화물운송센터를 비롯, 종합보세구와 보세물

류센터의 건설을 추진하고 제3자 물류 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한편 산시성은 다양한 수출입 주체를 육성하고 가공무역의 비중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중소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재정 지원을 장려하고 각종 산업클러스터 내에 중소 무역기업 인큐베이터센터 설립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타이위안우쭈(太原武宿)종합보세구, 호우마(侯馬)보세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활발한 가공무역 기업을 유치하여 12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성 내 전체 수출입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위와 같이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산시성은 2011년 정식 개통된 산시 전자항만(電子口岸, E-port)의 적극 활용, 전자검역(E-CIQ) 도입 지원 등 대외무역의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타이위안 공항이 중심 역할을, 윈청(運城), 창즈(長治), 다통(大同) 공항이 보조적 역할을 하는 항공 세관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통관 효율 및 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산시성은 12·5 기간 동안 수출입 총액 연 13% 성장, 성 전체 수출에서 기계·전자업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40% 이상 수준으로 제고, 첨단 기술 제품의 수출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2) 안후이성

안후이성은 장강삼각주 지역에서 경제 발전이 비교적 뒤쳐진 지역으로 대외무역 규모 역시 크지 않아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대외무역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무역구조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안후이성의 최근 대외무역정책은 안후이성이 2012년 10월에 발표한 「안후이성 제12차 5개년 계획 상무발전계획요강」에 잘 나타나 있는데, 대외무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무역과 가공무역을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안후이성 각 지역의 조화로운 대외무역 발전을 추진하고자 한다. 허페이(合肥) 경제권은 자동차, 장비제조, 신소재, 전자정보, 가전, 현대서비스업 등 분야에 있어 대

형 프로젝트를 유치하여 안후이성 대외 경제의 교두보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완장(皖江)도시벨트의 경우 비철금속 제련, 철강, 기계, 화학공업, 자동차 부품, 선박용 설비가공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동부 연해지역의 산업 이전을 추진하고 수출 기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완베이(皖北) 지역은 에너지 자원 가공, 석탄화학공업, 바이오 제약, 농산품, 섬유 의류 산업을, 완난(皖南)지역은 관광업, 전시 컨벤션, 레저, 문화 등 서비스 무역을 각각 발전시켜 지역적 특성에 맞는 대외무역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대외무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 무역기업 및 중소 민영무역기업 육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적인 브랜드를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핵심 산업과 주요 기업의 해외 상표등록, 특허등록, 국제품질표준 인증획득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해외 마케팅 기반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5년까지 국가급 유명브랜드 5개, 성급 유명브랜드 150개를 육성하고 안후이성 전체 수출에서 토종 브랜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28%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표 3-3〉 안후이성 주요 대외무역정책

	주요 정책
전방위적인 대외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페이(合肥)경제권, 완장(皖江)도시벨트, 완베이(皖北) 및 완난(皖南) 지역의 대외무역 균형 발전 추진</li> <li>· 지역 통관 및 수출입 제품 품질 안전 검사 시스템 개선</li> <li>· 2015년 말 기준, 항구 수출입 화물 운송량 3,200만 톤 이상, 국제 컨테이너 운송량 30만 TEU 달성 목표</li> <li>· 장강 삼각주 지역의 이점 활용, 대형 외자기업과의 협력 강화, 연해지역 가공무역산업 이전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li> <li>· 구미, 일본, 홍콩 등 전통 시장을 지속 확보하는 한편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남미, 동유럽 등 신흥시장 개척 적극 지원</li> </ul>
대외무역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력이 강한 대형 무역기업 육성, 2015년까지 무역액 10억 달러 초과 기업 6개, 1억 달러 초과 기업 70개, 1,000만 달러 초과 기업 350개 육성</li> <li>· 2015년까지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 비중 60% 이상 달성</li> <li>· 매년 1,200여 개의 기업이 300여 차례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li> <li>· 국제 유명브랜드 수립</li> <li>· 수출입제품 구조 고도화 및 수출기지 건설</li> </ul>
서비스 무역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무역 10개 중점 분야 발전: 컴퓨터 정보, 문화, 기술, 교육 및 중의약, 건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및 엔지니어링, 관광, 교통운수, 금융, 전시컨벤션, 유통</li> <li>· 특색 있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 무역 기업/기지 육성</li> <li>· 2015년까지 해외 서비스 외주 집행금액 5억 달러 이상 달성</li> </ul>
가공무역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후이성 특색의 가공무역 클러스터 형성</li> <li>· 우후(芜湖)수출가공구의 가공무역 및 보세물류업무 규모 확대</li> <li>· 허페이수출가공구 건설 완료</li> </ul>

자료: 안후이성 각 정부 사이트 및 「安徽省“十二五”商务发展规划纲要(2012)」 정리.

한편 자동차, 부품, 가전, 선박, IT, 기계 등 제품의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12·5 기간 동안 전자·기계제품 수출액 160억 달러, 연평균 성장률 28%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첨단 기술 제품의 수출을 장려하고 수출 제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LCD 모니터, LED 등 첨단 기술 제품의 수출액을 2015년까지 60억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과일, 중약재, 차잎 등의 농산물과 섬유 제품 등 전통 수출품의 수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수입에 있어서는 안후이성의 8대 전략적 신흥산업인 전자정보,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첨단설비제조, 신소재, 바이오, 공공안전, 신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업종과 관련한 기술설비 수입을 확대하여 2015년까지 수입 규모를 200억 달러로 늘릴 것이다.

안후이성은 서비스 무역 발전을 위한 정책 목표도 제시하였는데, 특히 10개 중점 분야를 선정하여 서비스 효율과 부가가치 제고에 주력하고자 한다. 10개 분야는 컴퓨터 정보, 문화, 기술, 교육 및 중의약, 건축 및 엔지니어링, 관광, 교통운수, 금융, 전시컨벤션, 유통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우후(芜湖) 및 마안산(馬鞍山) 등 지역에 서비스 외주 시범 단지 건설, 출판, 엔터테인먼트, 애니메이션 및 게임, 영상 등 업종의 발전 추진, 종합 물류 서비스 제공, 완장 도시벨트를 시범구로 금융, 보험, 증권 분야의 대외개방의 가속화 추진 등이 있다

대외무역 발전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15년 안후이성 화물무역액은 430억 달러를 돌파해 12·5 기간 동안 규모가 2배 증가하고 같은 기간 누적 무역액은 1,700억 달러, 서비스 무역액은 6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3) 장시성

장시성은 중국 중앙정부의 대외무역 정책기조에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에 발표한 「장시성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의 제12차 5개년 계획에 대한 건의」와 2012년 10월에 발표한 「장시성 제12차 5개년 상무발전계획요강」에 대외무역정책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수출입 규모 확대, 대외무역 발전 방식 전환, 대외무역 구조조정, 화물무역과 서비스 무역의 균형 발전, 일반무역과 가공무역의 균형 발전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장시성은 수출시장을 다원화하고 수출입 상품의 고도화를 통해 대외무역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기존의 EU, 미국 등 시장 외에도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을 대상으로 기업들이 각 시장 특성에 맞는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 집약형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전기기계와 첨단기술 분야의 수출을 늘리고 전통 수출업종인 섬유류, 신발, 가방, 가구, 생활용품 등의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주요 설비, 부품, 친환경 제품의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의 효과를 얻고자 하고 있다.

〈표 3-4〉 장시성 주요 대외무역정책

	주요 정책
수출시장 다원화 및 수출상품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미, 아시아 등 전통시장 외에 남미, 아세안, 중동 등 신흥시장 개척</li> <li>· 국내외 상품 전시판매회, 상품 설명회 등 행사에 매년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li> <li>· 자동차, 선박, 전자정보, 태양광발전 등 고부가가치 및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 확대</li> </ul>
선두기업 및 수출산업기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영기업 및 국유기업의 수출 경영 주체 규모 확대, 수출형 외자기업 유치, 기업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li> <li>· 포양호생태경제구(鄱阳湖生态经济区)를 중심으로 수출산업기지 건설 및 전략적 수출 촉진</li> <li>· 주력 수출산업을 활용한 주력 브랜드 확보</li> </ul>
서비스무역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서비스 외주 산업 확대</li> <li>· 문화, 건축, 관광, 중의약 등 비교우위가 있는 업종의 수출 확대</li> <li>· 기업의 기술 도입, 혁신, R&amp;D 지원</li> </ul>
대외무역 서비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시성 상무청, 발개위(发改委), 해관, 출입국관리국 등이 참여하는 “100인 서비스 단체(百人服务团)” 조직</li> <li>· 철도, 해운, 항공 등 다양한 물류 네트워크 발전 추진</li> </ul>

· 전자항만(电子口岸, E-port) 구축

자료: 장시성 각 정부 사이트 및 「江西省商务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2012)」 정리.

뿐만 아니라 장시성은 주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수출 선두기업을 육성할 것이다. 산업 경쟁력을 갖춘 클러스터를 발전시키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인지도 있는 성급 수출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서비스 무역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 외주 기지를 중심으로 국제 서비스 외주 업무를 확대하고 문화 산업의 수출을 적극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축, 관광, 중의약 등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의 서비스 수출을 장려하고 기업들이 기술도입과 혁신을 통해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다른 성과 마찬가지로 장시성 역시 연해지역에 위치한 가공무역 기업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단순히 생산만을 하는 기존의 가공무역 방식에서 R&D, 생산, 보관, 운송 등을 함께 추진하는 가공무역을 발전시켜 성 내 가공무역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외무역 환경 개선을 위해 “100인 서비스 단체(百人服務團)”를 조직하고 주요 수출 기업 및 수출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100인 서비스 단체는 각 산업 및 기업의 수출에 있어 통관 문제, 물류비용 절감 문제 등 각종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시성 상무청장이 단체장을 맡고 성 상무청, 발개위(發改委), 공업정보화위원회(工業和信息化委員會), 재무청, 국세 및 지방세국, 해관, 출입국관리국, 외환관리국 등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물류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주장(九江) 수운항과 난창(南昌) 공항의 기능 및 규모를 확대시키고 주장(九江)항과 난창창베이(南昌昌北) 공항의 항공화물운송 허브센터건설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난창에서 상하이, 선전(深圳), 샤먼(廈門), 닝보(宁波)에 이르는 철도-해운 연계운송(鐵海聯運)과 간저우(贛州) 및 지안(吉安)에서와 마찬가지로 선전과 샤먼에 이르는 철도-해운 연계운송 통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샤먼에 이르는 연계운송 노선이 국가급 ‘오정반열(五定班列)’<sup>7)</sup> 노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7) 오정반열(五定班列): 장소, 노선, 열차번호, 시간, 가격이 정해져 있는 고속 화물 운송 열차(快運貨物列車).

장시성은 위와 같은 대외무역 정책을 통해 12·5 기간 동안 무역액을 연평균 20%씩 증가시켜 2015년에는 전체 무역액이 530억 달러에 이르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2015년 전기기계 업종의 수출액이 145억 달러로 장시성 전체 수출의 45%에 달하고, 첨단 기술 제품의 수출액은 10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30%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며 2015년 장시성의 대외무역 의존도가 18%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 (4) 중부 3성 비교

산시, 안후이, 장시성은 허난, 후베이, 후난성과 마찬가지로 모두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제12차 5개년 계획 대외무역정책 기조에 따라 대외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각 성의 상황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별로 '대외무역 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제12차 5개년 상무발전 계획' 등을 별도로 발표하고 대외무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부 3성의 주요 대외무역정책은 크게 대외무역 발전방식의 전환, 수출기업 및 산업기지 육성, 서비스 무역 및 가공무역의 발전, 통관 및 물류 등 대외무역 인프라 강화 등의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대외무역 발전방식의 경우 3개 성 모두 구미, 일본, 홍콩 등 전통 시장 외에도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을 개척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대외무역의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3개 성 모두 내륙지역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통관 효율을 제고하고 보세구, 물류센터 등 물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산시성의 경우 2011년 정식으로 개통된 전자항만(電子口岸, E-port)을 적극 활용하고, 검역 시 '신고, 출입국관리, 허가' 등의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E-CIQ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통관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IT 기술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장시성은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상무청을 중심으로 대외무역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모여 '100인 서비스 단체'를 조직·운영한다는 내용이 주목을 끈다.

한편, 3개 성 모두 가공무역과 서비스 무역을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

되어 있는데 동부 연안지역의 가공무역 기업을 유치하여 수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조업뿐 아니라 문화, 관광 등 서비스업을 적극 발전시켜 대외무역의 규모를 한층 더 확대하고자 하며 특히 장시성의 경우 컴퓨터 정보, 교육 및 중의약, 금융, 전시 컨벤션 등 10개 서비스 산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산시, 안후이, 장시성은 대외무역의 양과 질을 개선한다는 거시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각각 성 내 우위산업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산시성은 석탄 자원이 풍부하다는 강점을 활용해 석탄 심가공 산업과 석탄화학산업 관련 제품의 수출을 늘리고자 하며, 신홍 산업으로서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산업 관련 설비와 제품의 수출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안후이성의 경우 경제권을 나누어 허페이 경제권은 자동차와 장비제조 등의 산업을, 완장 도시벨트는 비철금속, 철강, 화학공업 등 전통 산업을, 완난 지역은 관광, 레저, 문화 등 서비스 무역을 특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시성은 전통적인 수출 업종인 섬유류, 신발, 생활용품 외에도 부가가치가 높은 전기기계와 첨단 기술 제품의 수출액을 늘리고자 하는데, 2015년까지 전기 기계업종과 첨단 기술 제품의 수출액이 장시성 전체 수출액의 75%를 차지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3-5〉 중부 3성의 무역정책 비교

주요 정책	산시성	안후이성	장시성
대외무역 발전방식 전환	전통·신흥 시장 개척, 수출상품 다원화, 수입상품 최적화	전통·신흥 시장 개척	전통·신흥 시장 개척, 수출입 상품 고도화
기업 및 수출산업 기지 육성	대형 수출 선두기업 육성, 특색 있는 산업클러스터 조성	대형 무역기업 육성, 수출기지 건설	선두기업 육성, 수출산업기지 건설
대외무역 서비스 제고 (통관 포함)	전자항만, E-CIQ 시스템 구축, 중소 무역기업에 대한 대출 장려	통관 및 수출입제품 품질안전검사 시스템 보완	성 정부 각 기관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수출기업 애로사항 해결, 전자항만 구축
서비스 무역 발전	서비스 외주 산업 발전	서비스무역 10대 중점분야 발전, 서비스 무역 기업 및 기지 육성	서비스 외주 산업 발전
가공무역 발전	가공무역 기업 유치	가공무역 클러스터 형성	연해지역 가공무역 기업 이전 추진

자료: 본 연구 정리.

## 제2절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투자유치 정책

### 1. 중부 3성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 및 구조

#### (1) 산시성

산시성에 대한 외국인투자 실적은 아직 미미한 편이다. 2012년 말 기준, 산시성에 등록된 외자기업 수는 3,623건, 투자 총액은 32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가 0.8%, 금액이 1.0%로 인구 비중치인 2.7%나 GDP 비중치인 2.3%에 크게 못 미친다.

연도별로도 투자건수와 금액의 부침이 심하다. 2011년 연간 투자건수는 62건으로 2000년 71건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다. 투자금액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부 지역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투자금액이 2000년 2억

〈표 3-6〉 산시성 외국인투자 규모

단위: 건, 백만 달러

	2000		2005		2010		2011	
	수치	증가율	수치	증가율	수치	증가율	수치	증가율
투자건수	71	-10.1	85	-5.6	52	-10.3	62	19.2
투자금액	225	-42.6	275	205.0	714	44.8	2,073	190.2

자료: 山西省統計年監(2012).

주: 투자금액은 실제이용외자액(实际利用外资額)임.

2,500만 달러에서 2012년에는 7억 1,4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20억 7,300만 달러로 다시 대폭 증가하였다.

산시성의 업종별 외국인투자 구조를 살펴보면, 광업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외국기업들이 산시성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개발함과 동시에 내수시장도 도모하기 때문이다. 반면,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2억 3,728만 달러에 그쳐 전체의 15.2%에 불과하다. 산시성의 지리적 불리함과 연관 산업의 부가가치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7〉 산시성 업종별 외국인투자(2011년)

단위: 건, 만 달러

	투자건수(A)	투자금액(B)	비중(A)	비중(B)
1차 산업	6	1,818	9.7	1.2
2차 산업	32	121,350	51.6	78.0
제조업	n.a.	23,728	n.a.	15.2
3차 산업	24	32,468	38.7	20.9
교통운수, 창고 및 우편업	3	23,680	4.8	15.2
도·소매업	11	3,243	17.7	2.1
숙박 및 요식업	1	2	1.6	0.0
부동산업	-	-92	0.0	-0.1

자료: 山西省統計年監.

주: 투자금액은 계약금액(合同金額) 기준임.

〈표 3-8〉 산시성 국가별 외국인투자(2011년)

단위: 만 달러, %

순위	국가(지역)	투자금액	비중
1	홍콩	82,499	39.8
2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24,249	11.7
3	한국	7,323	3.5
4	미국	4,463	2.2
5	싱가포르	3,342	1.6

자료: 山西省統計年監(2012).

서비스산업에서는 도·소매업에 대한 투자가 주류를 이룬다. 2011년 11건으로 전체 투자건수의 17.7%를 차지하였으나, 금액은 3,243만 달러에 불과해 전체 금액의 2.1%에 그쳤다. 건당 평균 투자금액이 300만 달러 정도에 불과해 유통업치고는 규모가 작은 편이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국계, 대만계 체인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산시성에 투자하고 있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홍콩이 1위로 8억 2,000만 달러를 투자해 전체의 39.8%를 차지한다. 2위는 조세회피지역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로 2억 4,000만 달러를 투자해 전체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는 중국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대만계 기업들이 홍콩과 더불어 주로 활용하는 조세회피지역 중 하나이다. 3위는 한국으로 7,323만 달러를 투자하여 전체의 3.5%를 차지하였다. 한국계 기업들은 석탄 개발과 함께 화력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주로 많이 하고 있다.

## (2) 안후이성

안후이성 역시 외국인투자 실적이 아직은 미미한 편이다. 2012년 말 기준, 안후이성에 등록된 외자기업 수는 4,466건, 투자 총액은 4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가 1.0%, 금액이 1.2%로 인구 비중치인 4.4%나 GDP 비중치인 3.3%에 크게 못 미친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부지역이 새롭게 주목 받으면서, 안후이성에 대한 투자금액은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금액이 2005년 6억 8,00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5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11년에는 66억 달러, 2012년에는 86

억 달러로 대폭 증가하여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매년 30% 전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연간 투자 건수는 매년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421건이었던 투자 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 2012년에는 194건으로 줄어들었다. 투자 금액은 대폭 증가한 반면 건수는 대폭 감소한 것은 건당 투자금액이 대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건당 평균 투자금액은 2005년 160만 달러에서 2012년 4,450만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다. 대만계 팍스콘 등 대형 전자조립업체들이 동부지역의 인건비 상승으로 대거 내륙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종별 외국인 투자구조에서 산시성이 광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안후이성은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1년 제조업에 대한 투자 건수는 151건으로 전체 투자의 57.4%를 차지하였고, 투자금액도 4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투자의 64.9%를 차지하였다.

제3차 산업에 대한 투자 건수는 85건으로 전체의 32.3%, 금액은 1억 6,000만 달러로 전체의 24.7%를 차지하였다. 내륙지역치고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도·소매업과 부동산업에 대한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도소매업은 건수는 24건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하였으나, 금액은 1억 8000만 달러로 전체의 2.8%에 불과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부동산의 경우, 건수는 7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하였으나, 금액은 10억 2,000만 달러로 전체의 15.3%를 차지하여 도소매업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표 3-9〉 안후이성 외국인투자 규모

단위: 건, 백만 달러

	2005		2010		2011		2012	
	수치	증가율	수치	증가율	수치	증가율	수치	증가율
투자건수	421	-10.8	281	-4.4	263	-6.4	194	-26.2
투자금액	688	25.8	5,014	29.1	6,629	32.2	8,640	30.3

자료: 安徽省統計局.

주: 투자금액은 실제이용외자액(实际利用外资额)임.

〈표 3-10〉 안후이성 업종별 외국인투자(2011년)

단위: 건, 만 달러

	투자건수(A)	투자금액(B)	비중(A)	비중(B)
1차 산업	10	12,675	3.8	1.9
2차 산업	167	486,573	63.5	73.4
제조업	151	430,498	57.4	64.9
3차 산업	85	163,639	32.3	24.7
교통운수, 창고 및 우편업	5	7,990	1.9	1.2
도·소매업	24	18,279	9.1	2.8
숙박 및 요식업	7	8,795	2.7	1.3
부동산업	7	101,658	2.7	15.3

자료: 安徽省統計年監(2012).

〈표 3-11〉 안후이성 국가별 외국인투자(2011년)

단위: 만 달러, %

순위	국가(지역)	투자금액	비중
1	홍콩	373,670	56.4
2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44,603	6.7
3	일본	42,334	6.4
4	아일랜드	25,632	3.9
5	독일	24,747	3.7

자료: 安徽省統計年監(2012).

안후이성의 국가별 외국인투자 구조를 살펴보면, 산시성과 유사하게 홍콩이 37억 4,000만 달러로 전체의 56.4%를 차지하였다. 2위는 조세회피지역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로 4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해 전체의 6.7%를 차지하였다. 3위는 일본으로 4억 2,000만 달러를 투자해 전체의 6.4%를 차지하였다. 4위와 5위는 유럽계 국가인 아일랜드와 독일로 각각 2억 6,000만 달러, 2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2011년 한국 통계 기준으로 한국의 안후이성에 대한 투자는 건수 5건, 금액 4,000만 달러에 그쳐 미미한 수준을 나타냈다.

### (3) 장시성

중부 3성 중 장시성에 대한 외국인투자 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다. 2012년 말 누계기준, 장시성에 등록된 외자기업 수는 7,734건, 투자 총액은 53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와 금액 모두 1.7%를 기록하였으나, 장시성이나 안후이성과 마찬가지로 인구나 GDP 비중에는 못 미친다. 2012년 장시성의 인구와 GDP가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2.4%였다.

장시성 역시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외국인투자가 점진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금액이 2005년 24억 2,000만 달러에서 2010년 51억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고, 이후 안정적 성장세로 전환되어 2011년에는 60억 6,000만 달러, 2012년에는 68억 2,0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하였다. 최근 2년간은 외국인투자 금액이 안후이성에 추월당하였다.

투자 건수에서 산시성과 안후이성이 대폭적인 감소세를 보인 반면, 장시성은 현상유지를 하는 편이다. 2005년 940건이었던 투자 건수가 2010년에는 1,082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11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1년 812건, 2012년 789건을 각각 기록하였다. 투자 건당 평균 투자금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여 2005년 260만 달러에서 2010년 470만 달러, 2011년 750만 달러, 2012년 850만 달러로 각각 증가하였다.

장시성의 업종별 외국인 투자구조를 살펴보면, 안후이성과 유사하게 제조업이 주력을 차지하고 있다. 2011년 제조업에 대한 투자 건수는 517건으로 전체 투자의 66%를 차지하였고, 투자금액은 4억 2,700만 달러로 전체의 63%를 차지하였다. 중부 3성 중 전체

〈표 3-12〉 장시성 외국인투자 규모

단위: 건, 백만 달러

	2005		2010		2011		2012	
	수치	증가율	수치	증가율	수치	증가율	수치	증가율
투자건수	940	245.6	1,092	16.2	812	-25.6	789	-2
투자금액	2,423	967.4	5,101	110.5	6,059	18.8	6,824	12.6

자료: 江西统计年鉴(2013).

주: 투자금액은 실제이용외자액(实际利用外资额)임.

투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건수와 비중이 가장 높다. 장시성의 제조업에 대한 건당 투자금액은 830만 달러로 안후이성의 2,850만 달러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안후이성의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자본집약적이라면, 장시성에 대한 제조업 투자는 노동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제3차 산업에 대한 투자 건수는 173건으로 전체의 22%, 금액은 7,430만 달러로 전체의 27%를 차지하였다. 제3차 산업에서의 건당 평균 투자금액은 1,060만 달러로 제조업보다도 크다. 그러나 안후이성의 1,900만 달러, 산시성의 1,350만 달러보다는 건당 투자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영세함을 보여주고 있다. 도·소매업과 숙박 및 요식업에 대한 투자 건수는 많으나 금액이 적어 대부분 영세성을 보이고 있다. 안후이성이나 산시성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업에 대한 투자는 활발한 편이다. 10건에 2억 4,100만 달러를 투자해 건당 투자금액은 2,4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장시성에 비교적 대형 프로젝트들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시성의 국가별 외국인 투자구조를 살펴보면, 산시성이나 안후이성보다도 홍콩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높다. 2012년 홍콩의 대장시성 투자금액은 52억 달러로 전체의 82%를 차지하였다. 2위는 대만으로 5억 3,000만 달러를 투자해 전체의 8%를 차지하였다. 3위는 마카오로 1억 8,000만 달러를 투자해 전체의 3%를 차지하였다. 일본은 8,000

〈표 3-13〉 장시성 업종별 외국인투자(2012년)

단위: 건, 만 달러, %

	투자건수(A)	투자금액(B)	비중(A)	비중(B)
1차 산업	85	59,636	11%	9%
2차 산업	531	438,853	67%	64%
제조업	517	427,482	66%	63%
3차 산업	173	183,942	22%	27%
교통운수, 창고 및 우편업	7	7,433	1%	1%
도·소매업	22	13,146	3%	2%
숙박 및 요식업	8	5,234	1%	-
부동산업	10	24,147	1%	4%

자료: 江西統計年鑒(2013).

〈표 3-14〉 장시성 국가별 외국인투자(2012년)

단위: 만 달러, %

순위	국가(지역)	투자금액	비중(%)
1	홍콩	520,078	82
2	대만	52,933	8
3	마카오	17,947	3
4	일본	8,076	1

자료: 江西統計年鑒(2013).

만 달러를 투자해 전체의 1% 차지에 그쳤다. 특이한 점은 조세회피지역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투자 비중이 산시성과 안후이성은 상당히 높은 반면, 장시성은 매우 낮다는 점이다. 대신 조세회피지역의 통로를 주로 활용하는 대만계 등이 장시성에는 직접 투자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 지역별로 투자 통로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2012년 한국 통계 기준으로 한국의 장시성에 대한 투자는 건수 5건, 금액 3,000만 달러에 그쳐 미미한 수준을 나타냈다.

## 2.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투자환경 비교

### (1) 성별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비교

#### 1) 산시성

산시성 정부가 발표한 「산시성 외국인투자 장려 조치(山西省鼓勵外商投資辦法)」 내용에 따르면, 산시성은 석탄 심가공 산업, 구리와 철, 알루미늄의 제련 가공 산업, 화학 공업, 기계전자, 하이테크 산업, 기존 기업의 기술 업그레이드에 대한 투자 등 분야에 대해 외국인의 투자를 장려한다고 밝히고 있다. 상술한 산업 혹은 프로젝트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와 도시 부동산세(城市房產稅)를 10년간 면제해 준다.

이 밖에도 2013년 5월에 발표된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목록 2013년 개정판(〈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產業目錄(2013年修訂)〉)’의 산시성 부분에는 의료 및 양

로서비스 기구, 관광지 보호와 개발 및 경영, 비금속광물의 종합이용 등 총 30개의 산업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모바일 인터넷 등 차세대 정보기술 개발 및 응용 관련 산업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목록에 포함되는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는 국무원의 정책에 의거, 3년간 기업소득세 15%로 감면, 수입 설비, 부속품, A/S 부품 등의 관세 면제, 중국산 설비에 대한 증치세 환급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산시성의 타이위안시 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24%로 감면해 주고 타이위안시 국가 고신기술산업개발구와 성급 이상의 경제기술개발구 내에 설립된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15%만 징수하는 등의 우대 정책도 실시하고 있다.<sup>8)</sup>

산시성은 2013년 7월에 발표한 「산시성 외자이용 및 외국인투자 제1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12·5 기간 동안 실제 외국인투자 유치액을 매년 25%씩 확대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 2) 안후이성

2013년 5월 발표된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목록 2013년 개정판’의 안후이성 부분에는 자동차부품 제조, 의료 및 양로서비스 기관 등 26개 산업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판에서 안후이성에는 2008년에 비해 고급 이음매 없는 강관(Seamless Pipe), 석유 유정관 제조, 연료에틸렌 및 생물디젤유 생산, 의료설비 및 핵심부품 개발과 생산, 반도체조명재료 관련 제품 및 관련 설비의 개발과 제조, 대형·고압·고순도 공업기체의 생산과 공급, 수상운송, 애니메이션 제작 및 관련 제품 개발 등을 비롯한 7개 분야가 추가됐다. 이는 안후이성의 산업발전 특성에 적합한 업종들이며 외국의 선진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다. 안후이성은 2010년 12월 ‘외자유치수준 제고에 관한 지도의견(關於進一步提高利用外資工作水平的指導意見)’(이하 의견)을 발표해 투자환경 개선, 외국인 투자유치 관리체제 개혁, 외국인투자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업무 방침을 명확히 하였다. 의견에서는 안후이성 외국인투자 중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우

8) 孝義市人民政府(2011), 「山西省鼓勵外商投資優惠政策」.

선적으로 토지를 배정하고(전문용지지표) 그 책임을 국토자원부가 지도록 했다. 또 토지에 대한 수요가 많은 외국인투자 장려항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를 공급하며 외국인투자액 1억 달러 이상의 장려항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토지를 공급해 주고 있다.

시와 현(縣)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권한도 하급 정부에 대폭 이양했다. 외국인 투자 산업지도목록에서 투자총액이 1억 달러 이하의 장려항목과 허가류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허가 대상 투자프로젝트대상목록’ 내 성급 발전개혁위원회에서 허가 및 성급 상무청에서 심사비준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시와 현급 발전개혁위원회부서에서 직접 허가받고 동급 상무부처의 심사비준을 받는 것으로 간소화했다.

2012년 6월 안후이성은 ‘외자유치 12차 5개년 계획안’ 을 통해 향후 5년간 외국인투자 관련 발전목표를 제시했다. 2015년까지 누계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3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전략적 신흥산업과 현재 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액 증가율이 안후이성 평균수준을 초과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성급 이상 개발구의 외국인투자 비중은 전체의 60%를 차지할 것이며 2015년까지 외국인투자 총액이 1억 달러 이상인 누계 프로젝트 목표치를 100개로 설정하였다.

### 3) 장시성

장시성 역시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목록’ 내용을 적용받고 있는데 2013년 개정판에서는 기존보다 8개의 산업이 추가되어 총 24개의 산업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산업은 첨단 기술의 도자기 연구 개발 및 생산,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및 부품 제조, 애니메이션 창작 및 제조, 리튬 배터리 등 리튬 제품 생산 전용 설비의 연구 개발 및 제조 등이다.

장시성 외국인투자 촉진계획(江西外商投資促進規劃)에 따르면 주요 국가별로 서로 다른 산업을 유치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전자정보, 반도체산업, 철강 및 기기제조, 현대농업 등의 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장시성은 2010년 말 기준 51억 8,000만 달러였던 외국인 투자를 12·5 기간 동안 매년

10%씩 늘려 나가 2015년 83억 5,000만 달러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2) 투자환경 비교

중부 3성의 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동부 연안지역은 물론 전국 평균치인 4만 6,769위안에 못 미친다.<sup>9)</sup> 중부 3성 중 장시성의 임금이 가장 낮다. 연간 3만 8,512위안으로 전국 평균치의 82%에 해당된다. 산시성은 4만 4,236위안으로 전국 평균치의 94.6%에 해당되며, 안후이성은 4만 4,601위안으로 전국 평균치의 95.4%에 해당된다. 그러나 중부 3성 중 가장 임금이 높은 안후이성의 인건비는 주요 동부지역인 장쑤성의 88.1%, 광둥성의 88.7%에 육박해 단순하게 저렴한 인건비만을 노리고 중부 3성에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인건비에 비해 토지가격은 중부 3성 간에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우선 1급지 기준 공업용지에 있어 장시성은 1㎡당 989위안(한화 약 17만원)인 반면, 안후이성은 384위

〈표 3-15〉 중부 3성 생산요소 비교(2012년)

	산시성	안후이성	장시성
평균임금	44,236위안	44,601위안	38,512위안
토지가격 (1급)	(공업용지) 691위안/㎡ (상업용지) 4,608위안/㎡	(공업용지) 384위안/㎡ (상업용지) 4,621위안/㎡	(공업용지) 989위안/㎡ (상업용지) 8,100위안/㎡
전기세	(공업용) 0.69위안/kW (상업용) 0.54위안/kW	(공업용) 0.67위안/kW (상업용) 0.89위안/kW	(공업용) 0.64위안/kW
수도세	4위안/톤	2.65위안/톤	2.25위안/톤
물류비용	(철도) 500위안/톤 (도로) 5,800~7300위안/20feet 산적화물 650위안/톤 (항공) 500kg이상 4.2위안/kg	(철도) 396위안/톤 (도로) 730위안/톤 (수운) 40위안/톤 (50시간 소요)	(철도) 650위안/20feet (도로) 1,800위안/20feet (항공) 37,000위안/20feet (수운) 2,000위안/20feet

자료: 각 성 정부, 국토자원부 및 통계청 사이트를 참조하여 정리.

주: 1) 산시성과 안후이성의 토지가격은 각각 타이위안시, 허페이시 평균가격.

2) 산시성 물류비용은 타이위안-상하이(철도, 도로), 원청-상하이(항공) 운임이며, 안후이성 물류비용은 허페이 기준.

9) 주요 동부지역의 1년 평균 임금은 상하이 7만 8,673위안, 장쑤 5만 639위안, 광둥 5만 278위안 등.

안으로 양 지역 간 2.6배의 격차가 있다. 산시성은 1㎡당 691위안으로 중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공장부지 규모와 토지비용을 감안해 투자지역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상업용지에서는 장시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안후이성과 산시성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팀의 현지실사에 따르면, 1급 상업지의 경우 1㎡당 장시성은 8,100위안, 안후이성은 4,621위안, 산시성은 4,608위안씩으로 조사되었다.

전기세 역시 성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공업용의 경우, 전기세가 가장 저렴한 곳은 장시성으로 1kW당 0.64위안이며, 안후이성은 0.67위안, 산시성은 0.69위안이다. 상업용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격차가 커 1kW당 안후이성은 0.89위안인 반면, 산시성은 0.54위안에 불과해 오히려 공업용보다도 저렴하다.

수도세는 자연 여건상 물이 부족한 산시성이 가장 높고, 나머지 두 성은 유사한 수준이다. 톤당 요금은 산시성이 4위안인 반면, 안후이성과 장시성은 각각 2.65위안, 2.25위안이다.

중부 3성은 내륙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투자 시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물류비용이다. 동일한 기준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여 중부 3성을 비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이나, 산시성의 경우, 성정부 소재지인 타이위안에서 상하이까지 철도 기준으로 톤당 500위안이 소요된다. 장시성 성도인 난창에서 상하이까지 철도 운송 비용은 20피트 컨테이너당 650위안이 소요된다. 지리적으로 상하이와 인접한 안후이성은 성도인 허페이에서 상하이까지 톤당 396위안으로 저렴한 편이다. 그러나 화물 항구가 어디인가에 따라 비용은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고 동부 주요 도시와 내륙 대도시 간 고속철이 속속 개통되고 있어 철도 환경은 이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중부 3성이 비록 내륙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대도시 지역은 대부분 동부와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어 도로의 접근성은 좋은 편이다. 20피트 컨테이너 기준의 도로 운송료는 산시성 타이위안과 상하이 간은 5,800~7,300위안이고, 장시성 난창과 상하이 간은 1,800위안이다. 산적화물의 톤당 운송료는 안후이성 허페이와 상하이 간이 730위안이고, 산시성 타이위안과 상하이 구간은 650위안이다. 이 밖에도 장시성과 안후이성은 인근 동부 지역과 수운이 발달해 있는 편이며, 비용은 철도나 도로보다 저렴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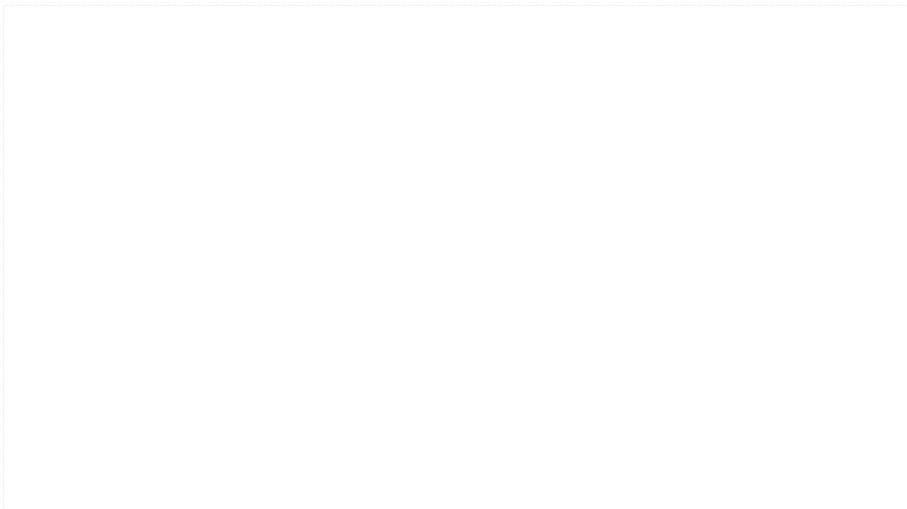
## 제3절 한국과 중부 3성 산업협력 현황

### 1. 중부 3성의 성별 대한국 교역 추이와 산업별 수출입 구조

#### (1) 산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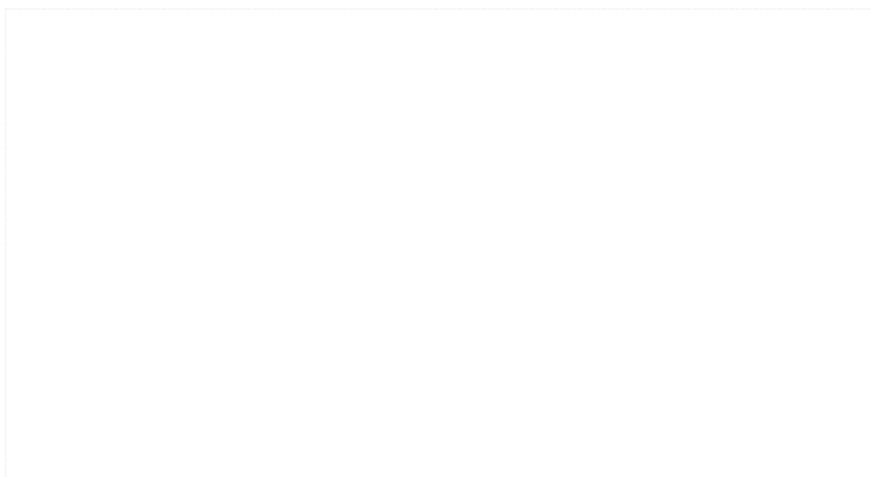
산시성의 대한국 교역규모는 2000년 5억 400만 달러에서 2012년 8억 6,300만 달러로 지난 12년간 거의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동 기간 중국의 대한국 교역 규모가 연평균 18.1%씩 신장한 것에 비해 산시성의 대한국 교역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4.6%에 불과하였다. 그중 수출은 2000년 4억 3,600만 달러에서 2012년 6억 4,5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동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3.3%로 중국의 대한국 수출 연평균 증가율인 18.6%에 크게 못 미친다. 수입은 2000년 6,800만 달러에서 2억 1,800만 달러로 늘어나 연평균 10.2%씩 증가하였다. 동 기간 중국의 대한국 수입 연평균 증가율이 17.9%였음을 감안하면 역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림 3-12〉 산시성의 대한국 교역



자료 : KOTIS.

〈그림 3-13〉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입 중 산시성 점유 비중 추이



자료 : KOTIS.

이에 따라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입에서 산시성이 차지하는 위상 역시 계속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시성이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3% 까지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에는 0.7%까지 낮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석탄과 비금속 광물 등 자원성 수출액이 줄어들면서 산시성의 수출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 산시성이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0.1~0.3% 수준을 배회하면서 아주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산시성이 한국의 수출시장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산시성은 석탄을 비롯, 자원이 풍부한 반면 소득 수준은 낮아 한국에 대해서는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01년 5억 1,600만 달러에서 2008년에는 13억 1,600만 달러로 확대되었다가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2년에는 4억 2,7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중국의 대한민국 무역수지의 적자 규모가 2000년 119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789억 달러로 확대된 것과는 확연히 대비되고 있다.

#### □ 산시성의 대한민국 산업별 수출구조

산시성의 대한민국 수출은 자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금융위기 이후(2009~2012년) 수출구조를 살펴보면, 비금속 광물이 전체 대한민국 수출의 39.6%를 차지해 수위를 차지하

였다. 2위와 3위는 제1차 금속(36.3%)과 석유화학(15.6%)이 차지하였다. 이들 상위 3개 산업이 전체 수출의 91.5%를 차지하여 산시성의 대한국 수출구조는 매우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시성 자체가 자원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전기전자, 섬유가죽 등 중국 동부지역들이 수출에서 일반적으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산업의 수출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한편, 금융위기를 전후로 산시성의 대한국 산업별 수출구조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비금속광물이 금융위기 이전(2005~2007년) 58.7%에서 39.6%로 감소하여 무려 19.1%포인트가 감소하였다. 대신 석유화학(7.7%포인트), 제1차 금속(5.3%포인트), 전기전자(3.2%포인트) 등의 점유율이 상승하여 산시성의 수출구조가 단순한 광물성 자원 가공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다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 산시성의 대한국 산업별 수입구조

수출과 마찬가지로 산시성의 대한국 수입구조도 소수 산업에 심하게 편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산시성의 대한국 산업별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전기전자가 58.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제1차 금속이 30.6%로 2위를 차지하였다. 이들 상위 2개 산업의 점유 비중이 88.6%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산업들의 수입 비중은 5% 미만의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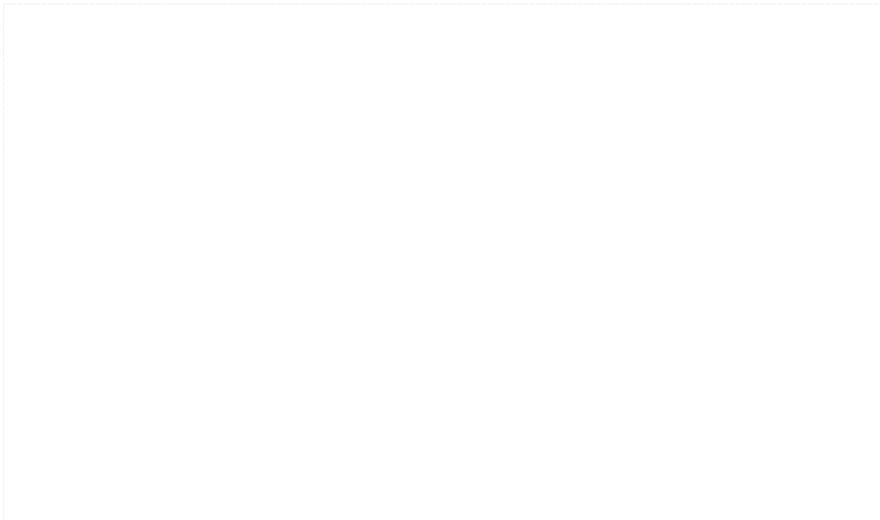
한편, 금융위기를 전후로 산시성의 대한국 수입구조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전 전기전자의 점유비중이 1.4%에서 58%로 증가하여 무려 56.6%포인트가 증가하였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감소세를 보였다. 가장 감소폭이 큰 산업은 제1차 금속으로 동 기간 25.7%포인트가 감소하였다. 다음은 석유화학으로 15.5%포인트가 감소하였으며, 일반기계도 9.6%포인트 감소하였다. 동부지역의 전자공장들이 산시성으로 이주하면서 산시성의 대한국 수입구조도 전기전자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4〉 산시성의 대한민국 산업별 수출구조



자료 : KOTIS.

〈그림 3-15〉 산시성의 대한민국 산업별 수입구조



자료 : KOTIS.

□ 산시성의 대한민국 무역특화지수

산시성은 한국에 대해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특화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전기전자와 정밀기기(LCD 패널)를 제외하고는 무역특화지수가 정의 영역을 보이고 있다.

〈그림 3-16〉 산시성 대한국 무역특화지수



자료 : KOTIS.

특히 비금속광물, 음식료품, 섬유가죽의 무역특화지수는 1에 가까워 산시성이 한국으로부터 이들 산업에 대해 거의 수입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위기 전후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기전자는 단기간에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위상이 전환된 반면, 일반기계는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위상이 바뀌는 등 일부 산업에서 무역특화지수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전자의 사례에서 보듯, 한국이 적극적으로 산시성 시장을 개척할 경우 앞으로 많은 산업에서 대산시성 수출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 (2) 안후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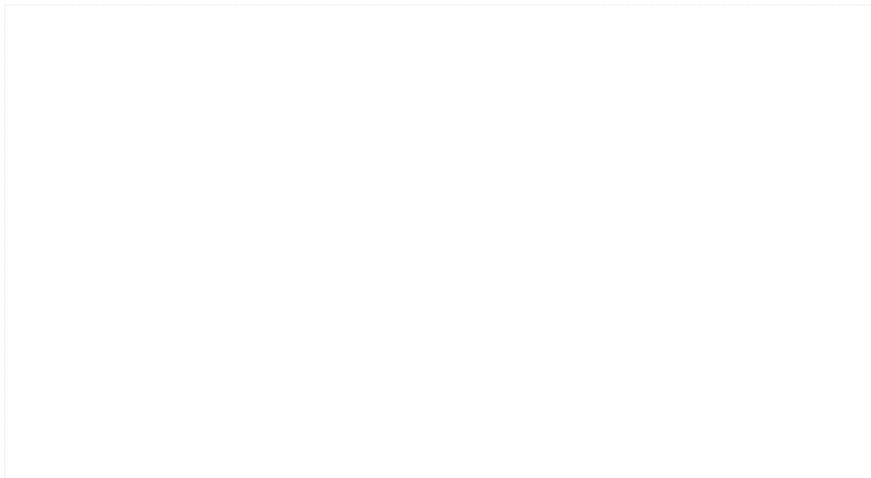
안후이성의 대한국 교역규모는 2000년 2억 6,600만 달러에서 2012년 13억 1200만 달러로 지난 12년간 연평균 14.2%씩 증가하였다. 동 기간 중국의 대한국 교역 규모가 연평균 18.1%씩 신장한 것에 비해서는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시성의 4.6%에 비해서는 크게 높은 편이다.

〈그림 3-17〉 안후이성의 대한국 교역



자료 : KOTIS.

〈그림 3-18〉 중국의 대한국 수출입 중 안후이성 점유 비중 추이



자료 : KOTIS.

그중 수출은 2000년 1억 5,100만 달러에서 2012년 5억 3,6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동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11.1%로 중국의 대한국 수출 연평균 증가율인 18.6%에는 못 미친다. 수입은 2000년 1억 1,500만 달러에서 7억 7,600만 달러로 늘어나 연평균 17.2%씩 증가하였다. 동 기간 중국의 대한국 수입 연평균 증가율이 17.9%였음을 감안하면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산시성과 달리 제조업이 어느 정도 발달한 안후이성은 한국으로부터 수입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제조업이 내륙으로 이전하면서 수입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한국 수출입에서 안후이성이 차지하는 위상은 여전히 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00년 0.8%에서 2012년에는 0.5%로 0.3%포인트가 감소하였다. 안후이성이 중국의 대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3%를 정점으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에는 0.6%까지 낮아졌다. 자원성 위주의 수출은 감소하고 있는 대신 새로운 수출 품목은 개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후이성이 중국의 대한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 미만이다. 지난 12년간 줄곧 0.3~0.7% 수준을徘徊하고 있다. 산시성과 마찬가지로 안후이성에 대한 한국의 진출이 미진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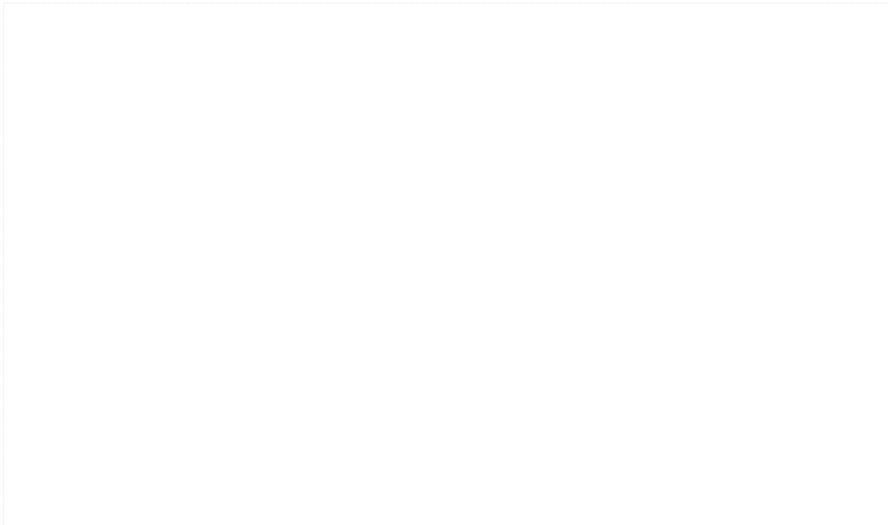
한편, 산시성이 한국에 대해 줄곧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안후이성은 한국에 대해 2000년 흑자를 기록하였다가 적자로 전락되었다. 2007년과 2008년에만 흑자를 창출하고 나머지 연도에는 모두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적자규모는 2010년 5억 5,300만 달러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2012년에는 2억 4,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 □ 안후이성의 대한국 산업별 수출구조

안후이성의 대한국 수출은 자원성 소재와 부품이 주류를 형성한다. 금융위기 이후(2009~2012년) 안후이성의 대한국 수출구조를 살펴보면, 제1차 금속이 24.3%를 차지해 수위를 차지하였다. 2위와 3위는 석유화학(16.3%)과 전기전자(10.1%)가 차지하였다. 이들 상위 3개 산업이 전체 수출의 50.7%를 차지해 산시성과 달리 상당히 분산된 모습을 보인다.

금융위기를 전후로 안후이성의 대한국 산업별 수출구조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제1차 금속이 금융위기 이전(2005~2007년) 54.2%에서 금융위기 이후 24.3%로 감소하여 무려 30%포인트가 감소하였다. 한국 조선 산업이 불경기로 접어들면서 열연강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대신 전기전자의 수출비중이 금융위기 이전 1.3%에서

〈그림 3-19〉 안후이성의 대한국 산업별 수출구조



자료 : KOTIS.

이후에는 10.1%로 대폭 증가하였다. 안후이성의 수출구조가 자원 중심에서 부품 또는 조립 중심으로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석유화학의 수출 비중도 6.3%포인트가 증가하였다.

□ 안후이성의 대한국 산업별 수입구조

산시성과 달리 제조업 기반이 어느 정도 구비된 안후이성은 수입구조가 업종별로 상당히 분산되어 있는 양상이다. 금융위기 이후 안후이성의 대한국 산업별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석유화학이 37.2%로 수위를 차지하였으며, 전기전자가 17%로 2위를 차지하였다. 제1차 금속이 16.7%로 3위, 일반기계가 10.5%로 4위를 차지하면서 이들 4개 산업이 전체의 81.4%를 차지하여 주력 수입품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한편, 금융위기를 전후로 안후이성의 대한국 수입구조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전 전기전자의 점유비중이 7.7%에서 17%로 증가하여 9.3%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산시성과 마찬가지로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자산업의 한국에 대한 수출입이 모두 대폭 증가해 안후이성도 한국과 전자산업에서 산업 내 분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신 제1차 금속은 동 기간 6.2%포인트가 감소하였으며, 수송장비도

〈그림 3-20〉 안후이성의 대한국 산업별 수입구조



자료 : KOT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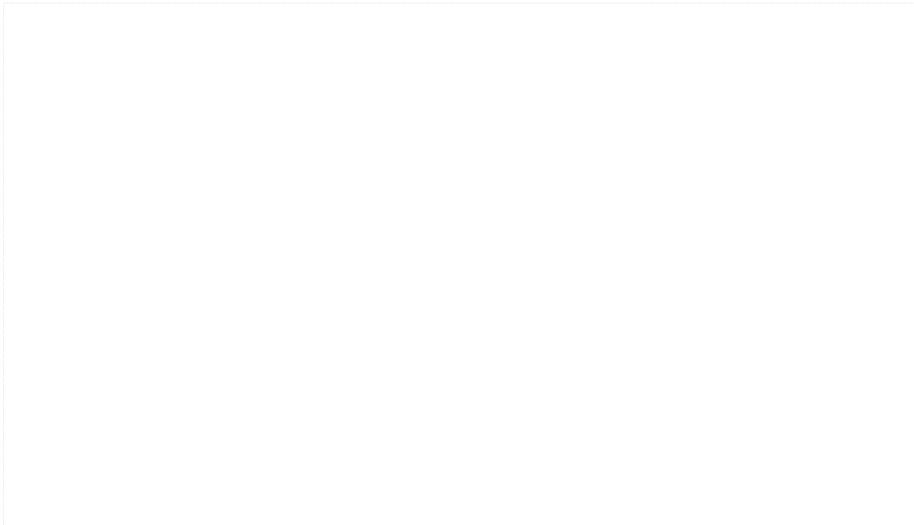
4.7%포인트의 감소폭을 보였다.

#### □ 안후이성의 대한국 무역특화지수

안후이성은 한국에 대해 저기술 제품군에서는 비교우위를, 고기술 제품군에서는 비교열위를 보이고 있다. 안후이성이 한국에 대해 뚜렷이 수출특화를 보이고 있는 산업은 비금속광물, 목재종이, 음식료품, 섬유가죽이다. 한국에 대해 수입특화되어 있는 산업은 정밀기기, 수송장비, 일반기계, 석유화학, 전기전자이다.

금융위기를 전후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제1차 금속은 금융위기 이전 수출특화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수입특화로 전환되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조선용, 건축용 열연제품을 주로 한국에 수출하다가 한국의 관련 산업 경기부진으로 수출이 줄어든 대신, 안후이성의 가전, 자동차 등이 발전하면서 철강 냉연제품의 수입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전자는 수입특화 정도가 약화되었으나, 일반기계는 수입특화 정도가 강화되고 있다.

〈그림 3-21〉 안후이성의 대한민국 무역특화지수



자료 : KOTIS.

### (3) 장시성

장시성의 대한민국 교역규모는 2000년 1억 1,100만 달러에서 2012년 10억 2,100만 달러로 지난 12년간 연평균 20.3%씩 증가하였다. 장시성의 대한민국 교역 증가 속도는 중부 3성 중 유일하게 중국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교역규모는 안후이성보다는 2억 9,100만 달러 작다.

수출은 2000년 8,100만 달러에서 2012년 7억 8,7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동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20.9%로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중부 3성의 대한민국 수출규모 순서는 장시성, 산시성, 안후이성 순이다.

수입은 2000년 3,000만 달러에서 2012년 2억 3,400만 달러로 늘어나 연평균 18.7%씩 증가하였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 역시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 연평균 증가율인 17.9%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 규모는 안후이성의 7억 7,600만 달러에 크게 못 미쳤으며, 산시성을 약간 상회하는 규모로 한국의 입장에서 아직은 미개척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입에서 장시성이 차지하는 위상은 거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0.3%를 전후로 상승과 하강의 반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에는 0.4%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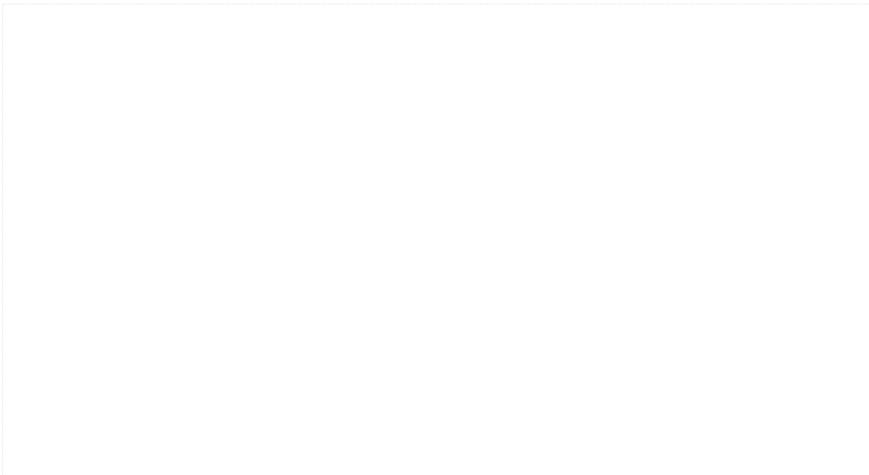
하였다. 장시성이 중국의 대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0.7%에서 계속 낮아지다가 2006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어 이러한 상승세가 2012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2년 장시성이 대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3-22〉 장시성의 대한국 교역



자료 : KOTIS.

〈그림 3-23〉 중국의 대한국 수출입 중 장시성 점유 비중 추이



자료 : KOT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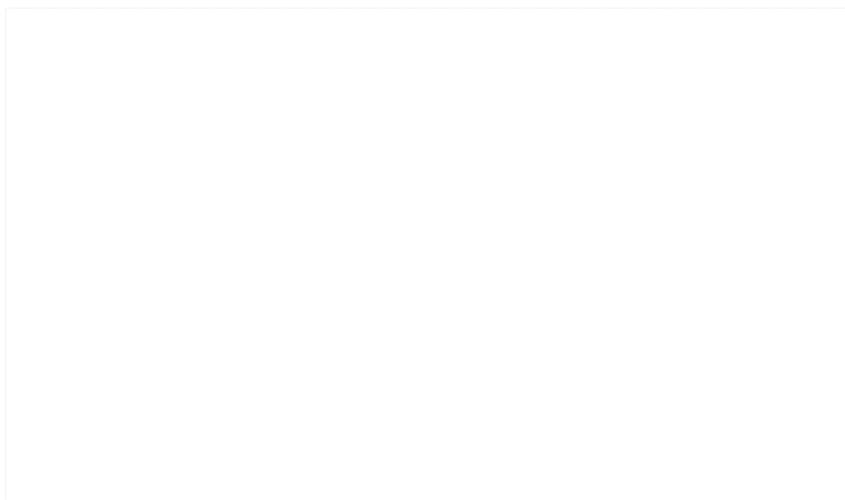
장시성 수출이 대한민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하지만, 수입 비중은 너무 낮다. 2000년 0.1%에서 2008년에는 0.4%까지 상승하였으나, 금융위기를 계기로 낮아져 2012년에 다시 0.1%로 주저앉았다.

장시성은 한국에 대해 매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이러한 흑자폭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00년 5,100만 달러에서 2012년에는 5억 5,3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한국은 중부 3성 중 안후이성에 대해서만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산시성과 장시성에 대해서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 장시성의 대한민국 산업별 수출구조

장시성의 대한민국 수출 역시 다른 2개 성과 마찬가지로 자원성 제품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금융위기 이후(2009~2012년) 수출구조를 살펴보면, 제1차 금속이 전체 대한민국 수출의 36.6%를 차지해 수위를 차지하였다. 2위와 3위는 석유화학(23.9%)과 섬유가죽(16.4%)이 차지하였다. 이들 상위 3개 산업이 전체 수출의 76.9%를 차지하여 수출구조가 특정 산업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시성의 상위 산업에 대한 수출 집중도는 산시성과 안후이성의 중간 정도이다.

〈그림 3-24〉 장시성의 대한민국 산업별 수출구조



자료 : KOT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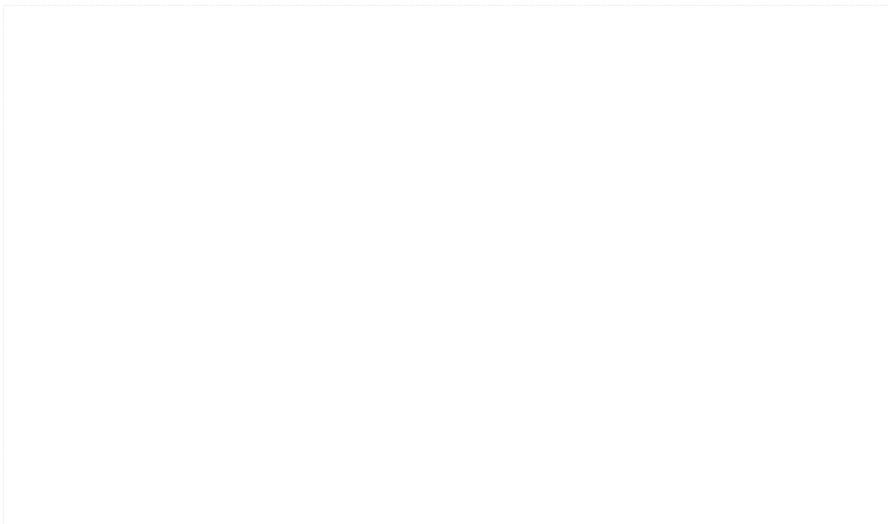
한편, 금융위기를 전후로 장시성의 대한민국 산업별 수출구조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산시성이나 안후이성에 비해서는 변동 폭들이 작다. 다른 2성과 마찬가지로 전기전자의 비중이 7.1%에서 12.8%로 5.7%포인트 증가한 대신, 섬유가죽은 22.5%에서 16.4%로 6.1%포인트가 줄어들었다. 장시성의 수출구조가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 장시성의 대한민국 산업별 수입구조

장시성의 수입구조는 산시성과 유사하게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금융위기 이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석유화학의 수입 비중이 48.9%로 과반수에 육박하고 있으며, 전기전자의 수입 비중도 2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상위 2개 업종의 수입 비중은 7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석유화학과 전기전자 중심의 수입구조는 안후이성과 매우 유사하다.

한편, 금융위기를 전후로 장시성의 대한민국 수입구조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산시성이나 안후이성과 달리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점유 폭이 늘어난 산업은 비금속광물(4.6%포인트)과 전기전자(3.4%포인트), 석유화학(2.1%포인트)

〈그림 3-25〉 장시성의 대한민국 산업별 수입구조



자료 : KOT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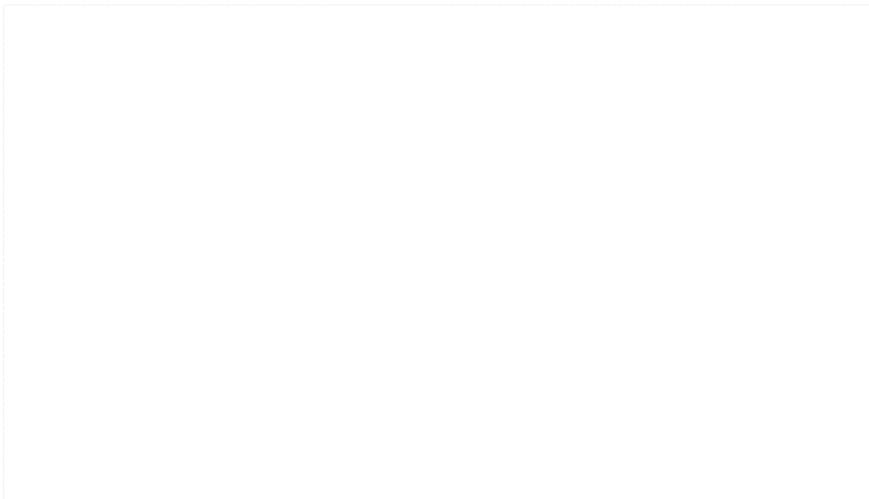
이며, 점유 폭이 감소한 산업은 제1차 금속(-6.7%포인트)과 일반기계(-3.2%포인트)이다. 나머지 산업들의 변화율은 미미한 편이다.

□ 장시성의 대한국 무역특화지수

한국과 교역규모과 작은 장시성은 산업별 무역특화지수들이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후이성과 산시성과 마찬가지로 장시성은 한국에 대해 저기술 제품군에서는 비교우위를, 고기술 제품군에서 비교열위를 보인다. 장시성이 한국에 대해 뚜렷이 수출특화를 보이고 있는 산업은 목재종이, 음식료품, 제1차 금속이다. 한국에 대해 수입특화되어 있는 산업은 수송장비, 일반기계이다. 특이한 것은 중부 3성 중 장시성이 유일하게 정밀기기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 수출특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기를 전후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기전자와 석유화학이 금융위기 이전 수입특화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수출특화로 전환되었다. 장시성의 대한국 무역특화지수 분석을 통해서 얻은 시사점은 정밀기기,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 한국이 중국에 대해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 비교우위를 장시성에서는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국은 장시성 시장 진출에 매우 소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그림 3-26〉 장시성의 대한국 무역특화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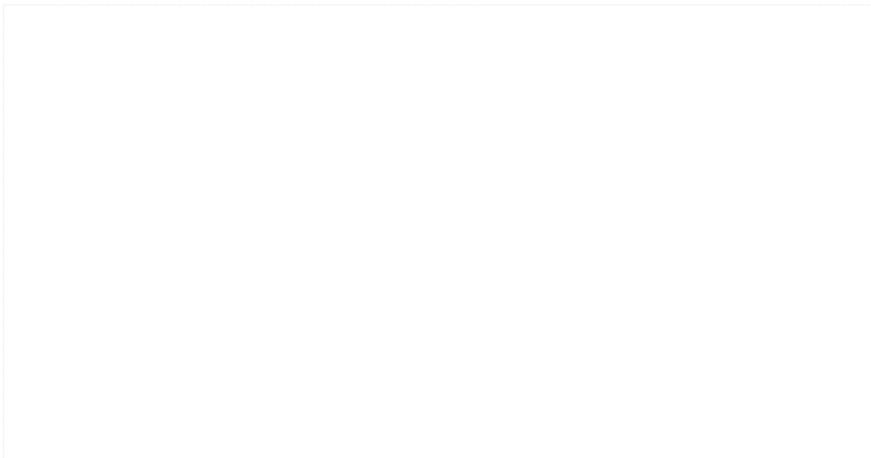
자료 : KOTIS.

## 2. 한국의 대중부 3성 투자 추이와 산업별 투자구조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한국의 중부 3성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2년 말 누계기준, 산시성에 대한 투자 건수(신고기준, 이하 동일)는 75건으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서 0.16%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금액(신고기준, 이하 동일)은 2억 8,900만 달러로 한국 대중국 투자의 0.49%에 불과하다. 산시성이 한국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치(2012년 0.3%)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연평균 투자건수는 4.6건에 투자금액은 2,33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며, 2012년에는 7건 투자에 투자금액은 64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2년 말 안후이성에 대한 투자 누계 건수는 191건, 투자금액은 2억 2,42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중부 3성 중 투자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안후이성이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건수와 금액 모두 0.4%를 차지하고 있다. 안후이성이 한국의 대중국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치인 0.6%에 비해서는 약간 모자라는 수준이다. 안후이성에 대한 한국 투자의 연평균 건수는 13.6건, 금액은 1,55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012년에는 16건에 1,25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그림 3-27〉 한국의 대중부 3성 투자규모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DB.

〈표 3-16〉 한국의 대중부 3성 투자규모

단위: 건, 백만 달러

	산시성		안후이성		장시성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누적 수치	75	289.1	191	224.2	126	437.7
비중	0.16	0.49	0.40	0.38	0.27	0.75
연평균 수치	4.6	23.3	13.6	15.5	9.3	32.8
2012년 수치	7	6.4	16	12.5	12	4.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DB.

주: 1) 투자건수는 신고건수, 투자금액은 신고금액 기준임.

2) 비중은 한국의 대중국 누적투자 대비 수치임.

장시성에 대해서는 2012년 말까지 126건에 4억 3,77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중부 3성 중 투자액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장시성이 한국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기준으로 0.27%, 투자 기준으로 0.75%이다. 유일하게 중부 3성 중 장시성은 투자 비중이 교역 비중보다 높은 지역이다. 한국은 장시성에 대해 매년 9.3건씩 3,280만 달러씩을 투자하고 있다. 2012년에는 12건에 44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안후이성과 장시성에 대한 투자는 2007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시 급격한 하락세로 반전하여 이후 모두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중부 내륙 진출을 시도하던 기업들이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시 주저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들이 중국 동부 연안 지역 투자를 계기로 한국과 중국 현지 기업 간 산업 내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교역규모가 급증했던 것과는 달리 이들 중부 지역들에서는 양국 간 분업구조가 거의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중부 3성이 내륙이라는 입지조건과 함께 한국과의 제도적인 협력기반이 형성되어 있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 □ 산시성에 대한 산업별 투자구조

산시성에 대한 한국 투자 금액은 중부 3성 중 두 번째로 크다. 금액 기준으로 기계 및 수송장비에 3억 4,340만 달러를 투자해 전체의 74.8%를 차지하였다. 2012년 말 누계 기

〈그림 3-28〉 한국의 대산시성 산업별 투자구조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DB.

준으로 전체 투자 금액의 80.7%, 건수의 17.3%가 광업에 집중되어 있다. 광업의 특성상 건당 투자 규모는 상당히 큰 편이다. 산시성 경제가 석탄에 특화되어 있는 만큼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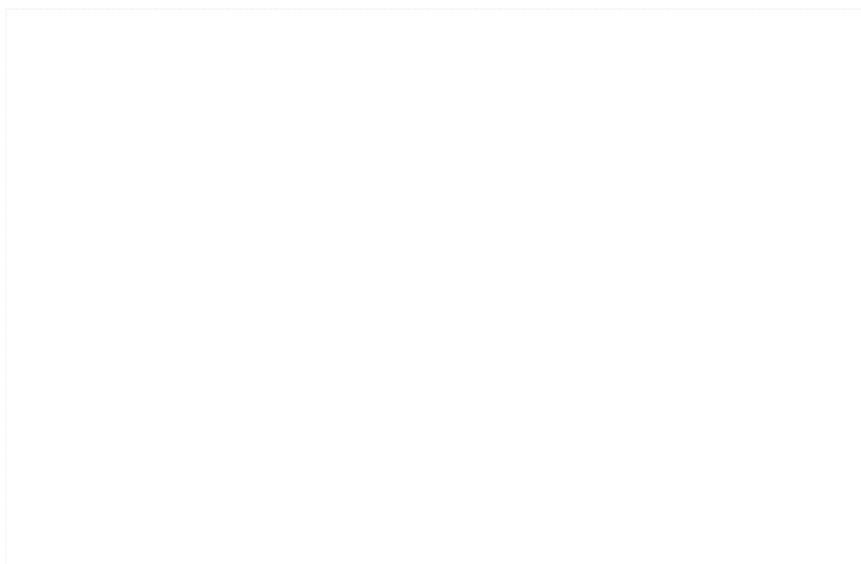
건수 기준으로 금속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20.0%로 1위를 차지하며, 다음은 광업 17.3%, 비금속광물 14.7%, 전기전자와 제3차 산업이 13.3%씩 차지하고 있다. 금액기준으로는 광업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전자 9.8%, 석유화학 4.0% 순이다.

전자산업은 한국이 중국에 대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며, 교역과 투자 모두 활발한 한국의 대중국 경제협력의 대표적 산업이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산시성 간에도 전기전자에서 산업 내 분업구조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음을 교역과 투자 분석에서 엿볼 수 있다.

#### □ 안후이성에 대한 산업별 투자구조

중부 3성 중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안후이성의 경우, 산시성과 달리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제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건수 기준으로 석유화학이 56건을 투자해 전체의

〈그림 3-29〉 한국의 대안후이성 산업별 투자구조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DB.

29.3%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기계 및 수송장비가 43건으로 전체의 22.5%를 기록하면서 석유화학과 기계 및 수송장비가 전체 투자 건수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제3차 산업도 24건을 투자해 전체의 12.6%를 차지하였다.

금액기준으로는 석유화학이 1위이다. 6,770만 달러를 투자해 전체 투자의 30.2%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기계 및 수송장비로 5,100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투자의 22.8%를 차지하였다. 건수와 마찬가지로 석유화학과 기계 및 수송장비가 전체의 과반수를 상회한다. 기계 및 수송장비의 비중이 높은 것은 안후이성에 중국 토종업체인 치루이(奇瑞)자동차의 본사가 있기 때문이다. 제3차 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2,700만 달러를 투자해 중부 3성 중 규모가 가장 크다.

#### □ 장시성에 대한 산업별 투자구조

장시성에 대한 산업별 투자구조는 기계 및 수송장비에 완전 편중되어 있다. 신고금액 기준으로 기계 및 수송장비에 대한 투자는 3억 4,34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의 78.4%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현지 KOTRA의 실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의 통

〈그림 3-30〉 한국의 대장시성 산업별 투자구조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DB.

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업종에서 대형 공장이 가동 중인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다음은 석유화학 3,070만 달러(전체 투자금액의 7%), 전기전자 1,570만 달러(3.6%) 순이다.

투자 건수 신고기준으로는 역시 기계 및 수송장비가 27건으로 전체의 21.4%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고, 다음은 섬유가죽이 23건으로 전체의 18.3%를 차지하였다. 전기전자는 20건으로 전체의 15.9%를 차지하였고, 음식료품이 15건으로 전체의 11.9%를 차지하였다. 제3차 산업에 대한 투자도 14건이 신고되었다.

#### □ 중부3성 투자에 대한 종합평가

중부 3성에 대한 산업별 투자 구조 분석에 따르면, 아직 한국은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가 초기 단계에 있고, 따라서 연도별, 산업별 투자구조도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정 대형 프로젝트의 투자가 신고되면 그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 편중 양상이 심화되어 나타나곤 한다. 산시성의 경우에는 광업에 대한 투자가, 장시성은 기계 및 수

송장비에 대한 투자가 전형적인 예이다.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물류, 유통에 대한 투자도 아직은 미미하기 그지없다. 그야말로 중부 3성은 한국에 있어 미개척 시장 상태로 남아 있음을 투자 통계는 보여준다.

## 제4장

# 중부 3성의 주요 산업

## 제1절 산시성의 주력 산업과 주요 기업

### 1. 광공업

산시성(山西省)은 중공업의 발원지로서 야금, 장비제조, 화학공업, 석탄산업 등이 발달하였다. 위와 같은 산업이 발달하게 된 것은 산시성이 석탄, 철,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의 지하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석탄 생산량은 중국 내 1위로 2012년 9.1억톤을 기록해 전국 총 생산량의 약 1/4을 차지하였다. 중국 정부는 건국 초기 산시성에 대규모 제철소를 건립해 이 지역을 에너지·중화학 공업기지로 육성하였으며 석탄 채굴, 제철, 석유 및 코크스 가공업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산시성은 최근 자원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 구조조정에 힘쓰고 있다. 전통산업의 대형화·집약화를 통해 효율을 높이고 신소재, 식품산업 등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 결과 2012년 장비제조, 식품, 의약산업이 각각 33.3%, 14.3%, 12.5%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석탄산업 이후 산시성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산시성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요강」의 ‘공업 신형화 및 현대산업 체계 발전’ 부문에서는 크게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와 신형 산업의 육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전통산업으로는 석탄, 코크스, 야금, 전력 등이 있는데, 관련 산업클러스터 간의 통합적 발전을 도모하고 과잉생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신형산업으로는

〈표 4-1〉 산시성 공업 생산 증가율(2012년)

단위 : %

업종	전년 대비 증가율
석탄	11.6
코크스	2.5
전력	8.1
야금	10.9
화학	7.8
장비제조업	33.3
의약	12.5
식품	14.3

자료 : 山西省2012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장비제조, 석탄 화학, 신소재, 식품 등이 있으며 향후 신에너지, 차세대 IT 산업 등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하에서는 전통산업으로 산시성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석탄산업과 야금산업의 발전 배경 및 전망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 (1) 석탄산업

### 1) 개황 및 발전배경

산시성은 중국 제1의 석탄산지로서 중국 에너지 자원 공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체 성 면적의 40.4%에 해당하는 62,000km<sup>2</sup>가 석탄산지이며 석탄 매장량은 2,600억 톤이 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sup>10)</sup> 2012년 기준,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 가운데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66.6%로 석유(18.8%)나 천연가스(5.3%)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이에 대한 산시성의 기여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기준 석탄 채굴 및 세선(洗選)업의 생산량(부가가치)은 3,836억 위안으로 전체 광공업 생산량의 60.9%, 산시성 전체 GDP의 34.1%를 차지했다.

10) 山西省發改委(2007). “山西省煤炭工業“十一五”發展規劃”.

〈표 4-2〉 산시성 주요 광공업 생산량(부가가치)(2011년)

단위: 억 위안

	부가가치	비중
광업	3,836	63.4
석탄 채굴 및 세선	3,687	61.0
제조업	1,916	31.7
석유가공, 코크스 제련 등	390	6.5
금속제련 및 압연	593	9.8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	154	2.6
전력, 가스, 물 생산 및 공급	295	4.9

자료: 山西省统计年鉴(2012).

그러나 석탄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하여 산시성의 경제는 시장 변동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산시성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코크스 등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면서 산시성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에 산시성은 자원의존적인 경제구조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8년 석탄 자원의 통합 및 구조조정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고 2년간 석탄 기업의 합병 및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8년 말 2,598곳에 이르던 탄광 수는 2010년 1,053곳으로 줄었고 연간 생산량 30만 톤 이하의 소규모 탄광들은 폐광되었으며 채굴 작업의 기계화가 진행되었다.<sup>11)</sup> 뿐만 아니라 석탄산업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었다. 2012년 말 기준, 석탄산업 관련 기업의 영업이익(主營業務收入)은 7,28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0.0% 증가하였다.

〈표 4-3〉 산시성 석탄생산량

단위: 만 톤

	2010년	2011년	2012년
석탄생산량	74,096	87,228	91,300

자료: 山西省统计年鉴(2012).

11) 「經濟日報」(2011, 11, 22), 「山西煤炭產業在整合中實現跨越發展」.

산시성 정부는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석탄 대형기업의 생산량을 산시성 전체 석탄 생산량의 80% 이상, 석탄산업의 판매수입 1조 위안 이상, 부가가치를 4,500억 위안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석탄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전망이다.

## 2) 주요 기업 및 산업클러스터 현황

산시성의 대표적인 석탄 기업으로는 다통석탄업주식유한공사(大同煤業股份有限公司), 양취안석탄업주식유한공사(陽泉煤業股份有限公司), 산시시산매전주식유한공사(山西西山煤電股份有限公司) 등을 들 수 있다.

다통석탄업주식유한공사(大同煤業股份有限公司)는 2001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다통탄광그룹유한책임공사(大同煤礦集團有限責任公司)를 지주회사로 두고 있으며 2006년 상하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다. 석탄 채굴, 가공, 판매 외에도 기계 제조, 고령토 가공 및 판매, 철로 시공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2012년 석탄 생산량은 3,819만 톤으로 전년보다 6.26% 증가하였으며 직원 수는 2만 4,811명에 달한다. 지주회사인 다통탄광그룹유한책임공사는 중국의 3대 탄광 국유기업으로 자산이 1,350억 위안에 이르는 대형 종합 에너지 기업이다.<sup>12)</sup>

양취안석탄업주식유한공사(陽泉煤業股份有限公司)의 이전 명칭은 ‘산시국양신능주식유한공사(山西國陽新能股份有限公司)’로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2011년 7월에 지금의 기업명으로 변경되었다. 주로 무연탄을 생산하며 직원 수는 4만 958명이다. 무연탄 생산 외에도 전력 생산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업이익 가운데 약 3%는 수출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1950년에 설립된 양취안석탄업유한책임공사(陽泉煤業有限責任公司)로 산시성 내 5대 석탄그룹 중 하나이다.<sup>13)</sup>

한편 산시성은 12·5계획 기간 동안 ‘진베이(晋北)<sup>14)</sup> 동력탄, 진중(晋中) 코크스, 진

12) <http://www.dtmy.com.cn/portal/index.htm>, <http://baike.baidu.com>(검색일: 2013. 10. 28.)

13) <http://www.gyne.com.cn/>(검색일: 2013. 10. 28.)

14) ‘빽’은 산시성의 약칭으로 진베이(晋北)는 산시성의 북쪽 지역을 의미한다.

〈표 4-4〉 산시성 석탄산업 주요 기업 생산 제품 및 영업이익

기업명	주요 생산 제품	영업이익
다통석탄업주식유한공사(大同煤业股份有限公司)	석탄	173억 위안
양취안석탄업주식유한공사(阳泉煤业股份有限公司)	석탄	715억 위안
산시시산매전주식유한공사(山西西山煤电股份有限公司)	석탄	312억 위안
산시루안환경보호에너지개발주식유한공사 (山西潞安环保能源开发股份有限公司)	석탄	201억 위안

자료 : 山西省统计年鉴(2012).

둥(晋東) 무연탄 의 석탄화학 종합기지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진베이 지역은 다통(大同)그룹과 중국 해양석유회사(中海油, CNOOC) 등 기업을 중심으로 양가오룽취안화학공업신소재원구(陽高龍泉化工新材料園區)와 다통석탄그룹석탄화학공업 순환경제원(同煤集團煤化工循环經濟園)을 건설하고자 한다. 주요 생산 품목은 석탄을 원료로 하는 메틸알코올, 알켄, 천연가스 등이다. 진중 기지는 양취안석탄그룹(陽煤集團), 산시점결탄그룹(山西焦煤) 등을 중심으로 7개의 화학공업 원구를 건설하고 중국 내 최대의 코크스 심가공 기지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진둥 지역에는 풍부한 무연탄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종합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며 5,000만 톤급의 석탄기업 그룹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 3) 발전 전망

중국 내에서 에너지 자원과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산시성의 에너지 산업 역시 활발하게 발전할 전망이다. 산시성은 제조업 육성정책을 통해 원자재와 중공업을 발전시키면서 발전 기반을 마련해 왔다. 특히 산시성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인 석탄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성을 높였다. 산시성은 풍부한 석탄자원을 기반으로 향후 관련 산업 사슬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12년의 경우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수력 발전량 증가에 따라 화력 발전량의 증

가세가 주춤하면서 석탄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 그러나 중국 석탄산업협회는 지난 4월 열린 ‘중국 석탄산업협회 회원대표 총회’에서 향후 석탄 수요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20년 중국의 석탄 소비량이 50억 톤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sup>15)</sup> 중국 정부가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 및 1인당 국민 소득을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중국의 석탄 소비가 매년 3~4%씩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본 것이다. 이와 더불어 2013년 1월 1일부터 중국 정부가 석탄 가격에 대한 통제를 중단함에 따라 향후 석탄 가격도 점차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sup>16)</sup>

한편 중국 정부는 12·5 기간 동안 중국 전체 석탄 기업의 수를 4,000개 이내로 제한하고 1억 톤급 광구 10곳, 5,000만 톤급 대형 석탄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 (2) 야금

### 1) 개황 및 발전배경

산시성은 석탄, 코크스, 보크사이트, 철광석 등 지하자원이 풍부해 야금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스테인리스강 생산에 있어 중국 내 최대 특수강 생산기지인 타이위안철강공사(太原鋼鐵集團公司)와 중국 내 최대 알루미늄 생산기지로 꼽히는 산시알루미늄공장(山西鋁廠)이 산시성에 위치하고 있다.

2010년 야금 산업의 GDP는 2,576억 위안으로 중국 전체 산업 GDP의 20.7%를 차지했으며 총 매출액은 2,611억 위안을 기록했다. 생산량에 있어서는 2010년 기준 스테인리스강과 마그네슘의 생산량이 각각 272만 톤, 30만 톤으로 중국 내 1위를 기록했으며 산화알루미늄과 생철의 생산량이 각각 363만 톤, 3,355만 톤을 기록해 중국 내 4위 및 5위를 차지했다.

15) 「經濟日報」(2013. 4. 28), 「中國煤炭需求量未來將保持适度增長」.

16) 중국 국무원 관공청, 「전기·석탄의 시장화 개혁 심화에 대한 지도의견(關於深化電煤市場化改革的指導意見)」,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전용 석탄에 대한 임시 개입 조치 해제 통지(關於解除發電用煤臨時干預措施的通知)」.

〈표 4-5〉 산시성 주요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 생산량 및 순위(2010년)

단위: 만 톤

	생산량	순위
생철	3,355	5위
조강	3,049	6위
스테인리스강	272	1위
강재	2,862	7위
산화알루미늄	362	4위
마그네슘	30	1위

자료: 山西省冶金工业发展“十二五”规划(2013).

야금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철강 생산 시설도 대형화·현대화되고 있다. 1,000㎡ 이상의 대형 용광로는 2005년 말 4곳에서 2010년 말 13곳으로 약 3배 증가했다.<sup>17)</sup> 특히, 타이위안철강회사는 전 세계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현대화된 스테인리스강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어 산시성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타이위안철강공사, 창즈철강유한공사(首鋼長治鋼鐵有限公司), 산시중양철강유한공사(山西中陽鋼鐵有限公司) 등 일부 대형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야금 산업 관련 기업이 생산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에 속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업 중단, 매출 및 영업이익 하락 등의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현재 철강 및 비철금속 분야는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급과잉 상태에 놓여 있어 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산시성은 야금 산업 구조조정 및 관련 생산 시설의 업그레이드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 2) 주요 기업 및 산업클러스터 현황

산시성 소재 야금기업은 800여 개에 달하며 주로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을 생산하고 있다. 주요 기업으로는 타이위안철강공사(太原鋼鐵集團公司), 중타오산비철금속공사(中條山有色金屬集團公司), 산시알루미늄공장(山西鋁廠) 등이 있다.

17) 山西省人民政府辦公廳(2013), “山西省人民政府辦公廳關於印發山西省冶金工業發展‘十二五’規劃的通知”.

타이위안철강공사는 1934년 설립된 기업으로, 바오강(宝鋼), 우강(武鋼)과 더불어 중국 내 10대 철강 회사에 속한다.<sup>18)</sup> 연간 생산능력은 1,000만 톤이며 그중 스테인리스강 생산능력은 300만 톤으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조선, 컨테이너, 철로, 자동차, 우주선 등의 재료로 쓰이며, 특히 철로 건설 분야에서 중국 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아울러 2005년 발사된 중국의 두 번째 유인 우주선 ‘선저우6호(神舟六号)’ 와 2007년 발사된 달 탐사선 ‘창어1호(嫦娥一号)’ 에 제품을 공급하기도 했다. 총 자산규모는 1,197억 위안, 2012년 영업이익은 1,406억 위안으로 2015년까지 영업이익 2,000억 위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19)</sup>

중타오산비철금속공사는 1956년에 설립되었으며 중국 내 주요 구리 생산 기업 중 하나이다. 2012년 말 기준 총 자산은 89억 5,000만 위안이며 종업원 수는 12,448명에 이른다. 연간 구리 생산 능력은 13만 톤으로 2013년 중국 500대 제조업 기업에 선정되었다. 주요 생산 제품은 구리, 황산, 시멘트 등이다.<sup>20)</sup>

산시알루미늄공장은 중국알루미늄공사(中國鋁業公司)의 산시성 공장으로 총 자산 50억 위안, 연간 매출액 30억 위안의 중국 내 최대 알루미늄 생산기지이다. 10,000명에 달하는 종업원이 재직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 제품인 알루미늄의 연간 생산능력은 2만 톤이다. 사업 분야는 자원·에너지, 건축 자재, 신소재 등이며 물류, IT, 직업교육 등의 서비스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sup>21)</sup>

〈표 4-6〉 산시성 야금산업 주요 기업 생산 제품 및 영업이익

기업명	주요 생산 제품	영업이익
타이위안철강공사(太原钢铁集团公司)	스테인리스강	1,406억 위안
중타오산비철금속공사(中条山有色金属公司)	구리, 알루미늄	101억 위안
산시알루미늄공장(中国铝业公司山西铝厂)	알루미늄	30억 위안*

자료 : KOTRA 실사, baidu(百度) 및 각 기업 홈페이지 내용 종합.

주 : 산시알루미늄 공장의 경우 영업이익 수치 대신 매출액 수치 사용.

18) <http://www.opsteel.cn/news/2013-03/D74DC1EFB91C9B42E9040080A7DC91B1C.html>(검색일: 2013. 10. 28.)

19) <http://www.tisco.com.cn/>(검색일: 2013. 10. 28)

20) <http://www.zhongtiaoshan.com.cn/>(검색일: 2013. 10. 28)

21) <http://www.jinlvw.com/>(검색일: 2013. 10. 28)

산시성의 철강 및 비철금속의 생산은 점차 주요 산업기지에 집중되고 있다. 철강 생산은 타이위안, 장즈(長治), 윈청(云城), 린펀(臨汾), 뤼량(呂梁) 등 다섯 개의 산업기지로 집중되고 있으며, 산화알루미늄의 생산은 주로 진난(晉南), 진베이(晉北), 진시(晉西), 진둥(晉東) 네 곳의 산화알루미늄기지에 집중되고 있다. 전해알루미늄 생산 및 알루미늄 가공 산업은 타이위안, 윈청, 양취안(陽泉), 위안핑(原平) 등 네 곳의 알루미늄 산업단지(產業園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타이위안시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타이위안 스테인리스강 생태공업단지(太原不銹鋼生態工業園區)는 2004년 8월 건설되었으며 2006년 4월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성급 개발구로 지정되었다. 총 면적은 약 2.3km<sup>2</sup>이다. 주요 기업으로는 산시타이위안철강스테인리스강파이프공사(山西太鋼不銹鋼鋼管公司), 타이위안공구공장(太原工具廠), 산시리싱보위스테인리스유한공사(山西麗興渤宇不銹鋼有限公司) 등이 있다.

### 3) 발전 전망

중국의 철강 및 비철금속의 공급과잉 문제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이슈이다. 여기에 원료 가격 및 생산원가 상승이 겹쳐 향후 중국의 야금 산업은 생산량 통제, 관련 기업 간 인수합병, 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시성 역시 12·5 기간 동안 철강 생산 기업 수를 10곳 이내로 통제하는 동시에 매출액과 산업 부가가치는 각각 5,000억 위안 이상, 1,000억 위안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sup>22)</sup> 이로 보아 산시성의 야금 산업이 향후 특정 산업기지를 중심으로 대형화, 집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시성 정부는 2012년 말 현재 51.3%에 달하는 도시화율을 제12차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2015년 말까지 5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앞으로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 철강이나 시멘트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22) 山西省人民政府辦公廳(2013), “山西省人民政府辦公廳關於印發山西省冶金工業發展“十二五”規劃的通知” .

〈표 4-7〉 산시성 야금산업 12·5 기간 주요 목표

	목표 수치
매출액	5,000억 위안
산업 부가가치	1,000억 위안 이상
생철 생산량	4,500만 톤
조강 생산량	4,000만 톤
스테인리스강 생산량	450만 톤
산화알루미늄 생산량	1,000만 톤
마그네슘 생산능력	180만 톤 이내
다결정실리콘 생산량	5만 톤
철강 생산 기업 수	10곳 이내

자료: 山西省冶金工业发展“十二五”规划(2013).

### (3) 장비제조업

#### 1) 개황 및 발전배경

산시성의 장비제조업은 중형기계 및 광산기계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장비제조업은 산시성 내에서 석탄, 코크스, 야금, 전력에 이은 주요 산업으로, 세부적으로는 금속제품업, 통용설비제조, 전문설비제조, 교통운수장비제조, 전자 및 통신장비 제조, 기계 제조, 전기장비 등의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23)</sup> 산시성 통계공보(山西省2012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에 따르면 2012년 장비제조업의 성장률은 33.3%로 식품(14.3%), 의약산업(12.5%) 등 다른 산업의 성장률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의 성적을 살펴보면, 장비제조업의 총 이윤은 2005년 8억 4,000만 위안에서 2010년 30억 9,000만 위안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9.8%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한 해 뒤인 2011년에는 55억 위안으로 늘어났다. 총 생산액은 2005년 388억 9,000만 위안에서 2010년 1,106억 위안으로 매년 23.2%의 성장을 했으며 2011년에는 1,258억 위안으로 증가했다. 산시성은 특히 석탄 관련 장비, 중형기계, 방직기계, 유압부품 등 분야

23) <http://www.shanxigov.cn/>, “山西省人民政府辦公廳關於印發山西省利用外資和境外投資十二五規劃的通知” (검색일: 2013. 10. 28).

에서 중국 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신에너지 관련 장비, 신형 전자 장비, LED 등 향후 잠재력이 큰 장비제조 분야에 있어서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산시성은 장비제조업을 자원 의존형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주요 신흥 산업으로 지정하고 2009년 5월 산업 규모 확대와 브랜드 육성, 기술 수준 제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시성 장비제조업 조정 및 진흥계획」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산시성 정부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장비제조업이 산시성 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높지 않다. 2011년 총 생산액 기준으로 장비제조업이 산시성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중국 평균 32.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산시성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산시성의 장비제조업 총 생산액 및 중국 내의 비중은 중부 6성 가운데에서도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수에 있어서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산시성 장비제조업 기업 수는 800개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산시성을 제외한 나머지 중부 지역의 장비제조업 기업 수는 약 1,000개 이상으로 산시성 장비제조업 기업 수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형 기업보다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대부분이며 전문화된 분업 체계나 경쟁력 있는 산업클러스터가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다.

〈표 4-8〉 산시성 장비제조업 발전 현황(2011년)

단위: 억 위안, 명

	기업 수	총 생산액	총 부가가치	이윤총액	고정자산 총액	종사인원 수 (연평균)
제조업 전체	2,176	7,999	1,916	247	3,601	1,050,269
장비제조업 계	513	1,258	268	55	460	291,082
금속제품업	130	207	40	5	96	54,540
통용설비제조	107	149	36	8	42	30,194
전용설비제조	110	366	70	12	100	58,902
교통운수설비	72	212	13	5	85	37,711
전기기계 및 기자재	52	121	28	7	37	14,899
통신설비, 컴퓨터	29	181	71	16	93	90,068
계기제조	13	22	10	2	7	4,768

자료: 山西省统计年鉴(2012).

〈표 4-9〉 중국 전체 및 중부 6성의 장비제조업 총 생산액 및 비중

단위: 억 위안, %

지역	2008년		2009년		2010년	
	총 생산액	중국 내 비중	총 생산액	중국 내 비중	총 생산액	중국 내 비중
중국 전체	166,949.9	100.0	185,363.1	100.0	236,996	100.0
<b>산시</b>	<b>732.6</b>	<b>0.4</b>	<b>753.88</b>	<b>0.4</b>	<b>1,106.02</b>	<b>0.5</b>
안후이	3,173.6	1.9	4,205.83	2.3	6,069.04	2.6
장시	1,544.9	0.9	1,970.62	1.1	2,751.19	1.2
허난	4,453.4	2.7	5,114.47	2.8	6,808.42	2.9
후베이	4,373.5	2.6	4,997.02	2.7	7,192.19	3.0
후난	2,583.5	1.5	3,428.3	1.8	5,112.13	2.2

자료: 山西统计信息网.

장비제조업은 산시성 정부가 앞으로의 발전을 강조하는 신흥산업으로 산시성의 전통 우위 산업인 석탄산업이나 야금산업에 비해서는 중국 내 비중이 아직 크지 않지만, 최근 발전 속도가 빠르고 중앙 정부와 성 정부가 모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산업이다.

한편 산시성은 현대 장비제조업 발전에 대한 1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2015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장비제조업 기업의 판매수입을 3,500억 위안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표 4-10〉 중국 전체 및 중부 6성 장비제조업 기업 수

단위: 개, %

지역	2008년		2009년		2010년	
	기업 수	중국 내 비중	기업 수	중국 내 비중	기업 수	중국 내 비중
중국 전체	144,653	100	147,176	100	154,406	100
<b>산시</b>	<b>666</b>	<b>0.5</b>	<b>727</b>	<b>0.5</b>	<b>789</b>	<b>0.5</b>
안후이	3,533	2.4	4,443	3.0	5,216	3.4
장시	1,343	0.9	1,406	1.0	1,507	1.0
허난	4,360	3.0	4,191	2.8	4,727	3.1
후베이	3,460	2.4	4,049	2.8	4,796	3.1
후난	2,477	1.7	2,715	1.8	2,939	1.9

자료: 山西统计信息网.

## 2) 주요 기업 현황

산시성의 주요 장비제조업 기업으로는 타이위안중형기계그룹유한회사(太原重型機械集團有限公司), 진시기계공업유한회사(晉西機器工業集團有限責任公司) 등이 있다.

타이위안중형기계그룹은 중형기계 및 전용설비를 주로 제조하는 기업으로 1950년에 설립되었으며, 2005년 중국 500대 제조업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린 특대형국유기업(國家特大型骨干企業)이다. 그룹 내 계열사로는 타이위안중공업주식유한공사(太原重工股份有限公司), 타이중그룹석탄기계유한공사(太重集團煤機有限公司), 위츠유압그룹유한공사(榆次液壓集團有限公司) 등이 있으며 직원 수는 총 1만 3,676명에 달한다. 주요 생산 제품으로는 크레인 설비, 굴착 설비, 우주선 발사 장치, 압연기 유막 베어링, 관압연기, 단조프레스 등이 있다. 특히 갱내 설비 및 노천 탄광의 채굴, 운반, 선별 등 일련의 작업과 관련한 설비를 모두 갖춘 중국 내 유일한 공급업체로서 석탄 심가공 분야 및 차세대 산업으로 꼽히는 석탄 에너지 화학 산업 분야의 설비도 생산하고 있다. 아울러 1,200톤의 산사댐 건설용 다리형 기중기, 서기동수(西氣東輸) 공정의 나선형 용접관 등 중국의 주요 프로젝트에 사용된 설비를 공급한 대표적 장비제조업체이다.<sup>24)</sup>

진시기계공업유한회사는 군수장비 제조 국유기업인 중국병기공업그룹공사(中國兵器工業集團公司)의 자회사이다. 종업원은 1만 6,000명에 달하며 산시성, 허베이성(河北省), 내이명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다. 생산 제품으로는 석유 탐사 설비, 철도 차축, 이음매 없는 가스 실린더, 자동차 부품, 신형 소재 등이 있다. 특히 철도 차축의 경우 이미 북미, 남미, 유럽, 동남아, 오스트레일리아 등 여러 국가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서 알스탐(ALSTOM), 봄바디어(Bombardier), 지멘스(Siemens)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sup>25)</sup>

24) <http://taiyuanzhongxingjixie.cn.gongchang.com/>(검색일: 2013. 10. 28)

25) <http://www.jxgc.com/>(검색일: 2013. 10. 28)

### 3) 발전 전망

중국은 수출주도형 경제 발전 방식에서 소비주도형 경제 발전 방식으로의 전환을 천명하고 내수 확대를 위한 도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중국의 도시화율이 높아지고 소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도시 건설 및 자원 개발에 소요되는 장비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할 전망이다. 산시성 정부 역시 산업 구조 조정 및 산업 수준 업그레이드를 위해 앞으로 장비제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하며, 2013년 4월에는 IT 산업과 장비제조업의 융합 발전을 골자로 하는 「현대장비제조업 발전에 관한 제12차 5개년 계획 통지」를 발표한 바 있다. 동 계획의 내용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R&D 비용 비중을 매출액의 1.5%까지 끌어올리고, ‘베이징 중관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시범사업’을 참고하여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무형 자산을 유형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장비제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 역시 산시성을 중국 내 주요 장비제조업 기지로 지정하고 타이위안(太原), 다통(大同), 창즈(長治), 양취안(陽泉) 등 4개 도시가 ‘동북 노후공업기지 진흥정책(振興東北老工業基地政策)’의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중앙정부와 산시성 정부의 장비제조업 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각종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 산시성의 장비제조업은 향후 발전을 위한 유리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 서비스업

산시성은 석탄산업 위주의 경제 발전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최근 장비제조, 관광업 등과 같은 비석탄산업의 발전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발전으로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제고되면서 숙박 및 요식업, 유통업, 관광업 등의 서비스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 2012년 산시성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동기 대비 9.5% 증가한 4,406억 위안으로 산시성 GDP의 36.4%를 차지했다.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액도 동기 대비 23.8% 증가해 4,416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산시성 전체 투자에서 관련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표 4-11〉 산시성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억 위안, %

업종	투자금액 (2012년)	증가율 (전년대비)	비중	
			2012년	2009년
고정자산 투자 총액	9,176	24.5	100.0	100.0
1차 산업	381	40.5	4.2	4.4
2차 산업	4,154	24.0	45.3	43.0
제조업	1,970	44.3	21.5	18.0
3차 산업	4,642	23.7	50.6	52.6
교통운수, 창고 및 우편업	1,328	7.4	14.5	15.6
도·소매업	192	29.4	2.1	1.7
숙박 및 요식업	60	16.8	0.7	0.9
부동산업	1,860	25.8	20.3	18.3

자료: 山西省2012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山西省统计年鉴(2010).

2009년에 비해 2.6%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 투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이하에서는 산시성 서비스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유통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 □ 도·소매 유통업

### 1) 개황 및 발전배경

유통업은 산시성에서 공업 다음으로 규모가 큰 산업이다. 2011년 유통업의 부가가치는 1,108억 위안으로 성 전체 GDP의 10%를 차지했으며 서비스업 내 비중은 28.6%를 기록했다. 그중 도·소매업의 부가가치는 847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6)</sup>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산시성의 도·소매업 상품 총 매출액은 연평균 44.9%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 전체 상품 매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인 26.8%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26) 趙淑琪(2012), 「山西省流通產業發展研究」.

〈표 4-12〉 중국 전체 및 산시성 도·소매업 상품 매출액

단위: 억 위안, %

상품 매출액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중국 전체	201,166	276,636 (37.5)	360,526 (30.3)	410,532 (13.9)	26.8%
산시성	3,573	5,550 (55.3)	7,780 (40.2)	10,867 (39.7)	44.9%

자료: 中国统计年鉴(2010, 2011, 2012 및 2013년 판).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표 4-13〉 산시성 도·소매업 기본 현황

	기업 수(개)		종업원 수(명)	
	2011	2012	2011	2012
도매업	911	1,092	83,353	98,201
소매업	1,533	1,827	130,032	151,100
전 체	2,444	2,919	213,385	249,301

자료: 中国统计年鉴(2012 및 2013년 판).

〈표 4-14〉 산시성 업체별 도·소매 상품 판매액(2011년)

단위: 만 위안

	합계	도매업	소매업
식료품점	18,264	1,700	16,564
편의점	312,300	51,053	261,247
할인점	12,784		12,784
슈퍼마켓	827,593	20,616	806,977
대형슈퍼마켓	269,792	623	269,169
창고형 할인매장	354,503	289,642	64,860
백화점	1,358,738	79,825	1,278,913
전문점	8,486,931	1,350,213	7,136,718
특화점	4,232,506	299,328	3,933,178
가구, 실내자재 전문점	65,628	23,429	42,199
쇼핑몰	181,960	-	181,960
공장직거래센터	656,440	111,998	544,442

자료: 山西省统计年鉴(2012).

산시성 내 일정 금액 이상 규모<sup>27)</sup> 도·소매 법인 기업 수는 2011년 2,444개에서 2012년 2,919개로 증가했으며 종업원 수는 같은 기간 21만 3,385명에서 24만 9,301명으로 늘어났다. 최근 2년간 도매업과 소매업의 현황을 비교해 보면, 소매업이 도매업보다 산시성 유통업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유통업의 경영 규모나 경영 주체 및 방식에도 최근 들어 다양한 변화가 일고 있다. 백화점 외에도 편의점, 전문점, 슈퍼마켓, 쇼핑몰, 창고형 할인매장 등 다양한 형태의 유통 매장이 들어서고 있다. 화위 쇼핑몰(華宇購物中心), 왕푸징 백화점(王府井百貨商場) 등 매출액 20억 위안 이상의 대형 소매 기업뿐만 아니라 메이터하오(美特好), 탕지우 슈퍼마켓(唐久超市), 진후 편의점(金虎便利) 등 매출액 10억 위안 이상의 체인 스토어를 운영하는 유통 기업도 산시성 내에서 상권을 넓혀 가고 있다. 특히 메이터하오와 탕지우는 중국 내 100대 체인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외자 유통기업으로는 월마트, 까르푸, 百盛(Parkson) 백화점 등이 산시성에 진출해 있다. 업종별 도·소매 판매액을 살펴보면, 석탄 등 광산품류의 판매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동차류, 식품 및 음료류의 도·소매 판매액이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가전하향(家電下鄉) 정책 등의 효과로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통업 발전을 뒷받침해 주는 물류 기반시설도 빠르게 완비되고 있다. 산시성은 이 지역에서 생산된 지하자원을 외부 지역으로 운송하기 위한 교통·운수 시설이 비교적 발달한 편이다. 2010년 물류업의 GDP는 790억 위안으로 성 전체 GDP의 8.7%를 차지했다. 이는 2005년보다 무려 95.8%가 증가한 것으로 산시성의 물류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시성의 대표적인 대형 물류기업으로는 타이위안 철강공사, 산시석탄운송판매그룹(山西煤炭運銷集團有限公司), 산시타이티에연합물류공사(山西太鐵聯合物流有限公司)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화련그룹(華聯集團), 하오더그룹(豪德集團), 자이지송(宅急送) 등의 물류 기업들도 타이위안, 다통, 쉬저우(朔州), 원청 등 산시성의 주요 도시로 진출하였다. 산시성은 앞으로 타이위안도시권(太原

27) 중국의 도·소매업 통계는 일정 금액 이상 규모(限額以上)의 기업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다. 일정 금액 이상 규모의 기업이란 소매업의 경우 종업원 60명 이상 연매출 500만 위안 이상을, 도매업의 경우 종업원 20명 이상 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을 의미한다.

〈표 4-15〉 일정 금액 이상 도·소매 기업 상품별 판매총액(2011년)

단위: 억 위안

지표	합계	도매업	소매업
식품, 음료, 담배 도매	409	402	7
섬유, 의류, 일상용품 도매	15	14	1
문화, 체육용품 및 기자재 도매	39	38	1
의약 및 의료기기 도매	92	92	
중약재 및 제약 도매	28	273	1
광산품, 건축자재, 화학공업제품 도매	5,352	5,272	80
기계설비, 교통 및 전기 관련 금속기자재, 전자제품 도매	103	98	5
가전제품 도매	27	26	1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관련설비 도매	3	2	1
식품, 음료, 담배 전문소매	37	6	31
과일, 채소 소매	15	3	12
섬유, 의류, 일상용품 소매	61		61
문화, 체육용품 및 기자재 전문소매	40	4	36
의약 및 의료기기 전문소매	44	10	35
자동차, 오토바이 연료 및 관련부품 전문소매	1,112	178	934
가전 및 전자제품 전문소매	82	8	74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관련설비 소매	11	2	9
통신설비소매	5		5
가구 소매	10		10

자료: 山西省统计年鉴(2012).

都市圈)을 현대물류허브 및 물류서비스의 중심 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창고 및 택배 센터 등을 건설하고 철도, 항구, 도로, 항공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물류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물류 환경의 발전으로 산시성 유통 시장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2) 주요 시장

산시성에서 거래액이 1억 위안 이상인 유통시장은 총 39곳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의복, 일용잡화, 식품 등을 취급하고 있는 윈청시위두시장(運城市禹都市場)의 규모가 가

장 크다. 원청시위두시장은 산시성 원청시의 동부 교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2년에 생겨난 종합 대형 시장으로 2011년 거래액은 약 275억 위안을 기록했다. 두 번째로 거래액이 큰 시장은 타이위안시에 위치한 지엔차오핑취싱예강재시장(尖草坪區興業鋼材市場)으로 2011년 거래액은 57억 위안이다. 동 시장은 2012년 중부 지역 내 상품 거래액 기준 상위 50위 시장에 포함되기도 했다. 매장 수가 170개에 불과해 매장당 거래액은 소매 제품 판매를 위주로 하는 원청시 위두시장보다 훨씬 높다.

〈표 4-16〉 산시성 주요 유통시장 현황

명 칭	매장 수 (개)	거래액 (만 위안)	면적 (m <sup>2</sup> )
원청시위두시장 (运城市禹都市场)	6,101	2,746,014	651,000
타이위안시젠차오핑취싱예강재시장 (太原市尖草坪区兴业钢材市场)	170	571,000	111,800
린펀시아오두취우유시장/야오핑농산품도매시장 (临汾市尧都区奶牛场/尧丰农产品批发市场)	1,030	266,946	60,000
타이위안시허시농산품유한공사 (太原市河西农产品有限公司)	1,347	223,000	220,000
창즈시즈광농산품종합교역시장 (长治市紫坊农产品综合交易市场)	1,000	162,000	86,000
산시현대가구대세계유한공사 (山西现代家居大世界有限公司)	1,100	107,900	120,000
신장현윈허완시장 (新绛县汾河湾市场)	452	66,947	25,680
홍둥현리엔화성농산물판매유한공사 (洪洞县莲花城农副产品营销有限公司)	960	62,660	47,040
호우마시신강의류센터 (侯马市新港服装城)	2,311	62,184	70,973
다둥시신롱취도로석탄유통시장 (大同市新荣区公路煤炭交易市场)	10	56,275	200

자료: 山西省统计年鉴(2012).

## 제2절 안후이성의 주력 산업과 주요 기업

### 1. 제조업

안후이성의 주력 제조업은 자동차와 장비제조업이다. 지게차, 굴착기, 대형 버스, 유압기, 대형 잠수전기펌프 등과 관련된 생산량은 전국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기술력 역시 중국 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2012년 기준, 안후이성의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액은 약 7,55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6.2% 증가했다. 동 증가율은 전국의 10.0%, 중부지역의 11.3%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12·5계획 기간 중 안후이성은 신소재,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등 전략적 신흥산업과 자동차, 장비제조, 가전 등을 포함한 전통 제조업을 꾸준히 육성할 계획이다.

#### (1) 자동차

##### 1) 산업 현황

안후이성 자동차 공업은 1968년에 시작해 1970년대 초반 산업의 기본 틀이 구축됐고 2000년 이후에는 생산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자동차 생산 및 판매량이 중국 내 31개 성시 중 6위를 차지하며 중형 화물차량 생산지에서 점차 소형 승용차, 경형 화물차, 상용차 등으로 생산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안후이성의 자동차 및 부품 생산기업은 1,000여 개에 달하며 우후와 허페이에 2개의 국가급 자동차 및 부품 수출단지가 있다. 안후이성은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 생산 및 관련 A/S까지 비교적 완벽한 자동차 산업 체인을 갖추고 있다. 농업용 수송 차량, 호화 대형 버스 등의 생산량은 전국에서 수위를 차지하며 치루이(奇瑞), 안카이(安凱集團), 싱마(星馬) 등 유명기업들이 소재하고 있다. 특히 장화이(江淮)자동차그룹의 버스새시는 중국 내 우수 품질로 유명하며 시장점유율도 가장 높다. 성도인 허페이시에는 자동차 관련 기업이 200개가 넘는다.

안후이성의 자동차 수출대상국은 대부분 남아메리카, 동남아, 아프리카와 중동 등 지역이며 아직까지는 유력한 자동차 수출 브랜드를 갖추지 못했다. 향후 안후이성은 중·고급 소형승용차 생산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며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동시에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고부가가치형 전문 차량과 핵심부품의 생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 2) 해당 산업클러스터 현황

안후이성에는 허페이와 우후(蕪湖) 등 2개 국가급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단지가 있다. 우후에는 치루이(奇瑞) 자동차그룹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이 있다. 치루이그룹은 100만대 엔진과 90만대 완성차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연속 11년간 중국 토종브랜드 자동차 판매량 면에서 1위를 기록한 기업이다. 이 밖에 독일의 ContinentalAG, 미국의 Johnson, 완샹(萬向) 등 국내외 100여개 유명 자동차 부품기업이 소재한다. 그중 규모 이상 자동차부품기업은 50여개에 달하며 자동차 엔진, 새시 등 부품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 우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단지 계획면적은 약 5km에 달하고 총 투자액이 350억 위안에 달한다. 단지 건설 후 약 1,500억 위안의 공업생산액, 150억 위안의 이윤, 100억 위안의 세수수입이 늘었다.

허페이시 자동차 및 부품의 수출단지는 2008년 국가급으로 인정받았으며 경형 자동차, 새시, 상무차, 대형 호화 버스, 소형 승용차 등 비교적 완벽한 자동차 생산체계를 구축했다. 주요 기업으로는 장화이(江淮)자동차그룹, 안카이(安凱)자동차주식회사 등 완성차 기업과 300여개의 자동차부품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허페이시의 자동차 종합생

〈표 4-17〉 안후이성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현황

산업클러스터	특 징
허페이경제기술개발구	- 허페이시 서남부에 위치, 연간 생산능력 120만대, 생산 800억 위안 - 자동차 및 부품기업 수는 약 331개, 수출액이 6억 달러 초과
우후경제기술개발구	- 우후시 북부에 위치, 자동차 및 부품기업 수 300여개 초과

자료: 본 연구 정리.

산능력은 전국 9위이다. 2015년 자동차 완성차 생산능력은 약 200만대(그중 신에너지 자동차는 50만대), 엔진생산은 150만대에 달하고 현지 부품 조달 비중은 6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공업 생산총액은 1,700억 위안, 완성차 수출량은 10만대, 부품 수출액은 1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3) 주요 로컬 기업 현황

안후이성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으로는 치루이, 안카이, 싱마 등이 있다. 치루이는 1997년 설립된 중국 자동차 업계 대표적인 토종브랜드 중 하나다. 전 세계 80여개 국가와 지역에 승용차를 수출하고 있으며 누계 수출량이 80만대를 초과해 연속 10년간 중국 최대 승용차 수출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2013년 치루이 자동차 판매량은 400만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12년 연속 중국 토종브랜드 자동차 판매량 1위 자리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화이자동차그룹(安徽江淮汽車集團有限公司)은 1997년 설립된 안후이성 12개 중점기업 중 하나로 등록자본금은 12억 8,000만 위안이다. 연간 종합생산능력은 49만 대로 제품군이 다양하다. 중국 500대 제조기업 중 하나로 버스, 버스전용 세시, 중형 및 경형 적재차량과 업무용 차량을 생산한다.

〈표 4-18〉 안후이성 자동차 로컬기업 현황

기업명	사업 내용
치루이자동차주식유한회사	- 중국 자동차 업계 대표적인 토종브랜드 중 하나 - 연간 생산능력 90만대
안후이 장화이자동차그룹	- 자동차 생산판매량 전국 11위 - 중국 500대 제조기업 중 하나
화링싱마자동차그룹주식회사	- 중국 공사전문용 차량기업 중 하나로 콘크리트 레미콘 차량 생산판매량이 전국 1위, 시장점유율 45% 내외
안후이안카이자동차주식회사	- 안후이 장화이그룹과 안후이 투자그룹 등이 지분을 보유 - 중고급, 대중형 호화버스 생산

자료: KOIRA 상하이부역관 실사.

화링싱마자동차그룹주식회사(華菱星馬汽車集團股份有限公司)는 2012년 3월 안후이싱마자동차주식회사가 기업재편성을 통해 설립된 회사다. 안후이싱마자동차주식회사는 1970년 설립된 중국 공사전문용 차량기업이며 2003년 4월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상장했다. 연간 생산량은 5,000대에 달하며 직원 수가 1,000여명에 달한다. 주로 콘크리트 레미콘 차량 등을 포함한 100여개 종류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안후이안카이자동차주식회사(安徽安凱汽車股份有限公司)는 1997년 설립되었으며 선전증권거래소에서 상장했다. 주로 대중형 호화버스 및 버스새시를 생산한다. 고급 호화 버스 중국시장 점유율은 32%가 넘고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두바이, 홍콩, 마카오 등 지역으로 수출한다. 현재 직원 수는 3,000여명, 자산총액은 30억 위안에 달하며 장화이 그룹이 최대 주주로 23.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4) 협회 등 현지 관련 기관 현황

안후이성에는 안후이성 발전개혁위원회, 안후이성 상무청, 안후이성 자동차산업협회 등 자동차 관련 기관 및 협회가 있다. 그중 발전개혁위원회는 경제발전 관련 거시정책을 전반적으로 연구 및 제정하며 산업 조정처, 하이테크 기술처 등 부서가 자동차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상무청은 대외무역 및 투자기관으로 자동차 및 관련 제품의 수출입 정책을 발표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 밖에 자동차협회는 기업들이 자체 설

〈표 4-19〉 안후이성 자동차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 현황

기관명	기능
안후이성 발전개혁위원회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관련된 거시정책을 연구 및 제정하는 기관. 산하에 자동차 산업 관련 기관으로 산업조정처, 하이테크 기술처 등이 있음
안후이성 상무청	해당 지역의 자동차 및 관련 제품의 수출입정책 제정
안후이성 자동차산업협회	해당 지역의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생산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기관으로 중앙 정부의 정책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연구, 건의 제안, 정보 제공, 자문서비스, 대외교류 추진

자료 : KOTRA 상하이무역관.

립한 것이며 정부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산업 관련 조사, 건의서 제출, 정보수집, 자문서비스와 대내외 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다.

### 5) 주요 외국기업 진출 현황

안후이성에 진출한 외국계 자동차기업으로는 ContinentalAG(우후)유한회사, Saginaw 링윈 구동축(우후)회사(沙基諾凌云驅動軸(芙湖)公司), Cooper사이양(우후)자동차부품회사(庫博賽陽 (芙湖) 汽車配件有限公司) 등이 있다.

ContinentalAG(우후)유한회사는 독일 자동차부품기업인 ContinentalAG그룹과 우후시 경제기술개발구 건설총회사가 1995년 합자 설립한 기업으로 중국 측이 11.81%, 독일 측이 88.1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직원 수는 2,400여명이며 연간 수출액은 5,000만 달러를 초과한다.

Saginaw 링윈 구동축(우후)회사(沙基諾凌云驅動軸芙湖公司)는 미국 Delphi그룹과 북방 링윈(凌雲)공업주식회사의 합자로 설립되었으며 자동차 구동시스템과 관련 부품 생산 및 기술서비스에 종사한다.

Cooper 사이양(우후)자동차부품회사(庫博賽陽蕪湖汽車配件有限公司)는 미국 Cooper그룹과 우후 사이양 밀봉(蕪湖賽陽密封)부품유한회사가 합자 설립한 기업으로 등록자

〈표 4-20〉 안후이성 자동차산업 외국계 기업 현황

기업명	생산품목 및 투자 현황	진출 연도
ContinentalAG (우후)유한회사	- 독일계 기업 - 투자총액 1,726만 달러 - 주요 품목은 중고급 승용차 기기. 생산능력은 250만대	1995년
Saginaw링윈 구동축(우후)회사	- 미국 Delphi그룹과 중국계 기업이 합작설립 - 투자총액 6,000만 달러 - 주요 품목은 자동차 구동시스템 및 관련 부품의 생산 및 기술 서비스	2007년
Cooper사이양(우후) 자동차부품회사	- 미국 Cooper그룹과 중국계 기업이 합작설립 - 등록자본금 2,600만 위안 - 주요 품목은 자동차 완충기, 고무과이프, 밀봉부품 등 - 치루이, 상하이GM 등에 납품	2004년

자료 : KOIRA 상하이부역관.

본금이 2,600만 위안에 달한다. 중국 측과 미국 측은 각각 20%와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2) 장비제조

### 1) 산업 현황

안후이성 장비제조업은 교통운송장비, 공사기계, 송배전 설비가 비교적 발달해 있다. 그중 공사기계 공업생산액은 전국 3위로 기타 장비제조에 비해 인지도가 높다. 지게차, 굴착기, 유압기, 대형 잠수 전기펌프, 피스톤 링, 여과기 등의 생산량은 중국 내 수위를 차지한다. 하지만 대형 플랜트설비 제조는 미약하고 장비제품의 기술함량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안후이성은 12·5계획 기간 중 야금, 시멘트, 석탄, 석유화학 등에 사용되는 대형 플랜트 설비와 선박 및 신형 선박용 기계 개발과 생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허페이시는 공사기계, 전기기기, 압연단조기기, 기기, 화공기계, 환경보호 기계 등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중 건설기계 경쟁력이 가장 강하며 안후이 허리회사(安徽合力)는 세계 10대 지게차 생산기업 중 하나로 선정됐다. 유명기업으로는 안후이 지게차 그룹(安徽叉車集團)과 허페이 단조압연그룹(合肥鍛壓集團), 히타치 건설기계 그룹, 텐웨이바오 변압기회사(天威保變(合肥)變壓器有限公司) 등이 있다. 안후이 지게차그룹은 전국 지게차 생산량 1위, 허페이 단조압연그룹(合肥鍛壓集團)은 전국 유압기 생산량 1위, 히타치 건설기계회사 생산량은 전국 3위를 차지한다. 허페이는 병부와 공동으로 형성한 허부(合蚌) 건설 기계 제조 기지를 대형 스마트 공정기계, 대형 운송차, 굴착기 생산기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허페이에서 생산된 장비는 중국 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수출된다. 히타치의 채굴기, 룡안의 저속 디젤기관, ABB의 변압기는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갖추고 있으며 해외로도 수출되고 있다. 허페이시는 12·5계획 기간 말 허페이의 중장비 제조업 GDP 목표를 1,500억 위안으로 설정하고 지게차 10만 대, 굴착기 5만 대, 저속 고효율 선박용 디젤기관 500만 마력의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허페이시 12·5계획’에

따르면, 유압 굴착기, 저에너지 소모 유압 굴착기, 컨테이너 운송 설비 등 신형 건설 기계, 비행기 주요 부품 등의 기능성 부품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2) 해당 산업클러스터 현황

중장비제조 산업은 안후이성의 핵심 산업으로 안후이성에는 이와 관련, 6개의 제조기지가 있다. 허페이 공사기계제조기지, 우후 에너지절감장비제조기지, 병부 환경보호 설비 제조기지, 화이난장비제조기지, 우후선박제조기지, 마안산 야금장비제조업기지 등이다.

〈표 4-21〉 안후이성 장비제조업 클러스터 현황

산업클러스터	특징
허페이 건설기계 제조기지	- 안후이 차치그룹, 히타치 건설기계 유한회사 등 핵심 기업 소재 - 공업운반차량, 굴착기, 시멘트기계, 기중기 등 건설전문차량 등 적극 육성 - 2020년 매출 목표 2,600억 위안
우후 에너지절감 장비제조기지	- 안후이 싸룽(鑫龍)전기주식회사, 우후시 진뉴우(金牛) 변압기 제조회사, 우후 밍웬(明遠) 전력설비 제조회사 등 에너지 절감장비 기업 소재 - 야금업 여열보일러, 발전소 보일러, 에너지절감형 변압기 등 품목 생산 적극 육성 - 2020년 매출액 목표 520억 위안
병부 환경보호 설비제조기지	- 안후이 이이(意義)환경보호설비유한회사, 안후이 형이(恒意) 환경보호 과학기술 유한회사, 병부 공사기계 유한회사 등 환경보호 설비 기업 소재 - 오수 처리장치, 대형 청소기 등 품목 생산 육성 - 2020년 매출 목표 200억 위안
화이난 장비제조기지	- 화이난 카이성(凱盛)중공업 회사, 화이난 신지(新集) 석유화학 기계회사 등 기업 소재 - 대공률 석탄 채굴기, 수송기, 중형 굴착기, 대형 석탄화공 설비 등 품목 생산 육성 - 2020년 매출액 목표 300억 위안
우후 선박제조기지	- 국양(國洋)선박업 제조회사, 신웬(新遠) 조선회사, 장둥(江東) 선박공장 등 기업 보유 - 컨테이너 선박, 화학품 선박, 보트 등 품목 생산 육성 - 2020년 매출 목표 600억 위안
마안산 야금장비 제조업기지	- 안후이 공업 대학교, 안후이 야금 과학기술 직업학원, 중국 야금업 그룹 화텐(華騰) 회사 등 기업 보유 - 코크스 제련 시스템 플랜트설비, 여열 여압 발전 플랜트 설비, 압연 생산라인 플랜트 설비 등 품목 생산 육성 - 2020년 매출 목표 1,600억 위안

자료 : KOTRA 상하이무역관.

각 제조기지별 생산품목이 비교적 전문화되어 있으며 허페이공사기계제조기지는 공업운반차량, 굴착기 등 건설전문차량 제조 중심이다. 우후에너지절감장비제조기지는 야금업과 전기산업에 사용되는 에너지절감형 장비제조업 위주이고, 병부 환경보호 설비제조기지는 오수처리장치 등 대형 환경보호 설비 생산에 주력한다. 화이난장비제조기지는 석탄산업에 소요되는 장비제조를 중심으로 하고, 우후선박제조기지는 각종 선박용 제조업에 주력하며, 마안산야금장비제조기지는 야금업에 필요한 대형 플랜트 설비 생산에 특화되어 있다.

### 3) 주요 로컬 기업 현황

안후이성 장비제조 로컬기업은 안후이 지게차그룹유한책임회사(安徽叉車集團有限責任公司)와 안후이 장화이인랴오우중형건설기계회사(安徽江淮銀聯重型工程機械公司)가 대표적이다.

안후이 차처그룹은 1958년 설립된 허페이 탄광기계회사가 1998년 그룹사로 변경한 것이다. 1991년부터 연속 20여년간 중국 동종 업계 판매 1위를 차지하며 2006년에는 세계 공업 차량 10대 기업으로 선정됐다. 중국 500대 기계 기업으로 2012년 판매량이 6만 9,337대에 달하고 영업수입은 11억 6,300만 위안에 달한다.

안후이 장화이인랴오우중형건설기계회사(安徽江淮銀聯重型工程機械公司)는 안후이 장화이(江淮)자동차그룹 산하 자회사로 지게차, 굴착기 등 공사기계의 개발과 생산

〈표 4-22〉 안후이성 장비제조업 로컬기업 현황

		단위: 만 위안
기업명	사업 내용	투자액
안후이 지게차그룹 유한책임회사	중국 최대 규모의 지게차 생산기업이며 기타 건설기계도 취급	1,226,300 (2012년 영업수입)
안후이 장화이인랴오우 중형건설기계회사	중국 대형 자동차 그룹 안후이 장화이(江淮)자동차그룹 산하 자회사로 지게차, 굴착기 등 공사기계의 개발과 생산에 종사	50,000 (2012년 매출액)

자료: KOIRA 상하이무역관.

에 종사한다. 직원 수는 500여명에 달하며 2012년 지게차 생산량은 8,000대, 매출액은 5억 위안에 달한다.

#### 4) 협회 등 현지 관련 기관 현황

안후이성에는 안후이성 발전개혁위원회, 안후이성 상무청, 안후이성 기계공업협회 등 장비 제조업 관련 기관 및 협회가 있다.

그중 발전개혁위원회는 전반적인 경제발전 거시정책을 연구 및 제정하며 산업 조정처, 하이테크 기술처 등 부서에서 장비제조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상무청은 대외 무역 및 투자기관으로 장비 및 관련 부품의 수출입 정책을 발표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 밖에 기계공업협회는 산업 간, 기업 간 경제기술 교류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 5) 주요 외국기업 진출 현황

안후이성에 진출한 외국계 장비제조기업은 TCM(안후이) 기계 유한회사, 허페이 은스커(恩斯克) 유한회사, 허페이 ABB변압기 유한회사 등이 있다. TCM(안후이) 기계 유한회사는 일본 히타치그룹의 독자투자기업으로 2006년에 설립됐다. 각종 지게차, 적재기, 물류기계, 건설기계, 농업기계, 항구용 기계 및 부품을 생산 판매한다. TCM은 중국, 미국 및 유럽 등에 공장을 설립하고 판매네트워크가 체계화된 기업이다.

〈표 4-23〉 안후이성 장비제조업 협회 등 관련 기관 현황

기관명	기능
안후이성 발전개혁위원회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관련된 거시정책을 연구 및 제정하는 기관으로, 산하에 산업 조정처, 하이테크 기술처 등이 있음
안후이성 상무청	해당 지역의 장비제조 및 관련 제품의 수출입정책 제정
안후이성 기계공업협회	산업 간, 기업 간 경제기술 활동을 담당

자료 : KOIRA 상하이무역관.

〈표 4-24〉 안후이성 장비제조업 외국계 기업 현황

기업명	생산품목 및 투자 현황	진출 연도
TCM (안후이) 기계 유한회사	- 고품질, 고성능의 각종 지게차, 적재기, Port machinery, 건설기계, 물류전용설비 및 관련 부품 생산, 판매 - 투자금액 : 일본 히타치 그룹이 78억 엔 독자투자. 향후 40억 위안 추가 투자 계획 있음	2006년
허페이 은스커(恩斯克) 유한회사	- 일본 세이코가 중국에서 투자한 최대 규모 기업. 주로 첨단 베어링 생산 - 투자금액 : 3억 달러	2011년
허페이 ABB변압기 유한회사	- 전력변압기, 배전변압기, 전기 부품 생산, 판매 - 투자금액 : 3,000만 달러 (독자투자)	1992년

자료 : KOTRA 상하이무역관.

허페이 은스커(恩斯克) 유한회사는 일본 NSK그룹이 중국에 투자한 기업으로 2011년 설립됐다. 첨단 베어링, 자동차용 베어링 및 각종 관련 기계제품을 생산한다.

스위스계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인 허페이 ABB변압기 유한회사는 1992년에 설립된 중국 최초의 변압기 생산 합자기업으로 2005년 독자기업으로 변경됐다. 2006년에는 전력변압기부, 배전변압기부, 전기부품 등 3개 업무부를 설립했다.

### (3) 에너지 및 소재산업

#### 1) 산업 현황

안후이성은 에너지, 전자재, 야금, 비철금속, 화공 등 5대 광산물자원 개발이용 산업이 발전해 있으며 중국의 주요 원자재 공급기지이자 에너지 공급지다. 화이난(淮南)과 화이베이(淮北)는 남부지역 최대의 석탄생산기지이며 마안산철강은 전국 중요한 철강생산기지, 퉁링(銅陵)은 전국의 중요한 동 제련 및 가공기지다. 향후 낙후생산능력을 도태시키는 한편, 우질강재, 특수강제품, 동과 알루미늄 심도 가공, 유색금속 신재료 등 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에너지 절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전략적 신흥산업

중 하나로 발전하고 있다. 허페이시는 12·5계획 기간 중 2,000억 위안 규모의 3대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그중 하나를 차지한다. 아직까지 허페이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초보단계이며 태양광산업을 위주로 발전하고 있다. 향후 LED 유기금속화학증착(MOCVD), 폴리 실리콘 정화, 실리콘 강괴 및 절편, 초박형 태양전지 부품 등을 중점 발전시킬 계획이다. 현재 허페이가 건설 중인 태양전지 생산 공장의 생산 능력은 2,800MW, 부품 생산 능력은 800MW으로 추산된다. 허페이 첨단기술단지는 중국 최초로 ‘태양광 발전 집중 응용 시범구역’ 으로 선정된 바 있다. 허페이시는 총 설치 용량 25.9MW, 총 투자액 4억 8,200만 위안인 국가 ‘진타이양(金太陽) 시범 공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허페이는 태양전지와 LED 외에도 바이오에너지, 건축 에너지 절감 산업, 연료전지, 고효율 전지 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그중 리튬 배터리, 풍력 발전기, 태양광 전지 제어 시스템 개발과 산업화를 장려하고 있다.

## 2) 해당 산업클러스터 현황

안후이성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허페이, 우후, 병부, 안칭, 츠저우(池州)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북부 및 남부 산업클러스터에도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있다.

〈표 4-25〉 안후이성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현황

산업클러스터	특 징
허페이 첨단기술산업 개발구	- 허페이시 서부에 위치 - 국가급 하이테크 개발구로 전자정보, 광전자산업, 생물약산업, 신재료 등에 집중
우후 첨단기술산업 개발구	- 허페이시 중부에 위치 - 광전자 공업원, 신재료 공업원, 자동차 부품 공업원, 방직의료 공업원, 종합 가공원으로 구성 - 프랑스, 한국, 싱가포르, 타이완, 홍콩 등 외국계 기업 입주

자료 : KOIRA 상하이무역관.

## 3) 주요 로컬 기업 현황

마강 그룹(馬鋼集團控股有限公司)은 특대형 철강연합기업으로 철강생산규모가 1,800만 톤에 달한다. 자산총액은 921억 위안, 직원 수는 5만 4,000명이다. 광산물자원, 철강, 비철강산업 등 3대 업무 분야가 있으며 현재 1,000만 톤의 철광석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통링 비철금속 그룹(銅陵有色金屬集團控股有限公司)은 1952년 설립된 중국 최초의 동공업 기업이다. 현재는 비철금속, 화공, 장비제조 등 3대 산업을 중심으로 건설, 시공, 개발, 물류운송, 부동산개발 등에 종사하는 그룹으로 성장했다. 2012년 기준 매출액은 1,065억 위안, 수출입총액은 연속 14년간 중국 동산업종 내 1위를 차지했다.

화이난 광업그룹(淮南鑛業集團有限公司)은 1998년에 화이난 광물국을 개조한 기업으로 중국 동남부지역에서 자원량이 가장 많은 탄광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안후이성의 75%, 화둥지역의 50%를 차지한다. 중국의 억 톤급 석탄생산기지 13곳 중 하나이며 중국 제1기 순환경제시범기업 중 하나로 중국 500대 기업에 속한다. 2015년 목표로 석탄생산량 1억 톤 이상, 자산총액 1,500억 위안을 설정하였다.

〈표 4-26〉 안후이성 에너지산업 로컬기업 현황

기업명	사업 내용
마강 그룹	중국의 대형 철강기업, 안후이성 100대 기업 중 1위
통링 비철금속 그룹	중국 최초의 동공업 기지로 안후이성 100대 기업 중 하나, 중국 500대 기업 중 하나
화이난 광업그룹	국가 13개 억 톤급 석탄생산기지 중 하나, 중국 내 제1기 순환경제시범기업 중 하나로 중국 동남부지역에 석탄자원량이 가장 많은 화이난 탄광 보유
허페이 하이룬 태양광 과학기술 유한회사	태양전지와 구성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첨단과학기술 기업, 최종적으로 3.6 GW의 태양전지 생산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
양광전원 주식유한회사	중국 최초의 태양광 변환기 연구개발, 생산기업이며 변압기 분야 중국 대표기업

자료 : KOTRA 상하이무역관.

허페이 하이룬 태양광 과학기술 유한회사(合肥海潤光伏科技有限公司)는 장쑤성에 소재한 하이룬 태양광 과학기술 주식유한회사(海潤光伏科技股份有限公司)가 안후이성에 투자 설립한 회사로 태양전지와 구성부품을 생산한다. 총 70억 위안을 투자해 3.6GW의 태양전지 생산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양광전원 주식유한회사(陽光電源股份有限公司)는 1997년 설립된 중국 최초의 태양광 변환기 연구개발, 생산기업이자 변압기 분야 중국 대표기업이다. 2010년 제품은 동종 품목 전체 시장의 42.8%를 차지한다. 핵심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약 10개 국가 과학기술 주요 프로젝트 수행 및 업계표준 작성에 참여했다.

#### 4) 협회 등 현지 관련 기관 현황

안후이성에는 안후이성 발전개혁위원회, 안후이성 에너지국, 안후이성 재생가능에너지협회, 안후이성 신에너지협회 등 에너지 관련 기관 및 협회가 있다. 그중 발전개혁위원회는 경제발전 관련 거시정책을 연구 및 제정하며 산업 조정처, 하이테크 기술처 등 부서에서 에너지산업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국은 정부의 사업방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에너지 발전전략을 세우고 에너지 발전규획과 정책을 제정한다.

재생가능에너지협회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관련 법규와 정책을 시행하며 감독 관리

〈표 4-27〉 안후이성 에너지산업 협회 등 관련 기관 현황

기관명	기능
안후이성 발전개혁위원회	-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관련된 거시정책을 연구 및 제정 - 산하에 에너지 관련 기관으로 산업 조정처, 하이테크기술처 등이 있음
안후이성 에너지국	- 국가에너지 사업방침에 따라 관련 정책과 법규 시행 - 해당 지역의 에너지 발전전략 건의 제의, 에너지 발전규획과 산업정책 제정 - 에너지 관련 기업의 발전규획과 생산계획 등 제정
안후이성 재생가능에너지협회	- 1992년 설립, 농촌에너지 분야의 기술 추진, 제품 개발과 생산, 시공을 진행 - 중앙정부의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법규, 정책 시행상황 감독 관리
안후이성 신에너지협회	- 2009년 설립, 신에너지 산업의 개발, 생산, 응용사업 담당

자료 : KOTRA 상하이무역관.

한다. 농촌 분야의 재생에너지 기술 사업을 추진하며 해당 제품의 개발과 생산을 감독 관리한다. 에너지협회는 신에너지 산업의 정책시행과 관련 제품개발, 생산, 응용사업을 담당한다.

#### 5) 주요 외국기업 진출 현황

3M 재료기술(허페이) 유한회사는 미국계 기업인 3M그룹이 중국 내 설립한 제11번째 생산기지다. PowerSav 신재생에너지 회사는 미국의 PowerSav 회사가 2011년 허페이에 대형 LED 사파이어 결정체 생산프로젝트를 투자함에 따라 설립됐다.

허페이 징다 광전 과학기술 유한공사(合肥晶達光電科技有限公司)는 중국과 타이완 합자기업으로 투자총액이 2,200만 달러에 달한다. LED칩, 보완재를 주로 생산하며 직원 수가 150명에 달한다.

〈표 4-28〉 안후이성 에너지산업 외국계 기업 현황

기업명	생산품목 및 투자 현황	진출 연도
3M재료기술(허페이) 유한회사	- 2011년 9월 말 착공. 주로 태양전지 패널, 코팅 연마 등 제품 생산 - 1기 공장 투자규모 : 약 10억 위안. 이는 3M의 대중국 투자 최대 규모 (독자투자)	2011년
PowerSav 신재생 에너지 회사	- 대형 LED 사파이어 결정체 생산 - 투자 계획 :15억 위안(미국 독자)	2011년
허페이 징다광전 과학기술 유한공사	- 주로 LED 칩, 보완재 생산 - 투자금액 : 2,200만 달러(중대만 합자)	2005년

자료 : KOTRA 상하이무역관.

### (4) 관광업

#### 1) 산업 현황

안후이성은 황산, 주화산(九華山), 텐주산(天柱山) 등 유명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관광업이 크게 발달해 있다. 현재 4A급 이상의 관광구가 133개로 전국 수위를 차지하며

그중 5A급 관광구역이 6개 있다.<sup>28)</sup> 4성급 이상의 호텔은 139개, 5성급 호텔은 22개로 중국 중부지역에서 가장 많다. 안후이성의 여행사는 총 1,124개에 달하며 그중 38개 여행사가 해외단체여행을 조직하고 4개 여행사는 타이완행 단체여행 조직이 가능하다. 또 중국 100대 여행사인 황산시 중국여행사, 안후이중국청년여행사 등이 있다.

2012년 안후이성의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대비 26.1% 증가한 331만 4,600명, 관광외환 수입은 전년대비 32.5% 증가한 15억 6,300만 달러에 달했다. 같은 기간 중국 관광객은 전년대비 30.2% 증가한 2억 9,200만 명에 달하며 관광수입은 전년대비 38.79% 증가한 2,519억 800만 위안에 달한다.

안후이성은 12·5계획 기간 중 황산, 허페이, 우후 등 '3개 관광센터도시' 를 구축하고 완난(皖南) 국제 문화관광 시범구, 완장(皖江)도시 관광구, 허페이 경제권 관광구, 완베이(皖北) 관광구 등 '4대 관광관도' 를 구축할 예정이다.

## 2) 해당 산업클러스터 현황

안후이성은 2011년에 '4대 관광관도' 기획안을 통해 2020년까지 완난, 완장, 완베이, 허페이 등 4개 구역에 관광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완난(皖南)국제 문화관광 시범구는 2015년 말까지 5A급 관광구는 8개, 국가급 레저 관광구는 3개를 건설해 중국 내 영향력이 큰 문화관광구와 세계적인 관광 문화 시범구를 구축할 예정이다. 승용차 관광노선, 자전거 관광노선을 개척하고 관광정보, 관광금융 등 종합서비스체계도 형성할 방침이다.

완장(皖江)도시 관광구는 2015년 말까지 5A급 관광구 5개 이상, 국가급 레저 관광구를 2개 이상 건설하며 장강삼각주, 우한시 등과 이어진 관광구를 형성할 예정이다. 이 밖에 야경관광제품과 레저스포츠, 건강제품 등과 관련된 관광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완베이(皖北) 관광구는 2015년 말까지 5A급 관광구 2개, 국가급 레저 관광구 1개를 건설할 예정이다. 관광분야 공공서비스체계를 강화해 관광자문센터를 건설하고 자가

28) 중국의 관광지는 1A부터 5A까지 5 등급으로 구분한다. 관광지를 교통, 풍경, 서비스 등 12개 지표에 따라 차등하며, 5A는 가장 높은 등급으로 세계급 관광지를 말한다.

〈표 4-29〉 안후이성 관광 클러스터 현황

산업클러스터	특징
완난(皖南) 국제 문화관광 시범구	- 황산시, 츠저우(池州)시, 시윈청(宣城)시, 우후(蕪湖)시, 퉁링(銅陵)시, 마안산시와 안칭(安慶)시의 첸산현(潛山縣) 등 포함 - 향후 완난 관광 통합화를 이룰 것이며 장강삼각주 관광권에 융합하는 것이 목표
완장(皖江) 도시 관광구	- 안칭(安慶)시, 츠저우(池州)시, 퉁링(銅陵)시, 우후시, 마안산시 등 포함 - 장강삼각주, 우한시 등과 연결된 관광구를 형성할 예정임 - 안칭-츠저우 생태문화관광구, 퉁링-마안산 레저관광구 등 건설
허페이 경제권 관광구	- 허페이시, 화이난(淮南)시, 추저우(滁州)시, 류안(六安)시, 안칭(安慶)시 등 포함 - 안후이성 관광센터를 건설하며 중국 내 영향력이 높은 관광지 건설을 목표로 함
완베이(皖北) 관광구	- 병부시(蚌埠市), 화이난시, 푸양(阜陽)시, 쑤저우(宿州)시, 화이페이시, 하오저우(亳州市), 추저우(滁州)시의 평양현(鳳陽縣)과 류안(六安)시의 수현(壽縣) 등 포함 - 회화 지역의 역사문화관광구, 황하 옛 수로와 역사 문화구, 하오저우 옛 도시와 건강 레저 관광구 등 건설

자료 : KOTRA 상하이무역관.

용 승용차 관광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허페이 경제권 관광구는 2015년 말까지 5A급 관광구 4개 이상, 국가급 레저 관광구 2개 이상을 건설할 방침이다.

### 3) 주요 로컬 기업 현황

안후이 중국 청년 여행사 유한책임회사(安徽中國青年旅行社有限責任公司)는 1999년 설립됐으며 2002년부터 해외단체여행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2007년부터 연속 5년간 중국 100대 여행사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 기준 영업수입이 4억 위안 초과, 직원 수는 400여명에 달한다.

〈표 4-30〉 안후이성 관광산업 로컬기업 현황

기업명	사업 내용
안후이 중국 청년 여행사 유한책임회사	- 중국 100대 여행사 중 하나로 산하에 6개 자회사 보유
황산시 중국여행사	- 중국 100대 여행사 중 하나 - 1998~2011년 연속 14년간 안후이성 최고 국제여행사로 선정됨

자료 : KOTRA 상하이무역관.

황산시 중국여행사(黃山市中國旅行社)는 황산시 관광발전 여행 주식회사 황산 중하이 국제여행사 관리회사 산하기업으로 1991년 설립됐다. 등록자본금은 290만 위안으로 2005년부터 해외단체여행을 조직하고 있다. 황산시에서 유일하게 타이완 여행을 조직할 수 있는 여행사이며 2008년 안후이성의 5성급 신뢰도 높은 여행사로 선정된 바 있다.

#### 4) 협회 등 현지 관련 기관 현황

안후이성 관광업 관련 정부기관으로는 발전개혁위원회와 관광국, 관광협회가 있다. 발전개혁위원회는 안후이성 전반에 걸친 거시경제발전상황에 적합한 관광업의 거시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산하에 관광업 관련 부서로 무역 및 서비스업처가 있다.

관광국은 국가관광산업 발전정책을 시행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산업 거시발전정책 건의, 발전규획안과 정책 제정에 참여한다. 관광협회는 안후이성 내 각 지방 관광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매년 관광박람회를 개최한다.

〈표 4-31〉 안후이성 관광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 현황

기관명	기능
안후이성 발전개혁위원회	-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관련된 거시정책을 연구 및 제정하는 기관 - 산하에 관광업 관련 기관으로 무역 및 서비스업처가 있음
안후이성 관광국	- 국가관광산업의 발전정책과 법률법규를 시행 - 해당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전략 건의 제의, 관광산업 발전규획과 산업정책 제정 - 지역 관광자원의 조사, 개발 및 보호 등 관련 사업 담당
안후이성 관광협회	- 관광업 관련 박람회를 개최하고 각 지방의 관광협회, 기타 기관과의 교류 담당

자료 : KOIRA 상하이부역관.

#### 5) 주요 외국기업 진출 현황

2011년 안후이성 최초로 외자여행사인 등광국제여행사가 설립됐다. 한국계 기업으로 한국 서진항공, 우리항공과 중국계 기업인 황산시제청(竭誠)여행사가 합자 설립한 기업이다. 이 여행사는 중국 국내관광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표 4-32〉 안후이성 관광산업 외국계 기업 현황

기업명	생산품목 및 투자 현황	진출 연도
황산시등광국제 여행사	- 한국 서진항공, 우리항공, 황산시 제청(竭誠)국제여행사 등이 합자 설립 - 안후이성 최초의 외자 여행사임	2011년

자료 : KOTRA 상하이무역관.

## 제3절 장시성의 주력 산업과 주요 기업

### 1. 제조업

장시성의 주력 제조업으로는 비철금속을 비롯하여 바이오 의약, 태양광, 항공 및 LED 등이 꼽힌다. 비철금속산업은 원자재 확보에서 바이오 의약산업과 태양광산업은 원료 구입에서 비교우위를 가진다. 항공산업은 오랜 전통에서 비교우위를 찾을 수 있으며 LED산업은 해당 분야 선도기업의 존재에 힘입은 바 크다. 그리고 이들 산업은 모두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에 의존하고 있다. 장시성은 제12차 5개년 계획에 이들 산업이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산업의 발전 배경 및 전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 (1) 비철금속

##### 1) 개황 및 발전배경

장시성은 비철금속 생산량에서 전략적인 중요성을 높여 가고 있다. 장시성을 비롯한 중부지역은 석탄, 비철금속 및 철강의 주요 생산지이다. 특히 비철금속의 매장량은 전국의 40%를 넘어서고 있어 전국 비철금속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금, 은, 동, 텅스텐 및 보크사이트 등 40여종의 비철금속 관련 광물자원의 매장량이 많다.

장시성의 경우 루비듐, 탄탈, 토륨, 우라늄 매장량이 전국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석, 텅스텐, 은, 리튬, 지르코늄, 세슘, 텔루륨 등의 매장량은 동 2위에 해당하는 등 다양한 종류에서 충분한 기초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매장량에 힘입어 장시성은 구리, 텅스텐, 희토, 탄탈, 주석, 납, 아연, 안티몬, 몰리브덴 등 비철금속의 주요 생산 지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장시성의 2010년 비철금속 업종 생산액은 2,490억 위안으로 성

〈표 4-33〉 장시성 주요 산업 생산액 비교(2010년 기준)

단위: 개, 만 위안

업종	기업 수	총생산액
농식품가공	464	6,667,487
식품제조	176	2,414,575
음료제조	114	1,299,966
섬유	464	5,181,305
의류신발 및 모자	361	3,287,388
피혁	136	1,814,675
목재가공	297	2,159,615
제지	170	1,702,481
석유가공 등	22	3,639,550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870	10,705,316
의약제조	256	4,546,902
플라스틱	219	1,928,795
비금속광물제조	929	10,510,148
철강	91	9,260,545
비철금속	538	24,891,915
금속제품	227	2,567,272
범용설비제조	261	2,472,846
전용설비제조	159	1,739,252
교통운수설비제조	230	7,191,014
전기기계제조	358	10,666,604
통신설비 및 컴퓨터설비 제조	213	3,774,114
공예품 및 기타	123	1,106,640

자료: 「江西省統計年鑑2011」, 2012.12.

〈표 4-34〉 최근 장시성 비철금속 생산액 추이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업 수	227	344	380	465	538
생산액	733	1,285	1,721	1,643	2,489

단위: 개, 억 위안

자료: 〈표 4-33〉과 동일.

내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표 4-33〉참조). 한편 기업 수 측면에서는 비금속광물 및 화학 산업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sup>29)</sup>

해당 지역의 자원 우위에 힘입어 장시성의 최근 5년간 비철금속 생산액 또한 꾸준히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10년의 생산액은 전년대비 51% 정도 늘어나기도 했다.

장시성 비철금속산업은 생산액뿐만 아니라 영업 이익에서도 전국 선두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회토의 경우 영업 수익은 전국 영업 수익의 25%에 이른다.

중국에서의 회토 매장량은 내몽고에 집중되어 있으며 장시성이 포함된 남부지역<sup>30)</sup>에는 150만톤, 2.9%에 불과하다. 그러나 남부지역 가운데에서는 장시성의 매장량이 가장 많으며 특히 중(重)회토류 이온 흡착형 광구는 장시성에 집중되어 있다. 장시성의 회토 분야 영업수익이 높은 것은 이러한 이온 흡착형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논의한 추세를 보면 향후 장시성의 비철금속은 장시성 주력산업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굳건히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철금속의 이러한 위치는 가공기술의 우수성보다는 자원의 우위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회토(중회토)의 존재는 장시성 비철금속 산업의 중요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시성은 비철금속 가공기술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까지 2~3개의 국가급 금속재료혁신플랫폼, 국가급 품질검사센터, 그리고 10여개의 금속 신재료 개발 및 응용기업 기술 센터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장시성 ‘중부굴기(中部崛起)’의 주요

29) 비금속광물 업체 수가 최다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장시성을 대표하는 도자기 기업 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30) 남부지역이라 함은 장시, 광둥, 광시좡족자치구, 후난, 윈난, 푸젠 등을 의미한다.

〈표 4-35〉 중국 지역별 희토 매장량 비교

지역	매장량	비중
내몽고	4,350	83.6
산둥	400	7.7
쓰촨	150	2.9
남부지역	150	2.9
기타	150	2.9
합계	5,200	100

자료: 蘇文淸(2009), 김부용·오종혁(2011).

목표이기도 하다.

## 2) 주요 기업 및 산업클러스터 현황

장시성의 비철금속 산업은 채광에서부터 가공에 이르는 대부분의 공정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산업기지로의 부상을 기대하고 있다. 장시성의 주요 비철금속 클러스터로는 간둥베이(贛東北), 간저우(贛州) 그리고 난창(南昌) 등 3개의 대규모 기지를 들 수 있다.

### ① 간둥북(贛東北) 구리산업기지

장시성 잉탄(鷹潭)시와 상랴오(上饒)시를 중심으로 한 간둥베이(贛東北) 기지는 구리 전문 클러스터로도 유명하다. 여타 기지와 마찬가지로 채광에서부터 가공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공정 체계를 갖추고 있다. 동 기지는 2015년까지 200만 톤의 구리제련과 350만 톤의 구리재료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효율적인 투자자본의 관리와 고급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 기지 내 존재하는 기업 가운데 장동(江西銅業)그룹은 중국 전체 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동 그룹은 2012년 영업 이익 부문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위와의 격차 또한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36〉 비철금속기업 영업이익 순위(2012년)

단위: 억 위안

기업명	영업 이익		
	순위	2012년	2011년
중국 납업 회사	1	2,449	2,317
장시 구리 그룹	2	1,759	1,355
중국 비철 광업 그룹	3	1,523	640
진촨 그룹	4	1,512	1,218
우광 비철금속 투자유한회사	5	1,195	1,286

자료: 中国有色金属工业协会.

## ② 간저우(贛州) 희소희토산업기지

동 단지는 텅스텐과 희토 가공을 중심으로 형성된 산업기지이다. 장우(江鎬)그룹이 동 기지의 핵심 비철금속 기업이다. 장우(江鎬)그룹은 텅스텐 및 희토 등을 중심으로 채광에서부터 제련, 무역, 가공 그리고 장비제조에 이르기까지 일체형으로 운영되며 현재 중국 제1의 텅스텐 생산기업이기도 하다. 2005년 이후 중부궈기에 대한 공헌이 가장 큰 기업으로 인정되었으며 산하 37여개 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대형 기업이다. 한편 동 기업은 세계 희토금속 시장에서도 영향력이 높은 기업이며 2015년까지 영업이익 500억 위안 초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 단지 내 장시 장우그룹(江西鎬業集團)은 장우(江鎬)그룹이 100% 출자한 기업으로서 장우(江鎬)그룹과 마찬가지로 텅스텐과 희토 관련 가공 및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2008년에는 장시성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현재 장시성 100대 기업 가운데 13위 정도에 해당한다. 종업원 수는 1만 2,000여명에 이른다.

## ③ 난창(南昌) 하이테크산업기지

장시성 경제에서는 난창(南昌) 하이테크산업기지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여타 지방과 마찬가지로 장시성에서도 첨단산업 및 현대 서비스 산업 발전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동 기지에는 전자산업 등 첨단산업을 비롯하여 소프트웨어, 물류 등 서비스 산업 관련 기업들도 다수 포진되어 있다. 동 기지의 차별성은 자원우위를

〈표 4-37〉 비철금속 주요 로컬기업 현황

기업 명칭	기업 소개
장시 구리 그룹	· 중국 구리산업 분야 중 채광부터 가공까지 일체형으로 운영되는 초대형 복합기업 · 중국 최대의 구리제품 생산
장우 그룹	· 텅스텐, 희토 등을 채광부터 가공 및 설비까지 일체형으로 운영 · 중국 최대 텅스텐 생산
장시 장우 그룹	· 江钨集团 ; 100% 출자한 기업 · 텅스텐, 희토, 탄탈 등 채광부터 국내외 무역까지 일체형으로 운영 · 희토와 텅스텐을 주로 생산

자료 : KOTRA 우한사무소 현지조사.

〈표 4-38〉 희토류 분야 외국인투자 규정

투자 분야	진입 규정
희토류 광산	외국기업은 중국 내 희토류 광산기업 설립 불가
희토류 야금 및 분리	외국기업은 중국 내 기업과 합자형태로 투자 가능, 단 독자기업 형태로는 투자 불가
희토류 정밀가공 및 응용	외국기업은 합자 및 독자 방식으로 희토류 가공, 재료, 응용제품에 투자 가능

자료 :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활용한 비철금속 산업의 첨단화(신소재 산업)에 있다. 즉 구리, 텅스텐, 희토 등의 원자재 개발과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 장시성 유일의 국가급 신개발 산업기지이다. 그러나 동 기지 가운데 비철금속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sup>31)</sup>

한편 장시성 비철금속 주요 기업에는 외자계 기업 또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관련 기술이 크게 낙후된 희토 분야에서 외자계 기업 상황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중국은 희토 금속 관련 제련 등에서는 선진국 못지않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가공 분야에서도 발광재에서는 국제수준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영구자석, 수소저장, 촉매

31) 장시성 비철금속 산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江西省有色金屬學會(www.jxys.gov.cn), 江西省工業經濟聯合會(www.jxgjl.com), 江西省工業和信息化委員會(www.jxcit.gov.cn)등을 참조.

〈표 4-39〉 희토류 산업 외국 대표 합작기업

회사 명칭	투자국	비고
간저우커루이정밀 자재유한회사	스위스	· 스위스 PMAG와 중국 간저우(贛州) 첸둥(虔东)실업 그룹의 합작 기업
간저우르자오희토 신소재유한회사	일본	· 일본 쇼와 전기공업, 도카이 무역, 중국 간저우(贛州) 첸둥(虔东) 실업 그룹, 간저우 홍진(红金) 희토 유한공사의 합작기업 · 총 투자액 1억 4,000만 위안
간저우장우요타이 신소재유한회사	일본	· 일본 스미토모(住友)와 장시희유(稀有) 희토금속텅스텐업 그룹의 합작 기업 · 총 투자액 1억 위안 이상
간저우커리희토 신소재유한회사	미국	· 미국 MQI, 간전우 첸둥(虔东) 희토그룹, 베이징 중커산환(中科三环)의 합작기업 · 총 투자액 8,000만 위안

자료: KOIRA 우한 사무소 현지조사.

등의 분야에서는 국제수준에 크게 낙후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발광재를 제외한 가공 분야에서 외국과의 기술협력을 원하고 있다. 실제 중국정부의 관련규정에 따르면 외국기업은 희토류 광산에 대한 채굴을 할 수 없으며 희토류 야금과 분리 산업도 합자 형태로만 진출할 수 있다.

현재 장시성에 투자 중인 외자계 기업은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및 스위스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투자형태는 합자, 그리고 분야는 가공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 3) 발전 전망

풍부한 매장량을 바탕으로 한 장시성의 비철금속산업은 향후에도 발전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중국 내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비철금속 산업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으며 폐기물 배출량이 많고 에너지 소모가 높아 사회적 부담이 높다.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미비로 인해 비철금속산업의 효율성 또한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장시성은 향후 비철금속뿐만 아니라 관련 환경 및 기계설비 등의 산업 발전에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시성은 「12·5계획」 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여기에는 산업클러스터

발전, 산업지구 효율화, 전통산업의 개선(고급화), 주요 산업 구조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각 전략 모두에 비철금속산업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장시성이 비철금속 산업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희토금속은 향후 장시성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업종의 위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희토 금속 가운데 중희토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 가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장시성은 희토 금속의 발전과 관련된 기술개발, 무역 정책 제정, 무허가 광산 단속, 유통체제 개선 등에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희토류 매장량 대부분이 중국에 분포하는 점을 감안하면 희토 금속 업종에서 중앙정부의 지침 및 통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장시성 입장에서 희토 금속 관련 산업의 발전과 이를 통한 연관 산업의 발전 및 고용증대 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관계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2) 바이오 의약

### 1) 개황 및 발전배경

중국의 바이오산업은 1980년대 초에 시작되었으며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개도국의 평균 수준에 이른다. 그러나 일부 영역에서는 선진국 수준에까지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바이오산업 가운데에는 바이오 의약 비중이 약 38%로 가장 높고 바이오 농업, 바이오 제조, 바이오 에너지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장시성의 바이오산업 역시 바이오 의약 위주로 발전해 왔다. 장시성은 바이오 의약 산업을 21세기 현대 의약산업으로 보고 ‘바이오 경제’ 라는 기치 아래 동 산업 발전에 힘을 기울여 왔다. 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2003년 발표된 장시성 6대 지주산업 발전계획(江西省六支柱產業發展規劃)이다. 이는 장시성 인민정부(人民政府)가 직접 주도하여 실시한 정책으로서 「10·5」 기간 이후 이 정책을 바탕으로 동 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연평균 성장률이 20%를 넘어섰으며, 현재 장시성에 위치하는 관련 기업이 300여개를 넘어서고 있다.

2010년 기준 장시성 의약 제조 생산액은 454억 6,900여만 위안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의약 제조 가운데 바이오 의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시성에서의 바이오 의약산업의 중요성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바이오 의약산업이 장시성 7대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선정된 배경이기도 하다.

2011년 장시성 의약산업 총생산액은 처음으로 600억 위안을 초과했으며 이는 동 산업의 전국 평균생산액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이다. 또한 바이오 의약산업의 수입 및 이윤도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32)</sup>

장시성 바이오 의약산업 가운데 중의약(中成藥) 부문이 50%를 초과하고 있는바 바이오 의약산업의 발전은 중의약 부문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내륙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중의약 약재 등 원료 구입이 용이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장시성 바이오 의약산업의 발전은 동 지역의 비교우위(지리적 위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바이오산업 발전 전반에 걸친 중앙정부의 관심, 바이오산업의 특성<sup>33)</sup> 등을 감안하면 정부(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불가결한 실정이다. 이렇게 보면 장시성 바이오 의약산업의 발전배경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겠다.

한편 중의약 편중의 장시성 바이오 의약산업 구조는 여타 부문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이를테면 전통적 발효약품은 관련 기술 저하로 인해 바이오 의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바이오 의약 관련 화학 제제의 미발달은 여타 지역에 대한 의존도(반입 및 수입)를 높이고 있으며 나아가 장시성 역내 산업의 이윤율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장시성 바이오 의약산업의 구조적 취약은 바이오 의약 관련 100대 기업 현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대 기업 가운데 장시성 기업은 단 한 개 기업도 없으며, 그나마 가장 높은 순위의 기업은 30위에 불과하다.

32) 黃曉萍 외(2012).

33) 바이오산업은 고투자, 고이익률, 고위험 및 긴 주기를 가진 업종으로서 기초연구, 응용연구, 안전성 검사에서부터 시판에 이르기까지 산업연계 주기가 길다. 이에 따라 동 업종의 발전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R&D, 기술개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플랫폼 형성 등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표 4-40〉 중국 바이오 의약품 100대 기업

순위	기업명	장시성 소재
1	광저우의약그룹유한회사	
2	정야오그룹유한회사	
3	양쯔강의약그룹유한회사	
4	하야오그룹유한회사	
5	웨이가오그룹유한회사	
6	화베이제약그룹유한책임회사	
30	장시지민커신유한회사	○
68	런허그룹발전유한회사	○
81	장시칭평의약투자유한회사	○

자료: 中国医药统计网.

주: 2012년 영업수익 기준.

## 2) 주요 기업 및 산업클러스터 현황

장시성의 바이오 의약품 산업 또한 여타 신흥산업과 마찬가지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 의약품 클러스터에는 관련 대기업을 비롯하여 대학교 및 연구소 등과 함께 소재해 산학연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미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100대 바이오 의약품 기업 가운데 20위권 내에는 장시성 기업이 단 한 개도 없다. 그러나 100대 기업 내에는 3개나 포함되어 있어 중부 지역 가운데에는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은 모두 바이오 의약품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기지에 소재하고 있다. 장시성의 주요 바이오 의약품 클러스터로는 난창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구의 과학기술부 핫볼센터를 비롯하여 장시 상하이(桑海)바이오의약품산업기지, 원저우(袁州)의약품공업원 등을 들 수 있다.

### ① 난창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구의 과학기술부 핫볼센터

첨단산업 및 전략산업 대부분이 난창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구 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듯이 바이오 의약품 산업 또한 동 지구 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동 지구 내 입지하고 있는 여타 산업이 생산 및 R&D 클러스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바

이오 의약산업은 햇불기지라는 명칭하에 제약뿐만 아니라 포장 등 관련 업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포양호생태경제구<sup>34)</sup>의 장시의약항(江西醫藥港)에는 바이오의약 부문의 연구개발 기구들을 집결하고 있으며,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장시성 의약산업의 선두 그룹인 장중(江中), 지민커신(濟民可信), 산량(閃亮) 등의 기업들도 동 지구에 소재해 있기도 하다.

한편 바이오 의약산업과 관련된 기기 또한 동 지구 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난창의료기구(南昌醫療機構)는 중국 최초의 의료기기 산업기지로서 의료기기 전문생산 및 판매(도매) 등을 주로 담당하며 다양한 의료제품을 관리하고 있다. 말하자면 난창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구의 과학기술부 햇불센터는 여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잘 정비된,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부의 관심도가 높은 혁신적인 제약 산업 시범집결기지(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다.

## ② 장시성 상하이(桑海) 바이오의약산업기지

동 기지는 국가난창바이오의약산업기지의 상하이(桑海)개발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시성의 유일한 국가급(國家級) 바이오의약산업기지이기도 하다. 현재 200여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난창제생제약공장, 난창 상하이(桑海)제약공장, 싱린백마(杏林白馬)제약공장, 난창 제순(濟順)제약회사 등 장시성 내 의약산업 분야의 중견기업들이 대거 위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시과학기술사범대학원과 장시중의학원 등 각종 교육기관들과의 원활한 상호협력을 통해 선진기술을 연구하는 등 산학연 협력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34) 장시성 북부에 위치한 「포양호생태경제구」는 2009년 말 국가 주요 전략으로 격상되었다. 중국 최대 담수 호인 포양호를 중심으로 난창(南昌)시를 비롯한 주강(九江)시, 경덕진(景德鎮)시, 상라오(上饒)시, 잉탄(鷹潭)시를 포함한 5개의 지급시, 그리고 이춘(宜春)시의 평청(丰城)시, 장수(樟樹)시, 가오안(高安)시 등 총 32개의 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의 생태계 보호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경제 간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포양호가 지리적으로 성 전체 면적의 약 30%를 차지하는바 다수의 경제기술 개발구 또한 포양호 생태경제구 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개발구의 발전방향이 포양호 생태경제구의 발전 정책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 사안에 따라 상호 협조적 또는 상호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1년 동 기지 의약기업의 총생산량은 개발구 전체(상하이 개발구) 생산액의 75%를 차지하여 동 개발구가 의약산업 개발구나 다름없다. 한편 동 기지의 중점 의약산업은 중의약(中成藥)이다.

### ③ 윈저우(袁州)의약공업원

동 공업원(工業園)은 2000년도 이춘(宜春)시 윈저우구역에 건설되었으며 의약산업 및 기타 산업 등 두 종류의 산업클러스터(一園兩基地)를 형성하고 있다. 전체 면적은 40km<sup>2</sup>이며 의약산업원구가 25만km<sup>2</sup>, 기타 원구가 15만km<sup>2</sup>이다. 기타 산업에는 특수기전을 비롯하여 환경보호·에너지절약, 리듬산업, 중소기업 및 행정서비스 등 6개 업종이 포함되는바 동 공업원구는 사실상 의약산업 클러스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공업원은 장시성 성급(省級) 의약 공업원 혹은 성급의약산업기지로 불리기도 한다.

동 의약산업기지는 의약품 개발, 생산, 포장, 물류에 이르는 일체화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즉 관련된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테면 제약업계만 하더라도 지민커신(濟民可信), 회이런(匯仁藥業), 바이션(百神藥業), 하이얼쓰(海爾思藥業), 위엔다바이오(遠大生物) 등 성내 꽤 알려진 기업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한편 동 공업원은 민영(성급 민영 과학기술 공업원)이라는 데에 주목된다. 이에 따라 동 공업원과 관련해서는 벤처기금 용자 및 인큐베이터 기능이 잘 갖추어진바 장시성이 큰 발전을 기대하는 의약산업 클러스터이기도 하다. 장시성은 동 기지와 관련하여 대기업 육성(以培育大企業), 유명약종 개발(發展大品種) 및 대시장 개척(開拓大市場)이라는 가치를 걸고 각종 관련 행정 서비스 부문에 적극적인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 ④ 장시성 주요 기업

장시성 의약산업 주요 기업으로는 성내 유력기업인 장중그룹(江中集團)을 비롯하여 영업이익 기준 중국 전체 100대 기업에 속하는 장시 지민커신 유한회사(江西濟民可信集團有限公司), 런허그룹(仁和集團發展有限公司), 장시 칭핑의약 투자유한회사(江西青峰醫藥投資集團有限公司) 등을 들 수 있다.

장중그룹은 약 30여년의 역사를 가지며 당초 학교에서 건립한 공장(校辦小廠)으로 출발한 국유기업이다. 교판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R&D 역량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4개의 주요 연구소<sup>35)</sup>를 보유하고 있다. 동 집단은 중의약 OTC(Over The Counter, 의사의 처방 없이 사고팔 수 있는 일반 판매약) 분야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동 집단의 대표적인 약품으로는 江中夏方草珊瑚含片(해열 구강정), 江中健胃消食片(소화제) 등이며 이들 약품은 각각 “2005년 국민신뢰약품 브랜드” 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소화제인 健胃消食片은 연간 판매액이 10억 위안을 넘어서며 중국 소화약 계열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장중그룹(江中集團)은 중의약 OTC 분야뿐만 아니라 화학약품 생산·판매에도 참여하고 있어 6년 연속 30%대의 수익률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장중그룹은 현재 두 개의 상장회사(江中藥業, 中江地產)를 플랫폼으로 삼아 江中醫貿(의료무역), 時商公司(패션), 江中小舟(편주), 恆生食業(항생식업) 등 여러 자회사를 소유하는 종합형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장시 지민커신 그룹(江西濟民可信集團有限公司)은 1992년 북경에서 경영활동을 시작했으나 2001년 유한회사로 성립하면서 현재의 장시성에 자리를 잡았다. 동 기업(그룹)은 설립 당시 장시 이춘시우장(江西宜春秀江制藥廠), 장시 동방제약(江西東方制藥廠), 장시 진시우바오(江西金水寶制藥有限公司), 우시 산허제약(無錫山禾藥業股份有限公司), 장시 이춘시 금수산장(江西宜春市錦綉山莊) 등 여러 유명 기업을 합병하면서 초기부터 공급, 판매, 연구, 투자, 다원 융합화 등 관련 업무가 일체화된 운영방식을 채택했다. 현재 9개의 완전출자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국에 100여개의 판매 지사가 있다. 동 기업의 약품은 전국 모든 성, 시, 자치구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金水寶(섭취용 동충하초)는 중국 중약 신약(中成藥新藥) 가운데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편 동 집단은 바이오 의약품만 아니라 호텔업 및 부동산 개발에도 참여하는 대형 민영기업그룹이다. 또한 최근 수년간 연속해서 전체 省 내 민영기업 조세납부액 최다

35) 중약고체제 제조 기술 국가공정연구 센터(中藥固體制劑製造技術國家工程研究中心), 단백질약품 국가 공정연구 센터(蛋白質藥物國家工程研究中心), 군과학 지양중 신약연구 센터(軍科江中新藥研究中心), 강중 약업기술 센터(江中藥業技術中心) 등이다.

를 기록하고 있다.

런허그룹(仁和集團發展有限公司)은 중의약(전통의약)과 고기술 현대약품 분야 모두를 중시하는 민영 현대의약 기업그룹이다. 특히 동 기업은 장시성 내 산량 제약유한회사(閃亮制藥有限公司) 및 캄메이 의약보건품 유한회사(康美醫藥保健品有限公司)와 함께 의약분야 ‘국가 863계획(국가 하이테크 연구발전 계획)’ 을 담당하고 있다. 즉 동 기업은 연구개발에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실제 동 기업은 중국 중의약과학원(中醫藥科學院) 등 여러 과학연구소와 전략협력관계를 체결하고 있으며,江西현대중약제제 및 품질관리 인화그룹 연합실험실, 장시 인화 약물연구원 그리고 성도(成都)인화 약물연구원 등 3개 연구 센터를 두고 있다.

동 그룹 또한 다양한 약품을 시장에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婦炎潔(여성 청결제)”, “优卡丹(제네릭 의약품, 과립형 소아 해열제)” 상품은 중국 여성 보건 위생시장 및 아동 감기약 시장에서 선도 브랜드로서 평균 판매량은 전국 동종 상품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可立克(종합 감기약)”, “清火膠囊(해열 캡슐)”, “正胃膠囊(위장병 캡슐)” 과 산량(閃亮)브랜드 “茶敏維滴眼液(누안액)”, “夏方門冬維甘滴眼液(복합 안약)” 등의 상품은 국내 동종 상품 가운데 유명 브랜드로 인정되고 있다. 2007년 9월 국가공상 총국은 동 그룹의 ‘인화’ 상표를 “중국 유명상표(中國馳名商標)” 로 지정했다.

한편 동 그룹은 2015년까지 연 판매수익 100억 위안, 이윤과 세금(利稅) 20억 위안, 자본 시장가치 300억 위안을 달성하여 중국 의약 50대 기업에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시 칭핑의약투자유한회사(江西青峰醫藥投資集團有限公司)는 연구개발, 생산, 판매를 일체화한 현대화 의약기업 그룹으로서 비교적 늦은 시기인 2008년 2월에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2012년 영업이익 기준 전국 동종 100대 기업에 포함된 것은 원활한 산학협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 그룹은 성내 관련 연구원인 장시중의약연구원(江西中醫藥研究院)뿐만 아니라 베이징 대학(北京大學), 중국 약과대학(中國藥科大學), 베이징 중의약대학(北京中醫藥大學) 등 수도권에 위치한 연구기관과도 장기적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

짧은 시기이지만 효율적인 연구개발 및 생산 덕분에 주사제, 정제, 캡슐제, 시럽, 과

〈표 4-41〉 장시성 주요 바이오 의약 기업

기업 명칭	주요 특징	대표 약품
장중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OTC 부문의 선두기업</li> <li>· 의약품 및 건강식품 제조, 부동산 등 일체화 종합기업</li> <li>· 국유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江中复方草珊瑚含片 (해열 구강정)</li> <li>· 江中健胃消食片(소화제)</li> </ul>
지민커신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의약 중점(건강식품도 강조)</li> <li>· 민영기업(교관기업으로 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水宝(섭취용 동충하초)</li> </ul>
런허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약품과 건강식품 제조 위주</li> <li>· 민영 현대의약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妇炎洁(여성 청결제)</li> <li>· 优卡丹(제네릭 의약품, 과립형 소아 해열제)</li> </ul>
장시칭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의약 위주</li> <li>· 원활한 산학연 협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喜炎平注射液 (해열, 해독, 기침약)</li> </ul>

자료: KOTRA 우한사무소 현지 조사.

립, 분말, 약품 원재료 등 7가지 제형의 생산라인이 모두 국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 인증을 통과했다. 한편 동 그룹이 생산하는 약품 가운데에는 독점 특허품 4개, 중약보호품목(中藥保護品種) 6개가 있으며, “喜炎平注射液(해열, 해독, 기침약)”은 고기술 생산품(高新技術產品) 및 국가 비밀기술품목(國家秘密技術品種)에 속하며 전국 동종 상품 시장점유율 가운데 25%를 차지하고 있다.

### 3) 발전 전망

장시성의 바이오 의약산업은 향후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된다. 우선 동 지역이 갖는 지리적 우위(내륙)로 인해 생물 의약 원료 구입(특히 전통 바이오 의약 관련)이 용이한 데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2·5계획」의 전략적 신흥산업에 바이오산업이 포함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장시성은 역내 바이오 의약산업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 기존 포양호 생태 경제구 개발 계획과 부합하는 투자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난창국가의약국제창신원(南昌國家醫藥國際創新園) 및 여타 의약산업기지를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와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2015년까지 바이오의약산업의 영업수익을 1,000억 위안까지

〈표 4-42〉 포양호(鄱阳湖) 생태경제구 바이오의약산업건설 주요 투자항목

단위: 억 위안

항목	건설 내용 및 규모	총 투자액	위치
바이오의약 국제혁신연구원	국가급(国家级) 의약 국제혁신연구원	138.00	난창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구
성급(省级) 바이오의약 산업기지	기지건설 및 투자 및 기업 유치	150.00	원저우 의약 공업원
진차오(金巢) 개발구 바이오의약산업	산업원 건설 및 설비투자	20.00	푸저우 진차오 경제개발구

자료: 江西省政府信息公开.

제고시킨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난창국가하이테크 산업개발구에 혁신연구원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을 비롯하여 원저우 의약 공업원에는 기업 유치를 위한 성급 바이오 의약산업 기지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향후 장시성 바이오 의약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빠른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대표적인 요인으로 낮은 기술수준을 들 수 있다. 전통의약 관련 기술 저하와 신의약 관련 기술 미발달이다. 즉 기존 강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한 적응력 또한 취약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업들의 혁신 및 연구개발 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장시성의 동 업종 생산량 가운데 중소기업에 의한 비중이 6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혁신 및 기술력이 낮은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바 신제품 및 첨단 기술 제품의 출시를 기대할 수 없으며 이는 생산제품의 동질화(제조되는 상품 구조 유사 및 중복)를 지속하는 악순환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소기업이라는 특성에서 비롯되는 ‘담보 부족으로 인한 자금조달 및 융자에서의 어려움’ 또한 장시성 바이오 의약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결국 장시성 바이오 의약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및 기술 방면에서 효율적인 지원 마련이 중요하다. 성내 바이오 의약산업 클러스터가 중소기업의 자금 부족 해소 및 기술력 제고에 어떠한 플랫폼을 제공할 것인지가 관건이라 하겠다.

### (3) 태양광산업

#### 1) 개황 및 발전배경

중국은 2003년에 겪은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주로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법(EEG-Erneuerbare-Energien-Gesetz)을 참고하여 2005년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였으며 2006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곧 바로 선진국을 따라잡는다는 이른바 건너뛰기 전략이 적용되었으며 태양광산업 또한 건너뛰기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당연히 자금조달 및 세제상에서 많은 혜택이 주어졌다. 2009년 ‘금태양공정(gold sun)정책<sup>36)</sup>’이 발표되면서 관련기업들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으며 생산량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과 자금조달의 용이에 힘입어 불과 4년여 만에 태양광산업에 참가한 기업은 500개를 넘어선다고 한다.

장시성 또한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게 되었으며 장쑤성(우시), 환발해 지역, 주강삼각주 등과 함께 태양광산업 육성 중점지역으로 부상했다. 동 산업 육성과정에서도 지역 간 중점 분야(이를테면 가치사슬<sup>37)</sup>)에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장쑤성은 태양전지 분야(중류)에, 주강삼각주 지역에서는 시스템 분야(하류)에, 그리고 환보하이 지역(허베이성)과 장시성에서는 실리콘 원료 생산 및 웨이퍼 생산 분야(상류)에 중점이 두어졌다. 장시성이 상류에 중점이 두어진 것은 풍부한 광산물과 이에 따른 원료 확보의 용이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 정책과 원료 확보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장시성의 태양광산업은 최근 5년 동안 급성장했으며, 장쑤성에 이어 중국 내 두 번째 규모의 태양광산업기지로 부상했다. 장시성의 태양광산업은 2010년 약 10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

36) 가장 대표적 내용은 보조금 관련 정책이다.

37) 태양광산업의 가치사슬은 원료(규소) 확보 이후 단계부터 폴리실리톤 생산단계(硅料)-잉곳(ingot)/웨이퍼 생산단계(硅片)-태양전지 생산(電池片)-모듈단계(電池組件)-시스템 단계(應用系統)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폴리실리톤 생산단계(硅料)-잉곳/웨이퍼 생산단계(硅片)를 상류, 태양전지 생산(電池片)-모듈단계(電池組件)를 중류, 그리고 시스템 단계(應用系統)를 하류로 구분한다.

〈표 4-43〉 장시성 태양광산업 총 생산액(2008~2015년)

단위: 억 위안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생산량	130	211	418	556	1,000	1,500	2,000	2,500

자료: 江西省工业和信息化委员会.

〈표 4-44〉 장시성 태양광산업 주요 분야

주요 분야	특징
잉곳(ingot)·웨이퍼	· 장시성의 주력 분야 · 2011년 장시성 웨이퍼 생산량 5GW, 전국 생산량 1위
태양전지 생산설비	· 95% 이상 외국산 태양광 관련 생산설비 사용
태양전지	· 장시성 태양전지시장 점유율 80%
태양광 발전 시스템	· 태양광 모듈, 발전 시스템 등 완제품 제조 핵심 기술력 부족

기도 했다. 2011년 폴리실리콘 210만 톤, 웨이퍼 5.9GW, 태양전지 1.3GW 등의 생산량을 보였으며 이 가운데 웨이퍼의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장시성의 태양광산업 클러스터는 신위(新余), 상라오(上饒), 주장(九江), 난창(南昌), 징더전(景德鎮) 등 5개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상 5곳의 산업클러스터는 장시성 태양광산업 영업수익과 이익총액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장시성 내 태양광 생산기업은 73개이며,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50여개에 이르고 있다.

장시성의 태양광 발전 관련 부품별 현황을 보면, 잉곳(ingot)/웨이퍼 분야에서는 강세를 보이지만 전지 생산설비 및 시스템 분야에서는 크게 취약한 편이다. 특히 전지 생산설비 가운데 95% 이상은 외국 선진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시성 태양광 관련 중소기업은 자금 및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상류 단계 참여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이윤율이 높은 중·하류 방면으로 이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2) 주요 기업 및 산업클러스터 현황

장시성의 태양광산업 클러스터는 여타 산업에서의 클러스터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여타 산업에서는 생산 및 R&D가 동일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태양광산업에서는 R&D 클러스터와 생산 클러스터가 별도로 존재한다.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연구클러스터로는 난창대학 Solar LDK 태양에너지 연구센터와 난창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구(南昌國家高技術產業開發區)가 대표적이며, 생산 위주의 클러스터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위(新余), 상라오(上饒), 주장(九江) 등의 지역에 형성되어 있다.

#### ① 난창대학 Solar LDK 태양에너지 연구센터

동 센터는 난창대학의 태양에너지태양광학원과 Solar LDK그룹이 협력하여 건설한 국가급(國家級) 연구기지이다. 동 센터는 실리콘 자재 및 태양전지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원·부자재(실리콘 등)뿐만 아니라 폐기물 재생, 효율적 자원 활용 등 환경 보호와 관련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동 연구센터의 이러한 특징은 장시성에 동 업종의 상류부문이 주로 집중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류부문 가운데 하나인 규소에서 폴리 실리콘을 생산하는 과정은 복잡하며 요구되는 기술수준이 매우 높다. 실제 관련 기술은 미국, 독일 및 일본 등 선진국이 장악하고 있다. 중국(특히 장시성) 또한 나름대로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제련과정에서 70% 이상의 실리콘이 낭비되는 수준이다. 생산원가가 높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원료에서 실리콘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환경오염도 필수적으로 수반한다. 즉 장시성은 상류부문 생산과정에서 선진화된 자체 기술을 확보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기 위해 동 연구기지를 건설한 것이다. 동 연구기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태양광산업 관련(특히 상류부문)의 지적재산권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 연구기지는 지속적인 연구진 보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② 난창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구(南昌國家高技術產業開發區)

난창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구는 첨단산업 관련 종합 개발구이며 동 구역 내 태양광산업 관련 연구기지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LDK Solar Best 태양발전연구원이 건설하고 있으며 입주 연구기관 및 기업이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는 ‘태양발전 산업기지’

이다. 동 기지는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는바 연구 및 생산 기능이 동시에 존재하는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동 기지에 진출한 LDK Solar 외 다수 기업들의 태양광산업 전체 매출은 1,000억 위안에 달한다. 2013년 초 난창시는 향후 태양광산업의 매출 목표를 1,600억 위안으로 잡고 난창시를 국내 최대 태양발전 산업기지로 건설·확장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장시성은 각 주요 지역별 주요 기업들이 태양광산업 관련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다.

- 신위(新余)시 : Solar LDK, Risun(瑞晶), 성양(升陽) 등 기업을 위주로 실리콘소재, 실리콘보드, 전지 등을 주로 생산한다. 또한 동 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상류, 중류 및 하류 간 가치사슬이 상대적으로 온전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표 4-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위시의 주요 기업인 LDK는 태양광 관련 종합 기업임과 동시에 선도 기업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신위에 소재한 장시 신위 지양 주식회사(江西新余吉陽控股股份有限公司)는 2010년 한국의 제주도첨단과학기술원 태양광에너지 제조기지에 총 3억 달러(21억 위안)의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다.

- 상랴오(上饒)시 :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를 주로 생산하는 징커(晶科)기업을 중심으로 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실리콘 생산 및 시스템 분야에서는 신위에 비해 미비한 편이다. 그러나 태양광 관련 부품 및 설비 부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 주장(九江)시 : 지우양(旭陽)기업을 중심으로 실리콘 잉곳(ingot)에 주력하는 일종의 전문단지이다. 그러나 최근 태양에너지전지 및 모듈 생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장시의 단지는 연안지역이라는 지리적 위치를 활용한 운송·물류 부문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 난창(南昌)시 : Solar BEST 기업을 중심으로 태양에너지전지와 박막태양에너지전지를 주로 생산하는 클러스터로서 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 징더전(景德鎮)시 : 징더(景德)반도체, 웨이푸얼(威福爾) 등 기업을 중심으로 태양광산업의 전자정보 및 서비스업을 중점으로 개발하는 산업클러스터이다.

〈표 4-45〉 장시성 태양광 관련 가치사슬의 주요 지역·기업 매트릭스

지역	상류/리콘 생산	상류/잉곳, 웨이퍼	중류/전지, 하류/시스템	보조재료/ 각종 부품 및 설비
신위시	LDK 폴리실리콘	LDK 다결정 실리콘 웨이퍼	Risun 태양광 전지 티엔닝 태양광 전지 대만 성양 다결정실리콘 전지 LDK 태양전력시스템회사 시스템	장시 중차이 태양에너지
난창시	장시 장다 고순도 실리콘	장시 통용실리콘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	solar BEST 박막태양광전지	
상라오시		Jinko 단결정실리콘 웨이퍼	Jinko 전지 및 모듈	Jinko웨이투(月兔) 실리콘
푸저우시		거메이(格美)과학기술 단·다결정실리콘 웨이퍼		
핑샹시	중커 태양광 폴리 실리콘			
주장시		지우양레이디(旭阳雷迪) 단·다결정실리콘 웨이퍼		
징더전시	징더(景德)반도체, 웨이푸얼(威福尔) 등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 관련 서비스 위주			
이춘시	핑청강위안(丰城港源) 실리콘 핑청 신에너지 실리콘 장시통닝 고순도폴리실리콘			

자료: 江西省政府发展研究中心.

· 기타: 푸저우(撫州), 핑샹(萍鄉), 지안(吉安), 이춘(宜春) 등 도시들은 각 지역의 특색이 뚜렷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실리콘, 전지, 태양광 관련 품목을 생산한다. 그러나 태양광 전지 및 시스템 분야에서의 생산보다는 원료 및 웨이퍼 가공에 집중하고 있어 완성된 클러스터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표 4-46〉 장시성 태양광산업 관련 주요 기업

회사명	영업수익 (2011년)	주요 생산품목	비고
LDK Solar	238억 위안	다결정 잉곳웨이퍼	· 홍콩 합자기업 · 아시아 최대 규모 단결정 웨이퍼 생산기업 · 등록 자본금 1억 1,000만 달러, 총 투자액 3억 달러 · 2007년 6월 미국 나스닥 상장
Solar BEST	-	박막전지, 다결정 실리콘	· 赛维LDK 계열사 · 관련 상품 공급업체
Jinko Solar	149억 위안	단결정 잉곳웨이퍼, 다결정 잉곳웨이퍼, 태양전지 모듈	· 홍콩 단독자본 기업 · 등록 자본금 1억 9,000만 달러
Sornid	58억 위안	단결정 웨이퍼, 다결정 잉곳웨이퍼	· 중국 자본 기업 · 총 투자액 21억 달러 · 태양광 모듈부문 사업 확장
Risun Solar	29억 위안	단결정 태양 전지, 모듈, 태양광 발전 시스템, 태양광 상품	· 이탈리아 합자기업 · 등록 자본금 3억 5,000만 달러

자료 : KOTRA 우한 사무소

한편 앞에서 언급한 기업 가운데 LDK Solar(江西赛维LDK太阳能高技术有限公司), Solar BEST(江西赛维BEST太阳能高技术有限公司), Jinko Solar(江西晶科能源有限公司), Sornid(江西旭陽雷迪高技术股份有限公司), Risun Solar(江西瑞晶太阳能科技有限公司) 등이 장시성 태양광산업 대표 기업으로 꼽힌다. LDK는 홍콩과 합자로 설립된 기업으로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Solar BEST는 박막전지를 주로 생산하는 LDK의 계열회사이며 Jinko는 전지 및 모듈 생산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홍콩계 기업이다. Sornid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모듈 분야로 사업 확장을 시도하는 純(순)중국자본 기업이다. Risun Solar의 경우에는 전지부문을 주로 생산하지만 모듈 및 시스템 분야에서도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이탈리아계 기업이다.

### 3) 발전 전망

중국의 태양광산업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태동했다. 또한 중국 당국은 태양광산업을 12·5계획 기간 동안 중점을 두는 7대 신흥산업(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항목)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장시성 또한 태양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태양광산업 가치사슬 가운데 장시성이 비교우위를 보유한 잉곳/웨이퍼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장시성 정부는 2015년까지 성내 태양광산업의 영업수익 1,000억 위안 돌파를 목표로 정해 두고 있다. 즉 장시성 태양광산업의 발전은 향후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크게 의존할 가능성이 많다 하겠다.

그러나 중국의 태양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도 존재한다. 지금까지 중국 태양광산업의 발전이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신흥 산업이라는 명목하에 무분별하게 진행된 중복투자와 비효율성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한 초과공급은 태양광 관련 제품들의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다. 중국제품의 가격 인하는 기존 태양광산업발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었던 보조금에도 수정(삭감 및 철폐)이 가해졌으며 이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대한 투자자들의 흥미를 잃게 하는 악순환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악순환이 가시화된 2011년 일부 태양광 기업이 파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산업구조 합리화를 위한 각종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장시성 태양광산업 또한 이러한 중국 전체 태양광산업의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태양광산업 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잇달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2013년 9월에 발표한 「장시 태양광 발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정책조치(促進江西光伏產業健康發展的若干政策措施(이하 16개조))」이다. 여기서는 단순 생산규모 확장을 위한 신·증설 불허, 정부의 산업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기업의 설립계획 불허 및 신용대출 거절(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 대출 지원), 성 내 기업 간 합병 장려, 낙후된 생산시설 폐쇄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전혀 새로운 내용들이 아니며 종래 철강 및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조치들이다. 즉 16개조는, 태양광산업에서는 종래

전통 제조업에서 나타났던 부작용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향후 장시성 태양광산업의 성패 여부는 구조조정의 성과에 달려 있다 하겠다.

중국의 태양광산업(장시성 포함)에서는 관련 제품 생산으로 인한 폐기물의 환경오염 또한 새로운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시성은 폐기물 정화 및 처리 시설의 확대 구축에도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오염이 심한 원료 생산 부문(폴리실리콘 생산 부문)에서의 기술혁신 혹은 선진 외국과의 기술협력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시성은 기존 클러스터에 관련 업종, 이를테면 연구개발, 무역 서비스, 설비건설 등에서의 전문화된 기구를 유치하여 클러스터 효과 제고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 (4) 항공산업

##### 1) 개황 및 발전배경

1952년 중국 당국은 「항공공업 건설에 관한 결정(關於航空工業建設的決定)」을 채택하고, 이어 랴오닝성(遼寧省) 선양(沈陽)에 항공공업국(航空工業局)을 설치했다. 이것이 중국 항공기산업의 효시이다. 이어 장시성 난청에 항공기 조립공장을 건설하고 구 소련으로부터 Yak-18의 부품 도입과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 1954년 7월 5대의 Yak-18(雅克-18)을 조립생산하는데 이것이 중국에서 생산된 최초의 항공기이다. 즉 장시성 항공산업의 역사는 곧 중국 항공기산업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항공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비경쟁적이며 산업 정책 방향이 국가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장시성은 2003년부터 2007년에 이르기까지 ‘산업 굴기를 통한 장시 굴기’ 전략을 추진하면서부터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발표했다. ‘장시성 6대 지주 산업 발전계획’, ‘장시성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계획 요강’, ‘장시성 첨단기술 산업발전 제11차 5개년계획 특별계획’, ‘장시성 6대 지주 산업

제11차 5개년계획 특별계획’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발표문에는 항공산업을 역점을 두고 발전시켜야 할 지주 산업 혹은 대표 산업으로 명기하고 있다.

2009년 말, 장시성은 “포양호(鄱陽湖) 생태경제구역 계획” 을 중앙정부로부터 국가사업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는 장시성의 지역적 계획이 국가적 전략으로 승격된 첫 사례이며, 이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10대 산업기지 중 하나가 항공산업기지 건설이다. 현재 장시성 항공산업은 ‘장시성위원회’ 와 ‘장시성정부’ 가 제정한 ‘장시성 10대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계획’ 에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에 따르면 장시성 항공산업의 발전은 오랜 전통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에 힘입은 바 크다 하겠다. 이에 따라 장시성 항공산업의 생산액은 87억 위안(〈표 4-47〉 참조)으로 전국에서도 상위권인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장시성에는 홍두 항공공업그룹 유한책임공사(洪都航空工業集團有限責任公司, 이하 홍두그룹), 홍두항공공업 주식회사(洪都航空工業股份有限公司, 이하 홍두항공), 창허 항공기공업그룹 유한공사(昌河飛機工業有限責任公司, 이하 창페이)를 비롯하여 주장홍잉 항공기제조 유한공사(九江紅鷹飛機制造有限公司, 이하 주장홍잉) 등

〈표 4-47〉 장시성 항공산업의 위상(생산액 기준)

단위: 억 위안

순위	지역	생산액	전년 대비 증가율
1	산시(陝西)	254.31	17.91
2	톈진(天津)	158.79	36.63
3	랴오닝(遼寧)	128.65	-9.05
4	쓰촨(四川)	117.66	8.68
5	장시(江西)	87.01	69.05
6	베이징(北京)	59.92	12.87
7	구이저우(貴州)	58.23	2.24
8	장쑤(江蘇)	54.52	26.84
9	푸젠(福建)	41.76	101.66
10	헤이룽장(黑龍江)	41.53	4.73

자료: <http://giss.ndrc.gov.cn/tjsj/tjsjqy/hkhtqzysj/>(中國國家發展和計劃委員會 高技產業司).

주: 2011년 9월 말 누적 기준.

항공기 제조업체가 다수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장시성 헬기 설계 연구소(620연구소)와 홍두 항공기 설계 연구소(650연구소), 난창 항공대학 등 항공 연구소와 실험기지도 이미 조성되어 있다. 현재 장시성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항공기 완제품제작이 가능한 업체를 3곳(홍두그룹, 창페이, 주장홍잉)이나 보유한 성이기도 하다.

한편 국가 대형 여객기 프로젝트가 착수·진행되면서 장시성 항공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형 여객기 프로젝트’에 우선 참여하는 중국 국내 공급업체는 총 9개 기업인데 ‘홍두그룹’이 2009년 5월 MOU를 체결하면서 9개 공급업체에 포함되었다. 한편 ‘홍두’와 ‘창페이’는 C919 대형여객기 기체 공급업체로 선정된바 중국 전체 성(省) 가운데 2개 업체가 선정된 지역은 장시성이 유일하다. ‘홍두’는 대형여객기의 앞부분과 중·후반 부분을 연구 제작 및 생산하는 등 총 기체의 1/4 이상을 생산하는 주 공급업체이며, ‘창페이’는 대형여객기 날개 스포일러 등 부속품을 연구 제작 및 생산한다. 또한 2016년이 되면, 대량의 대형여객기 부품이 ‘난창 항공 공업단지’에서 생산될 계획이다. 즉 대형 여객기 프로젝트에 대한 장시성 기업의 참여는 이들에게 확실한 수요처와 든든한 수입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겠다.

## 2) 주요 기업 및 산업클러스터 현황

2010년 초, 중국 국가 발개위(發改委)가 난창에 ‘항공산업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를 허가하면서, 장시성의 항공산업은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

‘1개 도시, 2개 단지(一城二園區)’로 구성된 난창 ‘항공산업 국가 첨단기술 산업기지’는 대형여객기 부품, 연습용 첨단 항공기, 다양한 기종의 헬기, 농업용 항공기, 무인 항공기 등을 주로 제작하고 있다.

1개 도시(一城)는 난창항공공업성(城)을, 그리고 2개 단지(二園區)는 징더전항공산업원과 주장홍잉항공산업단지를 의미한다.

### ① 난창항공공업성(南昌航空工業城)

400억 위안을 투자하여 25km<sup>2</sup> 부지에 3단계로 나누어 건설되는 ‘난창항공공업성(1성)’

〈표 4-48〉 홍두그룹의 주요 해외합작 사업

기업 명칭	국가	관련 분야
GOODRICH	미국	보잉787 엔진 및 관련 모듈
Vought	미국	보잉747-8 관련 부품
Wabtec	미국	기차 브레이크 관련 모듈과 자동문 모듈
GE	미국	-

은 장시성 항공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지역으로서 미국의 시애틀, 프랑스의 툴루즈와 함께 세계 3대 항공기 연구개발기지로 꼽힌다. 동 성(城)의 목표는 2018년까지 현대화된 항공기지를 건설하여 총 수입 1,000억 위안을 달성하는 것이다. 1성이 주로 담당하는 프로젝트는 크게 7가지로서 대형여객기 부속품 연구개발 프로젝트, 하도급 생산 프로젝트, 기재조립 및 지역 방산프로젝트, 범용기 제조 및 운영 프로젝트, 홍두그룹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 수송능력 구축 프로젝트, 1성 서비스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 성은 ‘과학기술 개발공사(航空城科技開發公司)’를 별도로 설립했으며, 대형여객기 하도급 공사에 주력할 ‘홍두 상용기 주식회사(洪都商業飛機公司)’와 공무용 첨단항공기를 목표로 하는 ‘난창 범용 항공사(南昌通用飛機公司)’도 설립했다.

물론 동 지역의 대표기업은 홍두그룹이다. 홍두그룹은 전투기, 수송기 등 다양한 기종을 생산하고 있는데 특히 연습기에서 국제적으로도 넓은 지명도를 갖고 있다. 특히 K8 중급훈련기는 세계 동종 시장 점유율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명도를 바탕으로 홍두그룹은 현재 GOODRICH, BOEING, ECLIPSE, TIMKEN 등 세계적인 기업들과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꾸준히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GE, WEBTAC 등과는 비(非)항공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 ② 징더전항공산업원(景德鎮航空產業園)

징더전의 항공산업원은 중국 헬리콥터의 중요 생산기지로서 창페이(昌飛)와 중항헬리콥터설계연구소(中航直升機設計研究所)가 중요한 구성원이다. 이를 반영하듯 동 단지는 공업정보부(工信部)로부터 국가 신형 공업화 산업(군민 결합) 시범기지 자격을

취득했다.

동 기지에 위치한 창페이는 1톤급에서 13톤급까지 23개의 제품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8개 종의 생산 플랫폼을 구비하고 있다. 덕분에 장시성은 헬기의 연구 제조 모델 수량과 생산규모면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1년 9월 해발 8,000m의 칭장(靑藏) 고원에서 비행에 성공하여 중국산 헬기의 신기록을 수립하기도 했다.

③ 주장홍잉항공산업단지(九江紅鷹航空產業園)

주장 수출 가공 지구에 위치한 총면적 2km<sup>2</sup>에 이르는 주장홍잉항공산업원 또한 항공기 조립 및 헬기 생산·조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 단지에서는 주장홍잉이

〈표 4-49〉 홍두그룹 및 창페이의 특징 비교

	홍두항공공업주식회사	창허항공공업회사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유일의 훈련기와 범용기</li> <li>- '중국 과학기술 진보상' 최고상을 수상한 K8 훈련기(성능 대비 저렴, 국제 경쟁력이 뛰어남)</li> <li>-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L15 엽용(獵鷹) 훈련기(홍두그룹이 독자적으로 연구·생산한 것으로, 트윈엔진을 장착한 초음속 훈련기), 이미 미국 FAATC의 인증을 받아 시장 잠재력이 기대되는 범용기인 농5A를 비롯한 개조형 모델</li> <li>- 국가품질금상을 수상한 해연기(海燕機)</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2대 헬기 생산업체 중 한 곳</li> <li>- 중국헬기 중 최대 수송력을 자랑하는 직8, 중국 최초로 독자적 연구제작에 성공하여 지적 재산을 획득한 2톤급 군·민 혼용 헬기 직11</li> <li>- 중국이 지적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최대의 수송력을 자랑하는 민용 헬기 AC313</li> </ul>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두그룹 산하 650연구소의 실력 있는 연구진(중국 공정원의 원사(院士), 전문가로 구성된 고문들)과 기술력</li> <li>- 개발과 생산의 윈스톱 시스템(공장과 연구소의 일원화)으로 빠른 생산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유일의 헬기연구소인 602 연구소와 함께 정더전에 위치하며 오랜 기간 협력관계를 유지. 특히 기술협력이 용이하게 진행</li> </ul>
가공 생산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 수준의 전문 가공시설을 대량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제품의 판금성형, CNC가공, 틀링 설계 및 제조, 항공기 부분조립 및 최종조립에 뛰어나다. 특히 항공기 본체 및 정교한 부속품 가공 분야에서 이미 기술력과 가공생산력을 인정받은 업체</li> <li>- 항공기의 더 나은 디지털화 설계, 제작기술, 경영관리 및 정보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이며, 세계적 수준의 CAD와 PDM/ERP 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 경영, 의사결정의 효율 제고</li> </ul>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산업 분야에서 수십 년의 연구개발 역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험이 풍부</li> <li>- 관리, 생산 및 품질관리에 비교우위 보유</li> <li>- 6시그마, 6S관리, 린(lean) 제조 등 과학적 관리방법을 전면 사용</li> </ul>	

자료 : WU Gui-ping, XIAO Ling-ji(2010).

주: 원사: 과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학자들에게 해당 학계에서 주는 명예 칭호.

대표적인 기업이다. 주장홍잉은 폴란드의 'Swidnik사(社)' 와 중국의 '주장홍잉 과학기술 발전 유한공사' 가 6,000만 달러를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민용 헬기 제조업체로서 주로 SW-4 기종의 헬기를 생산, 조립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2010년 2월에 첫 헬기를 제조하여 이미 시험비행을 마쳤으며, 연간 40대 정도의 헬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④ 홍두그룹과 창페이

난창공업성에 위치한 홍두그룹과 징더전 항공산업원에 위치한 창페이는 장시성 항공산업을 이끌어가는 쌍두마차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은 생산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및 경영관리 등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표 4-49>는 이들 기업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 3) 발전 전망

정부의 직·간접적인 간여가 필요한 항공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장시성의 향후 항공산업의 발전에는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의 정책으로는, 2011년 장시성 국방 과학공업원이 발표한 장시성 항공 제조 산업클러스터 증축발전규획(江西省航空制造產業鏈延伸發展規劃)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난창, 징더전, 주장 등 3개의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더욱 확대·발전하여 항공산업 가치사슬 상류(기술개발 등)·하류(시장개척 등) 간 연계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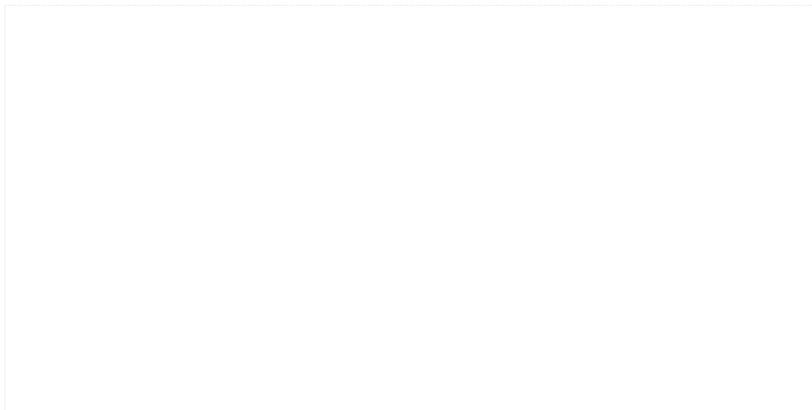
장시성 항공산업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외에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항공 관련 기반, 경험 그리고 연구개발·생산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제품 측면에서, 홍두 그룹은 연습용 항공기와 범용기에서, 그리고 창페이는 헬기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내 범용기 및 헬기에 대한 수요 급증과 맞물려 이들 기업은 더욱 발전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2008년 중국은 엄동설한과 원찬 대지진을 겪으며 범용기 및 헬기가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 이후 범용기 및 헬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중국 민항 총국에 따르면 2020년까지 범용기 보

유 대수를 만 대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며, 2020년 민용 헬기에 대한 수요량은 300대가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시성은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강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장시성은 중국내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3개 지역(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해서경제구<sup>38)</sup>)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향후 중국의 항공산업을 견인하게 될 '대형여객기 프로젝트'가 추진될 도시인 상해와도 인접하고 있다. 상해와 난창 간에는 항공, 철도, 도로 및 수로 등 다양한 교통 네트워크가 갖추어져 있다. 즉 경쟁기업인 서비(西飛, XAC, 중항공업 서안 항공기 공업그룹 유한책임공사) 등의 기업에 비해서도 운송 방면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이다. 장시성 정부는 지금까지 언급한 각종 비교우위 그리고 기회요인을 바탕으로 2018년까지 1,000억 위안의 수익을 거두어들일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장시성 항공산업에도 문제점은 있다. 우선 장시성이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훈련기 시장 환경에서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중국에서는 아직 항공기(헬기 포함)의 운항이 가능한 영공의 범위가 충분히 개방되어 있지 않다. 이는 범용기 및 헬기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되어 동 산업규모 확대 및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림 4-1〉 장시 항공 제조업의 발전가능성 설명도



자료: 〈표 4-49〉와 동일.

38) '해서경제구'란 해협서안경제구를 줄인 말로, 푸젠성과 광둥(廣東)·장시(江西)·저장(浙江)성 일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장시성 항공 부품산업의 낙후는 장시성 항공산업 발전의 최대 취약점으로 꼽힌다. 장시성에는 항공기 완성업체가 3개나 되지만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장시 징항(江西景航航空鍛鑄公司)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즉 장시성 항공산업의 상·하류 간 가치사슬 구조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장시성 항공산업은 필요한 부품을 여타 성시 혹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장시성 항공산업은 부품산업을 포함한 항공재료, 기계설비 및 항공서비스 등에 중점을 두면서 온전한 형태의 항공산업 체인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 (5) LED산업

### 1) 개황 및 발전배경

LED(반도체 조명)는 일반 조명에서부터 시작하여 교통 신호등, 휴대폰 디스플레이, 자동차용 Front Panel, 의료용 조명, 방향지시램프 등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사용처가 무한하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LED산업을 21세기 잠재력이 가장 높은 신흥 산업으로 보고 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2000년대 이후 전기 에너지난으로 인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조명뿐만 아니라 에너지 극복 차원에서도 LED산업 발전에 역량을 집결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LED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속에서 장시성은 동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사실 장시성의 LED산업은 30여년의 역사를 가지며 2011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현재 장시성은 LED 칩 350억 개, 칩 패키징 150억 개, 디스플레이 40만㎡, 소형 燈(등) 1,500만개 등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60%나 늘어난 80억 위안을 기록하여, LED가 장시성(특히 장시성 중부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장시성 소재 LED 관련 기업 가운데에는 징닝광전(晶能光電)과 리엔황광전(聯創光電)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업은 LED산업 상류에 해당하는 재료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장시성 LED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관련 분야에 지적재산권(특허)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대형·선진기업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장시성 연구개발 기능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난창대학교육부 발광소재 및 소자공정 연구센터(南昌大學教育部發光材料与器件工程研究中心)를 들 수 있다. 동 센터는 반도체조명 관련 기술과 설비를 연구 개발하는 장시성 유일의 전문 기관이다. 다수의 반도체조명 관련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을 보유<sup>39)</sup>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잘 알려진 연구기지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실리콘기판 GaN반도체 조명, 녹·청·백색의 LED재료 및 집적회로, ZnO 반도체 등으로 주로 LED 관련 산업의 상·중류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동 연구기관은 중국과학기술부가 비준한 실리콘(규소)반도체 조명 국가 공정 센터, 국가발개위가 비준한 전국 제일의 국가지방 고체조명(固態光源) 연합공정 센터, 교육부가 비준·설립한 전국 대학 제일의 발광재료공정 연구 센터로서, 그리고 중앙 국가 과학기술부 863계획의 장시성 담당자로서 관련 기술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처럼 기존 생산기능에서 최근 연구개발 기능까지 더해져 현재 장시성은 푸젠성(福建省)과 함께 중국 4대 LED산업기지로 부상했다. 결국 장시성 LED산업의 발전은 정부의 뒷받침과 선도기업의 존재 그리고 연구개발 기능에 힘입은 바 크다 하겠다.

한편 「12·5계획」에 따르면, 장시성은 LED산업을 연평균 35%의 규모로 성장시켜 2015년까지 산업규모 1,000억 위안, 영업수익 500억 위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장시성은 LED 칩 생산량을 100만 개, 관련 재료 생산량을 300억 개로 증가함으로써 중국 전체 반도체조명 산업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장시성 대표산업으로의 부상을 기대하고 있다.

## 2) 주요 기업 및 산업클러스터 현황

장시성의 LED산업 또한 여타 중요 산업과 마찬가지로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클러스터는 지역적으로 난창과 지안(吉安), 가오안(高安), 징더전(景德鎮)

39) 녹색광 및 자색광 반도체 생산기술이 대표적이다.

등의 난창 이외 지역으로 구분된다. 난창에서는 관련 상류제품을 중심으로 중류 및 하류 업체가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난창 이외 지역에서는 주로 하류 부문(응용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 ① 난창국가반도체조명산업화기지(南昌國家半導體產業化基地)

동 기지는 중앙 당국이 중점을 두는 반도체 조명공정산업화기지 가운데 하나이며, 특히 반도체 발광재료 및 소자 등 관련제품 상류 분야 생산에서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동 기지는 LED에 피택셜(pitaxial) 실리콘 기판 생산에 특허기술(특히 남창光電)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칩(직접회로, 芯片), 패키징(封裝) 및 조명응용제품 산업화 등과 관련된 기술개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사파이어, 탄화규소계 LED 응용제품을 개발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즉 난창기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하게 자주적인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실리콘기판(硅襯底)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LED산업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생산기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난창 기지 당국(장시성 지방정부)은 더욱 집적화된 클러스터의 확산을 통해 관련 산업의 제품 간(상류, 중류 및 하류 간) 산업 체인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을 마련해 두고 있다. 구체적인 전략이 ‘하나의 중심, 두 개의 받침대, 다방면확산(一个中心, 兩個支點, 多維擴散)’이다. 여기서 하나의 중심은 진사강 창업투자기금(金沙江創業投資基金)<sup>40)</sup>의 투자에 의한 산업원구(產業園區)를 의미하며, 두 개의 받침대는 징닝(晶能)광전과 리엔창(聯創)광전 등 장시성 양대 LED 기업을 의미한다. 즉 창업투자 기금과 기존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바탕으로 투자유치, 관련 산업 발전(다방면 확산) 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sup>41)</sup>한다는 것이다. 장시성은 이를 통해 2015년까지 기지 내 리드 기업을 중심으로 적어도 2개 이상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제품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동 기지의 대표기업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징닝광전과 리엔창광전이다. 징닝

40) 동 투자기금은 중국에 주로 투자하는 자금으로서 전체 기금은 약 10억 달러에 이르며, 중국 첨단기업의 글로벌화를 지향하고 있다.

41) 진사강창업투자기금공사 관련자는 동 기금을 장시성 LED산업에 투자한 배경으로 ‘장시성 LED산업의 양호한 전망’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진사강 LED산업원 창립에 5,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오스람, 테마섹, 필립스 등 국제 대기업을 산업원구로의 유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 언급한 바 있다.

광전은 실리콘기판 GaN 등 반도체 조명재료(가치사슬에서 상류<sup>42)</sup>)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실리콘 기판 녹색광 다이오드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70여 개의 관련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다. 2006년에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 주요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현재 창저우(常州)에 대형 LED연구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연구인원만 200여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생산품 대부분은 중국 내 여타 지역으로 판매되며 장시성 당국은 동 기업을 세계수준의 LED산업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종업원 규모는 500명 정도에 이르며, 연간 1억 위안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동 기업의 이러한 양호한 성과를 반영하듯 진샤장 창업 투자기금(金沙江創業投資基金)를 비롯하여 Mayfield Fund, IFC 등 국내외 자본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리엔창광전은 1999년 설립된 회사로서 징닝광전과 마찬가지로 LED산업 관련 상류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특히 LED 재료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연산능력이 20만 인치에 달한다. 종업원 규모가 4,000여명 정도에 이르며 연간 영업이익은 10억 위안을 넘어서는 대형 기업이다. 생산된 제품은 국내 여타 지역(내수)뿐만 아니라 유럽으로의 수출도 이루어진다. 동 기업은 2004년 한국의 세광전자와 합자<sup>43)</sup>(360만 달러)로 휴대폰 스크린 등 LED 응용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장시 리엔창 지광 과학기술 유한회사(江西聯創致光科技有限公司)를 설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LED조명재료 등 상류제품 생산에는 필요기술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량의 초기자본이 필요한 장치산업이다. 즉 징닝광전과 리엔창광전 모두는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지안LED산업기지(吉安LED產業基地)

동 기지를 언급할 때 우선 지타이 발전회랑(吉泰走廊)<sup>44)</sup>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42) LED산업 가치사슬에서 기판, 에피성장 등은 상류, 칩공정 및 패키지는 중류, 그리고 모듈/응용제품은 하류에 해당한다.

43) <http://lcsekwang.cn.globalimporter.net/>

44) 지타이광업회랑(吉泰工業走廊)은 吉安市 중부에 위치하며 북쪽의 지수(吉水)현에서부터 남쪽의 타이허(泰和)에 이르는 선(線, 발전지역)을 의미한다.

지타이 회량은 장시성 유일의 성급 전자정보화 산업기지이다. 여기에는 전자정보화 관련기업들이 345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15개가 LED산업 관련 기업들이다. 해당 범위가 복잡하고 다양한 전자정보산업의 특성상 동종 분야 기업 15개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특히 이들 15개 기업 대부분은 LED 부품 패키징에서 전국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안시에서의 LED산업 클러스터는 지타이 발전회량 외에 징강산(井岡山)경제기술 개발구, 쑤이촨현(遂川縣), 징강산시 공업원 및 지수현(吉水縣) 공업원 등에도 존재한다. 징강산경제기술개발구는 향후 25억 위안을 투자하여 LED백라이트, LED TV(모니터), 야외 LED 디스플레이 장치, LED 야외 디스플레이 등 고위기술의 LED조명산업 제품의 연구개발 및 생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동 개발구에 위치한 무린썬(木林森)전자는 연 500억 개의 소재 패키징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저위기술(低端) LED 소재영역의 포장능력은 전국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 기업은 생산된 제품을 중국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홍콩, 마카오, 타이완, 동남아시아, 유럽, 미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지수현(吉水縣) 공업원에 자리한 자타이(嘉泰)전자는 각종 LED 측면 백라이트, 컬러 야경디스플레이모듈 등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이다. 동 기업의 연간 생산액은 6억 위안으로 추산되며 향후 장시성 백라이트제품 분야 선도 기업으로의 부상 가능성이 있다. 현재, 쑤이촨현과 징강산시 공업원은 LED조명 산업원과 LED조명 램프 산업단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고성능 LED 패키징, 도로등, 신호등, 자동차전조등과 미등, 정원·경관·상점창조명 등의 개발·생산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요약하면 장시성 LED산업 주요 제품은 LED 선반(스탠드), LED넥시관, LED 백라이트, LED 소형 에너지 절약 램프 등 응용제품과 연산능력 30억 개에 달하는 패키징이다. 즉 난창 단지가 상류 제품에 특화하고 있다면 지안시는 패키지 및 응용제품 등 중/하류 제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안시 LED산업 클러스터는 난창의 LED산업 발전에 편승하여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다 하겠다.

〈표 4-50〉 장시성 LED산업 대표기업

회사명	주요 생산 품목	생산량 및 비고	가치사슬	소재지
징닝광디엔	실리콘기판 GaN 반도체조명재료	· 자체 실리콘 기판 녹색LED 개발 · 현재 70여 개 관련특허 출원	상류	난창
리엔황광디엔 과학기술	LED 재료, 반도체 조명재료	· 연간 20만 인치 LED 재료 및 6,000만 개 반도체 조명재료 생산	상류	난창
난창신레이광 디엔과학기술	LED 칩	· 연산 120억 개	중류	난창
창다광디엔 과학기술	LED 디스플레이 및 응용제품	· 연산 1만m <sup>2</sup> 이상	하류	난창
징허조명 유한공사	고효율 LED 조명 및 특수 조명제품	· 연산 20만(계획)	하류	난창
치엔황보야 과학기술	LED 장식 조명 및 차량용 LED 디스플레이	· 연간 LED 장식 조명 42만 개 · 연산 차량용 LED 디스플레이 5,000m <sup>2</sup>	하류	난창
지안시무린쎌 전자	소재 패키징	· 연산 500억 개	중류	지안
리엔황지광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광원	· 연산 디스플레이 5,000만 개 · 한중합자	하류	난창
장시화예에너지 절감조명	LED 조명 제품, LED 가로등	· 연산 4만 개	하류	징더전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 3) 발전 전망

21세기 들어서 LED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국 또한 동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시장의 수요확대뿐만 아니라 중국내 환경변화에서도 LED 제품 수요확대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에너지 절약 분위기와 신형 도시화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신형 도시화 정책은 스마트화를 강조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약 설비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또한 동 정책은 향후 최소 10년 정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LED 제품에 대한 수요확대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중국 각지에서는 LED 관련 대·중·소기업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장시성 또한 이 대열에 동참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시성은 동 업종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

해야 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장시성 정부는 보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화된다면 난창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하면서 관련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가오안(高安)시 등이 유력한 후보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시성 정부(특히 난창시 정부)는 성내 LED제품의 다양성과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주요 도로, 주요 건물, 터널, 역, 체육관 그리고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LED 제품 사용을 강제할 가능성도 있다. 즉 향후 장시성 LED산업 또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바탕으로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LED제품 수요가 확대되고 관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가치사슬 말단에 위치한 판매상 또한 종전과는 다른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즉 기존에 주류를 이루었던 LED제품 가게 및 도매상점 등은 조명기구 마트, 쇼핑센터 및 체인점 등의 형태로 변모하여 최종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그러나 LED제품의 지속적인 수요 보장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최종시장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로엔드(low-end) 제품은 가격이 싼 반면 사용하기에 불안하고 하이엔드(high-end) 제품은 사용하기에는 안정적이거나 가격을 수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이른바 구매자와 제품 간 상응하지 못하는 왜곡현상이다. 이러한 문제는 꾸준한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등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기술개발 플랫폼 형성에도 힘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장시성 LED산업의 발전은 정부 간여(개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겠다.

## 2. 서비스업 : 문화산업

### (1) 문화산업과 정책

장시성의 서비스업 구조를 보면, 도·소매업이 946억 위안으로 장시성 서비스업 전체의 약 21%를 차지하며 영세 서비스업 및 교통·운수·창고·우편이 각각 16.0%, 12.7%로 뒤를 잇고 있다(이상 2012년, 부가가치 기준). 한편 문화산업은 7.9%로 가장 낮

〈표 4-51〉 장시성 내 문화산업의 위치

단위: 억 위안, %

	2011년			2012년		
	부가가치	증가율	서비스업 점유율	부가가치	증가율	서비스업 점유율
서비스업	3,921.20	11.1	100.0	4,460.76	9.5	100.0
도·소매업	831.97	11.7	21.2	945.94	11.4	21.2
영세서비스업	592.39	24.1	15.1	714.42	15.9	16.0
교통업, 운송업, 창고업, 우편업	507.44	6.3	12.9	567.82	6.2	12.7
부동산업	402.51	0.9	10.3	411.43	3.6	9.2
주택·식당업	270.29	12.2	6.9	338.95	5.9	7.6
문화산업	292.04	-	7.5	351.08	20.0	7.9

자료: 장시성 통계국.

주: 2012년 문화산업 통계는 보도 자료에 의한 추정치.

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문화산업이 20%로 여타 부문의 추종을 불허한다. 최근 문화산업의 이러한 급속한 발전은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중앙)의 문화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2000년 개최된 당 15차 5중전회에서 부터라고 볼 수 있다. 「10·5계획」 건의의 제15조 마지막 부분은 ‘문화산업 정책을 개선하고 문화 시장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며 문화 관련 산업 발전을 추진한다.’ (完善文化產業政策, 加強文化市場建設和管理, 推動有關文化產業發展)라고 언급하고 있다. 2008년 국무원이 〈국가 11·5 시기의 문화발전 기획 강요(國家“十一五”時期文化發展規劃綱要)〉를 발표하면서 드라마, 영화, 출판, 인쇄, 광고, 공연, 엔터테인먼트, 전시업, 디지털 콘텐츠, 캐릭터, 애니메이션 산업을 중점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전략이 등장한다. 2009년에는 〈문화산업 진흥 계획(文化產業振興規劃)〉이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정책은 2011년 10월에 개최된 공산당 17차 6중전회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중국은 〈문화 체제 개혁 추진 심화가 사회주의 문화 대발전과 대변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 문제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면서 문화산업 개혁과 관련한 중요 문건을 발표한다. 그러면서 문화산업을 2020년까지 국민경제 지주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

을 제시했다. 이는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공산당 전체회의에서 문화 건설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는 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장시성 또한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고 또한 성내 문화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른바 '2+2 발전전략'이다. 이는 '문화+과학', '문화+여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과학'은 문화콘텐츠산업을, 그리고 '문화+여행'은 다양한 테마 및 체험관광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시성은 포양호 생태 경제구 건설을 문화산업과 연계하여 문화대성으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장시성의 문화산업은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2011년 약 50억 위안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또한 「12·5계획」 기간 동안 국가급(國家級) 산업시범기지 20개, 성급(省級) 문화산업시범기지 60개, 특색산업구역 10개를 형성하여 문화산업 영업수익을 1,500억 위안, GDP의 5%까지 이르게 한다는 목표를 세워 두고 있다. 한편 본 소절에서는 장시성의 '2+2 발전전략'을 고려하여 문화콘텐츠 산업, 여행 산업 그리고 도자기 관련 산업 등에 대해 언급한다.

## (2) 각종 문화산업 개황 및 클러스터

### ① 문화콘텐츠산업

장시성은 2015년까지 동 산업 연평균 성장률 55%, 생산총액 300억 위안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 장시성 유선 TV 디지털화를 비롯하여 영화관 건설, 복합영화센터 건립, 영상기지 건설, 디지털 TV 협력 플랫폼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장시성 유선 TV 디지털화 사업에는 60억 위안을 투자하여 연간 30억 위안의 연간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영화관 건설에는 모든懸(懸)에 디지털 영화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시성의 문화콘텐츠산업 또한 여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클러스터를 통해 발전(혹은 발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문화콘텐츠산업의 클러스터는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인 형태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잉탄문화산업기지(鷹潭文化產業基地), 간저우홍색문화창의산업원(贛州紅色文化創意產業園), 난창국제애니메이션산업원(南昌國際動漫產業園) 등

이 대표적인 클러스터이다.

잉탄문화산업기지(鷹潭文化產業基地)는, 잉탄(鷹潭)시가 장시성의 문화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5개 이상의 특색산업기지 건설, 5개의 문화산업전문시장 형성, 10개의 지적재산권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는 단지이다. 구체적으로는 잉탄문화산업기지에 잉탄애니메이션문화산업원(鷹潭影視動漫文化創意產業園)을 비롯하여 자오산문화유산산업원(角山文化遺存產業園), 용호산수호테마공원(龍虎山水滸主題公園), 대형문화센터(大型演藝中心), 대형도서출판도매센터(大型圖書出版發行批發中心)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결합하면서 장시성 잉탄시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간저우홍색문화창의산업원(贛州紅色文化創意產業園)은 미국 Foraise Technologies, Inc.가 간저우(贛州)시 상무국과 인민정부의 협력투자를 통하여 건설한 단지이다. 총 10억 위안이 투자된 동 단지는 애니메이션에 특화된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다.

〈표 4-52〉 장시성 방송콘텐츠산업 주요 프로젝트계획(2012~2015년)

단위: 억 위안

프로젝트 명칭	프로젝트 주요내용	예정 투자액	예상 연간 수익	기간
장시성 유선TV 디지털화	2015년 유선TV 디지털화 750만 가구, 수신료 수익 10억 위안 달성	60	30	2011~2015년
영화관 건설	영화관 70개 신설 및 140개 달성, 매 현(縣) 디지털 영화관 1개 실현	15	7	2011~2015년
장시TV 디지털 센터	디지털 프로그램 제작기지 건설 및 인터넷 TV와 DMB 등 새로운 매체 사용	12		2012~2018년
디지털TV 협력 플랫폼	TV 네트워크 구축 및 다매체 협력 플랫폼 실현	10	1.8	2012~2015년
우닝(武寧)현 영상기지	TV, 영화, 영상기록, 전담 등 영상기지 건설, 산업 관련 인재 양성, 인터넷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매체 산업기지 건설	30		2011년 시작
징더진 문화영상콘텐츠 매체 센터	문화산업, 영상콘텐츠, 인터넷산업 등 다매체 영상산업센터 건설	30	1	2013년
상랴오(上饒) 국제영화성	복합 영화 센터 건설	2	5	2014년

자료: KOTRA 우한사무소 현지 조사.

난창국제애니메이션산업원(南昌國際動漫產業園)은 난창소란경제개발구에 위치하며 2009년 설립되었다. 총 건설 면적 90만m<sup>2</sup>에 달하는 동 기지는 산업, 교육·인재양성, 종합서비스, 문화체험·생태여행, 상품 제조 등 5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산업구역에는 100여개 기업과 1만여 명의 전문가들이 종사하며 연간 생산액이 약 30억 위안에 이른다. 애니메이션 문화체험 및 생태여행 구역은 장난감 및 의류 등 애니메이션 관련 상품을 생산, 전시 및 홍보하고 있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장시성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는 애니메이션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장시성이 애니메이션 산업 생산 전 과정<sup>45)</sup>에서 비교적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제작단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장시성 문화콘텐츠산업에서의 주요 기업으로는 장시TV(江西衛視)를 들 수 있다. 장시TV는 중국 전체 지역에서 시청 가능한 위성 TV 채널로서 중국을 대표하는 방송국 가운데 하나이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2006년부터 방영된 《中國紅歌會》가 있으며, 장시TV는 끊임없는 영상기술 개발과 프로그램 편성을 통하여 장시성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② 관광문화산업

장시성 관광산업은 세계 금융위기, 신종 인플루엔자, 자연재해 등 각종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11·5계획」 기간 동안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특히 2010년에는 여행자 1억 명을 유치하는 데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러한 관광산업의 발전에는 「11·5계획」 기간 동안 공표·실시된 “붉은 요람(紅色搖籃), 녹색정원(綠色家園)” 등 관련 정책(방침)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장시성은 「12·5계획」 기간 동안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보다 개선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2015년까지 2억 5,000만 명의 여행자 유치와 2,100억 위안의 관광산업 총 수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시성의 「12·5계획」 기간 동안 관광산업 정책은 관광자원 및 구역별 특징을 엮어

45) 애니메이션 산업의 상품 생산과정은 기획·창작-제작-완성 등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제작단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3개 구역으로 나누고 있다. 이른바 ‘일구대양권(一區帶兩圈)’ 전략이다. 포양호생태경제여행구(鄱陽湖生態經濟旅游區)가 일구대이며, 간중난홍색고전여행권(贛中南紅色經典旅游圈)과 간시녹색징추이여행권(贛西綠色精粹旅游圈)이 양권에 속한다.

포양호생태경제여행구(鄱陽湖生態經濟旅游區)는 포양호생태경제구를 중심으로 간베이환포양호오색정화여행선(贛北環鄱陽湖五色精華旅游線) 등 여타 지역 여행 자원도 포함하는 관광구역이다. 포양호생태경제구는 현재 장시성을 대표하는 관광기지이며, 장시성 당국은 동 구역이 「12·5계획」을 통하여 국제적인 생태경제시범구역으로 부상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간중난홍색고전여행권(贛中南紅色經典旅游圈)은 간중난홍색고전여행선(贛中南紅色經典旅游線)<sup>46)</sup>의 중심 지역이다. 구체적으로는 간중난홍색고전여행권은 간저우(贛州)의 송나라 천년 문화와 정서, 담호(潭湖) 도시인 푸저우(撫州) 문화, 난펑(南丰)의 민속 문화 등의 여행 자원을 활용하여 이색적인 여행구역을 형성하고 있다. 장시성은 동 지역을 성내 가장 성숙한 관광 구역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간시녹색징추이여행권(贛西綠色精粹旅游圈)은 간시녹색징추이여행선(贛西綠色精粹旅游線)을 중심으로 자연생태경관과 온천과 같은 휴양시설이 분포되어 있다. 또한 불교의 한 종파인 선종(禪宗)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생태 문화체험 관광구역이기도 하다.

한편 장시성에는 일구대양권 이외에도 포양호국제습지생태여행구(鄱陽湖國際濕地生態旅游區), 루산세계문화경관여행구(廬山世界文化景觀旅游區), 산칭산세계봉임경관여행구(三清山世界峰林景觀旅游區), 룡후산세계자연유산과도문화여행구(龍虎山世界自然遺產與道文化旅游區), 난창국제도시여행구(南昌國際都市文化旅游區), 징더진세계도기문화휴양여행구(景德鎮世界陶器文化休閒旅游區), 푸저우화시아명두문화여행구(撫州華夏夢都文化旅游區) 등 다양한 개별 관광구가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장시성의 관광산업을 보면, 단순 관광에서 벗어나 생태체험, 역사

46) 장시성 전체에는 4개의 세계문화유산, 2개의 세계지질공원, 1개의 국제 중요습지, 12개의 국가급명승지구, 44개의 국가급 삼림공원, 8개의 국가급자연보호구 등이 있다. 또한 9개의 중국 여행 우수도시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 관련 우수자원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 발전전략이 간중난홍색고전여행선(贛西綠色精粹旅游線)이다. 이러한 전략을 ‘붉은 요람, 녹색정원(紅色搖籃, 綠色家園)’ 이라고도 한다.

체험 등과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관광’ 으로의 지향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관광자원과 구역별 특징을 엮는 전략은 제조업에서의 클러스터와 유사하다. 이러한 움직임은 장시성이 관광산업 또한 분화산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그 발전에 역량을 모으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하겠다.

### ③ 도자기문화산업

장시성 동북부에 위치한 징더전(景德鎮)의 도자기 공예 산업은 약 2,000년의 역사를 가지며 세계 최대의 도자기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징더전은 도자기 공예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를 비교적 잘 갖추고 있다. 징더전에는 생활용, 특수목적용, 건축용, 공예용 도자기 생산업체가 모두 존재하며 관련 서비스 산업도 성숙된 상태이다. 타이이다(台達)와 위위안(玉源)은 자기용 점토를 생산하고, 다팡(大方)과 성창(盛昌)은 도안용 화지(花紙)를 만들며, 안다(安達)는 포장용 재료를 생산하는 등 상호 클러스터(징더전도기공업원구, 景德鎮陶瓷工業園區)를 형성하고 있다.

2004년 중국의 과학적인 도기 산업기지 건설을 목표 설립된 징더전도자공업원구는 2006년 성급(省級)개발구역과 특색산업원구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 국가 햇불 생산기지로 선정되었다. 현재 중국의 도기산업 시범기지로 선정된 징더전은 전문화된 분업화와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자기 공예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2011년 현재 동 단지에는 1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징더전 도자기 산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외부요인도 있다. 우선 2009년 중앙 국무원이 발표한 자원 고갈형 도시 명단에 징더전시가 포함된 점을 들 수 있다. 이로써 징더전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산업 개발을 위한 각종 지원도 받게 되었다.

가정경제에서 문화소비 비중이 증가하면서 도자기 시장 잠재력이 커지는 것 또한 징더전 도자기 산업에 유리한 요인이다. 중국 도자기 시장에서는 예술 도자기의 흐름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데 전국 예술 도자기 집산지 바로 징더전이다. 여기에는 도자대세계(陶瓷大世界), 중국도자성(中國陶瓷城), 국무광장(國貿廣場), 중국자원(中國瓷園) 등 도자기 박람회, 교역상담회 역할을 하는 중국 유일의 전문 시장 존재가 크게 기

여하고 있다. 즉 수공업에 의한 제조방식이 징더전 도자기 생산에 약점으로 작용했지만 도자기 실용 수요가 아닌 예술 도자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작업에 의한 도자가 문화 상품으로서 비교우위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징더전은 도자기 공예산업 분야에서 탄탄대로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점과 위협요인도 다수 존재한다. 우선 관련 업자의 시대에 뒤쳐진 사고방식을 들 수 있다. 내륙에 위치한 징더전은 도자기산업의 낡은 방식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 국내외 시장에 대한 이해와 독창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제품의 종류도 단조롭고 도자기 부흥의 세계적 흐름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생산방식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징더전의 도자기산업은 여전히 공방, 노동력 및 천연자원을 위주로 운영되는 노동집약형 및 자원형 발전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노동집약적이고 소규모 가내작업을 통해 생산이 이루어지는 기존 방식 때문에 산업에 대한 개념이 취약하다. 이는 곧 선도기업과 유명 브랜드 부재로 이어졌다.

징더전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에서도 경쟁업체가 나타나면서 징더전 도자기산업은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포산(佛山), 쑤보(淄博), 탕산(唐山) 등 여타 도시에서도 도자기 전문단지를 육성하면서 도자기산업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징더전은 이들 도시에 비해 규모, 개발속도, 브랜드 및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모두 뒤쳐져 있기 때문에 연관된 산업(디자인, 포장, 홍보, 광고 등)에 대한 시장 수요도 저조한 편이다. 징더전의 전통적인 장점만으로는 관련 산업의 지속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다.

도자기산업에서 징더전의 중요성, 그리고 기존 방식으로는 지속성장 불가능 등을 감안하여 장시성은 도자기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는 도자기 공예라는 제조업에 문화라는 서비스 산업을 결합시키는 전략이다. 장시성은 최근 몇 년간 장시성 문화산업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 ‘장시성 문화산업 발전요강’, ‘장시성 10대 전략형 신흥산업(문화와 아이디어) 발전규획’ 등을 제정한 바 있다. 또한 징더전시(市)는 8대 전략적 신흥산업 중 하나로 도자기산업을 선정하고, ‘징더전 문화산업 발전규획’, ‘징더전 국제 도자기 문화예술 창조형 산업기지 발전규획’ 등을 발표하며 도자기 관련 문화산업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자기 문화와 관련된 유산 보호·개발, 징더전의 역사와 문화를 잘 정비하고 계승함과 동시에 오래된 가마, 작업장 등 유적지의 복구·개발, 징더전의 도자기와 역사가 결합된 문화관광 브랜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징더전시는 도자기 관련 제조업과 문화산업이 결합된 단지(클러스터) 육성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즉 연구개발(독창적인 디자인 개발 및 인재육성 등), 제조(포장 디자인 등 연관 산업의 발전도 포함), 관광(천년 자기고도 징더전의 발전과정 및 성과 소구), 전시(예술 품 및 공예 기술 교류의 장) 등이 결합된 단지이다.

### (3) 발전 전망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장시성 문화산업은 나름대로 발전 잠재력(문화적 기초)을 보유하고 있다. 문화 관광 산업은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유가문화, 종교문화가 서로 섞여 각각 수준 높은 문화유산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도자기 문화산업의 경우 유구한 역사와 함께 지역(징더전) 특색이 짙은 공상(工商)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즉 장시성 문화산업은 발전의 근원이 되는 문화적 유산의 뿌리가 비교적 튼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수준이 낮고 경제발전의 시장화와 경제의 사회적 역량이 부족한 장시성 문화산업이 단기간 내 양질의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일부 업종에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는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해 산업사슬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시장(기업 등)이나 사회(각종 단체) 등의 경제 주체만으로는 합리적인 자원 분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더라도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간접적인 개입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국가의 관련 정책 범규에 따른 문화산업 우대정책 마련, 문화산업 발전과 관련된 예산 항목이나 특별 기금 마련, 재정, 세금, 토지, 인재육성 등 분야에서의 지원 시스템 마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시장(기업)이 발

〈표 4-53〉 장시성의 중국 내 도시화 위치

단위: 개, %

	전체	인구 100만 이상	인구 50만 이상	인구 20만~50만
전국	371	102	118	151
장시성	15	1	4	10
비중(장시성/전국)	4.04	0.99	3.39	6.62

자료: 중국통계연감 2012, 장시성 통계연감 2012.

전을 주도하며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플랫폼(클러스터 포함) 형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산업의 대부분 업종은 그 속성상 다수의 중소기업을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용자 루트는 원활한 편이 아니다. 정부는 문화산업 관련 용자 플랫폼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화산업 상품 소비에는 도시화 발전 정도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도시 발전에 수반되는 금융화, 서비스화 그리고 정보화는 문화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를 통해 상호 침투·융합과정을 거치면서 문화산업 발전 수준을 제고한다. 그러나 전국 371개(인구 20만 이상)에 이르는 도시 가운데 장시성에 위치한 도시는 15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인구 100만에 달하는 대도시는 난창시뿐이다. 장시성의 도시화 수준이 문화산업 발전을 지탱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장시성은 문화산업 상품의 수요처를 장시성 내부뿐만 아니라 인근 상하이, 저장성, 푸젠성 및 광둥성 등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sup>47)</sup>

47) 예를 들면 장시성 징더전시가 비교우위를 보유한 도자기 관련 문화산업이 이러한 전략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 제5장

# 한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애로요인

## 제1절 한국기업의 진출 현황

### 1. 산시성 주요 진출 기업

2013년 6월 말 현재 산시성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는 총 43건 2억 달러 정도에 이른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비제조업에 대한 투자도 그 비중이 37% 정도(건수 기준)에 이를 정도로 많다. 비제조업에 대한 투자 가운데 광업이 건수 및 금액 면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 가운데에서도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에 투자한 기업 수가 많다. 또한 산시성에 투자한 기업 가운데 대기업은 6개이며 이 가운데 5개 기업이 동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이는 중국내에서도 지하자원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이를테면 石炭大省) 산시성의 특성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 분야에 투자한 주요 기업으로는 한국전력공사, SK네트웍스, C&S Defence 등이 있지만 가장 활발한 업체는 SK네트웍스이다. 2007년 당시 희토 등 중국 특유의 자원과 각종 광산자원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동 기업은 대중국 투자를 단행한다. 당시 1억 3,000만 달러를 들여 산시성 북부 지역의 구리산업 동광산 및 제련소의 주식 45%를 매입하면서 동 업체의 공식적인 대중국 자원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동 업체는 연간 약 4억 5,000만 톤의 구리 생산량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이는 한국 전기 구리 총생산량의 1/10

에 해당한다. 한편 동 기업의 대중국 자원개발 사업은 한국의 동 분야 해외투자 가운데 6번째로 큰 규모이다.

서비스업 가운데 도매 및 소매업이 7건, 68만 8,000달러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일반 범용제품 수입을 위한 투자, 그리고 현지에서 비교적 인기가 높은 한국제품 수입을 위한 유통 분야 투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명도가 높은 한국제품으로는 의류와 화장품 등 생활용품이 꼽힌다. 화장품 가운데에는 라네즈가 현재 산시성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이자녹스 등의 브랜드 또한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다.

〈표 5-1〉 한국의 산시성에 대한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개, 달러

업종		법인 수	투자금액
도매 및 소매업		7	687,989
광업		6 (3)	171,412,989
건설업		1	101,000
교육 서비스업		1	20,000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2	550,00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기구 제외)	6	1,692,60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	263,200
	기타 제품 제조업	1 (1)	38,40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6 (2)	1,755,752
	식료품 제조업	1	156,4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	319,95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	12,460,15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	48,39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3	11,263,000
	제조업계	27 (3)	28,547,852
	합계		43 (6)

자료: 수출입은행.

주: 2013년 6월 말 기준, ( ) 안은 대기업 수.

〈표 5-2〉 산시성 진출 주요 기업

기업명	업종	주요 사업 내용
세룡 기술 주식회사	제조업	설계, 환경오염방지설비, 정수처리설비
T&C 주식회사	제조업	이온수발생기, 정수기
거성 무역	유통	주류, 음료
동해상사	유통	배수관, 파이프 부속품
노서남대 자동차 상사	유통	토목, 교량
영일건설 주식회사	제조업	경화제
세홍 상사 주식회사	유통	식당, 오락기, 노래방 기기, 종합 오락
원대 수입 상품	유통	철강, 규소강, 전동기, 농기구
한국전력공사	광업	에너지 개발, 전력생산
SK네트웍스	광업	동광개발 제련
Eigenpost	광업	천연가스
C&S Defence	광업	석유개발
(주)KOS	광업	제련
(주)조선매화	건설업	삼림개발
굿모닝신한증권	서비스업(금융)	금융자문

자료: KOIRA 현지 조사.

산시성에 대한 주요 기업 가운데 세룡 기술 주식회사는 흔히 않은 환경 관련 기업이다. 동 기업은 최근 중국에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주민들의 인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이라고 보고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 2. 안후이성 주요 진출 기업

안후이성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는 중국 전 지역 가운데 14위(금액기준)로 저조한 수준이지만 산시성 및 장시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6월 말 현재 안후이성에 대한 투자는 92건 1억 6,7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업종별 투자에서는 중국 내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이 건수 및 금액에서 각각 77.2%, 95.8%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5-3〉 한국의 안후이성에 대한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개, 달러

업종		법인 수	투자금액
숙박 및 음식점업		5	301,150
도매 및 소매업		4	2,454,000
광업		3	1,998,418
농업, 임업 및 어업		2	181,75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	46,66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 (1)	1,358,574
건설업		1	157,09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	5,0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500,000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1 (1)	10,080,000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	5,850,00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 (1)	8,674,60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4	4,012,65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 (1)	7,099,819
	기타 제품 제조업	4	2,870,00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	50,00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3,945,21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	100,000
	식료품 제조업	7	8,433,60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 (1)	24,684,667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	401,8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4 (2)	36,520,90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6 (3)	19,734,80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	550,0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9 (4)	26,965,625
	제조업 계	71 (13)	159,973,683
	합 계	92 (14)	166,976,338

자료: 수출입은행.

주: 2013년 6월 말 기준, ( )안은 대기업 수.

산시성에 대한 투자에서 대기업의 투자가 자원분야에 집중된 반면, 안후이성에 대한 투자는 제조업 전 분야에 걸쳐 고루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가운데에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며 기업 수 또한 14개로 가장 많다. 이는 안후이성 자동차 생산 및 판매량이 중국 내 선두그룹에 위치하며, 중형 화물차량, 대형버스 생산 뿐만 아니라 소형 승용차, 경형 화물차량, 상무차 등의 생산에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즉 부품 관련 분야에서의 시장성을 보고 한국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동 분야에 대한 투자에서 대기업도 2건이나 진출하고 있는데 만도기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안후이성 Chery자동차와 한국의 SK 텔레콤 간 공동 설립한 ‘자동차 네트워킹 연합 실험실’이 관심을 끈다. 이 실험실은 향후 모바일 텔레매틱스(MIV,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동차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연구하여 스마트폰과 자동차, 서비스창구 간의 원활한 연결을 실현함으로써 Chery자동차사의 스마트 자동차 생산을 지원할 예정이다.<sup>48)</sup> 한편 제조업 투자에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분야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안후이성에서도 산시성과 마찬가지로 한국산 의류, 화장품, 신발, 가방 등 생활용품에 대한 인기가 높다. 특히 한국 드라마가 안후이성 TV채널에서 자주 방영되고 있어 한국 및 한국 제품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비제조업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에 대기업 포함 2건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러한 현상(한국 드라마의 잦은 방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4〉는 안후이성에 투자한 한국의 주요 기업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농기계 분야, 고속도로 운수 분야 그리고 관광 분야의 투자가 주목을 끈다. 농기계 분야에 대한 투자는 안후이성이 여전히 연해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라는 것, 그리고 중국의 지속적인 3농 정책과 이에 따른 농기계 수요 증대에 기대를 건 투자라고 할 수 있다. 고속도로 운수 분야에 대한 투자는 여객뿐만 아니라 물류에까지 염두에 둔 투자로 보이며 금호그룹이 투자 주체이다. 관광업에 대한 투자는 안후이성에 위치한 명산 황산과 이러한 황산을 찾는 한국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대와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48) 한중무역투자정보망(<http://koreachina.mke.go.kr/>).

〈표 5-4〉 안후이성 진출 주요 한국기업

기업명(중문명)	업종	주요 사업 내용
허페이동진스메이켄과학기술유한회사 (合肥東進世美肯科技有限公司)	제조업	감광액, 스트리퍼, 부식제 등 반도체, 액정디스플레이 생산가공용 화학제품 생산
통링핑산싼자마이크로전자유한회사 (銅陵豐山三佳微電子有限公司)	제조업	프레스생산라인 10개 등 건설단계
다통농기구(안후이)유한회사 (大同農機(安徽)有限公司)	제조업	콤바인, 이앙기 등 농기계 생산 및 유통
유린산업(안후이)유한회사 (佑林産業(安徽)有限公司)	제조업	특종 유리 생산
안후이쓰타이얼쯔관유한회사 (安徽思太爾制罐有限公司)	제조업	캔 생산 및 유통
안후이허페이진후운수유한회사 (安徽省合肥錦湖運輸有限公司)	운수업	고속도로 운수와 택배운송
허페이아이쓰카이바오잉아스팔트유한회사 (合肥愛思開寶盈瀝青有限公司)	가공업	역청 가공 및 유통
통링귀싱화공유한회사 (銅陵國星化工有限公司)	가공업	비료 생산가공 및 유통
황산동광국제여행사 (黃山市東光國際旅行社)	관광업	국내외 여행상품
허페이푸러쓰건축재인테리어유한회사 (合肥市福樂斯建材裝飾有限公司)	서비스업	인테리어전문설계

자료 : 안후이성 투자유치서비스망(www.ahzsfw.gov.cn), KOTRA(2011)에서 재인용.

### 3. 장시성 주요 진출 기업

장시성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는 2013년 6월 말 현재 64건 3억 7,000만 달러 정도에 이른다. 대기업의 투자는 14%(건수 기준)로 산시성의 13.9%, 안후이성의 15.2%와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 투자에서 광업 분야 투자는 여타 지역(산시성 및 안후이성)에 대한 투자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시성에 대한 광업 분야 투자는 6건(이 가운데 대기업이 3건), 안후이성에 대한 광업 분야 투자는 3건을 보이고 있지만 장시성에 대한 동 분야 투자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장시성이 내륙지역에 위치하면서 비교적 풍부한(지하)자

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자원이 독특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장시성은 특히 희토 매장량이 풍부한바 여기에는 까다로운 외국인투자 조건이 따르며, 게다가 한국의 희토 채굴-분리·제련-가공과 관련된 기술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5-5〉 한국의 장시성에 대한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개, 달러

업종	법인 수	투자금액	
도매 및 소매업	6	1,760,000	
농업, 임업 및 어업	3	1,857,76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129,700	
건설업	1 (1)	13,125,000	
교육 서비스업	1	20,000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	500,00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	100,00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3	530,70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 (1)	903,64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 (2)	268,000,000
	기타 제품 제조업	1	200,00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	342,00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6	1,275,782
	식료품 제조업	8	3,968,000
	의류,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7	1,873,70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 (1)	45,150,023
	전기 장비 제조업	1	300,00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7 (2)	13,353,35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	1,403,61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 (1)	12,961,2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 (1)	6,762,000
	제조업 계	51 (8)	357,624,013
	합계	64 (9)	374,516,476

자료: 수출입은행.

주: 2013년 6월 말 기준, ( ) 안은 대기업 수.

전통적 노동집약 분야인 의류제조업에 7개의 업체가 포진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산시성에서는 동 분야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며 안후이성에서는 3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장시성의 주민 1인당 평균급여(2011년 기준), 2013년 최저임금 기준 등이 산시성 및 안후이성보다 낮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sup>49)</sup>

## 제2절 현지 진출 시 애로요인

### 1. 무역 관련 애로요인

#### (1) 추가적 물류비용 발생

산시성, 안후이성 및 장시성은 모두 내륙에 위치한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물류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바 이는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5-6>은 산시성 타이위안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항구인 톈진항, 둥잉항 그리고 친황다오항까지의 철도 및 도로 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최단 530여km에서 최장 860여km에 이른다. 이는 산시성 타이위안으로의 수출에는 철도 및 도로 수송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장시성 난창의 경우 동일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연해지역보다 20~30% 정도 비싼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한편 철도의 경우 이동 시간에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는바 여기에 따른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여건은 산시성(타이위안)뿐만 아니라 안후이성(허페이) 및 장시성(난창)에도 적용된다. 즉 이들 지역은 지리적으로 물류 측면에서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어 무역뿐만 아니라 외자 투자 유치에도 유리하지 않다.

49)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논의한다.

〈표 5-6〉 산시성(타이위안)-항구 간 거리

항구	철도 거리	도로 거리
텐진(天津港)	866km	532km
둥잉(东营港)	730km	664km
친황다오(秦皇島港)	785km	783km

자료 : 철도거리(火车票网www.huochepiao.com), 도로거리(百度地图http://map.baidu.com/).

〈표 5-7〉 안후이성(허페이)-항구 간 거리

항구	철도 거리	도로 거리
상하이(上海港)	457km	472km
러자오(日照港)	774km	578km
렌윈강(连云港)	485km	468km

자료 : 〈표 5-6〉과 동일.

〈표 5-8〉 장시성(난창)-항구 간 거리

항구	철도 거리	도로 거리
상하이(上海港)	650km	773km
푸저우(福州港)	618km	584km
샤먼(廈門港)	838km	702km

자료 : 〈표 5-6〉과 동일.

산시성, 안후이성 및 장시성 간 물류 여건을 비교해 보면 산시성(타이위안)이 상대적으로 항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다른 성에 비해 불리하다. 게다가 안후이성과 장시성은 장강 등을 이용한 하천항<sup>50)</sup>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어 황허강을 주로 이용하는 산시성보다 육상 물류에서 경쟁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부지역에는 제3자 물류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직영 및 수주 물류가 주를 이루고 있는바 물류 관련 리스크 노출이 상대적으로 높다.

50) 장시성의 경우 장강 중류로 이어지는 남쪽의 간강(贛江)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 (2) 1차 바이어 부족

중부 지역(산시성, 안후이성 및 장시성뿐만 아니라 허난성, 후베이성 및 후난성 등 중부 6개 성) 바이어들은 물류 및 창고보관 등에서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상하이 및 쑤저우 등과 같은 대도시의 대리상을 통해 제품을 공급받아 유통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즉 중부지역에는 직수입 형태가 아닌 2차 도매상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외국기업(한국기업 포함)이 중부 지역에서 직수입 거래상을 찾기가 쉽지 않다. 또한 소량 구매를 선호하고, 외상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제품 선정에서 수입까지 다소 많은 시간적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최근 항공 및 육상 물류망이 점차 개선되고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실제 한국을 방문하는 무역사절단(중부지역의 1차 거래상 후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중부지역 바이어들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2차 거래상이 많은바 수출입 결제과정에서 달러보다는 위안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도 무역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3) 유통망 확보의 어려움

중국 내륙지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사무소 설치 및 신뢰성 있는 협력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내륙지역은 기존 연해지역과는 달리 관련 정보 및 노하우 등이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인 거래(무역)가 이루어지기 까지 적지 않은 시간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실사를 통한 현지 사정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선뜻 사업을 추진하기에 (비용)부담이 따른다.

중부 지역 주민들의 수입과 소비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동지역에서도 고가 제품에 대한 구매력 또한 상승하고 있다. 한류 열풍도 거세게 불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및 관심도가 제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

팅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마케팅은 영구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전략에 불과하다. 즉 한류 마케팅을 비롯하여 현지 사정을 감안한 다양하고 장기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유통망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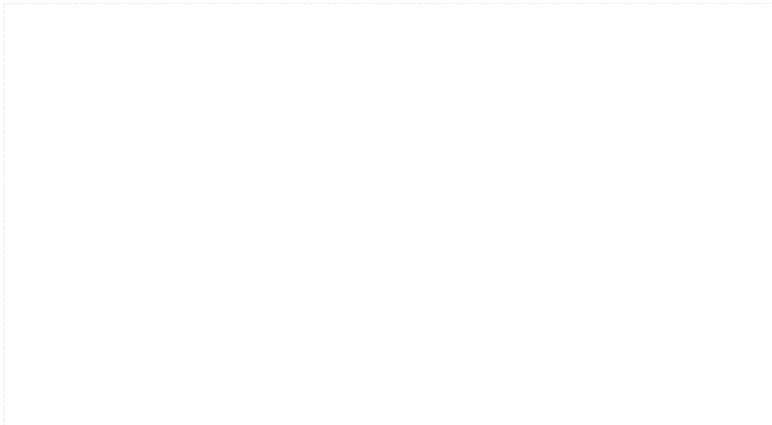
## 2. 투자 관련 애로요인

### (1) 경시할 수 없는 인건비 부담

연해지역 한국기업들이 연해지역을 떠나 중부 내륙지역으로 이전하는 주된 배경에는 인건비 부담 감소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 광둥, 상하이 및 산둥성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인건비의 가파른 상승에 고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 부담 회피만을 고려한 이전은 낭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기존 이전(移轉) 한국 업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부 지역이 인건비에서 유리한 측면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6년 산시(타이위안), 안후이(허페이) 및 장시(난창) 등 중부 3지역의 근로자 평균 임금은 각각 2만 1,400위안, 2만 1,900위안 그리고 2만 300위안이었으나, 불과 5년 뒤인 2011년의 이들 임금은 각각 4만 4,900위안, 4만 5,400위안 그리고 3만 9,800위안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5-1〉 중부지역 근로자 평균 임금(연봉) 추이(2006~2011년)



자료: 中國統計局.

〈표 5-9〉 중부지역과 베이징·상하이 간 최저임금 증가율 비교

단위: %

지역	최저임금 연평균 증가율(2008~2013)
베이징	11.84
상하이	11.03
산시성	16.54
안후이성	16.00
장시성	16.22

자료 : <http://baike.baidu.com/view/895266.htm>

주: 월 급여 기준.

절대임금 수준에서는 중부지역이 연해지역보다 낮으나 상승률 측면에서는 오히려 연해지역을 초과하고 있다. 특히 최저 임금에서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진다. 2008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베이징 및 상하이의 최저임금 증가율은 11%대에 머무르고 있으나 중부지역은 모두 16%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산시성(타이위안)의 경우 절대임금에서 상하이와 맞먹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월평균 임금에서는 1,290위안으로 상하이의 1,620위안에 미치지 못하지만 시간당 임금에서는 상하이와 같은 수준인 14위안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으로 보아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진출(혹은 생산시설 이전)하려는 기업(특히 중소기업)에게 중부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 지역은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표 5-10〉 중부 지역과 베이징·상하이 간 임금 비교

단위: 위안

지역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베이징	1,400	15.2
상하이	1,620	14
산시성	1,290	14
장시성	1,230	12.3
안후이성	1,260	13

자료 : <http://baike.baidu.com/view/895266.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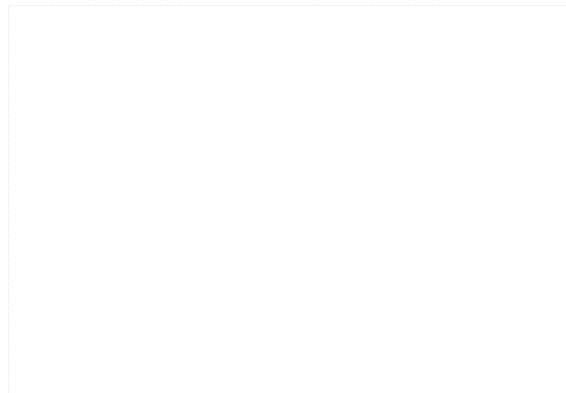
주: 2013년 기준.

## (2) 전문 인력의 만성적 부족 및 이탈

중부지역에서도 신상품, 신설비, 신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산업 구조 역시 고도화됨에 따라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졸자 가운데 상당수가 졸업 후 베이징, 상하이, 광둥 및 장시 등 연해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그림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대졸자 취업 도시 분포에는 산둥성 및 랴오닝성의 최대 산업도시인 칭다오와 다롄마저 상위 순위에서 배제된 상태이다. 부지역의 중심도시(타이위안, 허페이 및 난창)의 전문 인력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의미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확보된 전문 인력조차 외지로 이탈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장시성 징더전의 도자기 산업이다. 2,0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연해지역 도자기산업 신흥지역으로 인력이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부지역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전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림 5-2> 중국 대졸자 취업 도시 분포도(2011년)



자료: 金羊网—新快报(<http://www.ycwb.com/xkb/2009-02/10/index.htm>).

## (3) 정부의 지나친 개입 우려

중부지역 또한 신흥산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이들 산업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마

련하고 있다. 이들 산업 대부분이 대규모 자본 및 다량의 자원 투입을 필요로 하는바 자원배분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면 성내 지역 간 산업 정책의 조정, 분배 정책의 조정, 지적 재산권 보호 정책의 조정 등이 그것이다. 즉 경제 운영 과정에서 시장 기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사실상 중부지역의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셈이다.

외국인 투자에 따른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중요 산업의 진흥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된 나머지 외국인 투자에까지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할 우려가 있다. 이를테면 인력 자원 대우와 관련된 다양한 요구사항, 도시발전을 빙자한 과도한 준조세 요구, 환경 보호에 대한 지나친 간섭, 용수 및 전기 요금 등에 대한 잦은 변경(인상)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인건비 상승 부담 및 인력 확보의 어려움보다 더욱 부담스러운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 (4) 클러스터 미성숙

중부 각 省(성)의 산업구조가 점점 최적화되면서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변모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첨단 기술 산업에 속하는 업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정부 주도하에 전개되는 클러스터 전략에 힘입은 바 크다. 클러스터 형성으로 인해 부품 수급 및 기술지원, R&D 개발 성과 공유 등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주로 일부(주력) 산업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타 업종과는 거리가 있다. 일반 업종이 발전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이다.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주력산업 또한 전문화된 클러스터보다는 특정 개발구 내에서 여러 산업이 동시에 육성되는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러 산업을 동일한 개발구 내에서 육성하다 보니 특화된 우위산업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여러 업종이 혼재해 있어 필요한 기능(기관 및 기업)의 입주가 누락된 경우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중복투자도 나타나 클러스터 형성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성숙하지 못한 클러스터 형성은 연해지역에 비해 비용증대를 수반할 우려가 있다. 실제 중부지역 일부 기업은 연해지역에서 생산설비를 이전해 왔으나 이와 관련된 플랫폼 시스템이 미비하여 연해지역을 통해 해결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결국 중부지역에 대한 기업진출은 해당 지역 클러스터 미성숙에 따른 애로요인 발생이 불가피하다 하겠다.

### (5) 정보 전달 체계 미숙

중부지역의 사회 경제 구조 역시 연해지역과 마찬가지로 물질 중심에서 정보와 지식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전체 산업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중부지역 주민들의 일자리와 생활 방면에서도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낳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 도시들은 정보 생성 및 전달 체계가 낙후되어 있다. 각종 경제통계의 발표 시기 및 내용 등이 시의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전달 체계의 낙후성은 외국인 투자기업 도입 경험 및 인식의 부족과 맞물려 외자기업 지원 시스템의 미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기업등기 신청부터 등기연장, 운영자금 입금을 위한 외국환관리, 은행 계좌 등록 등을 진행하기 위한 담당부서들의 업무 미숙 등이 두드러진다. 심지어 변화된 정책 및 제도 전달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 경영에 애로를 호소하는 업체도 있다.

## 제6장

# 중부 3성 진출 활성화 전략

### 제1절 제품별 진출 유망 품목

#### 1. 최종 소비재

산시, 안후이, 장시의 중부 3성은 인구 1억 4,000명으로 중국 인구의 10.4%를 차지하는 인구 밀집지역이며, 소비규모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주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 2012년 상주인구 비중이 2.7%인 산시성은 2008년 2%에서 2012년 2.1%로 0.1%포인트 증가하였다. 상주인구 비중이 3.3%인 장시성도 2.2%에서 2.4%로 늘어났다. 그러나 상주인구 비중이 4.4%인 안후이성은 동 기간 4.2%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의 성장 주도지역이 동부에서 중부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중부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중국 전체 평균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8~2012년간 중국 전체의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은 연평균 12.8%씩 증가하였다. 동 기간 안후이성과 장시성의 1인당 국민소득은 연평균 18.8%와 16%씩 증가하여 전국 평균치를 크게 상회한 반면,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큰 산시성은 동 기간 석탄가격이 하락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이 전국 평균치를 하회한 11.8%에 불과하였다.

중부지역 3성의 전국 평균치 대비 소득수준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안후이성의 1인당 소득수준은 2008년 전국 평균치의 60.9%, 장시성은 67.1%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에

는 74.9%와 75%로 상승하였다. 석탄 덕분에 소득수준이 높았던 산시성은 2008년 90.7%에서 2012년 87.5%로 소폭 줄어들었으나 중부 3성 중에서는 소득 수준이 여전히 제일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중부 3성 지역의 소비수준과 구매력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2008~2012년) 중국의 최종 소비 지출액은 연간 15.1%씩 증가한 반면, 중부 3성의 소비 지출액은 16.2%씩 증가하여 전국 평균치보다 1.1%포인트가 높았다. 중부 3성 중 소비 지출액이 가장 빨리 증가한 곳은 장시성이다. 장시성의 소비 지출액은 연평균 17.8%씩 증가하였으며, 산시성도 연평균 16.4%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안후이성의 증가율은 15%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치를 약간 밑돌았다.

이에 따라 중부 3성이 중국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간 커졌다. 2008년 중부 3성이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였으나, 2012년에는 7.7%로 늘어났다. 그러나 중부 3성의 상주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4%임을 감안하면, 아직도 소비비중이 상당히 낮아 향후 발전 여지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정부의 중부굴기 전략 추진과, 동부 연안지역과 중부지역을 연결하는 고속철과 고속도로가 속속 개통되면서 중부 3성 지역은 중국의 공장으로서, 시장으로서 관심이 커지면서 동부 연안지역의 중국기업은 물론 다국적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중부 3성의 주요 소비재 보급률은 중국 평균 대비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소비재들을 보급률,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가율 등을 기준으로 성숙시장, 성장시장, 초기시장으로 구분해 보면, 세탁기, 냉장고, 컬러TV, 에어컨, 핸드폰 등은 성숙시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제품들은 이미 한 가구당 1대씩 보유하고 있고, 중부 3성의 보급률 또한 중국 전체 평균치에 근접하고 있다.

세탁기에서는 산시성의 보급률이 가장 높다. 석탄 광산이 많은 산시성은 100가구당 세탁기 보급률이 103.4대로 전국 평균치인 68대를 크게 상회한다. 안후이성(95.6대), 장시성(95.1대)도 전국 평균치에 근접하고 있다. 2008~2012년간 100가구당 세탁기 보유대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 전후를 나타내고 있어 전형적인 성숙시장으로서 모습을

〈표 6-1〉 중부 3성 주요 소비자재 보급률(도시지역 100가구당)

	산시성	안후이성	장시성	중국
성숙시장	세탁기(103.4) 냉장고(91.8) 컬러TV(111.2) 에어컨(48.2) 핸드폰(188.4)	세탁기(95.6) 냉장고(98.3) 컬러TV(145.0) 에어컨(136.1) 핸드폰(202.6)	세탁기(95.1) 냉장고(95.9) 컬러TV(156.7) 에어컨(128.6) 핸드폰(206.7)	세탁기(98.0) 냉장고(95.2) 컬러TV(136.1) 에어컨(126.8) 핸드폰(212.6)
성장시장	컴퓨터(74.1) 전자레인지(41.9) 샤워온수기(68.0)	컴퓨터(79.6) 전자레인지(80.2) 샤워온수기(94.0)	컴퓨터(78.2) 전자레인지(55.8) 샤워온수기(95.4)	컴퓨터(87.0) 전자레인지(62.2) 샤워온수기(91.0)
초기시장	카메라(32.6) 자가용(20.8) 비디오카메라(6.1)	카메라(34.9) 자가용(11.4) 비디오카메라(7.9)	카메라(35.8) 자가용(10.8) 비디오카메라(5.7)	카메라(46.4) 자가용(21.5) 비디오카메라(10.0)

자료 : 중국통계연감(2013년).

보이고 있다. 냉장고와 컬러TV도 마찬가지이다. 산시성만 전국 평균치를 하회할 뿐 안후이성과 장시성은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면서 보유 대수 증가율이 정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낮았던 에어컨은 중부 3성에서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00가구당 산시성의 에어컨 보유 대수는 2008년 33.3대에서 2012년에는 48.2대로 증가하여 연평균 9.7%씩 늘어나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장시성의 경우에도 동 기간 연평균 7.5%씩 늘어나 이미 가구당 1.3대씩의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다. 안후이성에서는 가구당 보유 대수가 1.4대에 육박하여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증가율도 정체상태로 진입하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핸드폰 역시 중부 3성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곳은 산시성이다. 산시성의 100가구당 핸드폰 보유 대수는 2008년 136.4대에서 2012년 188.4대로 늘어났다. 연평균 8.4%씩 늘어나 전국 평균치인 5.4%를 크게 상회하였다. 2012년 100가구당 202.6대를 보유하고 있는 안후이성도 동 기간 연평균 7.4%씩 늘어나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100가구당 206.7대를 보유하고 있는 장시성은 동 기간 5.6%씩 늘어나 전국 평균치를 약간 상회하였다. 최근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이 잇달아 출시되면서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 지역에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신규 또는 교체용 핸드폰의 판매량은

〈그림 6-1〉 중국과 중부 3성 성숙시장 제품의 소비재 증가율 비교



자료 : 중국통계연감(2009년, 2013년).

앞으로도 당분간 고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 3성에서 자동차, 비디오카메라, 컴퓨터 등은 전형적인 초기시장으로서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보급률은 매우 낮은 반면 소비증가율은 아주 빠른 시장들이다. 특히 100가구당 자가용 보급률이 중국 평균치는 2012년 21.5대인 데 비해 중부 3성은 평균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100가구당 자가용 보급률은 산시성이 20.8대로 가장 높고, 안후이성과 장시성은 각각 11.4대와 10.8대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2008~2012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안후이성이 48.7%, 장시성이 36.6%로 전국 평균치인 24.9%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산시성은 25.4%로 전국 평균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향후 이들 지역에서 자동차 판매가 크게 늘어날 것임을 짐작케 한다.

관광지가 많은 안후이성을 중심으로 비디오카메라의 보급률도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00가구당 비디오카메라 보유 대수는 전국이 10대이나, 산시성 6.1대, 안후이성 7.9대, 장시성 5.7대로 모두 전국 평균치를 하회한다. 그러나 2008~2012년 연평균 증가율은 안후이성이 25.3%를 기록해 전국 평균치인 8.9%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카메라 역시 100가구당 보급률이 30대 전후로 초기시장에 해당되지만 휴대폰이 대중화되면서 최근 4년간 증가율은 5%대 전후의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컴퓨터는 100가구당 보급률이 50대 전후로 중부 3성 모두 전국 평균치를 하회하고

〈그림 6-2〉 중국과 중부 3성 초기시장 제품의 소비재 증가율 비교



있으나,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0%대로 상당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자레인지 역시 100가구당 보급률이 50대 전후로 전국 평균치를 약간 하회하고 있으며, 특히 산시성은 100가구당 보급률이 30.5대에 불과하여 향후 발전 잠재력이 높은 시장 중 하나이다. 샤워온수기 역시 발전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특히 탄광지역이 많은 산시성은 100가구당 보급률이 68대로 전국 평균치 91대보다 크게 낮아 앞으로 발전 여지가 많은 시장이다.

한편, 본 연구진들의 현지 실사와 중부 3성이 갖고 있는 시장 특성을 바탕으로 발굴한 유망 품목들도 있다. 산시성은 풍부한 석탄자원 덕분에 주민들의 소득수준은 높은 편이나 의료(제약), 문화시설, 미용시설(화장품) 등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베이징과 타이위안 간 고속철이 개통되면서 산시성 주민들의 첨단 제품에 대한 소비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산시성 젊은 층들의 한류 열기는 여타 지역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 아직 한국계 유통업체, 한국제품 전용매장들이 없지만 코리아 브랜드에 대한 욕구는 강해 시내 중심가에는 코리아타운(韓國城)이라는 이름의 건물도 있다. 물론 코리아타운에 걸맞은 한국 제품 전용 매장, 제품의 다양성은 크게 부족한 편이다. 산시성 진출 유망 소비재로는 고급의류, 화장품, 액세서리, 첨단 가전제품과 음향, 영상설비 등이 있다. 아직 산시성에 대한 한국계 매장, 물류시설, 유통망이 크게 부족해 인터넷 쇼핑과 TV 홈쇼핑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최근 택배산업이 전국적으로 발달해 있고,

신용카드 등 다양한 형태의 결제수단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 쇼핑과 TV 홈쇼핑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안후이성은 절수형 좌변기와 올리브유가 수출 유망품목으로 꼽힌다. 최근 몇 년간 안후이성의 수도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소비자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도 강화되면서 절수형 좌변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최근 중국의 수자원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성도인 허페이의 경우에도 2015년에는 5억 m<sup>3</sup>가, 2020년에는 8억m<sup>3</sup>의 수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절수형 위생기구 판매가격은 2,500~3,000위안으로 일반 제품에 비해 15~30% 정도 높다. 저가형 절수형 좌변기의 경우에는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지만 고가품은 수입산이 주류를 차지한다. 수입산은 중국산에 비해 디자인과 재료가 좋다는 것이 소비자 평가이다.

올리브유 역시 유망 수출품목이다. 안후이성은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녹색 식물유 산업을 집중 발전시킬 계획이다. 최근 안후이성에 웰빙 바람이 불면서 건강에 좋다는 올리브유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다. 올리브유에는 불포화지방산, 비타민 E, 셀레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이 있어 최근 안후이성에서 올리브유를 찾는 소비자가 크게 늘고 있다. 현재 올리브유 가격은 일반 식용유보다 5~6배 정도 높은 200위안(760mL)대에 판매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판매되었으나, 최근에는 중부 대도시로도 판매가 확산되고 있으며 선물용으로도 많이 소비된다.

장시성의 경우, 식품 소비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대신, 의류, 가전제품, 의료건강, 교통 및 통신, 교육, 문화, 오락 등에 대한 지출이 많아져 소비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 현지 실사팀은 유망 소비품목으로 한류와 접목된 고급 의류, 녹색 식품, 화장품 등 뷰티, 미용제품 등을 추천하며, 특히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의 진출을 강조한다. 중국에서는 매년 6,000만 톤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음식물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최근 국무원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율 50%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광둥성, 저장성, 상하이, 장시성의 음식물 처리기 생산 업체들이 최근 호황을 맞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음식물 처리기의 수출도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한국의 대중국 음식물 처

리기 수출액은 전년대비 230%가 증가한 1,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현재 중국에서 수입산 음식물 처리기는 미국, 유럽 등 제품들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제품이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투자도 검토해 볼 만하다.

〈표 6-2〉 중부 3성 소비재 유망 품목군

산시성	안후이성	장시성
의류-고급 의류 뷰티 미용-액세서리, 화장품 가전-첨단가전, 음향영상제품 온라인 쇼핑과 TV 홈쇼핑이 새로운 유통수단으로 부상 한류를 접목한 감성 상품	의류-한국산 생활용품-신발, 가방, 절수용 좌변기 가전-한국 브랜드 뷰티, 미용-화장품 건강식품-올리브유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제품 한국 드라마를 통한 한류 성행	의류-고급 의류 식품-녹색, 안전도 중시 뷰티, 미용-화장품 신에너지 자동차 한류를 접목한 감성상품

자료: 본 연구진 현지 실사 결과.

〈그림 6-3〉 중부 3성 내 한류의 영향

산시성 타이위안시의 한국성	안후이성 허페이시의 가판 음식점
	
<p>한국성과 영어학원이 동일한 간판 위에 함께 있는 것이 인상적</p>	<p>허페이시의 변화가에서 한국 음식을 파는 가판대 한국 김치와 김밥을 진열</p>

## 2. 부품·소재 및 설비

동부지역 기업들과 외자기업을 적극 유치해 중국의 제조공장, 수출기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부 3성은 한국의 부품과 소재 및 설비산업에 있어 새로운 유망진출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후발주자인 중부 3성의 산업화 과정과 산업정책은 점진적 발전 과정을 거쳤던 동부지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동부지역은 우선 외자기업 중심으로 조립 산업이 발전하였고, 추후 부품·소재산업의 수입대체화가 진행되면서 조립, 소재와 부품산업을 망라한 전반적인 부가가치 사슬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동부지역의 수출 부진과 임금과 지가상승이 맞물리면서 동부지역의 조립업체들이 대거 중부로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부품 및 소재산업이 아직 형성되지 못한 중부지역은 이들 산업에서 심각한 공급부족에 직면해 있다.

동부지역과 중부지역의 또 다른 차이점은 양 지역 간 산업화와 소득격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산업정책의 목표와 지향점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동부지역이 80년대와 90년대 섬유와 가전 등 노동집약적 산업, 2000년대 자동차와 IT 등 기술집약적 제조업 등 점진적 발전을 거쳤던 것과는 달리 중부지역은 전통 제조업과 첨단 제조업의 발전을 동시

〈표 6-3〉 중부 3성의 부품·소재, 설비 진출유망품목

산시성	안후이성	장시성
탄광 개발 및 운송장비(굴착기) 보일러 식품가공기계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전 기술(수질, 땅) 식품가공기계 섬유기계	자동차-신에너지자동차, 엔진 관련 전자부품 장비제조-IT융합형, 건설기계 가전, 전자정보-LCD 리튬이온전지 바이오, 식품-바이오 에너지 신소재 에너지절감 및 환경보호-설비 태양광, 폴리실리콘 정화 건축자재, LED	광산 채굴 기계장비, 정련장비 자동차 부품 에너지절약, 환경 친화적 기계설비(LED) 전자부품(반도체) 민용항공기(헬리콥터) 부품 바이오, 생명공학, 의약(중약)

자료: 본 연구 정리.

에 추구하고 있다. 각 성이 갖고 있는 전통 제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와 함께 중앙정부가 강조하는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에 대해서도 강력한 성취 의지를 갖고 있다.

또한 동부지역 기업들의 전자,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중부지역 이전과 관련된 부품 수요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정보통신제품 공장들이 단기간에 이진함에 따라 비교적 첨단 제품에 속한 제품들의 부품, 소재는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중부 3성 지역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산업과 관련된 설비에 대한 수입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들이 친환경적, 에너지 절약적 공법 개발과 기술설비의 현대화, 환경위생기계, 소도시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설비, 하수도 정화시설 등이다.

지역별로는 산시성의 경우 석탄, 전력 등 에너지산업이 발달하였고, 제조업에서는 식품가공산업과 철강산업이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석탄 채광과 관련된 기계설비에 대한 수입수요가 많다. 에너지 절감과 환경 친화적 설비와 기술 진출도 유망하며, 이와 관련된 보일러도 수출 전망이 밝다. 또한 수질 개선과 토양 보전 제품에 대한 수요도 많다. 최근 산시성 정부가 방직산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첨단 설비도 유망 품목 중의 하나이다. 식품가공산업에서는 바이오테크놀로지, 분리추출 기술, 식품 신선도 유지 기술, AMD 분해 기술, 냉동건조 기술, 농축발효 기술 관련 제품들의 진출이 유망하다. 부품·소재와 관련하여 산시성 진출 시 유의할 부분은 아직 제조업 발달이 충분하지 못해 부가가치 사슬구조가 미형성된 부분이 많고, 유통과 물류 산업도 발달하지 못해 이와 관련된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이다.

안후이성은 비금속광물과 전기기계, 섬유, 철강산업, 통신 및 전자산업이 비교적 발달한 반면, 비철금속, 식품가공, 화학, 의약산업은 발달이 더딘 편이다. 안후이성 정부의 외자유치 정책 분석에 의하면, 이음매 없는 강관, 석유 유정관, 에틸렌, 식물성 디젤 유 생산설비, 의료설비, LED 조명재료 생산설비, 운송기계 등의 수출이 유망하다. 또한 2000년대 들어와 자동차산업이 승용차산업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승용차 부품 수입수요도 많아지고 있다. 지게차, 굴착기, 유압기 등에 대한 제품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된 첨단 부품·소재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안후이성 역시 에너지 절감과

환경 친화적 설비에 대한 수요가 크다. 특히 안후이성 정부가 태양광산업에 대한 발전 의지가 강해 이와 관련된 LED 유기금속화학증착(MOVCVD), 폴리실리콘 정화, 실리콘 강괴 및 절편, 초박형 태양전지 부품 등도 유망 진출 품목으로 꼽힌다. 바이오 에너지, 건축 에너지 절감 기술(바닥 난방재 등), 연료전지, 고효율 전지(리튬이온전지 분리막 등) 등도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발전과 관련해 유망한 수출 품목이다.

장시성은 섬유산업이 비교적 발달해 있고, 의약과 비철금속, 전기기계 등이 중부 3성 중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들이다. 우선 장시성은 구리, 루비듐, 탄탈, 우라늄, 중석, 텅스텐 등의 광석이 많은 지역이다. 이들 광석들을 채굴, 정련하기 위한 에너지 절감적, 환경 친화적 첨단설비 수입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희토류 관련 채굴장비와 환경정화장비의 수요가 많다. 장시성은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전통제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고도화,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해 강력한 발전의지를 갖고 있다. 석유 화학산업과 방직산업에 대해서는 품질 개선을 강조하고 있어 제품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소재와 부품, 설비가 유망하다. 전략적 신흥산업과 관련해서는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민용 항공기, 바이오 의약 등이 중점 발전 대상 산업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LED, 반도체, 태양광 박막전지 부품, 유기 실리콘, 헬리콥터, 중약 현대화, 액정 디스플레이, 핸드폰 부품 등이 유망 수출품목으로 꼽힌다.

### 3. 서비스산업

산시, 안후이, 장시 중부 3성은 서비스산업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의 성도들인 정저우, 우한, 창사가 2차 도매시장이 발달해 인근 성에 대한 영향력이 큰 반면, 산시성의 타이위안, 안후이성의 허페이, 장시성의 난창의 영향력은 겨우 각 성의 경계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동부 연해 지역의 전국적인 수입상 또는 도매상들과 연계해 인근의 중소도시 또는 서부지역의 핵심거점지역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서비스산업이 낙후된 만큼 외국기업과 동부지역 기업, 자체 기업들의 신규 진입이 많아 성장 속도는 매우 빠른 편이다.

〈표 6-4〉 중부 3성의 서비스산업 진출유망품목

산시성	안후이성	장시성
현대물류업 금융, 보험업 실버서비스산업, 헬스케어산업 관광, 문화산업, 요식업	실버서비스산업 의약, 보건의료서비스 관광산업, 한식업 미용산업 TV홈쇼핑	생산서비스업 물류, 유통업 뷰티 관련업(미용) 관광레저산업 에너지 절감, 환경친화적사업 관련 서비스업

자료: 본 연구 정리.

산시성은 북방과 남방, 서부와 동부를 연계하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물류산업의 발전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연계하는 생산서비스산업 역시 낙후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수요도 많다. 또한 풍부한 석탄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서비스산업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된 지식서비스산업의 진출도 고려해 볼 만하다. 관광산업의 발전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불교의 성지인 오대산을 비롯하여 고대 도시인 핑야오 등을 전국 유명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추진되면서 이와 관련된 관광, 문화산업과 요식업의 진출도 유망하다.

안후이성은 문화산업, 현대서비스업,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황산을 비롯하여 불교 성지인 주화산을 갖고 있다. 안후이성의 관광산업과 한국의 관광산업을 연계한 관광산업의 진출이 유망하고,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한식업과 문화산업의 진출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른 중부지역과 마찬가지로 안후이성 소비자들도 한류에 관심이 높다. 한류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패션, 뷰티산업의 진출이 유망하다. 또한 최근 안후이성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도 진행되면서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실버서비스산업과 의약, 헬스케어산업의 진출이 유망하다. 한국계 성형외과의 인지도도 꽤 높은 편으로 중국과의 합작으로 성형병원의 진출도 고려해 볼 만하다.

장시성은 생산서비스업, 관광과 레저산업, 생활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물류와 유통, 비즈니스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장시성 진출 전략을 수립함이 바람직하다. 성도인 난창 지역은 전문점과 브랜드 진출이 비교적 유망하며, 대량 구매와 주

간 쇼핑은 난창 주민의 소비패턴에 맞지 않아 당분간 프랜차이즈점에 의한 진출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특정 지역의 특정 소비자 패턴을 겨냥해, 예를 들면 한류 선호 그룹, 고소득 여성 소비자층을 겨냥한 단일 점포 형태의 전문점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월마트와 까르푸, 메트로, RT-마트 등 다국적기업은 물론 부부가오(步步高), 텐홍(天虹), 렌렌러(人人樂) 등 중국계 대형 마트들이 장시성에 진출해 교두보를 이미 확보한 상태로 이들 대형 마트 간 경쟁은 치열한 편이다. 그러나 대만계와 일본계의 소형 편의점에 대한 진출은 아직 미미한 편으로 향후 소형 편의점에 대한 진출 전략도 검토해 볼 만하다.

중부 3성 지역 모두 첨단형 스마트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IT산업의 진출이 유망하다. 특히 지능형 교통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높은 편이다. 중국의 스마트 시티 사업은 지방정부와 중국 사업체가 함께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 형태이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특정 사업자가 자금을 대 인프라를 구축하는 양태이다. 따라서 한국 단독 형태로의 진출은 어려우나 중국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진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중부 3성 정부가 모두 강조하는 에너지 절감과 환경 친화적 소프트웨어 산업도 진출이 매우 유망한 서비스산업 중 하나이다.

## 제2절 협력패러다임 구축과 진출강화 방안

### 1. 상호 윈윈의 협력패러다임 모색

#### (1) 지방정부와 협력 강화 채널 구축 및 비전 공유

중국 성정부는 한국과 달리 지역경제 개발, 조세권, 입법권 등에서 상당한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관을 받고 있고, 특히 경제권에 있어 지방의 권한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한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부 3성과 공식적인 협력 채널은 없다. 한중 간 경제협력이 심화, 확대되면서 지식경제부는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절

감한다.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와 광둥성은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광둥성 간 경제무역포럼”을 매년 한국과 광둥성 간 교체로 개최하면서 기업과 학계 간 협력 플랫폼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많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어서 2012년에는 삼성전자의 시안시 진출을 계기로 산시(陝西)성 정부와 역시 MOU를 체결하고 양 지역 간 기업과 학계 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다. 금년 말 한국 산업연구원과 산시(陝西)성 정부 간 공동연구를 통해 양 지역 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시킬 예정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진출 경험이 부족하고 대정부 접근이 어려운 중부 3성에 효율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와 중부 3성의 각 성정부 간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 양 지역 정부 간 공식적인 MOU를 체결하고 상호간 학계, 기업 간 정기적 교류 또는 빈번한 투자설명회, 한국 상품전시회 등을 통해 투자나 교역의 기회를 쉽게 잡도록 해야 한다.

한국과 중부 3성 간에는 상호간 협력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상호 협력을 통해 한국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유리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고, 중부 3성은 중부굴기 전략을 성공적으로 완수함과 동시에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킬 수 있다는 비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상호 윈윈의 비전을 공감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중국은 성정부), 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한중 경제협력 포럼’과 같은 공식적, 정기적 협력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전문가들의 상호간의 이해 심화와 긴밀한 접촉을 통해 상호 윈윈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양 지역 정부의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세부 업종별로도 분과위원회를 설립해 정책, 시장 정보 교류를 주제로 모임을 정례화하고 상호 정보를 교류할 필요가 있다. 주요 의제별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거나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

한·중 지방자치 단체 간 교류도 보다 활성화시켜 양국의 제품 교류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중 지자체 간 정기적인 기업 교류회와 특산물 전시회 등을 통해 상호간 이해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

## (2) 상호 윈윈의 전략적 협력 산업 선정

상호 윈윈을 위해서는 양국이 전략적으로 무엇을 협력할 것인가를 정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이를 기업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협력 산업 선정 시에는 한국의 비교우위와 중부 3성이 추구하는 산업육성정책을 동시에 반영함이 바람직하다.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전통산업으로는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석유화학, 섬유, 식품, 조선 산업 등이 있다. 한류와 문화산업, 의료산업을 포함한 지식서비스산업에서도 한국은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은 제조 노하우와 브랜드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년에 걸친 동부지역 진출 경험으로 중국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편이다. 기업 차원에서 중국 전문가를 대량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 유학생을 포함하여 중국어 구사자(조선족 포함)가 많은 편이다.

금융위기 이후 중부 3성이 중국의 공장과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전통산업은 물론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크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정부와 기업의 도움을 받는다면 중부 3성의 산업 업그레이드에 훨씬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중앙정부가 강조하는 양형사회(에너지 절감과 환경 친화적)와 신형 도시화, 전통 제조업의 구조고도화를 추진함에 있어 경험이 풍부한 한국기업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 성은 중국에서 다른 성에 비해 상당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전략적 신흥산업(에너지절감, 환경, 첨단설비, 신소재, 바이오, 신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정보통신) 등에서도 양국 간 전략적 제휴 가능성은 매우 높다. 상호간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제조, 판매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면 한국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있어, 중부 3성은 중국 내 성 간 경쟁구조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 2. 정부 차원의 제도적 협력 기반 구축

### (1) 한중 FTA 체결 시 중부내륙지역 진출 방안 고려

2012년부터 한중 FTA 본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3년 9월 양국은 제1단

계 협상에서 상품 분야, 서비스·투자 분야, 규범 분야, 경제협력 분야에서 모델리티(Modality; 협상기본지침) 문안에 합의하고, 2013년 11월부터는 개별 품목을 협상하는 2단계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제1단계 협상 결과를 보면, 한국기업의 중부지역 진출에 한중 FTA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선 상품 분야에서는 비관세장벽, 원산지 및 통관 분야를 2단계 협상에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무역구제에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구성요소로 합의하였다. 위생검역(SPS)은 WTO/SPS를 기초로 협의를 진행하고, 기술표준(TBT)에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투명성, 기술협력 등이 논제로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내국민대우, 수용 및 보상, ISD 등이 논제로 포함되어 있다. 규범 분야에서는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를 제2차 협상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한중 FTA가 한국기업들의 중부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재권에서는 우리 제품 보호수준과 침해에 대한 집행 강화와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투명성에서는 정보 공개와 행정절차 보장, 재판 및 준사법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조달도 매우 중요한 협상대상이다. 중부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지방정부, 국유기업에 제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중 FTA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환경산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 협상 시 가장 유의할 부분은 중국 중앙정부와 체결한 FTA 협상 결과를 지방정부가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개방도가 낮고 보수적 색채가 비교적 강한 중부 3성의 공무원들이 한중 FTA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FTA 협상문 작성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2) 한국 전용공단과 공동 물류체제 설립

한국기업들이 중부 3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전용공단이 필요하다. 아직은 중부 3성의 공업화가 미진하여 연관 산업의 부가가치 사슬구조가 취약하고 교통과 유통, 물류산업의 발전도 낙후되어 있다. 또한 최근 중국 농민들의 토지 보상권에

대한 요구가 높고, 중국정부의 토지개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의 토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양국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전기, 통신, 수도, 교통, 물류가 원활한 지역에 한국전용 산업단지의 토지를 확보하고 공단을 공동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가격경쟁력과 한중 간 효율적인 납품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부 3성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효율적 물류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제품의 중부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물류업체와 유통업체 간 전략적 제휴를 강화함은 물론, 화주와 물류기업이 동반 진출하여 현지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항공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과 중부 3성 간 직항노선도 신규로 개설함이 바람직하다.

### (3) 공동연구개발체제 구축과 지적재산권 보호

양국 간 기업들의 심층적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와 관련 기관, 대학들을 중심으로 공동연구개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품과 소재, 설비,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신성장 동력 산업과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과 관련해서는 양국 모두 제조와 기술에서 선진국에 비해 취약성을 갖고 있는바, 양국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 중국정부가 강조하는 친환경 산업, 에너지 절약 관련 공동연구개발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으며, IT, 바이오, 첨단설비 개발 및 중국 현지화에 있어서도 양자 간 협력 가능성이 높다.

양국 간 공동연구개발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사전 준비작업도 필요하다. 산학연, 특히 중국 조립기업과 한국 부품소재기업 간의 공동 연구개발에 대한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 연구 기관 간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연구개발기금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양국 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 문제점 중의 하나는 모방제품(중국산 짝퉁)이다. 이들 제품

때문에 중국시장 진출시 신인도를 포함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모방 제품 방지에 있어 현지 진출한 기업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저작권 전문 업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공공 기관의 대중국 모니터링 인력과 관련 장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정부와 중국 현지정부의 긴밀한 협력체제와 상시적 감시체제 구축도 필요하다. 중국도 2013년 11월 발표된 당 제18기 3중전회 공보에서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 (4) 시장·산업 정보의 주기적 제공과 신용조사기구 설립

한국기업들이 중국 중부지역에 진출하려고 해도 이와 관련된 시장과 산업 정보를 얻기란 대단히 힘들다. 중국기업들도 한국에 대한 정보 얻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상호간 시장과 산업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양 지역 간 경제협력 활성화 기대는 공염불에 그칠 확률이 크다. 양국 정부가 업무를 전담할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해 한국과 중국 중부지역에 대한 시장동향과 산업정보를 주기적으로 기업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과 중부지역 간 기업 교류의 역사가 짧아 중국기업들의 신용 파악이 어렵고 이로 인해 양국 간 정상적 상거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국기업들은 외상거래가 관행으로 되어 있어 한국기업들의 시장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기구를 설립해 양국기업들의 신용정보를 제공한다면 거래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간 M&A, 자본 및 기술제휴 활성화를 통해 양 지역 간 협력 심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3. 기업 차원의 진출 활성화 전략

#### (1) 현지 정부의 정책 진출 시 적극 활용

본 연구보고서의 연구 결과 중국 중부지역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로 보인다. 향후 중부지역이 중국의 공장지대로서, 새로운 시장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내륙에 위치해 있고 개방 역사도 짧아 진출 시 위험요인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리스크 요인으로는 과도한 물류비, 대금결제와 바이어 관리 곤란, 강한 지방주의와 행정력 취약, 낮은 개방도와 국제화 물 미숙, 산업클러스터 미형성과 부가가치 사슬구조 취약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중국 중부지역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중부지역 지방정부의 제반 정책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진출 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진출 시 가장 먼저 점검해 볼 정책은 종합적인 경제정책인 제12차 5개년 계획이다. 중부 3성 모두 중앙정부의 제12차 5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성별 제12차 5개년 계획을 제정하였다. 각 성정부들이 지향하는 정책 목표와 구체적인 전략들을 잘 숙지하여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부 3성 모두 양형사회(자원절약형, 환경 친화적 사회)를 강조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부품, 소재, 소비재, 설비 등의 진출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 □ 12·5계획과 전략적 신흥산업

산시성은 12·5계획에서 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제조업체와 연구 개발 기관 간의 연계 강화, 지적 재산권 보호를 통해 산업 규모와 매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바이오테크놀로지, 분리 추출 기술, 신선도 유지 기술, AMD 분쇄 기술, 냉동 건조 기술, 농축 발효 기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등의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식품의 가공, 보관, 신선도 유지, 품질, 안전 등의 상품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킬 방침이다.

안후이성은 12·5계획 기간 차별화된 가공무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기술, 문화, 교육 등 서비스 무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선진기술과 핵심설비 수입을 늘리고 에너지 절감, 친환경기술 및 관련 장비 수입을 장려하며 소비품과 일부 고급 사치품의 수입도 지원할 예정이다. 유정관 제조, 연료에틸렌 및 바이오디젤유 생산, 의료설비 및 핵심부품 개발과 생산, 반도체 조명재료 및 관련 설비 개발과 제조, 대형·고압·고순도 공업기체의 생산과 공급, 수상운송, 애니메이션 창조와 제작 및 관련 제품 개발 등 분야에 대한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권역 통합발전도 추진하고 있다. 권역별로

남부경제권은 자동차, 장비제조, 하이테크 산업, 물류기지로 조성되며 북부경제권에는 식품산업, 석탄 및 전기산업, 순환경제기지가 설립될 예정이므로 진출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장시성은 제조업에서 섬유산업, 건축자재, 식품가공, 비철금속산업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장시성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중약의 현대화를 강조한다. 바이오와 의약산업에서 장시성과 협력 여지가 많다고 하겠다.

중국 중앙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7대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해서도 중부 3성은 아래 표와 같이 각 지역의 비교우위에 따라 차별화된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6-5〉 중부 3성의 12·5계획 중 산업육성정책 비교

업종	산시	안후이	장시
여행, 물류, 금융	○	○	○
현대농업 및 가공	○	○	○
장비제조		○	
경공업, 방직		○	○
건축, 전자재		○	○
자동차		○	
전자하이테크			
첨단제조업			
석유화학 가공			
철강			
식품가공	○	○	○
의약, 한방약			한방약
야금	○	○	
비철금속 가공			○
석탄화학 가공	○		
화학 가공		○	
자원개발 및 가공			
전력	○		
기타 중점육성산업	주류	가전산업	서비스 외주

자료 : 大和總研, 中國 : 第12次5カ年計劃が描く産業地圖, 2011. 4. 18.

〈표 6-6〉 중부 3성의 7대 전략형 신흥산업 육성정책 비교

	에너지 절약·환경 보호	차세대 정보산업	바이오	첨단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GDP비율 (%)
산시	○			석탄채굴 기계, 철도장차, 중형기계	석탄가스 화학가공	○	○	15.0
안후 이	○	신형평판 디스플레이, 집적회로, 유비쿼터스	○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원자력발전	고성능 금속재료	전기자동차	10.0
장시	○		○	민용 항공, 헬기	○	LED산업	전기자동차	N.A.

자료 : 大和總研, 中國 : 第12次5カ年計劃が描く産業地圖, 2011, 4, 18.

#### □ 대외무역정책과 투자유치 정책 활용

중부 3성 공히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동부지역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목록’ 과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우대 산업목록’ 을 근거로 중부 3성들이 외국기업들에게 각각의 우대정책을 부여하고 있다.

2001년 중국 WTO 가입을 계기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방도 가속화되고 있다. 2008년 9월 「외국인투자상업기업 심사비준사항 하달에 관한 상무부 의견(商務部關於下放外商投資商業企業審批事項的通知)」이 발표되면서 유통분야에서 외자기업에 대한 설립 허가권이 중앙정부에서 성정부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중부 3성에 외국기업들의 진출이 쉬워졌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잇달아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에는 아직도 비교적 많은 진입 장벽들이 남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TV·전화·통신·인터넷판매, 시청각 제품의 도매, 도서·신문·정기간행물 판매 등 업종은 여전히 중앙부처인 상무부의 인가가 필요하다.<sup>51)</sup> 본 보고서 연구진들의 현지 실사에 의하면, 동일한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지역과 실무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출 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51) TV홈쇼핑, 인터넷 판매 분야는 중앙의 광전총국(廣電總局)과 상무부의 인허가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고, 외자기업의 100%를 허용하지 않고 지역에 따라 다르나 후베이성은 50% 미만에 한해 허용한다.

## (2) 현지에 적합한 새로운 유통망, 마케팅 개발

내륙지역인 중부 3성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현지의 중국인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즉 진출 시 현지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중부 3성의 유통상들은 해외로부터 직수입을 기피한다. 중부지역에 만연하고 있는 외상 선호 현상과 자금난, 부품조달과 A/S 곤란, 더욱 현실적인 이유로는 대외무역권 취득 곤란과 외화 사용의 까다로움 등이 직수입을 어렵게 만든다. 이에 따라 중부지역 유통업체들은 독자적으로 수입을 하기보다는 동부지역의 대형 유통업체나 수입업체의 대리상 역할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적 유통방식으로 중부지역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동부지역의 대형 유통상, 수입상들과의 거래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장 중부지역과 직거래를 하고 싶다면 새로운 유통방식과 마케팅 채널을 채택함이 바람직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을 활용한 판매방식이다. 글로벌 사모펀드 캐피털인 Bain Capital의 '2013년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온라인 소비가 1조 3,000억 위안에 달하였다. 화장품, 의류, 전자제품 등의 품목은 지난 2년 동안 온라인 시장에서 3~4배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서적류는 6배의 고속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상반기 기준 중국 인터넷 가입자 수는 5억 3,800만 명에 달하고, 온라인 매출액도 5,11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6%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sup>52)</sup> 최근 신용카드의 급속한 보급도 B2C 시장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TV를 좋아하는 중국 소비자들에게는 TV홈쇼핑도 좋은 유통수단이다. 중국에는 80여개의 크고 작은 홈쇼핑이 있고, 그중 약 8개 홈쇼핑이 매출 및 결제조건이 좋은 상황이다. 2009년 234억 위안에 불과했던 홈쇼핑 판매액은 2013년에 683억 위안으로 늘어날 전망이다.<sup>53)</sup> 중국의 TV홈쇼핑 인구도 2012년 2억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경제가 발달한 광둥성은 전체 인구의 30%인 3,300만 명이 홈쇼핑을 즐기고 있다. 중부 3성에서도 TV 홈쇼핑이 좋은 유통수단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해 해 준다.

52) 中國廣播網(www.cnr.cn).

53) 中國電子商務研究中心(www.100ec.cn).

인터넷쇼핑과 TV 홈쇼핑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예전과 달리 중국 홈쇼핑사도 정식통관과 위생검사를 통과한 제품만을 취급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아졌으며, 홈쇼핑은 무조건 정식 절차를 통과하여야만 물건을 팔 수 있다. 특히 화장품은 위생검사가 더욱 중요하므로 그 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으니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한국에서의 판매처, 수상기록, 인터넷에서의 판매정보, 홈페이지, 매장 개수 등 많은 자료를 가지고 MD를 만나야 하고,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야 하며, 홈쇼핑은 비주얼 측면을 가장 중요시하니 영상홍보 자료가 충분할수록 중국 홈쇼핑 진입이 더 용이해질 수 있다. 홈쇼핑 유망 제품으로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화장품, 생활용품, 식품, 다이어트 제품 등이 진입하기가 쉬우나, 경쟁업체들이 많아 장기적인 안목으로 상품을 구성하지 않는 한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한·중 양국 전자상거래 포털 사이트 간 전략적 제휴도 필요하다. 또한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를 쉽게 하기 위하여 상표와 디자인의 중국화, 제품 설명서의 중국어 번역, 한국 기업의 중문 홈페이지 개설 등이 필요하다.

#### □ 한류와 현지 소비자의 특성을 활용한 감성 마케팅

한류와 한국인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중부 3성 소비자들에게는 한류를 활용한 감성 마케팅도 좋은 방안이다. 중부 3성의 젊은 층, 특히 여성들에게 한국 연속극은 패션의 주요 전달 매체이며, 한류에 열광하고 있다. 도서, 화장품, 의류, 가전 등의 업종이 한류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업종들이다.

문제는 한류를 소비로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본 연구팀의 현지실사에 따르면, 중부 3성에 중국산 한류 모방 제품이 많으며, 이에 대한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중부 3성의 소득층에 비해 일부 한국 제품들의 가격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한국산이면서 중국 소비자들이 쉽게 살 수 있는 현지화 제품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중국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한류 스타들을 초청하여 ‘한국문화상품전’을 개최하고 여기에서 한류와 한국 상품 전시와 홍보, 판매를 연계할 고리를 찾아야 한다.

### (3) 조립·부품업체의 세트형 진출과 현지 네트워크 강화

#### □ 조립업체와 부품업체의 동반진출

중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공업화가 더딘 관계로 부품과 소재, 설비의 현지 조달이 어렵다. 삼성전자의 서안 진출 사례에서 보듯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협력업체들이 동반 진출하면서 초단기간에 조립생산과 부품조달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 중부 3성에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대형 전단과 같이 조립 대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부품 기업이 동시에 진출하는 세트형 진출이 바람직하다. 교통, 물류, 통신, 노동력, 전력, 물 등 현지 경영조건 등을 감안해 최적지역에 한국전용공단을 설립하고 조립기업과 부품·소재기업들이 함께 입주하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자동차, 디지털 가전, LCD, 반도체, 건설기계 등 대량 생산으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산업,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동부와 서부 등 중국 전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산업들에 유리한 전략이다.

####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진출

1990년대 중국 동부지역 진출 시 우리 기업들이 직면했던 문제점은 물건을 쉽게 제조할 수는 있었으나 인근에 위치한 현지 시장에 팔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아직도 계획경제의 잔재가 강하게 남아 있고, 시장화와 국제화가 더딘 중부지역에서는 우리 기업들 간의 수직적, 수평적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다. 제조업과 함께 금융 산업, 물류, 유통 등 서비스 산업이 동반 진출한다면 중국내 자체적인 세트형 부가가치 사슬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계 자동차, 기계, 고급 디지털가전 등 고가 제품 판매 시 한국 금융회사에서 판매자 신용할부 등을 제공하면 경쟁국 기업들에 비해 판로 확보가 쉬울 것이다. 현지에 한국계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이 있다면 진출한 한국 제품들의 내수시장 진출이 용이해진다. 중국 핵심 거점 지역에는 한국 종합물류센터를 설립하여 우리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 □ 중국 조립기업과 한국 부품기업 간 전략적 제휴 강화

상표가 밖으로 드러나는 최종 소비재보다는 내부에 있어 보이지 않는 부품소재가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기가 더 용이할 수 있다. 문제는 양국 간 존재하는 부품소재 조달 장벽을 넘을 수 있는냐이다. 아직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잔재를 갖고 있는 중국의 경우 부품 조달 시 폐쇄성이 강한 편이다. 중국 지방정부(성급, 현급) 소속의 지방 국유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자기 지역 또는 계열사 기업들의 물건을 구입(자동차, 전기전자, 일반기계, 섬유 등)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한국의 모기업들도 기술유출 방지, 브랜드 유지 등을 이유로 하청업체들이 중국계 기업들에게 부품조달을 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중부지역에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부품소재를 해외 또는 기 진출한 외자기업에 의존해야 한다. 한국계 부품소재업체들도 대량으로 중국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한국 업체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중국계 조립 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야 한다. 과거 중국에서 건설기계 판매의 선두를 달렸던 한국계 모 기업은 건설기계 완제품 시장에서 중국기업들과 경쟁이 치열해지자 핵심 부품 쪽으로 눈을 돌려 경쟁자인 중국 기업들에게 부품을 판매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하였다.

중국계 조립기업과 한국계 부품소재 기업 간 가장 확실한 전략적 제휴 방안은 상호 간 지분 교차 소유이다. 이미 동부지역에서는 한국계 LCD 패널 기업과 중국계 TV 회사 간 지분 교차를 통해 안정적인 부품조달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 윈윈하고 있다. 기술력이 부족한 중국기업과는 제품공동개발과 기술협력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 □ 유력 바이어 초청과 중국 내 딜러 대형화 유도

내륙지역에 위치해 한국과 교류가 뜸했던 중부지역 기업과 소비자들은 한국 기업과 제품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한국 제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개선시킬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중부지역에 수입상과 대리상을 결합할 수 있는 대형 딜러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중국 기업들 간 거래 시 외상이 일상

화되어 있기 때문에 딜러들에게는 자금 지원도 필요하다. 기계나 수송장비, 부품소재와 같은 장기적 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 대리상들을 정기적으로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해도를 제고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 보론

# 중부 6성의 경쟁력 종합평가

## 1. 중부지역 경제사회 경쟁력 평가

### (1) 분야별 평가

중국 중부지역은 6개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보고서에서는 6성 중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을 분석하였고, 이번 보고서에는 나머지 지역인 산시성, 안후이성, 장시성을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들 6개 지역 중 과연 한국이 어디를 전략적으로 선택함이 바람직한가? 각 성별로는 어느 업종 진출이 비교적 유리한가? 등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6개 성의 경쟁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자 한다.

2012년 중국 장시성 난창대학은 중국 교육부의 연구기금을 받아 경제발전, 자원 환경, 과학교육문화 측면에서 중부 6성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하에서는 보론적 차원에서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부 6성의 각 부문별 비교우위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보론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발전경쟁력 지표는 2011년 통계를 바탕으로 GDP, 투자, 소비, 수출입 등의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규모와 증가율, 비중을 갖고 산출되어 있다. 경제발전경쟁력에서는 후베이성이 0.62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후이성이 2위, 후난성이 3위, 허난성, 장시성 순이며, 산시성의 경쟁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식량, 자원, 생태, 환경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는 자원 환경 경쟁력 지수에서는

장시성이 0.61로 1위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산시(0.51), 안후이(0.43), 후베이(0.42), 후난(0.40) 순이며, 허난이 0.37로 가장 낮은 경쟁력을 보였다.

과학기술력, 교육 정도, 문화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과학교육문화경쟁력 지수에서는 후베이성이 0.62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다음은 안후이(0.54), 후난(0.46), 산시(0.37), 허난(0.37) 순이었으며, 장시가 0.36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보론 표 1〉 중부 경제사회경쟁력 종합평가 지표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제발전 경쟁력 (B1)	규모(C1)	D1 총 GDP	
		D2 1인당 GDP	
		D3 재정총수입	
		D4 고정자산투자액	
		D5 수출입총액	
		D6 실제외자이용액	
		D7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속도(C2)	D8 GDP증가율	
		D9 1인당 GDP 증가율	
		D10 재정수입 증가율	
		D11 고정자산 투자증가율	
		D12 수출입총액 증가율	
		D13 실제외자이용액 증가율	
		D14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증가율	
	구조(C3)	D15 총 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	
		D16 GDP 대비 3차 산업 비중	
		D17 산업총생산 대비 2·3차 산업 비중	
		D18 첨단기술 산업의 산업부가가치 비중	
		D19 공업화율	
		D20 대외무역의존도	
	자원환경 경쟁력 (B2)	자원(C4)	D21 도시화율
			D22 GDP 대비 소비지출비중
D23 총인구			
D24 총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중			
D25 1인당 식량생산량			
D26 1인당 경지면적			
D27 1인당 광산 점유량			
D28 1인당 에너지 점유량			
D29 1인당 고속도로 점유량			
D30 1인당 화물수송량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원환경 경쟁력 (B2)	자원(C4)	D31 1인당 관광총수입	
	생태(C5)	D32 삼림률	
		D33 1인당 임지면적	
		D34 단위면적당 삼림축적량	
		D35 녹화율	
		D36 삼림녹화 증가율	
		D37 생물다양성	
	환경보호 (C6)	D38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D39 생산가치 만 위안당 3대 폐기물 배출량	
		D40 GDP 만 위안당 에너지 소모	
		D41 GDP 만 위안당 수자원 소모	
		D42 GDP 만 위안당 전력 소모	
		D43 1인당 에너지 소비량	
		D44 공업용 폐수 처리율	
		D45 공업용 고체폐기물 종합이용률	
		D46 농촌쓰레기 처리율	
		D47 농업용 화학비료 사용률	
	과학교육문화 경쟁력 (B3)	과학기술 (C7)	D48 인구 만 명당 전문기술 인력 수
			D49 인구 만 명당 과학자·기술자 수
			D50 R&D 종사자의 정규직 환산인력(FTE)
D51 GDP 대비 R&D지출			
D52 인구 만 명당 특허수권량			
D53 첨단기술시장 거래 성립률			
교육(C8)		D54 1인당 평균 교육 연한	
		D55 9년제 의무교육 이수율	
		D56 만 명당 재학 중 직업교육 이수 학생 수	
		D57 대학 진학률	
		D58 인구 만 명당 대학생 수	
		D59 GDP 대비 재정성교육 지출비중	
문화(C9)		D60 총재정지출 대비 교육지출비중	
		D61 문화산업종사자 비중	
		D62 GDP 대비 문화산업부가가치 비중	
		D63 총재정지출 대비 문화 사업비 지출비중	
		D64 인구 만 명당 공공문화 시설 수	
		D65 TV·라디오 보급률	
D66 인터넷 보급률			

자료 : 「중국 중부경제사회경쟁력보고(2013)」.

〈보론 표 2〉 중부 6성의 주요 경쟁력 비교

	경제발전경쟁력		자원환경경쟁력		과학교육문화경쟁력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산시	0.37	6	0.51	2	0.37	4
안후이	0.48	2	0.43	3	0.54	2
장시	0.40	5	0.61	1	0.36	6
허난	0.40	4	0.37	6	0.37	5
후베이	0.62	1	0.42	4	0.62	1
후난	0.45	3	0.40	5	0.46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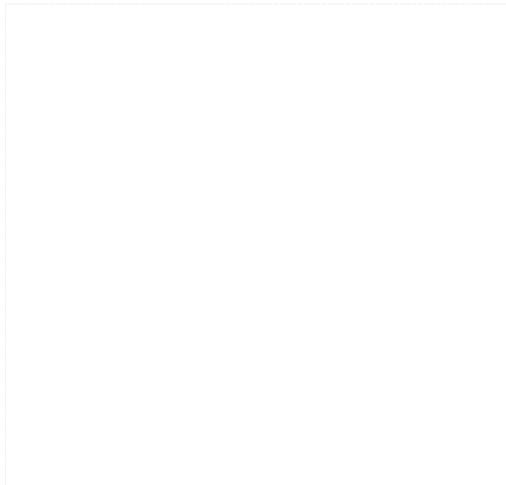
자료 : 「중국 중부경제사회경쟁력보고(2013)」.

## (2) 각 성별 비교우위 평가

각 성별로 상대적 비교우위를 살펴보면, 가장 경쟁력이 높은 후베이성은 경제발전 경쟁력과 과학교육문화경쟁력이 높은 반면, 자원환경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나타났다.

안후이성은 과학문화경쟁력과 경제발전경쟁력이 6개 성 중 2위를 차지하였고, 자원 환경 경쟁력도 6개 성 중 3위를 차지해 3개 부문이 모두 균형적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

〈보론 그림 1〉 중국 중부 6성의 주요 부문별 경쟁력 비교



자료 : 「중국 중부경제사회경쟁력보고(2013)」.

로 나타났다. 장시성은 자원환경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경제발전경쟁력과 과학교육문화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후난성은 경제발전경쟁력, 과학문화경쟁력, 자원환경경쟁력이 모두 중위권을 보이고 있다.

허난성과 산시성은 다른 성에 비해 거의 모든 부분에서 낮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산시성은 풍부한 석탄자원을 바탕으로 자원환경경쟁력 면에서는 다른 성에 비해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 2. 각 산업별 경쟁력 비교

### (1) 농업 : 식량산업

주지하다시피 중부지역은 대표적인 중국의 식량기지이다. 식량경쟁력에서는 허난성이 중부 6성 중 종합경쟁력 90.8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다. 허난성은 식량총생산액과 생산량, 부가가치 등을 포함한 시장경쟁력지수와 1인당 생산면적, 기계화율, 수리화 정도를 포함한 자원경쟁력지수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였다. 생태환경과 정책환경으로 구성된 환경경쟁력에서는 3위를 기록하였다.

2위를 기록한 후난성은 허난성과 유사하게 식량총생산액과 생산량, 부가가치, 면적당 생산량, 농민 1인당 생산량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시장경쟁력과 환경경쟁력에서 2위를 기록하였고, 자원경쟁력에서는 중위권인 4위를 나타냈다.

3위는 안후이성이다. 전체 생산규모는 중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나, 1인당 평균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다. 시장경쟁력과 환경경쟁력은 4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자원경쟁력은 3위를 기록하였다.

장시성과 후베이성은 종합경쟁력지수가 76.6과 76.4를 기록해 매우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비교우위 부문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시성은 환경경쟁력에서 1위, 자원경쟁력에서 2위를 기록한 반면, 시장경쟁력에서는 5위를 기록했다. 반면, 후베이성은 시장경쟁력이 3위로 상대적 비교우위를 나타낸 반면, 나머지 부분은 모두 5위를 기록하였다.

〈보론 표 3〉 중부 6성 농업경쟁력 비교

	시장경쟁력		자원경쟁력		환경경쟁력		종합경쟁력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산시	28.5	6	23.2	6	7.1	6	58.8	6
안후이	43.0	4	26.3	3	8.2	4	77.5	3
장시	40.0	5	26.3	2	10.4	1	76.6	4
허난	55.9	1	26.5	1	8.4	3	90.8	1
후베이	44.0	3	24.6	5	7.8	5	76.4	5
후난	46.3	2	25.4	4	9.3	2	80.9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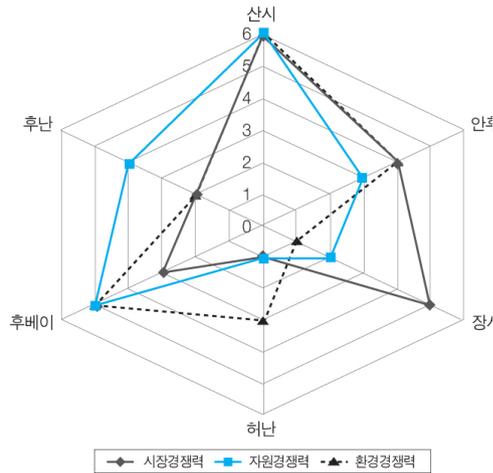
자료: 「중국 중부경제사회경쟁력보고(2013)」.

〈보론 표 4〉 식량산업경쟁력 평가지표 가중치 구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명칭	가중치	명칭	가중치	명칭	가중치
시장 경쟁력	0.59	산업규모	0.27	농작물 총생산액	0.09
				농작물 총생산량	0.1
				농업 부가가치	0.08
		산업효과	0.32	단위면적당 농작물생산량	0.1
				단위 농업노동력 평균 식량생산량	0.07
				식량산업의 부가가치율	0.09
				농민의 1인당 농업소득	0.06
자원요소 경쟁력	0.30	산업자원	0.09	1인당 농작물 파종면적	0.06
				100묘당 평균 농업용수량	0.03
		자본투입	0.03	농업 고정자산투자	0.03
				농업기계화 수준	0.04
		기초시설	0.10	수리화 정도	0.04
				도로밀도	0.02
				농민 1인당 평균교육 연한	0.03
				플랜테이션의 우량종자 비율	0.05
기술수준	0.08	삼림률	0.04		
		무채해 농경지 면적 비율	0.03		
환경 경쟁력	0.11	생태환경	0.07	재정총지출 대비 농업지원 지출비중	0.04
				정착환경	0.04

자료: 「중국 중부경제사회경쟁력보고(2013)」.

〈보론 그림 2〉 중부 6성별 농업경쟁력 비교



자료 : 「중국 중부경제사회경쟁력보고(2013)」.

농업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성은 산시성이다. 산시성은 중국의 대표적인 석탄탄광 지역으로 농업에 부적합한 지역이다. 따라서 시장경쟁력, 자원경쟁력, 환경경쟁력 모두 6위를 기록하고 있다.

## (2) 제조업

중부지역은 과거 중요한 공업지역 중의 하나이다. 1960년대 중국은 미국과 소련을 상대로 적대 관계에 처해 있었고, 이에 따라 전국을 전선(1선), 중간지대(2선), 전략후방(3선)으로 구분하여, 전략후방 지역에 군수기지를 건설하였다.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후베이성의 제2자동차공장(현 동풍기차)이다. 사천, 운남성을 비롯한 현 서부지역의 7개 성은 대3선이었고, 지금의 중부 6성은 소3선에 해당되었다.

### 1) 주요 산업별 경쟁력 분석

#### □ 식품가공산업

식품가공산업에서는 후베이성의 경쟁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베이성은

자원 이용 효율 측면과 혁신능력에서 탁월했다. 다음은 허난성으로 농업대성답게 대규모 양산체제를 바탕으로 2위의 경쟁력을 나타냈다. 3위는 후난성으로 효율적 측면과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보였다. 4위는 산시성으로 비록 산업규모와 기술혁신 능력에서는 비교우위가 약했으나 이윤창출과 자원이용 측면에서 강한 비교우위를 보였다. 안후이성과 장시성은 5위와 6위를 차지하였다. 안후이성은 비록 기술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였지만 산업규모와 이윤창출 확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장시성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후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보론 표 5〉 공업경쟁력 평가지표체계 가중치

대분류	중분류	가중치	소분류(단위)	가중치
시장 경쟁력	산업규모	0.2	매출액(억 위안)	0.067
			부가가치(억 위안)	0.067
			자산합계(억 위안)	0.067
	산업효과	0.3	이윤총액(억 위안)	0.05
			경제효익종합지표(%)	0.05
			부가가치율(%)	0.05
			원가비용 이윤율(%)	0.05
			전직원 노동생산율(%)	0.05
			상품판매율(%)	0.05
	지속가능 발전능력	자산이용능력	0.2	총 자산 기여도(%)
자산 가치 유지·증가율(%)				0.067
유동자산회전율(%)				0.067
자원재사용능력		0.15	공업용수 재이용률(%)	0.075
			고체폐기물 종합이용률(%)	0.075
기술혁신능력		0.15	공업과학기술 발전기여도(%)	0.075
			R&D 투자비중(%)	0.075

자료 : 「중국 중부경제사회경쟁력보고(2013)」.

〈보론 표 6〉 중부 6성의 주요 제조업 경쟁력 순위

	산시	안후이	장시	허난	후베이	후난
식품가공	4	5	6	2	1	3
섬유	6	3	2	1	5	4
화학	6	5	4	1	2	3
의약	6	5	3	1	2	3
비금속광물	6	2	4	1	5	3
철강	5	3	6	2	1	4
비철금속	6	4	3	2	5	1
전기기계 및 기자재	6	2	3	1	5	4
통신 및 전자	6	3	4	5	1	2

자료 : 「중국 중부경제사회경쟁력보고(2013)」.

□ 섬유산업

섬유산업에서 경쟁력이 가장 강한 성은 허난성으로 나타났다. 허난성은 생산규모와 효율 측면에서 다른 성에 비해 모두 우월했다. 다음은 장시성으로 역사적으로 섬유산업의 뿌리가 깊고 유명 상표를 보유한 오래된 기업들이 많다. 장시성 자체적으로 섬유산업과 연관된 부가가치 사슬구조를 완비하고 있고, 효율 측면에서도 강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3위는 안후이성으로 기술혁신과 자원이용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4위는 후난성으로 종합적인 효율과 지속발전 가능 측면에서 중위권을 보이고 있다. 5위와 6위는 후베이성과 장시성으로 섬유산업에 대한 기반이 부족하고 발전 잠재성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화학산업

화학산업에서는 허난성이 수위를 차지하였다. 허난성은 기술혁신과 자원재활용에서 강세를 보였고, 이윤 창출과 생산, 소비에서 모두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2위는 후베이성으로 산업규모와 이윤창출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3위는 후난성으로 시장규모와 이윤창출에서 비교우위를 보이지 않았지만, 자산활용도가 높아 중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4위는 장시성으로 전체 시장규모는 중위권이지만 이윤창출과 판매에서는

비교우위를 보였다. 안후이성과 산시성은 5위와 6위를 차지하였다. 안후이성은 과학 기술, 자원 활용도, 지속발전 잠재력에서 모두 열위를 보였다. 산시성은 모든 분야에서 열위 상태를 시현하였다.

#### □ 의약산업

의약산업은 첨단산업으로 그 발전 정도는 지역의 기술수준 및 혁신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허난성의 경쟁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허난성은 산업규모와 효율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었고, 기술성과의 상품화 능력도 탁월하여 기술혁신이 경쟁력의 원천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후베이성과 후난성이 2위 그룹을 이루고 있다. 두 성은 과학기술교육 측면에서 중부지역의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시장점유율과 생산 효율 면에서도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장시성은 중위권을 나타내고 있으나 장시성 내에서 의약산업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5위의 안후이성은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산업규모와 효율 측면에서는 비교열위 상태를 보인다. 6위는 산시성으로 모든 면에서 의약산업이 비교열위 상태이다.

#### □ 비금속광물산업

허난성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허난성은 산업 가동 상태는 아주 양호하나, 발전지속 잠재력 측면에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안후이성이 2위로 자원 활용 측면과 기술 혁신 수준이 높았다. 후난성은 3위로 대부분의 지표에서 안정적으로 중위권을 나타냈다. 장시성은 4위로 전체 산업규모가 작아 산업경쟁력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5위와 6위는 후베이성과 산시성으로 경제효율 측면에서 비교열위를 나타냈다.

#### □ 철강산업(철, 망간, 크롬)

철강에서는 후베이성이 1위를 나타냈다. 후베이성은 산업규모, 효율, 발전지속 잠재력 모두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다. 2위는 허난성으로 자원 활용능력과 생산과 판매에서 비교우위를 보였다. 3위는 안후이성으로 경제효율 측면과 지속발전 잠재력에서 비교우위를 보였다. 후난성은 4위를 기록하였으며, 대부분 지표에서 중위권을 기록하며 특

별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 산시성과 장시성이 말위를 차지하였다.

□ 비철금속산업(구리, 알루미늄, 아연, 주석 등)

허난성이 자원 활용도, 지속적 발전 잠재력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비철금속 제련과 압연가공설비의 시장점유율과 경쟁력이 압도적이다. 허난성이 2위이다. 허난성은 산업규모, 자원 활용도, 기술발전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 장시성은 전통적으로 비철금속에서 강세를 갖고 있으며, 산업규모와 경제효율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 안후이성은 4위로 시장발전 가능성은 높으나 현재 생산규모가 작다. 후베이성과 산시성은 5위와 6위를 차지하였으며, 생산요소, 생산규모, 경제효율 측면에서 모두 비교열위를 보였다.

□ 전기기계 및 기자재산업

허난성과 안후이성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양자 간 격차가 미미하다. 양 성 모두 시장점유율, 경제효율, 발전지속 잠재력에서 모두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허난성은 안정적 발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안후이성은 자산규모와 판매 등이 낙후되어 있다. 3위는 장시성으로 생산규모가 절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허난성과 후베이성은 유사한 발전단계와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구조상에서 부가가치 사슬구조가 취약한 편이다. 산시성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 통신 및 전자산업

첨단산업에 속하는 통신 및 전자산업에서는 후베이성이 1위를 차지하였다. 후베이성은 생산규모, 경제효율뿐만 아니라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창출하고 있다. 2위는 허난성으로 자금운용, 자원 재할용, 기술혁신 능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3위인 안후이성 역시 연구개발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장시성은 4위로 생산규모가 작고 부가가치 사슬구조가 완결되지 못해 발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허난성은 통신 및 전자산업에서 전반적으로 발전단계가 낮아 대부분 요소들이 비교우위를 나타낸다. 6위는 산시성으로 특히 기술수준이 낮은 편이다.

## 2) 각 성별 비교우위 산업 분석

### □ 산시성

산시성은 전체 GDP의 8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전체 성의 산업구조가 상당히 왜곡 내지는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제조업 발전이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다. 산시성은 9개의 제조업 중 7개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식품가공산업만이 유일하게 4위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고, 철강산업이 5위를 기록하였으며, 중부 6성 중 제조업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다.

### □ 안후이성

안후이성은 산업별로 발전 격차가 큰 편이며, 중부 6성 중 중하위권 그룹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비금속광물과 전기기계 및 기자재는 2위로 비교적 우위를 갖고 있는 반면, 섬유와 철강, 통신 및 전자는 3위로 중위권을 보이고 있다. 비철금속은 4위, 식품가공과 화학, 의약은 5위를 보여 첨단산업에 비교적 취약한 편이다.

### □ 장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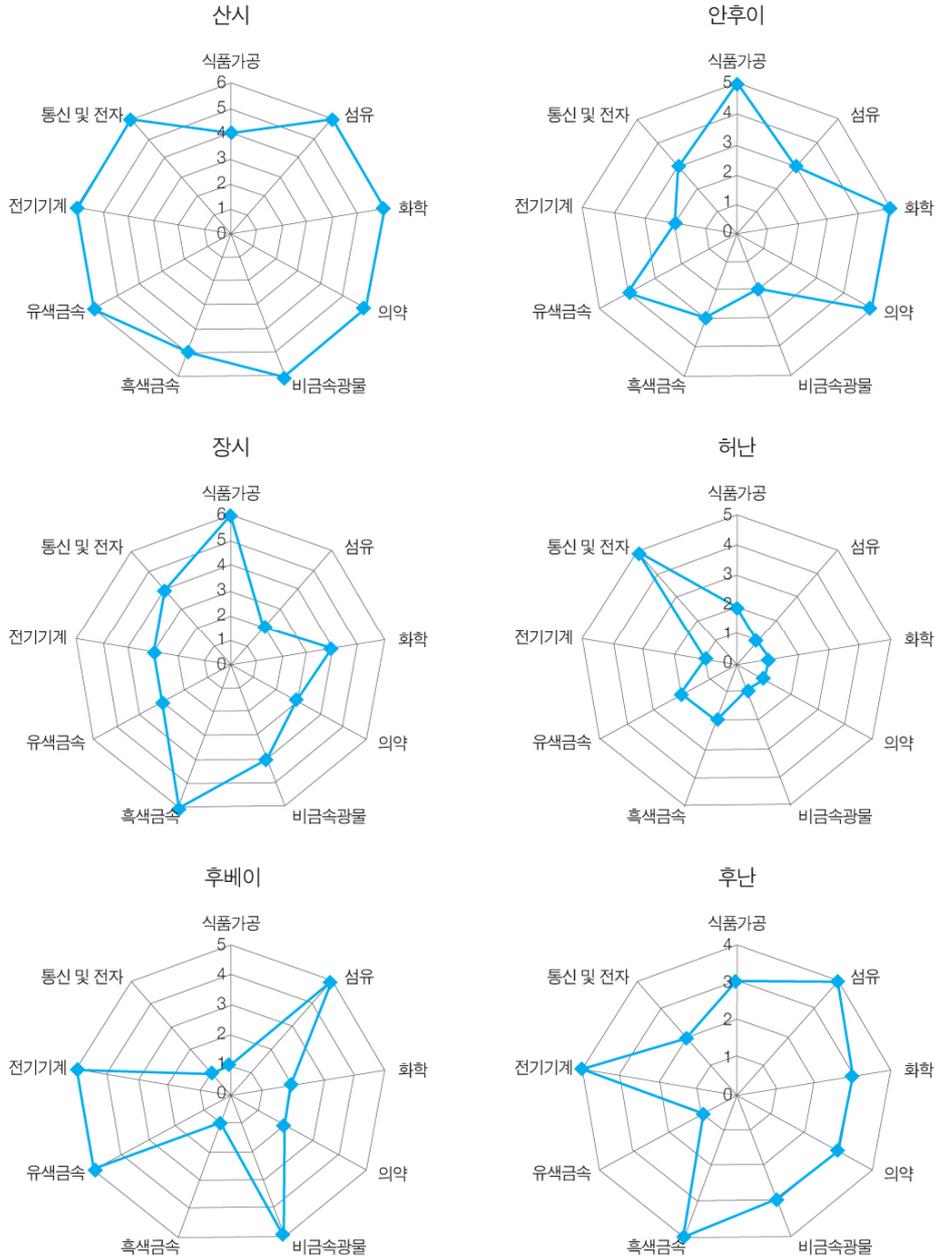
장시성은 기술혁신 능력과 지속발전 잠재력이 높은 편이다. 섬유는 2위를 기록해 장시성 내에서 가장 비교우위가 높은 산업이다. 의약과 비철금속, 전기기계 및 기자재가 3위를 기록했고, 화학, 비금속광물, 통신 및 전자는 4위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식품가공과 철강은 6위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에 속한다.

### □ 허난성

허난성은 경제규모, 제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산업규모와 효율 면에서 중부 6성 중 압도적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9개 산업 중 섬유, 화학, 의약, 비금속광물, 전기기계 및 기자재 등 5개 산업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식품가공과 철강, 비철금속에서도 2위를 기록해 명실상부한 중부 제조업의 최강자이다. 그러나 최첨단 산업인 통신 및 전자에서는 5위를 기록해 허난성이 전통적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첨단 기술 산업

에서는 뚜렷한 비교우위를 아직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보론 그림 3〉 각 성별 산업별 비교우위 분포도



자료 : 「중국 중부경제사회경쟁력보고(2013)」.

## □ 후베이성

후베이성은 허난성 다음으로 중부권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식품가공, 철강, 통신 및 전자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화학, 의약에서는 2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섬유, 비금속광물, 비철금속, 전기기계 및 기자재에서 5위를 기록해 취약한 경쟁력을 보였다. 후베이성은 자원 활용도와 기술혁신 능력이 다른 성에 비해 높은 편이며, 지속발전 잠재력도 큰 편이다.

## □ 후난성

후난성은 중부 6성 중 전형적인 중위권을 나타내고 있다. 비철금속은 1위를 차지하였고, 통신 및 전자는 2위를 차지하였다. 식품가공과 화학, 의약, 비금속광물은 3위를, 섬유, 철강, 전기기계 및 기자재는 4위를 차지하였다. 5위와 6위 산업은 전혀 없어 전체 9개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3) 서비스업: 문화산업

중국 난창대학은 중부 6성의 문화산업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시장, 자원, 환경 측면의 주요 지표들을 활용해 각 분야별 경쟁력 지수를 산출하였다. 시장경쟁력 지수를 도출하기 위해 산업규모로는 문화산업 부가가치창출액, 신문·잡지 출판 수량 등을 활용하였고, 산업효율로는 문화산업 1인당 부가가치액, 문화산업 종사기업들의 이윤총액을 활용하였다. 자원경쟁력 지수 도출을 위해서는 산업자원으로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량, 문물 소장품 수량, 종사인원 수를, 인프라로 유선TV보급률, 만 명당 문화시설 면적, 광케이블 밀도(km/100km<sup>2</sup>)의 통계치를 활용하였다. 환경경쟁력으로는 정부지원으로 1인당 문화 사업비, 문화 사업비의 대재정지출 비중, 소비환경으로 1인당 문화산업 소비지출 비중, 1인당 가처분 소득을 활용하였다.

동 결과에 따르면 시장경쟁력에서는 후난성이 1위를 차지하였고, 후베이성, 허난성, 안후이성, 산시성, 장시성 순이었다. 자원경쟁력에서는 후베이성이 1위를 차지하였고, 후난성, 안후이성, 허난성, 장시성, 산시성 순이었다. 환경경쟁력은 산시성이 1위를 차

〈보론 표 7〉 중부 6성 문화산업 경쟁력 비교

	시장경쟁력		자원경쟁력		환경경쟁력		종합경쟁력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산시	27.2	5	20.6	6	18.6	1	66.4	5
안후이	31.1	4	21.5	3	15.1	5	67.6	4
장시	26.4	6	20.8	5	15.6	4	62.8	6
허난	35.8	3	21.6	4	14.5	6	71.9	3
후베이	38.2	2	26.8	1	16.8	2	81.9	2
후난	46.3	1	25.7	2	16.2	3	88.3	1

자료 : 「중국 중부경제사회경쟁력보고(2013)」

지하였고, 후베이성, 후난성, 장시성, 안후이성, 허난성 순이었다. 시장, 자원, 환경을 단순하게 산술 종합한 종합경쟁력에서는 후난성이 1위, 후베이성, 허난성, 안후이성, 산시성, 장시성 순이었다.

각 성별로 상위 부분과 열위 부분을 살펴보면, 산시성은 정부 지출과 소비 환경을 나타내는 환경경쟁력에서는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산업규모와 효율을 나타내는 시장경쟁력에서는 5위, 산업자원과 인프라를 나타내는 자원경쟁력에서는 6위를 기록해 열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종합경쟁력은 5위를 보였다.

안후이성은 대부분 지표들이 안정적으로 중위권을 보였다. 자원경쟁력이 3위로 비교우위를 보인 반면, 시장경쟁력 4위, 환경경쟁력 5위로 중하위권을 기록하였다. 전체 종합경쟁력은 4위를 기록하였다.

장시성은 종합경쟁력 6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환경경쟁력만 4위를 기록하였을 뿐, 자원경쟁력 5위, 시장경쟁력 6위를 기록하였다.

제조업에서 강세를 보였던 허난성은 문화산업에서는 중위권을 나타냈다. 시장경쟁력이 3위로 비교적 높았고, 자원경쟁력 4위, 환경경쟁력 6위를 각각 나타냈다.

제조업에서 선두그룹을 형성했던 후베이성은 문화산업에서도 종합경쟁력 2위를 기록하였다. 자원경쟁력에서 1위를 기록하였고, 시장경쟁력과 환경경쟁력 모두 2위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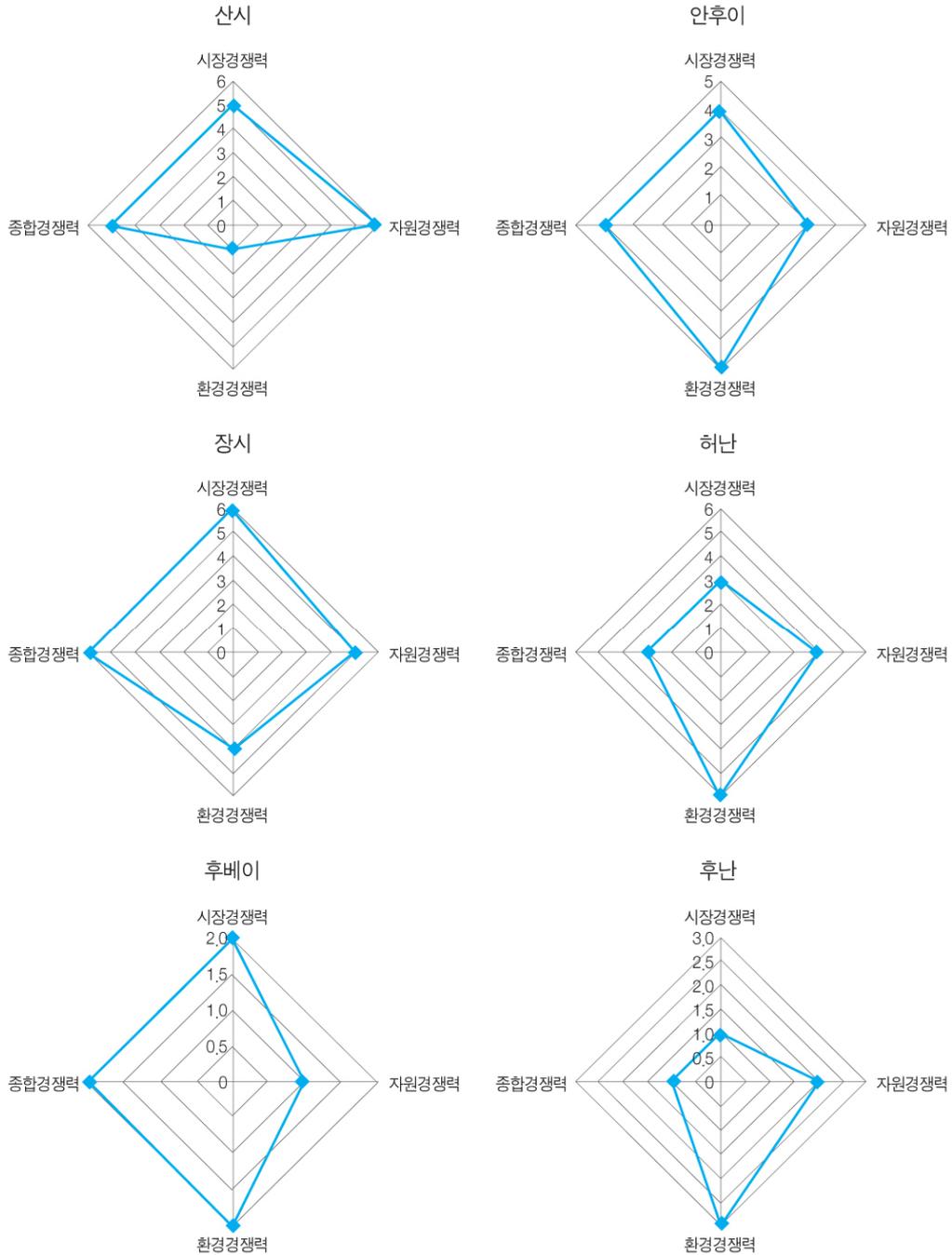
후난성은 제조업에서는 중위권을 나타냈으나 문화산업 경쟁력에서는 1위를 차지하였다. 시장경쟁력이 가장 우세하였고, 자원경쟁력 2위, 환경경쟁력 3위를 기록하였다.

〈보론 표 8〉 중부 6성 문화산업경쟁력 지표체계와 수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산시	안후이	장시	허난	후베이	후난
시장 경쟁력 (주요 경쟁력)	산업 규모	문화산업 부가가치 (억 위안)	378.1	497.2	297.2	796.7	757.9	1012
		신문·잡지·도서 출판수량(만 권)	219,979	151,902	169,431	248,767	256,572	169,752
		GDP 비중	3.37	4.01	2.54	2.94	4.41	5.15
	산업 효과	1인당 문화산업 부가가치 (만 위안)	10.13	9.30	9.64	9.18	9.02	10.71
		문화시장 경영기구 이윤총액(억 위안)	8.37	17.36	17.22	14.13	18.26	26.53
자원 요소 경쟁력 (잠재 경쟁력)	산업 자원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량(권)	0.37	0.23	0.37	0.23	0.42	0.36
		문화산업 경영 기관 수(개)	6,122	11,507	9,311	9,718	11,054	13,841
		문물수장품수량(건, 세트)	782,881	833,904	650,343	1,912,920	1,446,195	889,723
		종사자 수(만 명)	29.0	43.1	27.3	56.9	87.7	100.2
	기초 시설	유선방송 설치율(%)	24.4	26.2	41.2	25.8	42.4	27.7
		인구 만 명당 대중문화 시설 보유면적	221.5	138.1	171.5	127.3	183.8	167.8
		광케이블 선로밀도 (km/100km)	362.1	360.6	245.5	309.7	240.4	204.1
자원 요소 경쟁력 (잠재 경쟁력)	정부 지원	1인당 문화 사업비	31.13	15.31	15.52	13.04	18.77	14.98
		재정지출 대비 문화사업 지출비중	0.40	0.30	0.38	0.28	0.46	0.32
	소비 환경	1인당 문화오락서비스 지출비중(%)	3.29	3.64	4.26	3.44	3.99	4.33
		1인당 가처분소득(위안)	18,123.9	18,606.1	17,494.9	18,194.8	18,373.9	18,844.1

자료 : 「중국 중부경제사회경쟁력보고(2013)」.

<보론 그림 4> 각 성별 문화산업 경쟁력 비교우위 분포도



자료 : 「중국 중부경제사회경쟁력보고(2013)」.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KOTRA(2009), 「중국 주요 시장 프랜차이즈산업 상권 분석 및 진출 방안」.
- KOTRA(2011), 「차이나 마켓 31: 31개 성시 데이터북, 동북부/중부편」.
- KOTRA(2012), 「중국 내륙, 뉴프런티어를 주목한다」, KOCHI자료 12-003.
- 국토연구원·정영록·徐長生 공편(2011), 「중국의 중부지역 발전과 한·중 경제협력」(세미나자료 모음집).
- 김부용·오종혁(2011), 「중국의 희토류산업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천규 외(2012), 「중국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2), 「다국적 유통업체의 중국 중부지역 진출 현황 및 시사점」.
- 리명(李盟)(2011), 「중국 대외무역정책의 전환」, 삼성경제연구소.
- 문상영(2007), 「중국 물류·유통산업 성장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 박진희(2013), 「중국 도시 정보 시리즈: 산시성 타이위안시」, 「중국 권역별·성별 기초자료」, 13-02호, KIEP.
- 쉰자(沈佳)(2011), 「달리 봐야 할 중국의 내륙시장」, LG경제연구원, 2011. 5.
- 이문형(2010), 「중국내수시장에서 한국 주요 제품의 경쟁력 분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문형 외(2008), 「부품소재기업의 대중국 시장진출 다변화 전략 및 신시장 진출 연구」, 산업연구원 용역보고서.
- 이문형 외(2011), 「대중 산업경쟁력 확보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 이문형 외(2012), 「중국 중부지역의 주요 산업별 진출 전략: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업연구원.
- 정상은(2004), 「중국 내수시장 공략의 성공조건」, 삼성경제연구소.
- 정영록 외(2011), 「중국의 중부지역 발전과 한중 경제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철(2010), 「중국의 구조변화 전망과 우리 산업의 중장기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 조환익(2009), 「중국 내수유통경영 실무가이드」, KOTRA.
- 지만수 외(2010), 「2010년 대중국 종합연구 중국의 미래 내수시장 형성전략과 시사점: 중부 지역의 4대 도시군 형성전략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채욱 외(2011),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과 권역별 경제동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2012), 「중국시장 유통망 현황」.

- 홍기화(2005), 「중국 비즈니스 서비스 시장 진출가이드」, KOTRA.
- 홍기화(2008), 「중국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KOTRA.

## 2. 국외문헌

(영문·일문·중문·중국 전체·중부 3성·정부·민간·최신 연도 순)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 大和總研(2011), 中國：第12次5カ年計劃が描く産業地圖.
- 中國政府(2011), “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个五年規劃綱要” .
- 國家發展計劃委員會 編(2010), 「十二五規劃戰略研究(上)」, 人民出版社.
- 國家發展計劃委員會 編(2010), 「十二五規劃戰略研究(下)」, 人民出版社.
- 國務院發展研究中心研究叢書(2010), 「轉變經濟發展方式的戰略重點」, 中國發展出版社.
- 國務院發展研究中心研究叢書(2010), 「中國產業振興與轉型升級」, 中國發展出版社.
- 國務院發展研究中心研究叢書(2010), 「擴大消費需求任務, 機制與政策」, 中國發展出版社.
- 國務院發展研究中心課題組(2010), “十二五發展十二題” .
- 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2010), 「中國企業對外投資現狀及意向調查報告」.
- 中國國家統計局(2000~2013), 「中國統計年鑑」, 各年판.
- 中國發展改革委(2011), “鼓勵進口技術和產品目錄(2009年版)” .
- 中國商務部(2008), “中西部地區外商投資產業優勢產業目錄(2008年修訂)” .
- 中國商務部(2013), “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產業目錄(2013年修訂)” .
- 中國發改委和商務部(2007), “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2007年修訂)” .
- 中國社會科學院(2012), 「中國區域經濟發展報告(2011-2012)」,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2012), 「中國商業發展報告(2011-2012)」,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中國國務院辦公廳(2012), “關於深化電煤市場化改革的指導意見” .
- 中國發展改革委(2012), “關於解除發電用煤臨時干預措施的通知” .
- 山西省統計局, 「山西省統計年鑒」, 各 연도.
- 安徽省統計局, 「安徽省統計年鑒」, 各 연도.
- 江西省統計局, 「江西省統計年鑒」, 各 연도.
- 山西省政府(1991), “山西省鼓勵外商投資辦法” .
- 安徽省人民政府(2010), “關於進一步提高利用外資工作水平的指導意見” .
- 江西省人民政府(2011), “江西省十二五規劃綱要” .
- 山西省人民政府(2012), “山西省十二五規劃綱要” .
- 安徽省人民政府(2012), “安徽省十二五規劃綱要” .

- 山西省發展和改革委員會(2012), “山西省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個五年規劃綱要”。
- 山西省人民政府辦公廳(2012), “山西省人民政府辦公廳關於印發山西省外貿發展十二五規劃的通知”。
- 安徽省商務廳(2012), “安徽省十二五商務發展規劃綱要”。
- 江西省人民政府(2012), “江西省商務發展第十二個五年規劃綱要”。
- 山西省統計局(2013), “山西省2012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 安徽省統計局(2013), “安徽省2012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 江西省統計局(2013), “江西省2012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 山西省人民政府辦公廳(2013), “山西省人民政府辦公廳關於印發山西省冶金工業發展十二五規劃的通知”。
- 山西省人民政府辦公廳(2013), “山西省人民政府辦公廳關於印發山西省現代裝備製造業發展十二五規劃的通知”。
- 山西省人民政府辦公廳(2013), “山西省人民政府辦公廳關於印發山西省利用外資和境外投資十二五規劃的通知”。
- 山西省發改委(2007), 山西省煤炭工業“十一·五”發展規劃。
- 江西省商務廳, “江西外商投資促進規劃”。
- 孝義市人民政府(2011), 「山西省鼓勵外商投資優惠政策」。
- 中國汽車工業企事業單位信息大全(2012), 人民交通出版社。
- 范恒山 等(2010), 「促進中部地區崛起重大戰略問題研究」。
- Ali Research(阿里研究中心)(2011), 「2011網商發展指數報告」。
- 韓康(2010), 「十二·五:中國發展大戰略」, 國家行政學院出版社。
- 王玉奇 等(2010), 「中部藍皮書:中國中部地區發展報告(2011)」。
- 張曉強(2010), 「中國高技術產業發展年鑒」, 北京理工大學出版社。
- 岳會博(2010), 「中國十年變局」, 中國經濟出版社。
- 盛世華研(2010), 「2009-2015年中國鋼鐵板材市場分析與預測研究報告」。
- 李安澤(2009), 「促進中部崛起的財稅政策研究」, 中國財政經濟出版社。
- 李志強 等(2012), 「山西藍皮書」,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南昌大學中國中部經濟社會發展研究中心(2013), 「中國中部經濟社會競爭力報告(2013)」,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趙淑琪(2012), 「山西省流通產業發展研究」。
- 江西省科技創新“六個一”工程領導小組辦公室, 江西省十大戰略性新興產業(文化及創意)發展規劃(2009-2015)。

- 計穎·李其江(2012), 「景德鎮陶瓷文化創意產業發展模式研究」.
- 中國陶瓷工業, 2012年 8月第19 卷第4期.
- 徐慧茗·何昀(2013), “江西文化創意產業發展路徑探析” .
- 蘇文清(2009), 「中國稀土產業經濟分析與政策研究」, 中國財經經濟出版社.
- 吳桂平·肖靈機(2012), 「江西航空製造業的支柱產業地位及其發展新機遇分析」.
- 丁玲(2012), 「景德鎮陶瓷產業現狀的SWOT分析及發展戰略探討」.
- 黃曉萍·陳俊·蔡汝林·邱小忠(2012), “江西省生物醫藥產業發展對策研究” , 江西科學, Vol.30 No.5, Oct.
- 德鎮陶瓷學院, 江西景德鎮333403.
- 南昌航空大學, 江西南昌330063.
- 經濟日報(2011. 11. 22), “山西煤炭產業在整合中實現跨越發展” .
- 經濟日報(2013. 4. 28), “中國煤炭需求量未來將保持適度增長” .

### 3. 웹사이트

- KOTIS, <http://www.kotis.net>
- KOTRA 글로벌 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
- 구글, <http://www.google.co.kr>
- 네이버, <http://www.naver.com>
-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DB, <http://www.koreaexim.go.kr/kr/work/check/oversea/use.jsp>
- 한중무역투자정보망, <http://koreachina.mke.go.kr>
- 百度, <http://www.baidu.com>
- 百度地圖, <http://map.baidu.com>
- 人民網, <http://hn.people.com.cn>
- 각 성 인민정부 사이트
- 각 성 정부 통계청
- 江西省工業經濟聯合會, [www.jxgjl.com](http://www.jxgjl.com)
- 江西省工業和信息化委員會, [www.jxcit.gov.cn](http://www.jxcit.gov.cn)
- 金羊網新快報, <http://www.ycwb.com/xkb>
- 中國鐵道部, <http://www.china-mor.gov.cn>
- 新華網湖北, <http://www.hb.xinhuanet.com>

- 中國廣播網, <http://www.cnr.cn>
- 中國電子商務研究中心, <http://www.100ec.cn>
- <http://www.opsteel.cn/news/2013-03/D74DC1EFB91C9B42E040080A7DC91B1C.html>,
- 江西聯創致光科技有限公司, <http://lcsekwang.cn.globalimporter.net>
- 金羊网—新快報, <http://www.ycwb.com/xkb/2009-02/10/index.htm>
- 中國有色金屬工業協會, <http://www.chinania.org.cn>
- 中國醫藥統計網, <http://www.yytj.org.cn>
- 江西省政府信息公開, <http://xxgk.jiangxi.gov.cn>
- 中國國家發展和計劃委員會高技產業司
- <http://giss.ndrc.gov.cn/tjsj/tjsjqy/hkhtqzzysj>
- 中國行業研究網, <http://www.chinairn.com>
- 火車票網, [www.huoche.piao.com](http://www.huoche.piao.com)
- <http://baike.baidu.com/view/895266.htm>
- <http://www.latticepower.com/>
- <http://lcsekwang.cn.globalimporter.net>
- <http://www.ccitimes.com>
- [http://www.jx.xinhuanet.com/news/fmbd/2013-09/04/c\\_117216621.htm](http://www.jx.xinhuanet.com/news/fmbd/2013-09/04/c_117216621.htm)
- [http://www.qianjia.com/html/2012-12/05\\_172648.html](http://www.qianjia.com/html/2012-12/05_172648.html)
- WU Gui—ping, XIAO Ling—ji(2010), Analysis of the Position of Jiangxi Aviation Industry as a Pillar Industry and New Development Opportunities, (Nanchang Hangkong University, Nanchang, Jiangxi.
- <http://www.dtmv.com.cn/portal/index.htm>
- <http://www.gyne.com.cn>
- <http://www.tisco.com.cn>
- <http://www.zhongtiaoshan.com.cn>
- <http://www.jinlvw.com>
- <http://taiyuanzhongxingjixie.cn.gongchang.com>
- <http://www.jxgc.com>

---

# Abstract

## Strategies for Expanding into Major Industries in Central China

Moon-Hyung Lee *et al.* (mhlee@kiet.re.kr)

As China seeks to shift the emphasis of its development model from exports to domestic demand, it has been investing more in the country's central and western interior regions in order to increase domestic demand. Consequently, Korea will also have to adjust its strategy for entering the Chinese market, expanding from its current focus on the eastern coast to the central and western interior regions. Focusing on three of China's central provinces — Shanxi, Anhui and Jiangxi — this paper is geared towards helping Korean companies devise strategies for entering the domestic market in central China as well as the Korean government to formulate methods for expansion into the world's largest market. A systematic summary will cover the following: economic reality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nsumers and markets in the three central provinces, the provinces' traffic and logistics conditions, leading industries and main corporations,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including policy for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the level of market access achieved by Korean and foreign companies, difficulties in entering the market, products likely to achieve success, and recommended policy directions. In addition, the study compares the competitiveness of the six central provinces by synthesizing and summarizing research conducted over the past

two years. This data is provided as reference for selecting the regions and companies for expansion.

Shanxi, Anhui and Jiangxi are interior provinces in China and have low populations and small economies. As a result, they are not very open, and income levels are low. They have, however, been experiencing rapid growth recently because of Beijing's "Rise of Central China Plan," and are emerging as a new growth market for Korean companies. Traditionally, this region has relied on heavy chemicals and light manufacturing, and the tertiary industry is not very developed. However, the governments of the three provinces have been actively developing new growth industries such as motor vehicles, IT, alternative energy and biotechnology, fueling expectations that the region's industrial structure will gradually advance. The scale of the consumer markets in the three provinces is also limited, but if an economic growth pattern centered on domestic demand and driven by consumers takes hold, such markets are likely to develop rapidly.

Numerous tasks await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in order to effectively increase Korean market presence in these three central provinces. First, the Korean government and Chinese provincial authorities need to create an official channel for joint cooperation among industry, government and academia. They should also provide companies with a vision by identifying strategic cooperative industries in which all participants involved can enjoy a win-win relationship. For their part, companies must assess the 12th five-year plan and strategic policies for fostering emerging industries in these regions, determine the areas best suited for them, and prepare strategies for entering that market.

**Keywords** : Chinese provinces of Shanxi, Anhui, and Jiangxi, Chinese industrial policy, overseas trade and investment, expansion strategies for Korean companies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3-46-01 (1)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670 (1)

**중국 중부지역의 주요 산업별 진출 전략** - 山西省, 安徽省, 江西省 편 -

[제1권 : 총괄보고서]

인쇄일 2013년 12월 24일

발행일 2013년 12월 27일

발행인 김도훈

발행처 산업연구원

등 록 1983년 7월 7일 제6-0001호

주 소 130-74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66

전 화 02-3299-3114

팩 스 02-963-8540

문 의 자료·편집팀 02-3299-3151

인쇄처 (주)유성사

값 11,000원

ISBN 978-89-5992-637-4 94320

ISBN 978-89-5992-636-7 (전2권)

내용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역제를 금합니다.